



목제품의 종합공급업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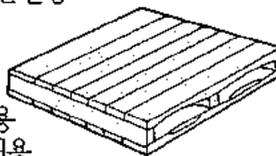
튼튼한 합板

- 콘크리트 거푸집용
- 조립식 거푸집용 (TEGO 합板)
- 차량용
- 선박용
- 방부처리 합판
- 기타 특수 합판



이건 목재 파렛트

- 기계, 장비운반용
- 선적용
- 음료, 식품 수송용
- 창고 보관용
- 수출포장대용
- 산업용



원목·제재목

라왕, 아피통, 카폴, 미송, 타운, 칼로필름, 젤루통, 나토, 아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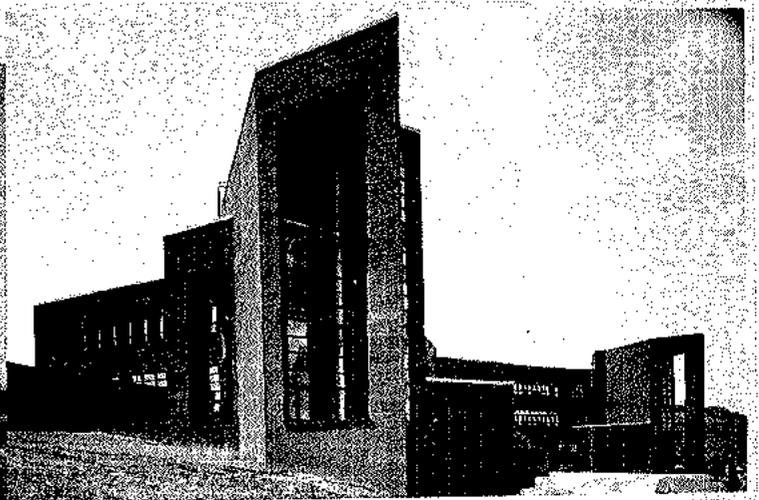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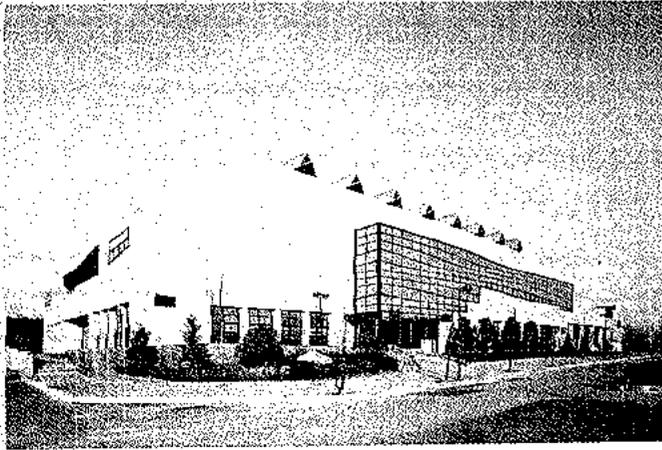
※ 고급특수목

월넛, 오크, 비취, 스프루스, 메플, 알더, 티크, 부빙가, 아가티스, 다오, 외 다종.



利建産業株式會社

본 사 : 인천직할시 남구 도화동 825 / 전 화 : 762-7151~60
 영업부 : 서울 765-2825, 2725 / 서울사무소 : 서울 757-2541~5
 TELEX : EAGON K28564 / FAX.No : 762-3555



'87 建築士 設計作品展示會 出品作 公募



본협회에서 회원의 건축설계 기술향상을 도모하고 일반인의 건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건설부 후원 아래 매년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는 '87년도 전시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로 본전시회가 우리나라 건축문화를 선도하고 조형창작예술인의 긍지를 높이는 전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전회원으로부터 수준높은 작품의 응모를 기대합니다.

■ 출품요령

1984년부터 1987년 7월말을 기준으로 하여 준공된 작품중 본협회가 주최한 전시회에 출품하지 아니한 작품.

■ 패널제작 방법

1. 패널크기 / 90cm X 90cm (가로 X 세로)
2. 제작요령 / • 패널에 게첨된 내용이 순회 운송중 파손되지 않도록 부착할 것 (유리, 스티로폼 등 충격에 약한 재료 사용 금함).

• 벽면에 간편하게 걸 수 있도록 패널후면에 견고한 고리를 부착할 것.

• 가벼운 목재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제작할 것.

3. 패널수량 / 1작품당 3개 이내

4. 공통사항

우측 상단에 출품자 사진 (명함판) 을 부착하고 건축사 사무소명을 기재할 것 (단, 작품명, 사무소명, 출품자명은 한글과 영문으로 표기).

■ 출품마감

1. 종합작품집 제작에 필요한 자료

패널에 게첨된 내용과 동일한 별도의 흑백사진 · 설계개요 인물사진을 8월30일까지 제출 (작품명, 사무소명 · 출품자명은 한글과 영문으로 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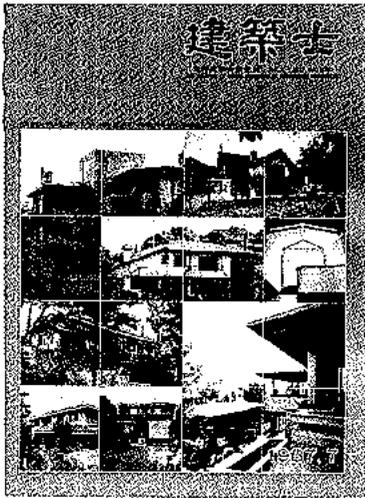
2. 패널은 9월20일까지 제출

■ 시상내용

- 내 상 (1) 건설부장관상
최우수상 (1) 협회장상
우수상 (2) 협회장상
장려상 (6) 협회장상

■ 기타 유의사항

1. 전시회에 출품한 작품만이 시상대상이 됨,
2. 제출처 및 문의처 / 본협회 출판사업부, (581-5711~4)



건축사

차 례

1987년 7월호 (220호)

발행인 안기태

원찬위원회

위원장 안장원 위 원 강태석
 부위원장 김 린 위 원 변 용
 위 원 김기석
 위 원 박영호
 위 원 김정동

편집 출판사업부

발행=대한건축사협회

서울특별시강남구서초동1603-55

우편번호 135

전화: 서울(02)교 581-5711(대)
 5712, 5713, 5714

등록번호 제라-1251

등록일자 1967년 3월23일

U. D. C. 69 / 72 (054-2) : 0612 (519)

인쇄: 광문정판사

인쇄인: 전윤규

Publisher: An, Kie-Tae

Editorial Committee

Chairman: Ahn Chang Won

Vice Chairman: Kim Lin

Member: Kang, Tae-Suck

Byun, Yong

Kim, Ki-Seok

Park, Young-Ho

Kim, Chung-Dong

Editor: Editorial Committee

Assistant Editor: Editorial Department

Editorial Office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1603-55 Seocho-dong, Kangnam-gu, Seoul Korea

☎ Seoul 581-5711 ~ 5714

Zip Code: 135

Registered Number: Ra-1251

Registered Date: March 1967

J. D. C.: 69/72(054-2): 0612(519)

Print: Kwangmoon Printing Co.

Printer: Jeon Yun Kyu

본지는 한국도서잡지윤리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論壇	
3	建築士の自律性.....	金熙春
	會員作品	
11	공주 Y씨주택.....	朴慶浩
14	삼성동 P씨택.....	鄭求殷
16	삼전동 K씨주택.....	金武彦
18	3세대를 위한 논현동 J씨택.....	金仁喆
20	평장동 S씨주택.....	宋二浩+安基錫
22	서초동 Y씨주택.....	金洛中+閔庚魯
24	고양군 K씨주택.....	姜孝錫
	일하며 생각하며	
26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것들.....	趙成龍
	哲學的 叢策 / 建築은 무엇인가	
28	"建築 너 뭣고" (1).....	崔昌奎
	企劃連載 ③	
32	韓國近代建築의 再照明(3).....	金品東
	批評	
42	하우징과 흙잉.....	金炳潤
	奇稿	
48	建築工事의 監理에 수반되는 紛爭의 調停制運營 実態.....	李在平
	時評	
53	한·불 문화시설 건축세미나 및 전시회	
	研究報告	
66	한국의 전통건축(I).....	張慶浩
72	중국 전통건축의 이해(I).....	朴舒弘
82	大都市管理(I).....	盧椿熙
88	新入會員	
89	協會消息	

서울특별시지부/서울특별시강남구서초동 1603-55/
581-5715-8
서부분소/서대문구연희동 169-16/333-1873
남부분소/관악구신림동 1422-17/882-6744
북부분소/도봉구수유동 191-13/903-3425
강동분소/강동구성내동 17-4/484-6387
강서분소/강서구화곡동 1105-5/604-7168
동대문분소/동대문구신철동 101-7/923-6213
성동분소/성동구구의동 252-16/446-5244
영등포분소/영등포구당산3가 1/634-2143
부산직할시지부/부산직할시중구동광동 1711 (부산대파크내)
(051) 23-3584~5
대구직할시지부/대구직할시수성구범어동 3711-8/
(053) 72-5141~2
광주직할시지부/광주직할시동구대인동 323-11/(062) 521-7598
인천직할시지부/인천직할시남구간석1동 558-1/
(032) 424-0146, 5100
(한국종합빌딩 204호)
경기도지부/경기도수원시매곡로 3가 124-5/(0331) 42-6490
7072
안양분소/안양시안양동 719-9/(0343) 2-2668, 2-0012
부천분소/부천시원미동 74-6/(032) 63-3144
성남분소/성남시신흥동 5512/(0342) 2-5445
외정부분소/외정부시외정부동 182/(0351) 2-1083
송탄분소/송탄시신장동 21/(0333) 4-6153
고양분소/고양시원당읍주교리 36보리 16롯데/(0344)63-8902
구리분소/구리시수택동 409-2/(0346) 63-8112
이천분소/이천시이천읍중리 216-8/(0336) 2-3396
광명분소/광명시철산동 464-7/682-2875
강원도지부/강원도춘천시옥천동 39-5/(0361) 2-2442
원주분소/원주시열산동 206/(0371) 42-3257
강릉분소/강릉시성내동 6/(0391) 2-2262
속초분소/속초시중앙동 468-66/(0392) 2-5081
삼척분소/삼척시남양동 55-43/(0397) 2-3106
영월분소/영월군영월읍영흥1리 959-35/(03732) 2659
충청북도지부/충청북도청주시북문로 2가 116-168/
(0431) 2-2752
충주분소/충주시역전동 673-1/(0441) 2-3082
재천분소/재천시외림동 8-8/(0443) 2-6253
옥천분소/옥천보은읍삼선리 139-4/(0433) 2461
충청남도지부/충청남도대전시중구대흥동 487-1/(042)
22-4088
천안분소/천안시문화동 160-14/(0417) 2-4551
홍성분소/홍성군홍성읍오관리 239-1/(0451) 2-2853
부여분소/부여군부여읍동리 710-2/(0463) 2-2217
전라북도지부/전라북도전주시서노송동 635-5 (대륙빌딩 508)
(0652) 3-3881
여리분소/여리시남중동 1777-22/(0653) 52-3304
군산분소/군산시중앙로 1가 85/(0654) 2-4050
남원분소/남원시하정동 105-2/(0671) 2-6002
전라남도지부/전라남도서구화정동 783-23 (추선회관)
(062) 364-7587
목포분소/목포시호남동 1/(0631) 2-7280
순천분소/순천시장전동 51-3/(0661) 2-7892
여수분소/여수시관문동 435/(0662) 64-1144
경상북도지부/대구직할시중구동인동 1가 285번지/
(053) 45-4904
포항분소/포항시죽도동 96-70/(0562) 74-9713
경주분소/경주시노동동 9-1/(0561) 2-2680
구미분소/구미시원평동 356-2/(0546) 52-7903
안동분소/안동시삼산동 125-19/(0571) 2-3641
김천분소/김천시남산동 23-10/(0547) 2-2263
영주분소/영주시영주 4 동 470-17/(0572) 2-4566
문경분소/문경시정촌동 26-1-2/(0581) 2-2706
경상남도지부/경상남도마산시중앙동 2가 11-16/
(0551) 2-4530-1
울산분소/울산시남구신정동 585-6/(0522) 74-8836
74-2555
전주분소/전주시본성동 7-20/(0591) 2-6403, 42-3434-5
충무분소/충무시서로동 177-101/(0557) 2-2504, 2-7420
김해분소/김해시부원동 25B-17L/(0594) 2-3155
밀양분소/밀양군 밀양읍 내일동 67-1/(0527) 53-2110
거창분소/거창군거창읍하동 483-9/(0598) 2-3777
양산분소/양산군양산읍다방리 500-3/(0523) 4-2669
거제분소/거제군신현읍고현리 139-2/(0558) 32-1086,
2-3372
제주도지부/제주도 제주시 2도 1동 1289-6/(064) 22-3248
52-3248
서귀포분소/서귀포시 서귀동 425-1/(0642) 62-3920, 3322

CONTENTS

July 1987, Vol 220

FOCUS

The Architect's Autonomous Right Kim, Hi-Choon 3

WORKS

Y's Residence(Kongjoo) Park, Kyung-Ho 11
Samsung-dong P's Residence Jeong, Koo-Eun 14
Samjeon-dong K's Residence Kim, Moo-Eon 16
J's Residence for 3Generation(Nonhyun-dong) Kim, In-Chul 18
S's Residence(Pyungchang-dong) Song, Yee-Ho & An, Kie-Suk 20
Seocho-dong Y's Residence Kim, Nak-Joong & Min, Kyung-Re 22
Koyang-Kun K's Residence Kang, Hyo-Seok 24

OCCASIONAL THOUGHTS

Forgotten Things Cho, Sung-Ryong 26

ESSAY

Want to Know What is Architecture Choi, Chang-Kyu 28

CRITICISM

Housing and Homing Kim, Byung-Yoon 42

FEATURE

Arbitration in building Construction Work Lee, Jea-Ok 48

SPECIAL ISSUE

Architecture Semina & Exhibition/Cultural Services of Korea & France 53

REPORT

A Study on the Modern Architecture of Seoul Kim, Chung-Dong 32
Architecture History of Korea Chang, Kyung-Ho 66
A Study on the Traditional Architecture of China Park, Suh-Hong 72
The Management of Urban Ro, Choon-Hee 82

NEWLY ADMITTED MEMBER

88

KIRA NEWS 89

協會 當面主要業務 推進現況

— '87上半期主要業務 包含 —

「再跳躍」의 해로 다짐한 1987년도 이미 절반을 보내고 이제 남은 6개월을 앞두고 있는 즈음이다.

이러한 時点에서 그동안 協會가 遂行해온 제반업무에 대한 점검을 통해 下半期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뜻에서 주요업무에 대한 진행사항과 결과를 요약했다.

협회에서는 금년도 사업계획의 일환으로 분야별로 계획을 수립하고 동시에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중점사항을 크게 대내적인 것과 대외적인 것으로 구분해서 실행에 옮기고 있다.

우선 회원의 지위와 실익에 직결되는 현안에 대한 연구 및 대책마련에 중점을 둔 업무에 주력하고 있다.

아울러 회원의 구심체로서 협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기능과 능력제고에 비중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 왔으며 앞으로도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것이다.

특히 時宜에 따른 협회 및 회원 업무의 능동적 대처로 자율성을 높이고 나아가 건축문화의 자생적 기반구축에 역점을 두고 모든 업무를 추진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개방과 자유를 갖는 만큼 의무와 책임이 뒤따른다는 점을 감안해서 회원의 적극적인 협조아래 협회 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1987. 7. .

大韓建築士協會 會長 安 箕 泰

1. 經濟企劃院 公正去來委員會 繫留事案 終決

□배경

지난 85년 9월 내무부 당국의 발의로 제기된 본회 윤리규약 제5조 및 제9조의 공정거래 위반 여부로 당국에 의해 동규약을 폐지(삭제)하도록 시정명령 받음.

□추진사항

본사안은 협회창립 이래 가장 큰 시련으로 생각되나 기획원측에서는 입찰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 아닌것이나 공정거래법에 정면도전하는 내용의 문안을 삭제토록 한것으로 우리의 입장에서는 건축설계의 창작성내지 예술성 자체가 단순히 행정적 또는 편의주의적 발상에 의해 무시되는 건박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음을 직시하고 협회의 명운을 걸고 적극 대처하였다.

그동안 협회는 당국의 견해에 대한 부당성 및 해외 각국의 실제 자료를 준비하고 유관기관의 유권해석, 관계기관과의 수습차례 회의, 3단체 공동건의문 제출 그리고 이의신청을 제출하고 20여개월간의 끈질긴 노력끝에 지난4월 본회의 주장을 관철시켰다.

□결과

이 사안의 종결로서 지금까지 시행돼 왔던 건축사 업무가 윤리규약의 일부어구 수정으로 종전과 같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총회에서 개정된 내용문안은 다음과 같음.

윤리규약 제5조.

건축사는 위촉자에게 사전에 보수액 제정의 원칙과 실제위촉에 따르는 제조건 또는 규약등을 계몽숙지 시켜야 한다.

동제9조.

건축사는 건축사업무 및 보수와 관련하여 텀핑등 부당한 방법으로 경쟁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참고

본협회의 이러한 참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건설최보 일부기사로 서 건축설계 입찰운운한 내용을 본회는 오인된 기사로, 정정 토록 강력 요청한바도 있으며 일부회원이 잘못인식 됨이 있는 가 하여 입찰과는 전혀 관계가 없음을 침언함.

2. “韓國의 建築” 冊字發刊計劃

□배경

전선부당국의 협조로 우리나라 건축문화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종합건축 작품집을 발간할 계획이다. 한국건축문화의 위상정립과 사대사의 제조명은 물론 국제화시 대의 우리나라 건축문화를 대내외에 홍보함과 아울러 현대건축 물의 질적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발간작업에 착수했다.

□추진사항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기본계획을 수립, 건설부장관에게 보고 함과 아울러 관계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최종안을 마련했다. 특히 정부수립후 건축문화를 포괄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인 만큼 우리나라 건축문화 실록으로서의 구실과 촉보역할을 할 수 있는 책자로 만들어 줄 것을 건설부장관으로부터 독려받고 그 준 비작업에 세심한 배려를 하고있다. 이 책자 발간은 향후 10년 이내에는 다시 발간하기 어려운 작업 으로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

□결과

이 책자에는 전통건축·근대건축·현대건축등 4백여 작품과 시 대별 개관및 작품설명이 한·영문으로 게재되며 오는 11월말에 원색인쇄로 1만여부를 발행할 예정이다.

3. 財産稅等 換拂請求訴訟 勝訴

□배경

본회가 건축사업에 의거 설립된 비영리법인 임에도 불구하고 세법상의 불합리로 인해 이를 인정받지 못함에 따라 재산세 등 을 부과 하는등 부당하게 권리를 침해 받아왔다.

□추진사항

본협회는 이의 불합리점을 지적하고 비영리공익법인으로서의 권리회복을 위하여 지난 85년도 당해년도분 재산세등 부과처분 에 대하여 본협회가 비영리공익법인임을 주장, 행정당국에 환 불을 요구하였으나 기각당하게 됨에따라 86년 1월 24일 본협회 관할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 였으며 그해 10월 29일 승소판결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강남구청장은 본협회가 비영리법인일뿐 공익성이 없 다 는 이유로 재산세등을 부과함이 타당하다고 주장. '87년 1월 8 일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5개월만인 지난 6월 8일 기각 판결 함으로써 본협회의 승소가 확정되게 되었다.

□결과

이 사안의 종결로 그동안 본협회가 납부한 재산세등과 그에대 한 이자를 합해 17,837,110원을 환불받게 되었으며 매년 7,800, 000원의 면세혜택을 받게 되었음은 물론 공익성이 큰 법인임이 널리 인정되었다.

4. 아시아 建築士協議會 第3次 서울大會

□배경

본회 주최로 오는 88년11월 1일부터 5일까지 개최하기로 된 제9 회 아시아건축사협의회이사회 및 제3차 아시아건축사대회는 지 난 86년 10월 말레이시아에서 열렸던 7회대회에서 결정된 사항 이다.

□추진사항

이에 대회를 성공리에 개최하기 위해 준비중이며 그 일환으로 대회준비조직원위원회 구성을 추진하는 한편 회의주제와 진행프 로그램을 도대로한 기본계획을 수립, 건설부와의 협의(6.29일) 를 거쳤다. 아울러 기 개최국인 말레이시아 및 홍콩을 방문, 아시아건축사 협의회 회장 및 고문과의 예비협의(7.21~30일)를 가질 예정이 다.

□세부계획

업무내용	세 부 사 항
기본계획서 작성	1. 대회예산 산출 2. 회의개최 일일진행계획(안) 작성 3. 대회준비위원회 구성추진 4. 회의주제 및 토론의뢰(안) 작성 5. 집행사무국 구성추진
관계기관협의	1. 기본계획(안)국무총리실 및 건설부 보고 -87. 6. 29 2. 기본계획(안)ARCASIA본부송부 3. ARCASIA 본부방문 협의예정 -87. 7. 21~7. 30. 4. 건축 3 단체협의(조찬회) -87. 5. 29
관련업체협의	1. 회의장선정(호텔)을 위한 호텔업자 와의 협의 및 자료수집립 2. 국제행사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업 자와의 협의 및 자료수립 3. 행사지원업체 선정을 위한 자료준비
기 타	1. 집행사무국요원 임용 -87. 6. 10. 2. 텔렉스 임대설치 -87. 7. 10 3. 행사홍보용 소책자(Brochure) 발행준비

5. 建設技術管理法 制定·綜合工事監理業務 改善策推進 (建設工事合理化對策)

□배경

위 업무는 독립기념관화계사건을 계기로 부각된 것으로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을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경제기획원 차관을 위원장으로 한 건설공사 부실방지대책위원회를 구성했으며 본회에서도 실무작업에 임하게 되었다.

□추진사항

그동안 대책위원회(86.9.8)를 개최한데 이어 이에 따른 추진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86.9.9)했다.

이어 실무작업반회의(86.9.15)와 간담회 등을 가졌으며 금년에 들어서 경제장관협의회(87.1.24)와 당정협의회(1.28)를 거쳤다.

이 과정에서 공사감리업무에 관한 개선안을 본회에서 연구협의 해왔으며 또 부실요인 가운데 설계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주하거나 충분한 준비없이 시행되는 까닭에 부실공사가 야기된다고 보고 이의 시정이 제도적으로 뒷받침 되어야한다고 지적되었다. 따라서 본회와 관련된 공사감리업무에 있어서 공사감리비의 파소편성으로 충실한 감리가 되지 않고 있음을 제기, 이에 대한 현실화가 있어야 함을 제기했다.

□결과

본회는 이를 위해 10여회에 걸친 협의 및 간담회(3회)를 개최하고 분야별로 용역을 쥘서 지난 6.29일 관계부처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그 내용은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책임 한계와 건축사업무보수 기준 개정안 등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건축사 업무와 직결되는 것으로 하반기에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등 대책을 강구중이다.

6. 技術用役育成法改正案

□배경

86년 10월부터 동 법률개정을 위해 기술용역육성법 중 제2조 정의에서 특수공장의 운전에 필요한 사항을 "운영"으로 개정하고 한 것이다.

이는 특수공장과 관련한 모든 건축물은 고용된 건축사로 하여금 설계·공사감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였다.

□추진사항

그러나 이는 건축사법 근본취지와 어긋나는 것임을 지적하고 특히 관련법규의 이원화가 초래됨에 따라 본회는 이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했다. 따라서 현행 건축사법 제25조 2항에 의한 법내용 이외는 배제토록 건의했다.

□결과

그 결과 현행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관계부처와 협회, 국무회의에 상정중에 있으며 원만히 해결될 전망이다.

7. 建設엔지니어링分野 서어비스交易自由化 檢討

□배경

협상 대상국들이 앞으로 협상시 특정프로젝트의 제안, 기획, 조사, 설계감리 분야등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만 협상 대상으로 거론될 가능성이 높으며 따라서 위와같은 예상이 맞을 경우 국내 시공분야 보다는 건설엔지니어링 또는 건설팀 분야를 협상 대상으로 집중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우리 국내업계의 현실정도로 협상에 앞서 건설엔지니어링의 개념 정립이 필요 하였다.

□추진사항

건설부에서는 우루과이 라운드의 정식출범으로 오는 1990年代를 대비해서 서어비스 교역 자유화 논의가 본격화됨에 따라 개방 압력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건설 및 엔지니어링 분야에 대한 판민 합동 실무작업에 본협회에서도 참여 추진중이다.

8. 建築關係法令 改正에 따른 建議(案) 作成

□배경

법제처에서의 국민생활의 편익을 위하여 국민생활에 직결되는 경제사회등 분야별 법령의 개선사항을 적극 발굴 수집하여 이를 법령 개선자료로 활용하기 위함.

□추진사항

'87.6.22 각시도 지부에서의 그동안의 관련 행정법규 전반에 걸쳐 상호 모순점 및 기타 현실적으로 맞지 아니하거나 불합리한 사항과 각시도 나름대로의 행정지침등에 관한 의견을 취합해서 '87.7월말까지 제시할 예정이며 이를 종합해서 개선토록 추진할 방침이다.

9. 協會 및 會員業務의 自律性 提高

□배경

時宜에 따른 협회 및 회원업무와 연관된 제반업무에 있어서 비능률적 내지 비생산적인 요인을 적극 배제토록 해서 자율성을 높이고자 함.

□추진사항

부문별로 총체적인 평가를 통해 기능의 원활화 및 강화를 도모하고 전체적으로 대중의 이익에 위배되는 요소를 제거토록 할 것이며, 의타적 또는 피동적인 업무수행을 지양해 나갈 계획이다.

□결과

민주화시대에 따른 자율과 책임의식을 고취해서 건축문화 발전에 기여한다.

10. 建築士年金事業施行

□배경

본협회 회원에 대한 복리증진사업의 일환으로 복지후생연구위원회에서 수년전부터 연구 검토되어온 사안으로 86년도 10월 정기총회에서 건축사연금사업시행 방침이 결정됨에 따라 '87년도 1월부터 연금회비 수납과 함께, 연금운영위원회, 연금운영소위원회, 연금관리공동위원회 등이 수차의 회합을 통하여 협의결정한 사항들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제반 준비작업에 착수하게 되었다.

□추진사항

연금운영위원회 활동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연금운영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연금회비납부관련 정관개정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세부준비사항을 담당하여 추진토록 하였으며, 연금관리공동위원회등에 연금관리방법을 연구토록 한바 자체관리 보다는 보험사에 위탁관리토록함이 기금관리, 연금지급 등에서 유리하다고 판단, 제1금융권이나 보험회사에서 위탁관리하는 방안을 비교 검토 중에 있다.

□결과

본협회 회원의 폐업, 사망시 퇴직연금을 지급하고, 사망회원에 대해서는 사망위로금을, 연로회원에 대하여는 복지연금을 지급함으로써 회원의 노후및 유고시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총회결의사항대로 추진되었으며 연금운영위원회는 본부임원(회장단·이사·감사)및 14개 시도지부장이다.

11. 建築士 業務 및 報酬基準 改定(案) 作成

□배경

건축행정 업무의 건실한 발전과 건축물의 질적향상 및 건설공사의 무실 요인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하여 현행 건축사 업무 및 보수기준을 개정 보완하여 설계및공사감리 업무의 제도 개선으로 건축사 업무와 보수기준의 합리화를 위함.

□추진사항

본협회에서는 건축위원회 설계감리분과위원회로 하여금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책임한계, 감리방법등에 관한 제반 사항을 연구 검토하여 현행 건축사 업무및 보수기준개정(안)을 작성 추진하기 위하여 1차적인 방안으로 감리방법 등에 관한 연구내용을 검토하여 '87년 6월 29일 건설부에 제출한바 있으며 관계부처와의 협의등도 보수기준의 개정(안)작성 연구에 관해서 계속 추진중에 있다.

12. 建築士 試驗制度改善을 위한 研究

□배경

1963. 12. 16. 법률제1536호에 의한 건축사로 구분하여 1977. 12.

31. 까지 시행하다 건축사는 조형예술 창작인으로서 구분함이 모순되어 건축사의 일원화를 기하였으나 대통령령은 모법의 취지에 모순되게 시행되고 있어 이에따른 모순을 개선하기 위함.

□추진사항

'87년에 특별전형 대책 위원회가 설치되어 건축사 시험제도 개선에 대한 연구를 추진중에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987.5/건축사 특별전형 시험제도 개선안 초안작성
- (건축사법상의 경위, 2급 건축사 현황, 개선 이유 및 당위성, 개선 방안.)
- 1987.5.29/위원회에서 검토 보완·(3차에 걸쳐 검토·보완)
- 1987.6.22/지부장 회의에서 협의
- 1987.6.23/이사회에서 검토

13. 1988年度 獨立豫算制度 實施에 따른 對備

□배경

정부의 지방자치제도 실시 예측에 따라 본 협회도 연합회 제도로의 개편이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연합회 제도로 전환 이전에 과도기적인 제도로써 지부별 사업의 활성화와 업무추진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부별 수지예산을 자율 편성 운영하는 독립예산 제도를 88년도 부터 시행토록 87.3임시총회에서 최종결의 되었음.

□추진사항

동 계획 및 방안에 대하여 제도위원회 산하 연합회 연구위원회에서 2년여 전부터 연구하여 왔으며 연합회 제도 시행이전의 과도기적 제도로 독립예산 제도 시행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는 동 위원회 연구 결과와 86.10 정기총회 의결에 따라 87.3 임시총회에서 정관 개정이 승인되어 88년도 부터 독립예산 제도가 시행되게 되었음.

□결과

현재 독립예산 제도 시행에 따른 세부 사항을 추진키 위하여 독립예산 편성 지침(안)작성 및 관계 제구정을 개정 작업중에 있으며 관계 협의를 거쳐 87.8월중으로 동 지침을 각지부로 시달하여 88년도 지부별 독립예산을 편성토록 할 예정이다.

14. 建築士業務中 調査·檢査代行業務改善研究

□배경

건축사법 제23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사에게 대행토록 한 조사및 감사업무는 본협회에서 제정한 공사감리업무운영지침이 정하는바에 따라 각 지부별 실정에 맞도록 그 시행세칙을 정하여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추진사항

건축 행정업무의 건실한 발전과 건축물의 질적향상을 도모키위

하여 현재 본협회에서의 공사감리 업무운영지침을 제정하여 각 지부에서 이에따라 시행세칙을 마련운영중에 있으나 감리로 인한 일부 행정관청에서의 과다한 행정조치로 회원들의 불이익을 초래케 하고 있어 이의 개선을 위해 관계부서와의 지속적인 협의 및 동업무개선 연구를 추진중에 있다

15. 建物 維持管理 運營細部事項 研究提示

□배경

건축법 제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건축물의 대지·구조·건축설비·형태및 용도를 항상 건축법 및 건축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 기타요건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토록 되어있으나 현재는 이에 대한 관리의 기준 및 시행방법등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건축물의 유지관리가 소홀히 시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 추진사항

현재 건축법에는 건축물의 유지관리를 제도화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실정이므로 구체적인 유지 관리 방안을 연구코자 한다.

16. 建築士 所得 標準率 引下 推進

□배경

본 협회는 현행 건축사 소득표준율 27%가 유사업종의 소득표준율을 보다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다고 판단되어 건축사 업무의 현실성과 유사업종의 실태를 비교 검토 분석하여 건축사 소득표준율 인하를 국세청에 건의하게 되었다.

□ 추진사항

제도위원회 산하 세무연구 위원회로 하여금 건축사 소득표준율 인하에 대한 방안을 연구토록한 반면에,

- ① 건축사 업무의 세무자료 100% 양성화
- ② 건축사 업무량 감소 및 사무소 운영난 불황
- ③ 타 기술용역과의 소득표준율 불균형 등을 이유로 하여 수차례 국세청에 건의 하였다.

□결과

무기장 사업자의 소득 금액을 추계하기 위하여 결정하는 소득표준율은 매년 당해년도의 경기 상황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결정하는 것으로서 사전에 학계, 경제단체 및 연구기관의 전문가로 구성된 소득표준율 심의회의 면밀한 심의를 거쳐 확정되는 것으로서 본 협회 건의에 대하여 앞으로 국세청의 업무에 참고하겠다는 회신을 받은바 있으며 제도위원회에서 동 사항을 계속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17. 建築士誌 發刊 改善

□배경

회지기능 활성화의 일환으로 편집형태를 보는 회지로 변모키로 하고 아울러, 내용의 혁신과 더불어 소요배부처의 증가로 인한 발간 부수를 늘이기로 하는등 제반문제를 검토했다.

□ 추진사항

이에 회원작품난을 절려화보를 증면하였고 건축풍토의 발전을 위해 건축비평난을 신설하여 4회에 걸쳐 추진하였으며 그동안 발표되지 않았던 우리나라의 근대건축을 제조명하고자 한국의 근대건축을 기획 연계하고 있다. 또한 회원의 증가와 각 기관의 발송요청의 증가로 인한 부족분을 더 제작하여 발송하고 있다.

□결과

회지의 역할가운데 하나인 홍보기능의 진작과 아울러 회원간의 유대 효과를 높일 수 있으며 협회업무전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었다.

이와 연관해서 협회의 기능이 커지고 회원의 업무가 정보 자료의 축적에 의해서만이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음을 감안, 보다 신속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매체의 필요성에 따라 주간지를 창간 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

18. '86年度 作品展 完了, 제2회 新人·學生 및 제13회 會員建築設計作品 公募中

□배경

연례행사인 회원작품전이 금년에는 신인 및 학생작품전과 병행해서 일렸다. 또한 제13회 회원작품전을 준비중에 있다.

□ 추진사항

오는 10.23일에 개최예정인 금년도 회원작품전은 일반에 대한 폭넓은 홍보를 위해 전시장소를 지하철 경복궁역으로 정하고 회원의 많은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또 두번째 맞이하는 신인·학생공모전은 오는 7.31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으며 당초의 취지대로 명실상부한 등용문으로서의 권위를 보다 높히도록 배려중이다.

19. 協會30年史를 위한 資料蒐集 保管

□배경

기 발행된 건축사협회 20년사 발간업무 진행시 각 시·도지부의 자료협조에 다소 무리가 있어 향후 30년사 또는 50년 100년사 발간에 대처키 위해 미리 지부의 자료를 수집·보관하고자 함.

□ 추진사항

2월초 지부에 자료수집 요청을 하여 3월 말까지 각 시·도지부의 적극적인 협조아래 '85~'86년도 지부자료등을 수집·보관하고 있으며 매년 관련자료를 시도지부별로 정리, 본부에서 보관토록 했다.

□ 결과

年史편찬을 위한 자료는 협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산 역사로서의 가치뿐만 아니라 회원과 직접적인 연관있는 史料로서의 비중이 크다. 나아가 우리나라 건축문화의 맥을 이루는 것으로 자료의 수집과 정리작업이라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일로 간주되고 있다.

20. 協會 事務自動化 實施

□ 추진사항

협회 사무처리의 복잡성을 전산화하여 정확한 통계자료와 일목요연한 사무의 개선을 위하여 컴퓨터를 구입, 2,700여 회원에 관한 자료(등록, 신상, 휴·폐업, 회비수납, 도서자료, 각종통계)를 수록 관리하기 위하여 1987. 7. 10부터 운영관리를 하고 있다.

□ 결과

제1단계 추진으로 회원·설계도서·연금지료를 수록 보관하고 2단계로 관계법령, 도서관리 등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其他 主要業務推進現況

- '87年度 建築士研修
 - '87. 4. 15~6. 3(8기, 기별 2일간)
 - 2,564명 교육이수
- 會員名簿 發刊
 - '87. 7. 25일 배부완료
- 會員中 特別銓衡 對備 研修 實施
 - 1987. 5. 9~16(8일간), 34명이수
- 建築關係法令 質疑, 回信處理
 - 건축관계질의회신: 57건
 - 건축사업무 및 보수기준 질의회신: 17건
- '86年度 제1회 臨時總會開催 및 定款改定承認
- 自體監査, 建設部 監査 受監
 - 자체: '87. 2. 2~3. 14
 - 건설부: '87. 2. 27~3. 5
- '87年度 ARCASIA理事會 參席
 - '87. 10. 20~10. 25
 - 3명참석예정
- 日本 建築士會連合會 全國大會 參席
 - '87. 10. 1~10. 4
 - 4명참석예정
- 建築局 新設 建議案 作成
- 會員管理·建築士補 현황조사, 體育大會實施
- 建築3團體 朝祭會 開催
- 建築士 없는 地域 建築士事務所 設置推進
- 外國 建築關係法令 翻譯 및 國內法 英譯
- 設計者 同議書 添附 改善案 研究
- 設計圖書申告, 檢討 改善案 作成
- 建築士 業務 制限 實施에 따른 補完策
- 自律淨化活動 積極 展開
- 全國分所 適正 檢討
- 全國職員 適正 號俸 檢討
- 建築士補 管理對策 樹立
- '87 경향하우징페어 주택설계작품전 協贊
 - '87. 3. 28~4. 6
 - 회원주택작품 30작품 출간
- 各種制度改善案 作成 建議
- 工事監理, 체크리스트 作成 研究
- 住宅設計圖 作成要領例示圖發刊 配付
- 建築行政 相談室 運營
 - 전화(1,232건), 내방(1,207건)
- 建築技術情報資料室 運營
 - 5000여권 확보
- 海外建築視察團 派遣出國
 - '87. 7. 8~7. 26
- 國際委員會 委員 海外出國
 - '87. 7. 26~7. 31(ARCASIA대회 준비차)
- 職員教育, 通信保安教育, 其他教育實施
- 會館의 管理澈底 및 賃貸推進
- 外國 建築士 總98名 協會訪問
- 本部 및 서울支部 職員 人事交流實施
- 자연형 태양열주택 및 에너지 절약형 주택 작품집 발간
 - '87. 2. 3000부 발행 배부
- 非連會員 懲戒決定事項 施行
- 특정 열사용기자제 설치, 사공등의 사후관리 방안 연구 제시(動力資源부에)
- “平和의 댐” 建設誠金 傳達
- 태풍 등 수재의연금 모금 및 부대되는 사항 대책추진

建築士의 自律性

Focus/The Architect's Autonomous Right

金熙春

서울大學校 名譽教授

정치는 이제 정상으로 돌아섰다. 그리고 無彈無石의 환경 속에서 잡다한 뜻에서의 정치가 시작 될 것이다. 그러나 이땅에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難題들이 우리 앞에 가로놓여 있다. 사회 각분야의 自治와 自律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은 바로 민주화의 첫째 안건이 될 것이다. 건축분야에 있어서도 지금까지 정부의 일방적 견해로서 시행해 온 정책들이 적지 않다. 그들 중 가장 중요한 몇가지를 살펴 보도록 하겠다.

- 1) 건축을 정치이념의 表象化 대상으로 하고져 하는 문제.
- 2) 建築行政機關과 지원기관에 관한 문제.
- 3) 건축교육제도에 관한 문제 등.

첫번째 문제를 생각하며 이 문제에 앞서 우선 건축의 전통논의부터 해야겠다. 이 논의의 배경은 주로 國際主義에서 상실한 로칼리티를 어떻게 재현하는가 하는 것이 집점이 되었으며 이는 국제주의에 대한 도전에 뒤이은 자연스런 建築史의 展開樣相이라 보겠다. 그러나 한국의 傳統性 登場의 배경은 前記한 국제주의에 대한 反動으로서의 범세계적 추세인

로칼리즘 건축운동의 확장선상에서 일어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현대 한국건축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국제주의 건축양식이 이식될 시간적 여건을 갖출 기회가 없었다. 우선 한국의 현대건축은 우리의 고유의 양식으로부터 현대건축으로 연결되는 내적전통의 과도기를 갖지 못하였다. 다시 말해서 한국의 현대건축은 전통의 뿌리에서 소생한 현대라는 짝이 아니라 단지 西歐로부터 移殖된 接木과 같은 양상이다.

또 한가지 전통논의의 중요한 배경으로서 軍事政權과 南北韓의 대치로 야기된 民族主義의 내지는 내셔널리즘의 표방이 작용한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 이것은 자칫하면 프로파간다의 수단으로 전락될 우려가 많다. 그것은 기념성, 상징성을 요구하게 되며 의도적 조형의지를 강요 당하게 된다. 그 결과 전통성 구현이 가장 왜곡된 건축공간으로 표시되어 버린다. 이밖에도 관광취미의 발로라고 생각되는 천박한 전통의 표현사례들을 볼 수 있다. 이제 建築士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입장에서 우리는 전통성의 참다운 의미를 해석하여 어떻게 수행하겠는가 하는 짐일 것이다. 우리에게 있어서 전통논의의 자세는 고건축 연구나 찬양에 그칠 것이

아니라 민족적 감수성에 밀착될 수 있는 건축적 고유가치를 찾아내는 데 돌려져야 할 것이다.

復古趣向 내셔널리즘에 근거한 傳統解析은 현대적 전통논의가 태동되기 위한 과도적 사실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진정한 건축에 있어서의 전통성 구현은 외부에서의 강요가 아니라 建築士 스스로가 내면에 누적된 것이 자연스러운 창조적 표현 속에서 나타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의 Wright 나 핀란드의 Aalto 의 건축은 이러한 작가에게 내재하는 風土性의 자연스러운 귀결을 보여주고 있다.

傳統繼承이란 과거의 답습이 아니라 과거에 대한 안티테제(반)이어야 하고 현대로서의 진테제(합)를 찾는 것일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건축이란 그 시기의 그 작가가 아니면 할 수 없는 創造的인 것이어야 할 것이다.

우리 민족의 정서속에서 생동하는 시간을 초월한 建築思想과 철학을 발견하고 그것을 현대의 건축으로 표현하는 작업이 또한 미래에 이어질 현대의 전통을 수립하기 위한 建築士의 과제일 것이다.

두번째와 세번째문제의 해결은 여러가지로 광범위하게 토의하여 결정할 것이지만 지면상 간단하게 그 방향만 제안하여 둔다. 이 문제의 해결에 앞서 먼저 우리나라의 여러가지 여건을 상기시켜야 하겠다. 국토가 좁고 인구가 많은 우리나라는 한치의 땅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조건하에 이세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대열에 도약 할 것이 예견되고 있는점! 건축이 일반예술과 과학기술과도 다른 독특한 분야로서 이해해야 할 것이 전제되어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건축의 모든 것을 지원할 수 있는 機關으로서

- 建築院 設立을 추진한다.
- 대학의 전문교육은 建築大學으로 綜合化한다.

이상 몇가지를 建築士의 自律性을 주장하면서 제안하는 바이다.

HOUSING

■ 會員作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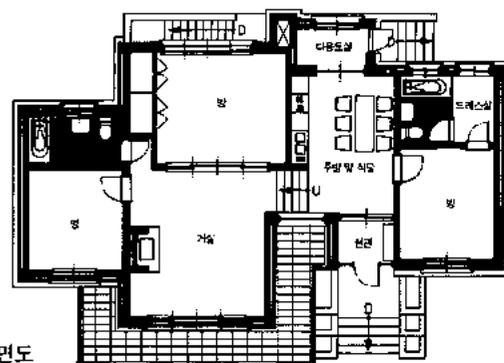
사진: 정정웅

공주 Y씨주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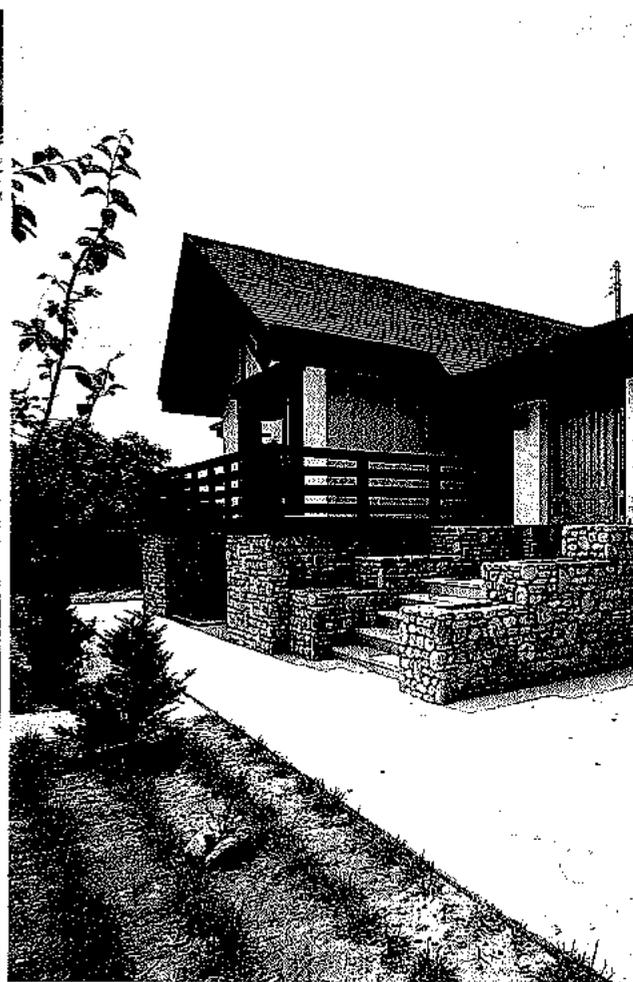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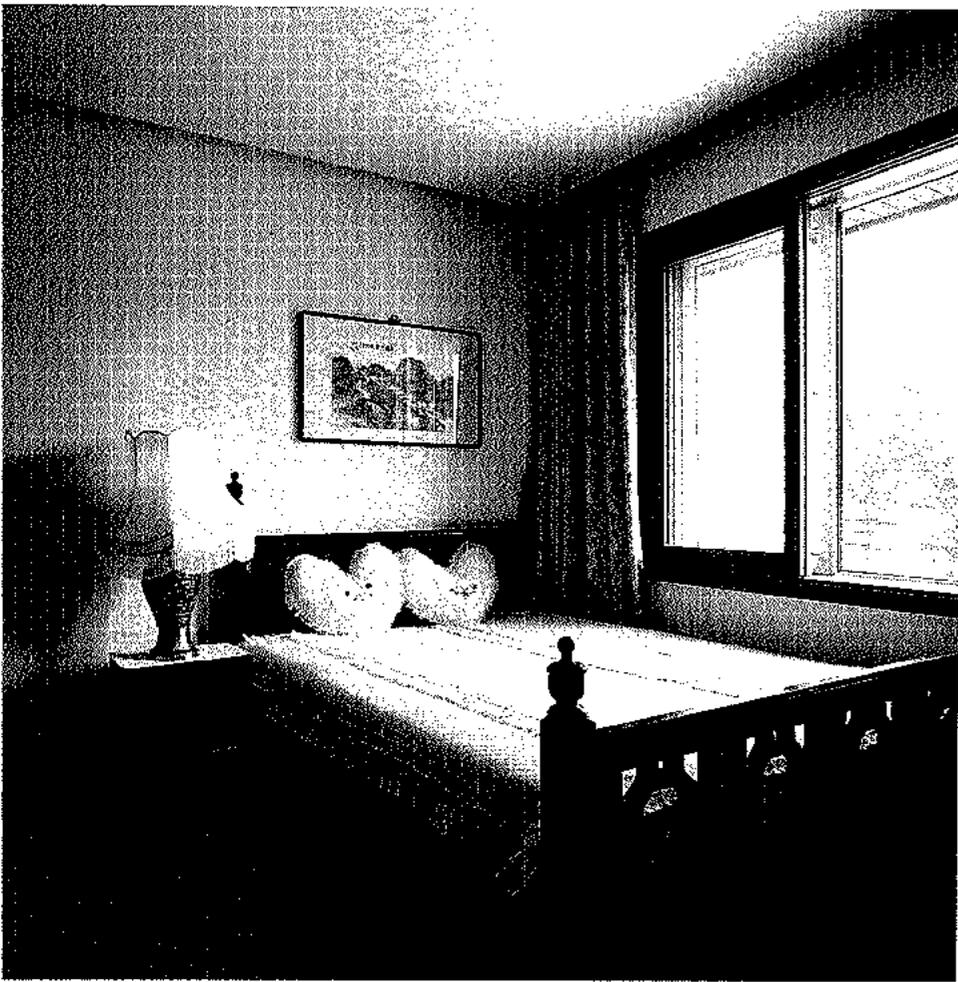
Y's Residence (Kongjoo)
Designed by Park, Kyung-H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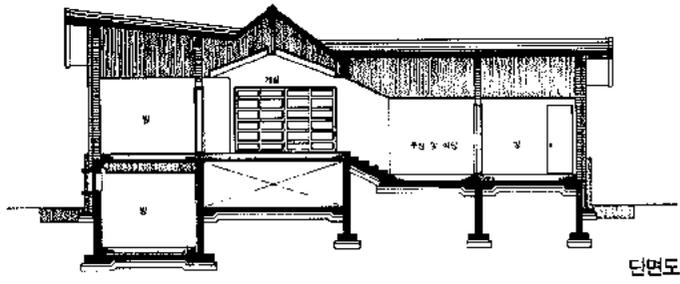
朴慶浩 / 종합건축사사무소 환경계획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47-3/541-3793~4

- 대지위치 : 충남 공주군 계룡면 증장리
- 대지면적 : 988.46㎡
- 건축면적 : 109.17㎡
- 연면적 : 148.05㎡
- 구조 : 조적조
- 외장 : 자연석치장쌓기, 적심목침김지붕



1층 평면도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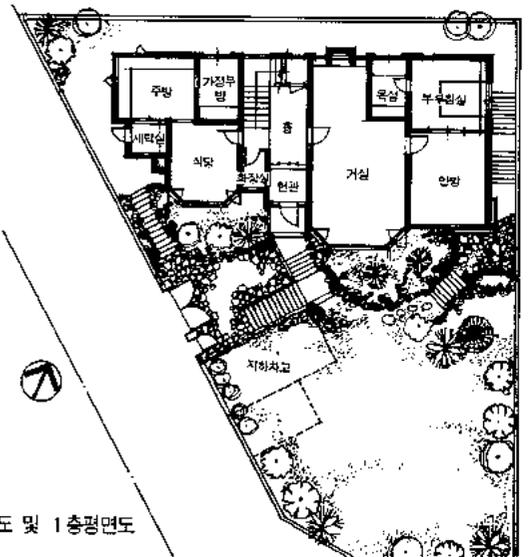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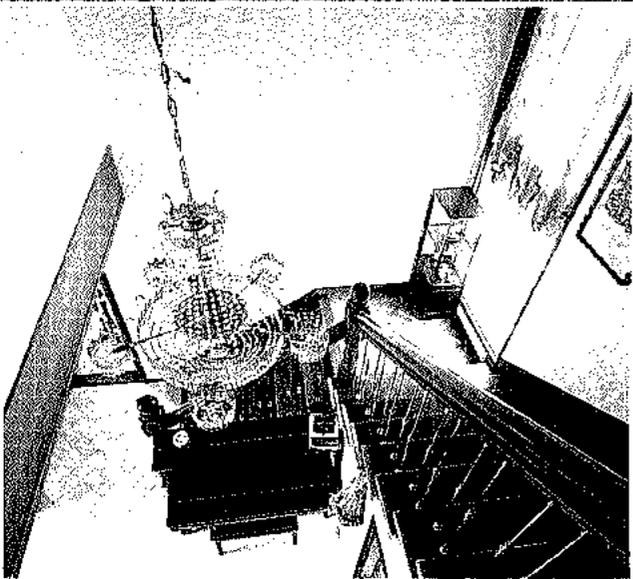


삼성동 P씨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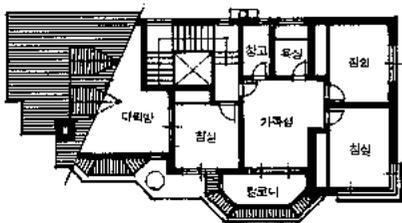
Samsung-dong P's Residence
Designed by Jeong, Koo-Eun

鄭求殷 / 삼에종합건축사사무소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57-1/543-1031

- 대지위치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 건축면적 : 180.2㎡
- 연면적 : 323.6㎡
- 건폐율 : 36%
- 용적율 : 54%
- 구조 : 세멘트벽돌조적조
- 외벽 : 중주백석 지장쌓기
- 지붕 : 천연스레이트



배치도 및 1층평면도



2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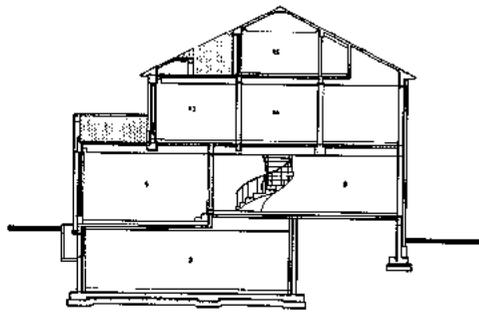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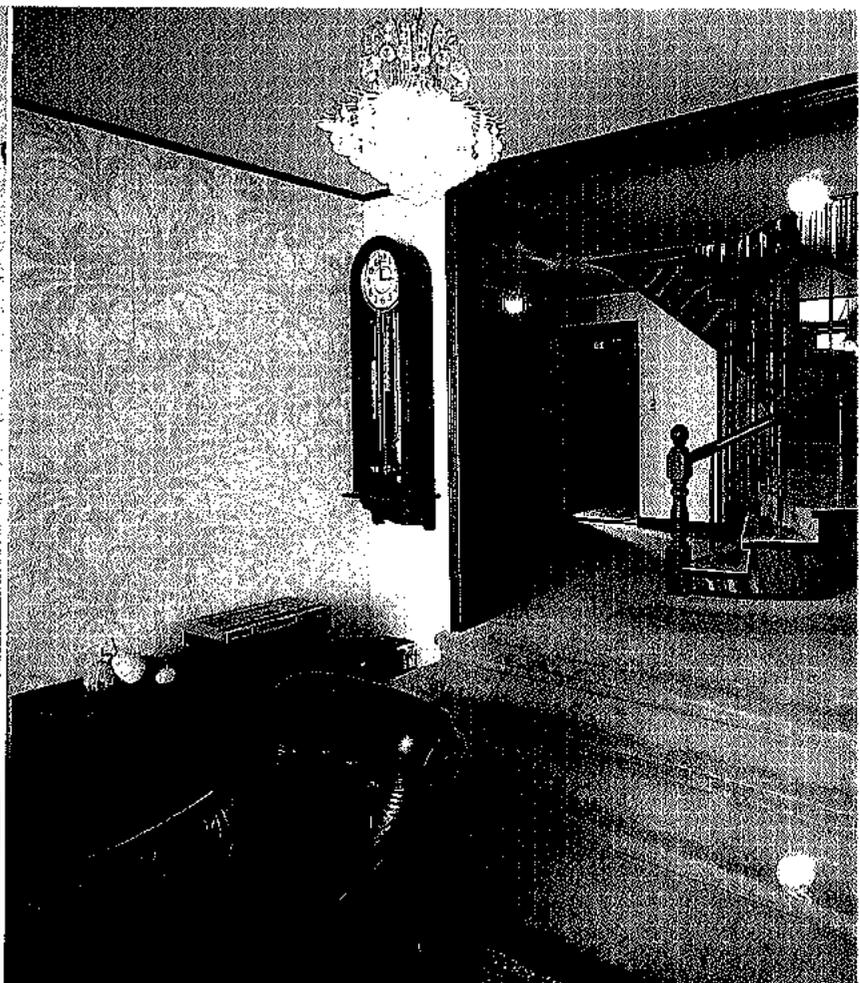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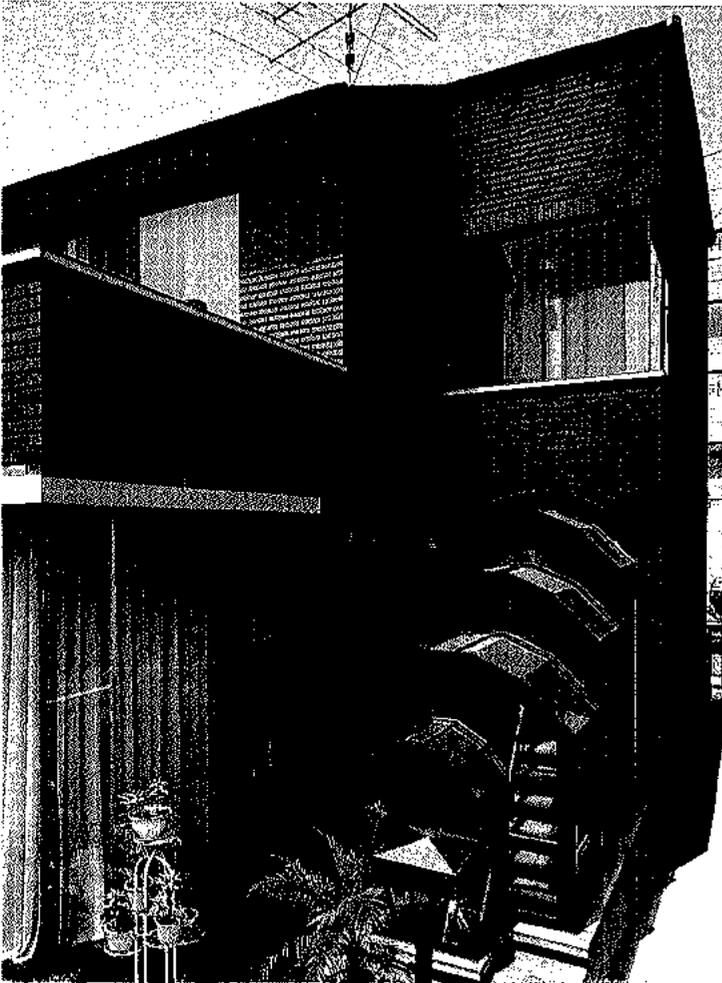


삼전동 K씨주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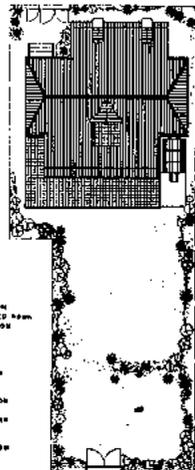
Samjeon-dong K's Residence
Designed by Kim, Moo-Eon

金武彦 / 종합건축사사무소 하나그룹
서울시 강남구 방배본동 752 - 16 / 599 - 6277

- 대지위치 : 서울시 강남구 삼전동
- 대지면적 : 425㎡
- 연면적 : 307㎡
- 구조 : 벽돌조적조
- 마감재료 : 지붕 / 아스팔트형골
외벽 / 적벽돌지장쌓기
내부바닥 / 카펫



단면도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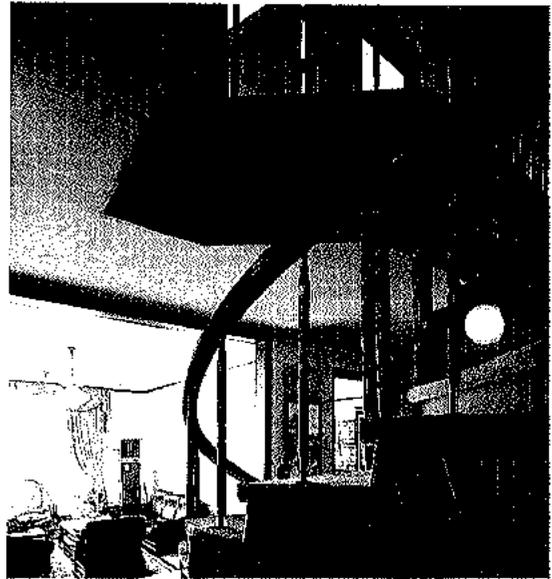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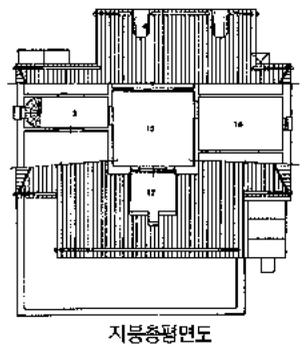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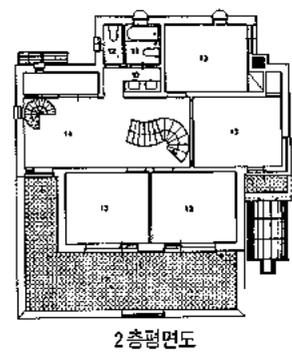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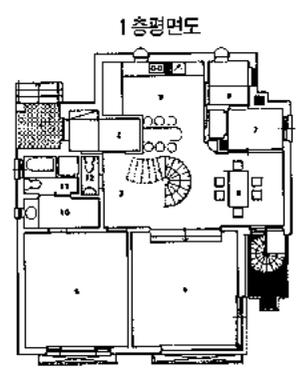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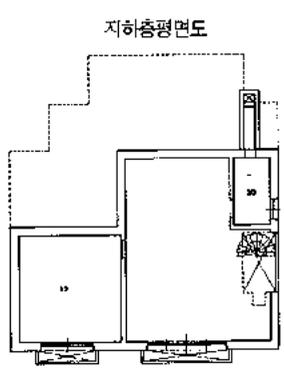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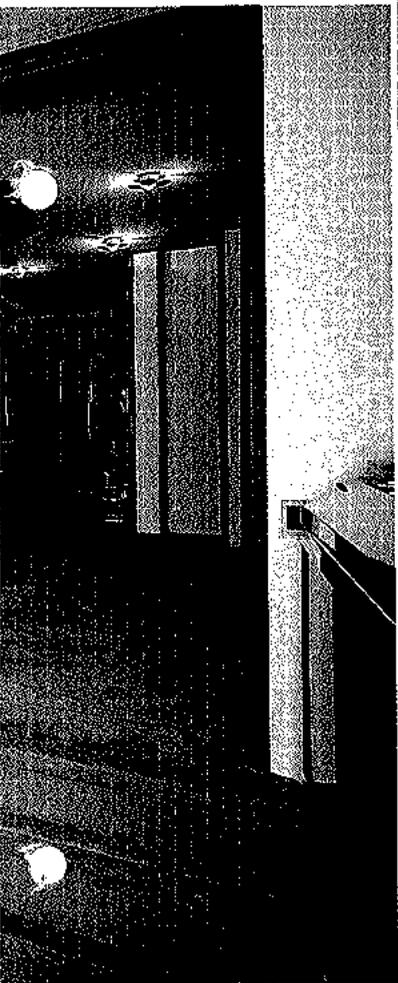


사진: 정경용



3세대를 위한 논현동 J씨댁

J's Residence for 3Generation
(Nonhyun-dong)
Designed by Kim, In-Chul

金仁喆 / 종합건축사사무소 인제건축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204-4 / 549-1104

- 대지위치 :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 대지면적 : 654㎡
- 건축면적 : 220㎡
 - 지하층 / 30㎡
 - 1층 / 218㎡
 - 2층 / 82㎡
- 구조 : 조적조+일부철골조
- 외장재료 : 벽체 / 허단 : 화강석
 - 상단 : 붉은벽돌
 - 난간 및 처마 / 상복후로랑
 - 홀름 / 동판
 - 기둥 / 철판위 에폭시페인트
 - 지붕 / 천연스레이트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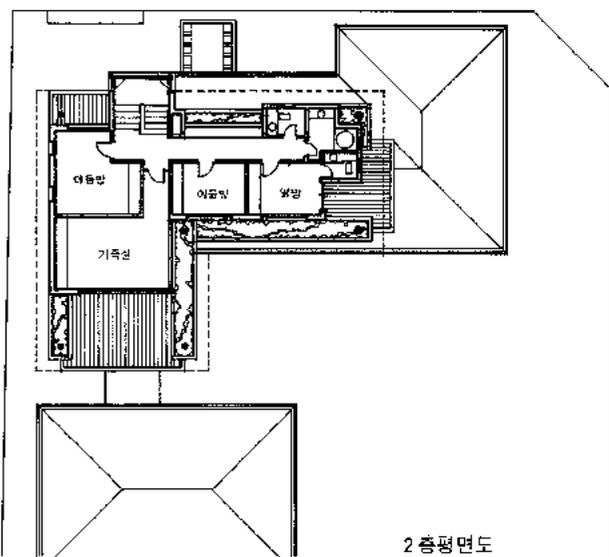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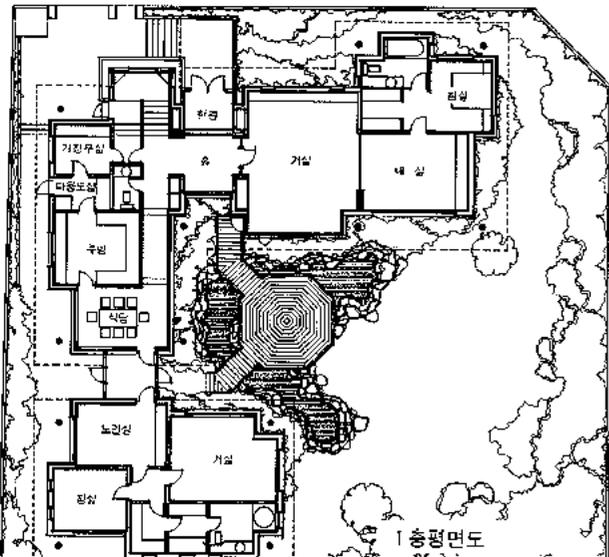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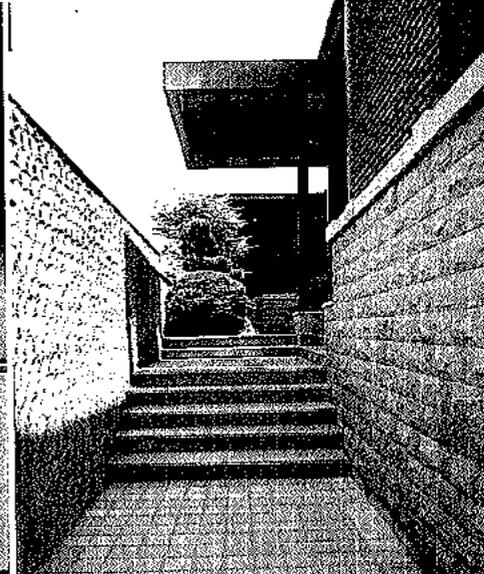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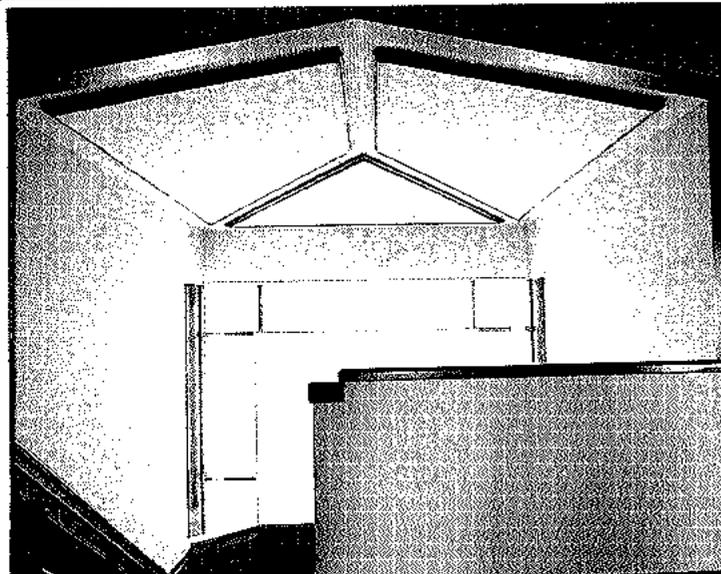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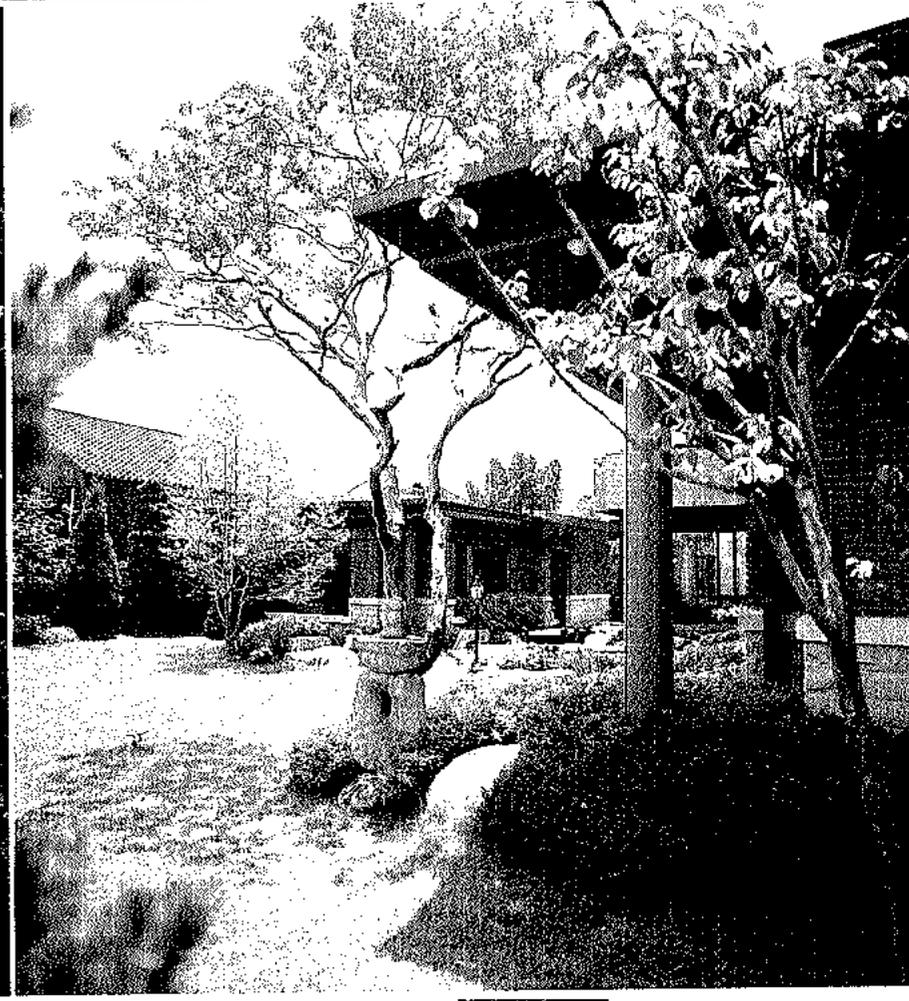




사진 : 정정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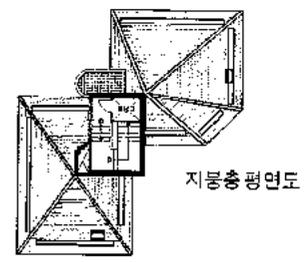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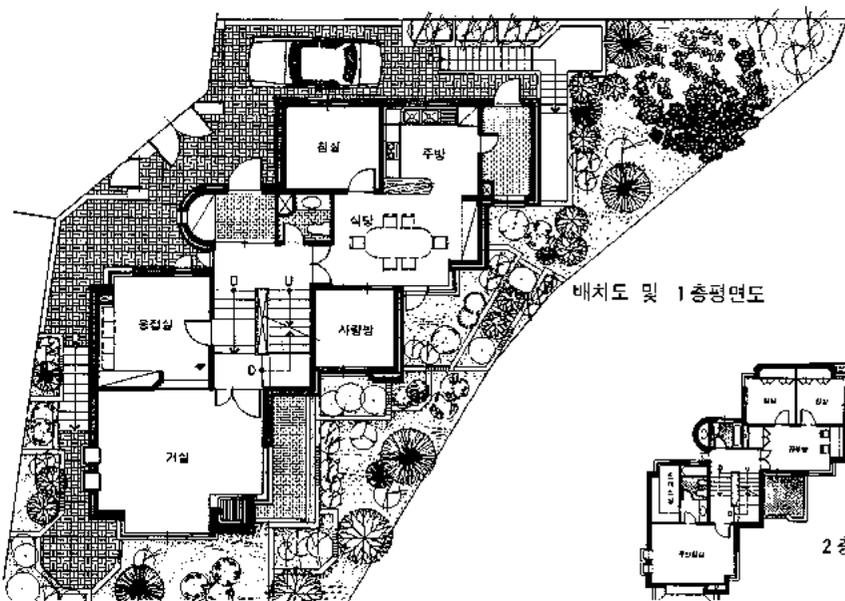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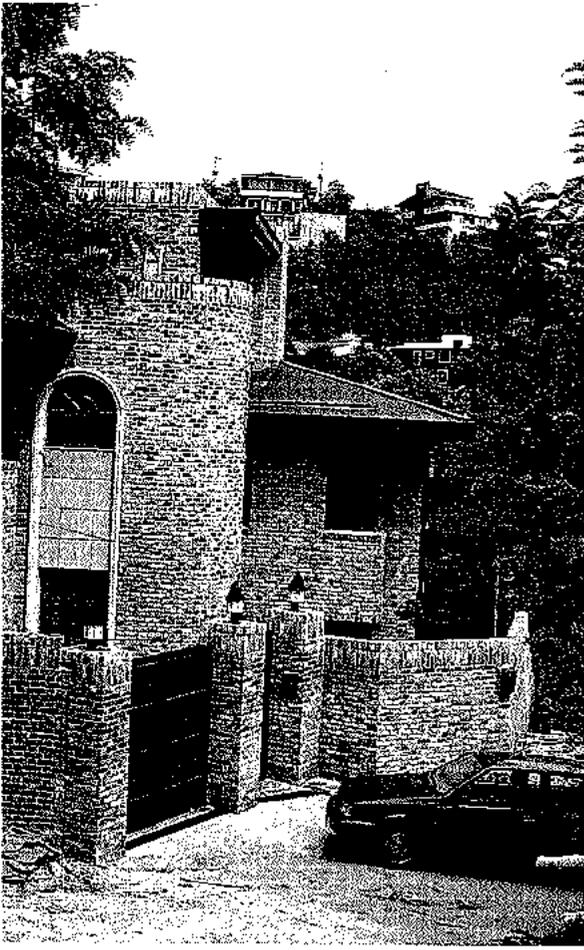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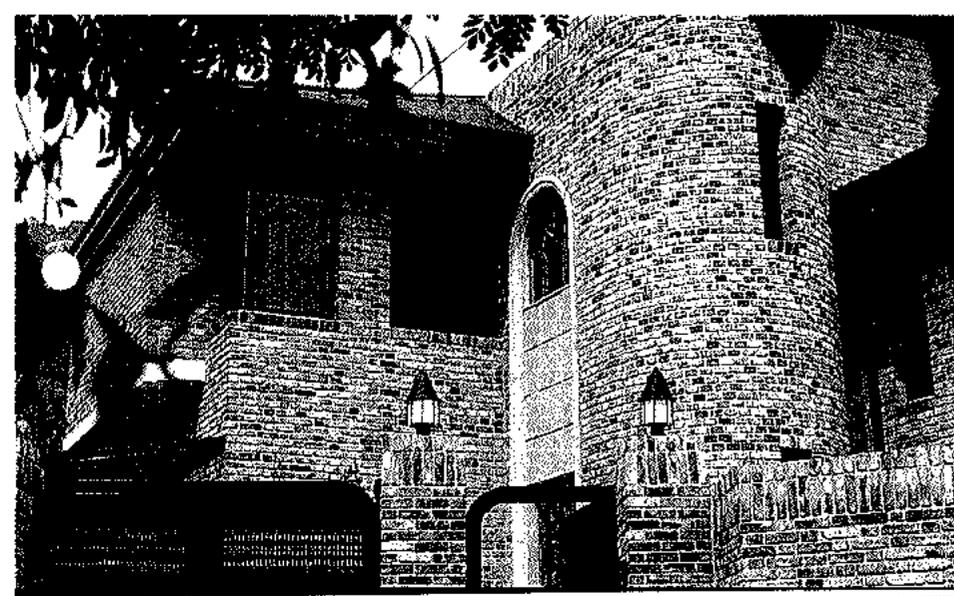
평창동 S씨주택

S's Residence (Pyungchang-dong)
 Designed by Song, Yee-Ho + An, Kie-Su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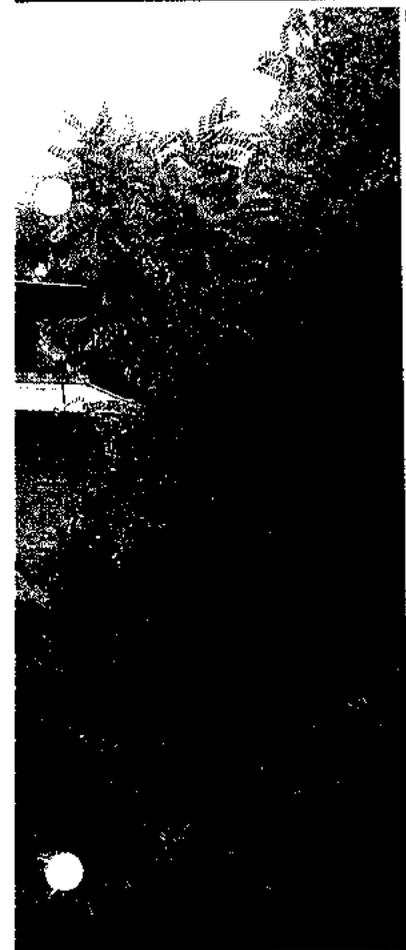
宋二浩 + 安基錫 / 건축사사무소 라인건축
 서울시 강남구 서초동 1317-5, 6번지 / 553-9515

- 대지위치 :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 지역·지구 : 주거전용지역, 주차장정비지구
- 대지면적 : 31.1㎡
- 연면적 : 308.96㎡
- 외부마감 : 파벽돌차장쌓기
- 지붕재료 : 천연슬레이트





주단면도



■ 설계소요

자연환경과 생활리듬의 부드러운 調和를 이루어 주는 주거의 아름다운 공간구성은 주어진 여건에 대한 끊임없는 노력과 해후가 밀착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는 우리의 주변에서 보아온 주거 환경에 대한 반대급부적인 구상들을 종종 접하면서 느끼는, 자연의 섭리에 대한 천연적인 부드러움을 파괴하고 있는 우리들의 무모함을 느끼면서 계획된 고통의 순간들이 나열된 계획이었다.

본 대지는 평창동 산기슭에 위치한 급경사지로서 건물이 서기에는 적합치 않은 곳이었으나 맑은 공기와 수려한 주위

경관이 공간의 활성화를 이룰 수 있으리라는 계획의지를 고취시켜 주는 한나당을 제공하여 주므로서 대지의 경사를 최대한 이용하는 데 계획의 주안점을 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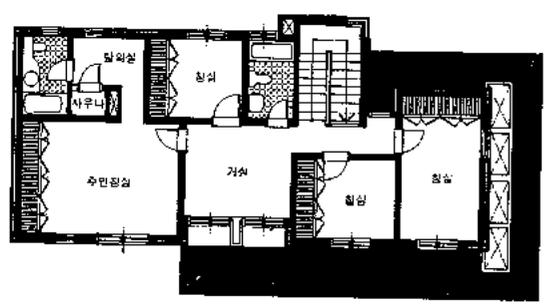
평면구성은 대지의 형상과 경사에 따라 계단실을 中心으로 한 Skip Floor 형식을 취하여 만남의 장을 제공하는 휴식공간(거실 및 응접실)과 가족모두의 공유공간(식당 및 주방) 그리고 Master Zone(주인침실)과 Family Zone(공부방과 침실)으로 구성하여 공간대의 흐름으로 연결하였다. 한편으로는 주인의 생활 리듬에 맞추어 지하에 독립된 공간(홈바)을 연출하므로써 다목적 기능의 매개공간 활용을 유도하였다.

서초동 Y씨주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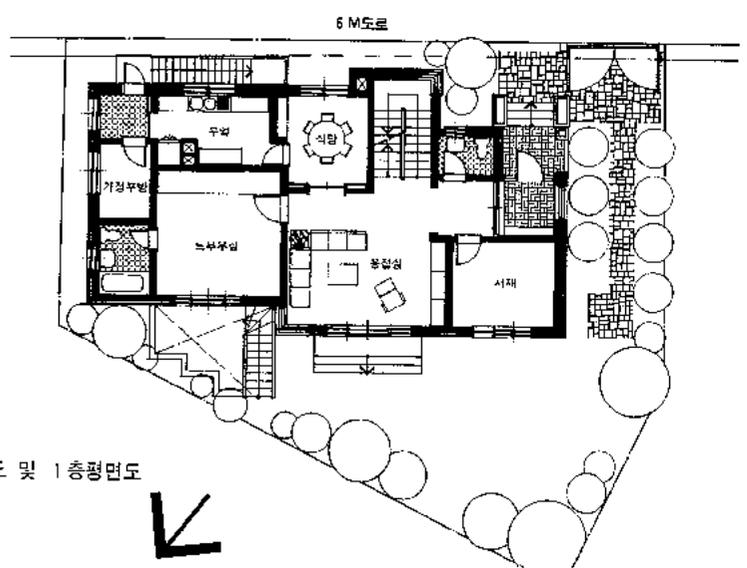
Seocho-dong Y's Residence
Designed by Kim, Nak-Joong & Min, Kyung-Ro

金洛中 + 閔庚魯 / 종합건축사사무소 중원건축
서울시 강남구 서초동 1425-18 / 585-7500, 585-2281

- 대지위치 : 서울시 강남구 서초동
- 대지면적 : 313.56㎡
- 건축면적 : 127.74㎡
- 연면적 : 301.37㎡
- 건폐율 : 40.73%
- 용적율 : 75.33%
- 구조 : 조적조
- 마감 : 외부 / 파벽돌지장생기
 지붕 / 스페나수오지기와
 장호 / 칼라하이사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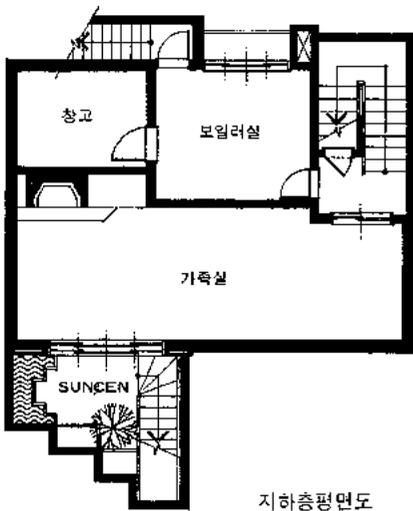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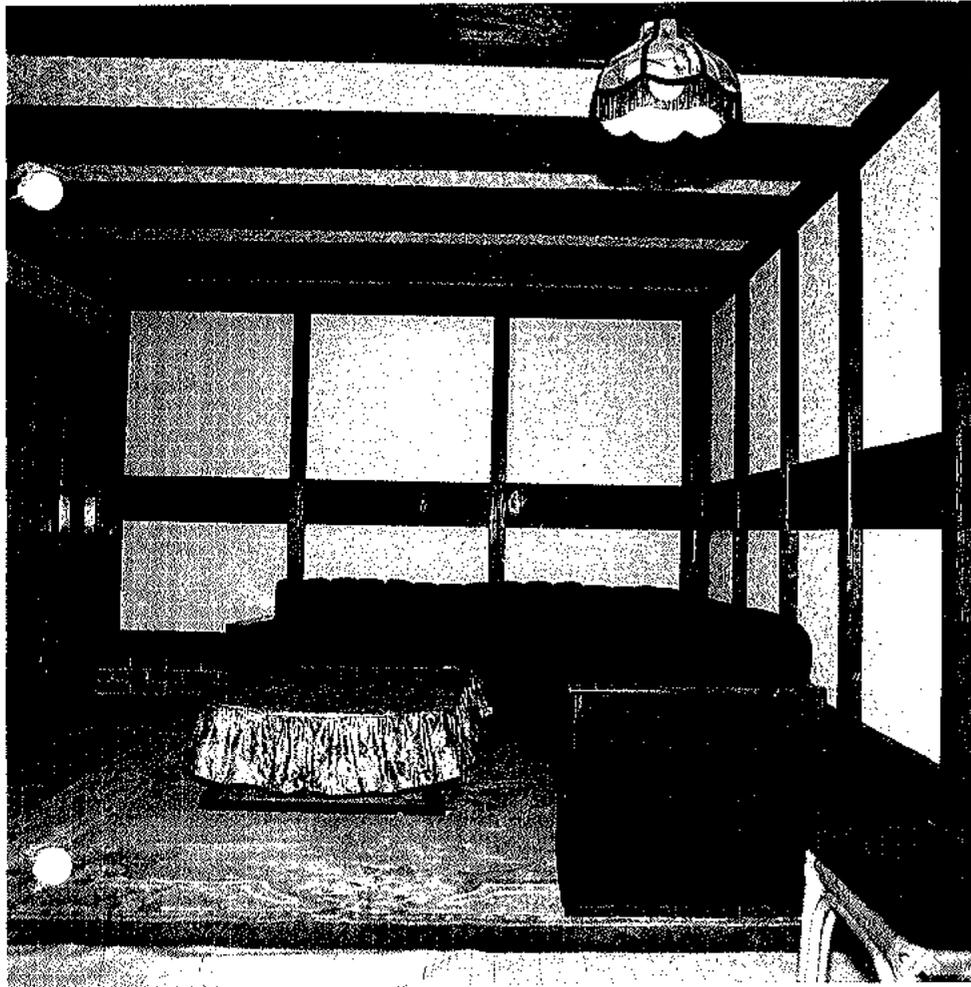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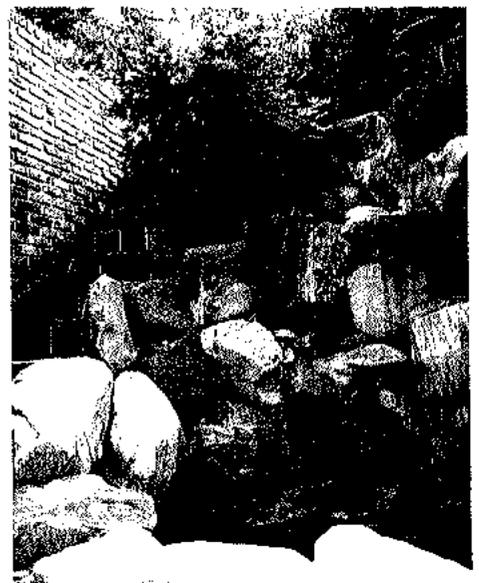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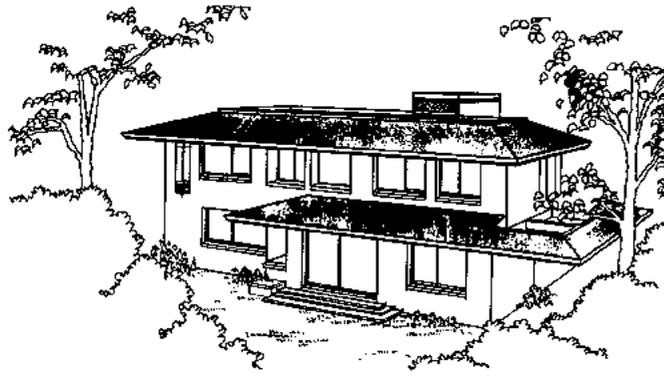


2층평면도



배치도 및 1층평면도





지하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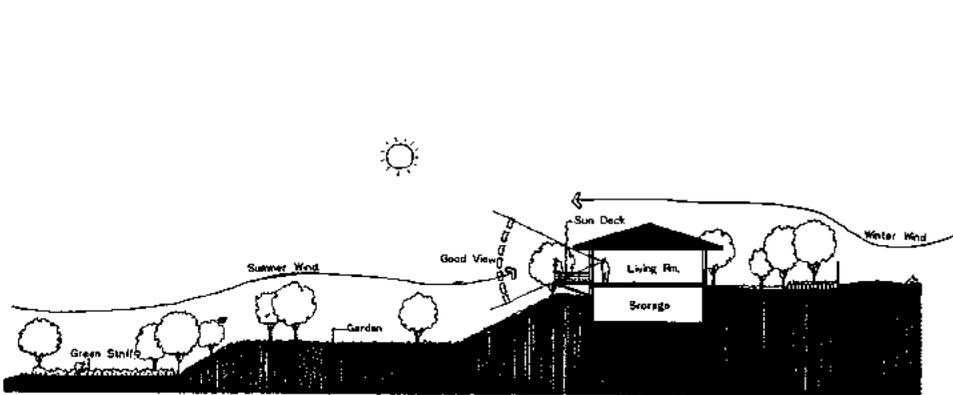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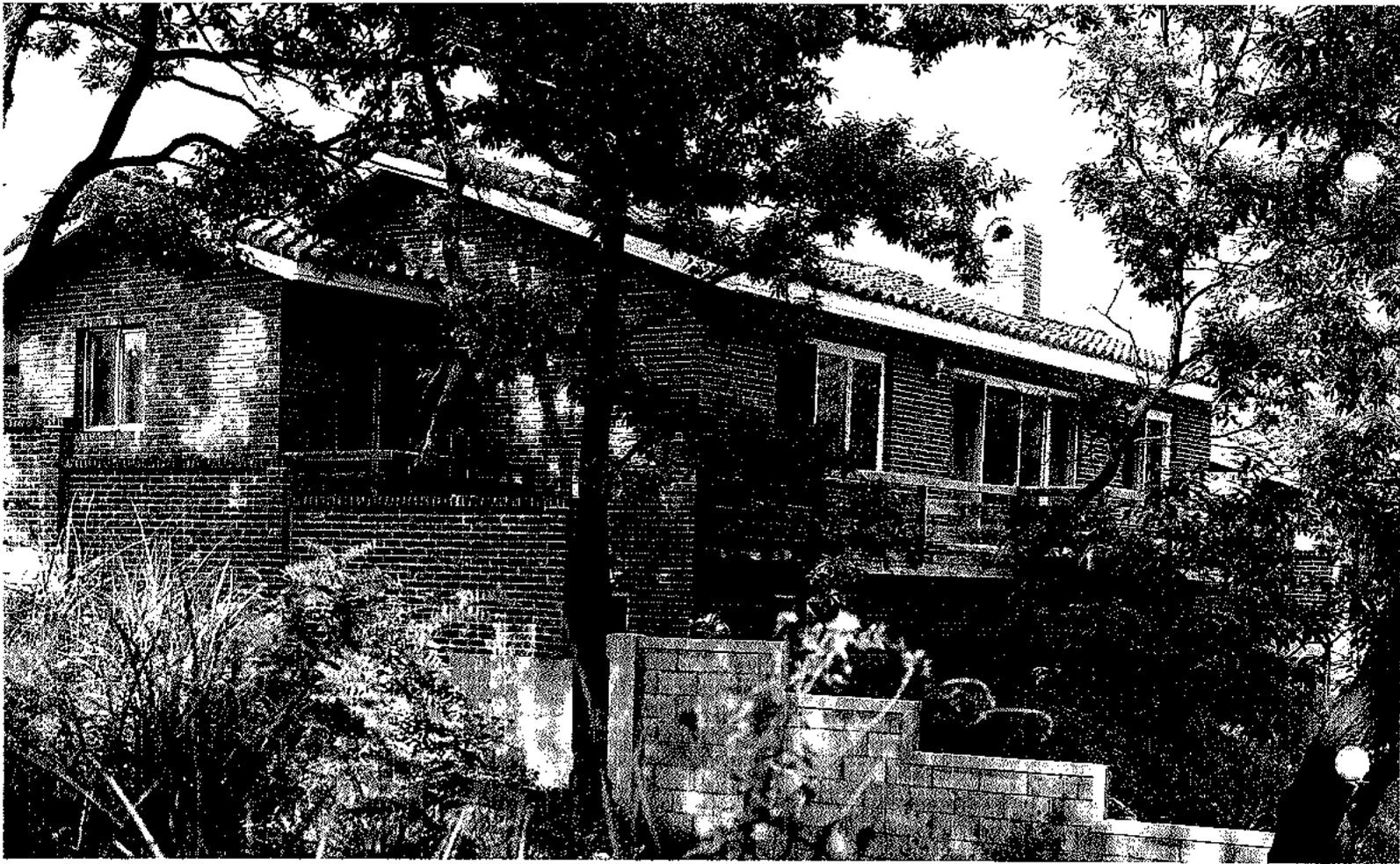
고양군 K씨주택

Koyang-Kun K's Residence
Designed by Kang, Hyo-Seok

- 대지위치 : 경기도 고양군 지도읍
- 대지면적 : 964.46㎡
- 연면적 : 131.3㎡
- 건폐율 : 11.6%
- 용적율 : 10.26%
- 외부미감 : 변색벽돌치장생기+스페니쉬기와

姜孝錫 / 삼주종합건축사사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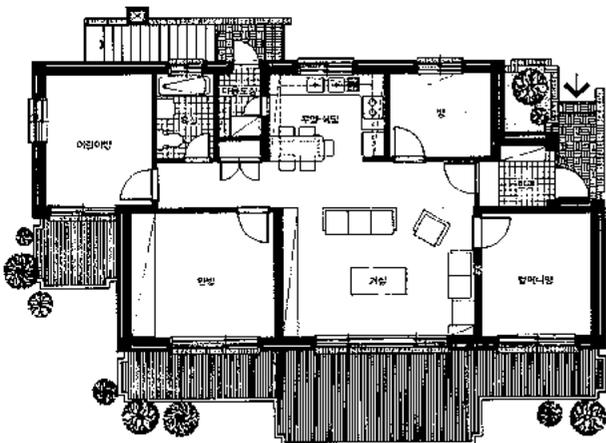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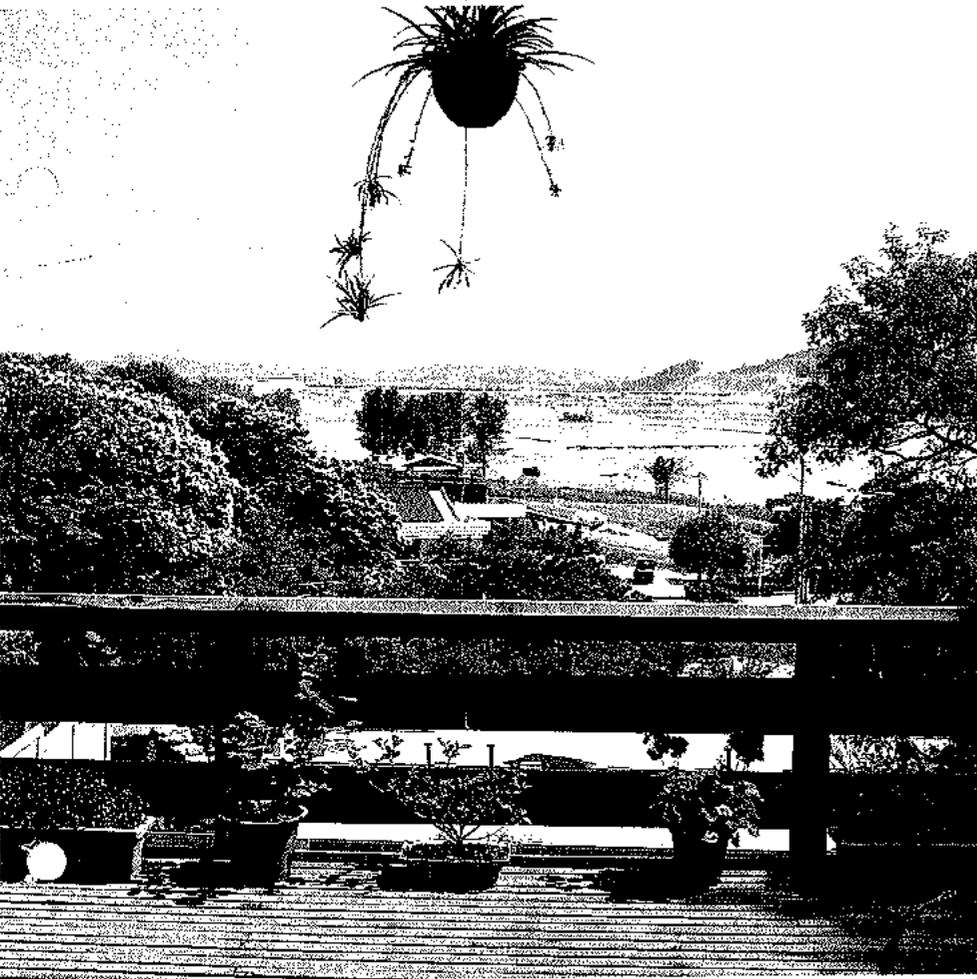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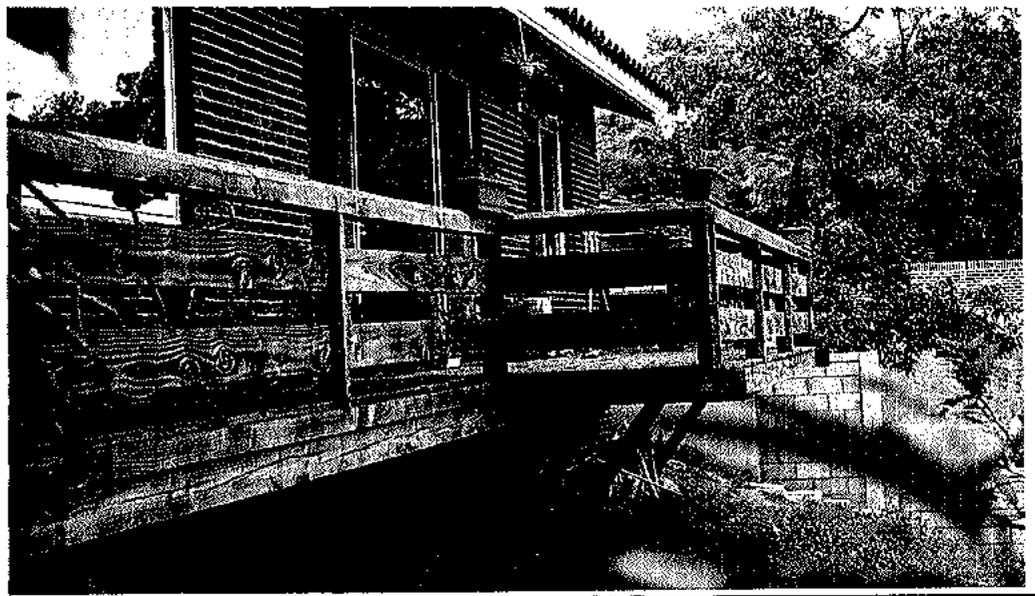
서울시 강남구 반포동 612-140 / 593-3192



전체단면도



배치도



1층 평면도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것들

— 「한식」과 「양식」의 차이 —

우리 생활의 양식을 말할 때 흔히 「한식」과 「양식」으로 크게 나누어 구별하는 경우가 있다. 옷의 경우가 그러하고 음식을 일컬을 때도 마찬가지다. 물론 음식에 한해서는 이 두가지에 더하여 「중국식」이라거나 「일본식」, 「불란서식」 등 더욱 세분하여 부르기도 한다. (심지어 서울에는 파키스탄, 베트남 등의 결코 흔하지 않은 식사를 만들어 파는 곳도 등장하게 되었으므로)

그러나 주거문제에 초점을 맞춘다면 대체로 나라별의 차이보다는 크게 동양과 서양으로 나누게 되고, 일컬어 「한식」, 「양식」이라고 표현한다. 여기서 「한식」이라는 것과 「양식」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디에 그 기준을 둘 것인가 생각해보자. 한 때는 「우리것」은 모두 구식이고 「서양의 것」은 그 전부가 신식이고, 바람직한 것으로 정의가 내려져서 아름답던 시골풍경에 전혀 生硬스럽게, 초가지붕이 온통 천박한 느낌의 스퀘이트로 바뀌진 적도 있었지만 이러한 뉘앙스의 기준부터 정립하여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어느 나라이건 고유한 풍토성을 갖고 있고 이것은 그곳의 위치, 지형, 기후와 이로써 비롯되는 문화와 깊은 연관을 맺고있다. 무엇보다도 이 중에서 기후는 그 나라이거나 지방의 주거양식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다. 비, 눈, 바람, 습도, 추위와 더위의 특성은 집과 마을의 모양을 대체로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옛날과는 달리 냉난방시설이 점차

보편화되고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기후의 변화에 대응하는 융통성도 넓어져서 이러한 기후로 인한 변화의 진폭이 다소 줄어졌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아직도 우리 생활의 곳곳에서 풍토적 특징을 알아차리게 된다. 뿐만아니라 지정학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우리는 대륙성기후와 해양성기후의 중간에 걸쳐 지방마다 각기 다른 풍토성을 나타내는데, 6,7월에는 해마다 장마가 오고, 겨울이 긴 북부지방에 비하면 제주도의 경우는 영하로 내려가는 날이 연중 겨우 17일밖에 안된다. 이러한 기후의 차이가 일찍부터 마루와 온돌이라는 바닥구조형식을 만들어 내었다. 또한 길게 뻗어나간 처마라던지 기단같은 것은 강우량이 많은 기후특성에 대응하는 적절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비교적 건조한 유럽의 여름에 비하여 우리의 여름은 기온이 올라가고 습도가 높다.

주택 전면의 대부분이 창호로 되어 있고, 방과 방사이가 대부분 창호로 되어 있음은 이렇듯 고온다습한 여름날씨를 극복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었으리라. 더우기 모든 창호는 장지로 되어 절묘한 통풍장치 노릇을 하였을 뿐만아니라 필요에 따라서는 모두 접어서 들쇠에 매달기까지 함으로써 그 효율을 극대화시켰다. 이러한 개방성에 비하여 서양의 집들은 그 대부분이 두꺼운 벽체로 구성되어 극히 폐쇄적이다.

「언덕위의 하얀집」, 「테라스가 있는 빠알간 양옥 2층집」, 「눈이 소복이 덮인 뽕죽집」 등은 우리가 어릴적부터

趙成龍

우원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꿈꾸은 이상적인 주택의 모습이다. 그러나 그것이 지중해식 주거의 형태거나, 일년의 거의 대부분이 흐린날씨인 중부유럽의 주택의 모양이거나, 한해의 절반쯤은 눈 눈에 덮여있는 백야의 북유럽의 집꼴임은 전혀 인식하지 못한채 그 외형만을 동경해왔다. 고온이지만 습도가 없으므로 그늘에만 들어서면 시원한 지중해의 집들은 거의 순백색이고 개구부가 적다. 무엇보다도 그것은 지중해의 뜨거운 태양과 바다에 잘 어울린다.

파리가 유행의 고장이라고 하지만 그 화려한 색깔은 우중충한 시가지의 건물과 어두운 날씨에 대한 조화의 방법에서 나온 것이다.

적설량이 많은 스칸디나비아의 지붕은 그리 뽀족 할 수 밖에 달리 도리가 있겠는가?

전통적인 한식건축은 그 외부의 폐쇄성에 대하여 내부의 개방성을 함께 생각하여야 한다. 외부의 남장과 행랑채, 중간담장등이 극히 폐쇄적으로 보이지만, 그 내부의 각 방들의 대부분이 개방적이고 각기 적당한 크기의 작은 뜰에 면하여 있다.

그러한 전통적 주거공간 형식에도 불구하고 현대의 대부분의 우리 집들은 우선 폐쇄적이다. 높은담장과 단단해 보이는 벽돌벽과 몇겹의 창으로 그렇게 보인다. 「양식」건축의 대표적 방법인 조적조에서 비롯된 이러한 모습으로 인하여 우리의 집들이 무척 달라져 버렸다. 목조가 대부분이었던 전통주택은 그래서 기구식으로, 그 사이에는 창호나 흙으로 채워져서

지금의 모양새와는 사뭇 달랐다. 그러나 이러한 외향적인 변화는 시대의 기술적 진보에서 오는 사회적 요구일 수도 있으므로 (현대 서양의 집들이 더욱 개방적으로 되어가는 것과 매한가지로) 그리 문제가 있을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중요한 점은 주택의 배치에 있다.

도시의 땅값이 폭등하고 마을의 환경이 과거만 같지 못함에도 있으나 그 보다도 전적으로 정서의 고갈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각박한 세상모습을 우리는 주택의 농음새에서 발견하게 된다.

우선 뒷담에 바짝 붙여 대지의 효율을 최대한으로 높이려고 한것은 경제사회에 대처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일 수는 있으나 그것이 주택의 구성원인 가족을 염두에 둔다면 가장 우매한 방법에 속할 것이다. 주택의 환경은 건강하여야 하고 그럼으로써 그 속의 인간 역시 건강하게 될 것인데 대체로 어둡고 통풍이 되지 않는 그 구석을 어찌 할 것인가.

日자 혹은 口자, 匚자모양의 옛날집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거의 대부분의 요즘 집들은 그 규모에 관계없이 - 자형을 하고있다. 남향의 일조를 최대한 확보하려는 노력의 소산이긴 하지만 어떤 크기 이상의 주택내부는(천장이나 테라스를 설치하거나 하여 이를 해소하는 방법도 없는것은 아니나) 이로 말미암아 대체로 어둡다. 앞 뜰의 넓은 잔디보다는 이럴때 거실과 안방사이의 작은 마당쯤 마련하고 잔디밭 대신 감나무 한그루라도 심어 놓는다면

환기나 채광파위는 더할나위없이.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어릴때 살던 포근한 마을 집과 얼마나 닮게 되겠는가. 이는 바람소리, 빗소리, 달빛같은 자연과 더불어 살고자 하였던 옛 사람들의 삶의 정신, 바로 그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정원의 모양도 바뀌어져야 할 것이다. 전통적인 우리의 뜰은 대자연의 축소판같은 중국의 그것이거나, 유난히 인공적인 일본의 그것과는 분명 다르다. 주남철교수가 지적하듯 「꾸미지 않는 가운데 꾸미며, 꾸미면서도 꾸미지 않는 듯」 소박한 것이어야 한다. 요즘과는 달리 잔디밭에 상록수를 심는것이 아니고 사계절에 따라 그 모습이 변하는 활엽수를 심어서 화사한 봄꽃, 여름의 녹음, 가을의 단풍과 겨울의 눈꽃을 골고루 내다 볼 수 있는 뜨락이어야 한다. 그 풍경은 계절의 변화가 뚜렷하지 않은 유럽식, 이른바 「양식」의 모습과는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 지난 반세기 동안에 너무 많이 우리의 모습을 잊어버리고 살아왔다. 도대체 어느 것이 우리 것인 줄도 모르고 지낸 것이다. 그렇다고 지금에 와서 전통가옥에서 살아야만 한다는 주장은 물론 아니다. 싫든좋든 세계가 하나가 되어가는 시대에 살고 있고, 문화가 동질화 되어가는 세상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 우리가 잊어 버릴 수 없는 것은 조상대대로 이 땅에 지켜온 우리의 삶의 본질과 그것에서 비롯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建築 너 뭣고” (1) (饒舌的建築愚論)

■ Essay

Want to Know What is Architecture
by Choi, Chang-Kyu

우리민족은 원래부터가 성현의 말씀이 어떡코하면 맥을 추지못한다. 聖賢의 말씀이니까, 우린 聖賢이 못되니까. 이런 일을 요새는 比較 劣等意識이라 한다던가. 聖賢의 말씀이니 지당하시겠고 명언이겠지 하고 속시원하게 생각하면 그만인데, 믿을 수 없고 회의를 품게 된다.

이건도 반발도 질문도 없다는 말이 된다. 참말로 가소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말들이 하나같이 哲學的이고 敎訓的이란 점에서 그러할지는 몰라도 건축을 한답시고 50년이란 세월을 흘러보냈고 경노우대증을 가지고 다닐 社會的特惠를 받고 있는 요즈음 점점 더욱 외롭게 웃어본다.

崔昌奎
건축사사무소 신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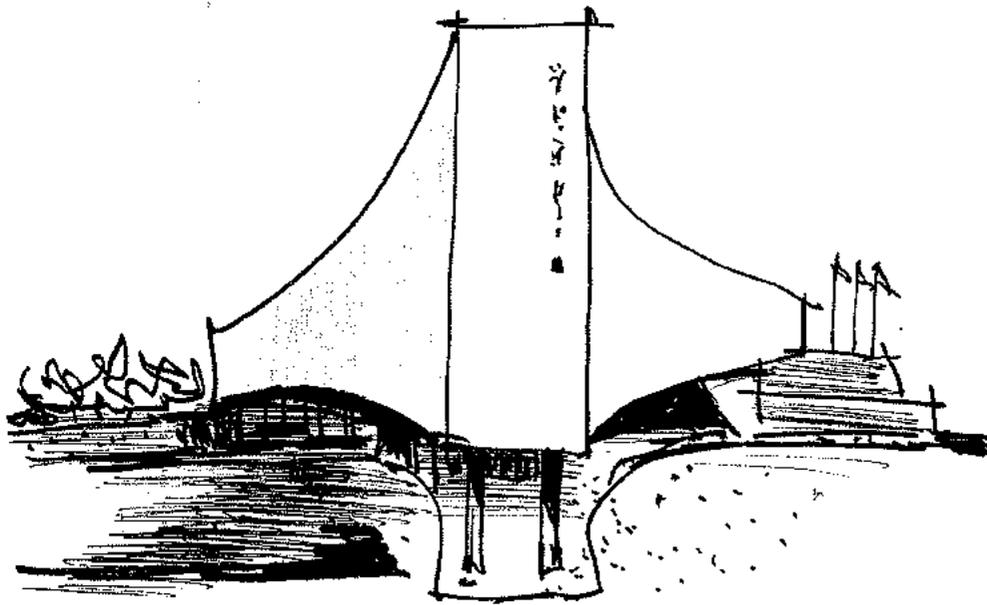
우울과 거부와 항거와 분노가 일시에 解結되는 奇蹟은 초여름 하늘에 날아가고 “어 뭣가 되어 가는데”라든가, 환호나 박수가 최류탄냄새에 자욱했던 거리에 웃음소리가 터져나온 그런 요즈음, “이젠 豊年이나 들고”, “Olympic 이나 멋지게 치르면 제 궤도에 올라서겠지” 이것이 요즈음 우리 주변에서 자주 들리는 말들이다.

이런 초여름 하늘처럼 탁 터진 가슴에서 뭐 스킨는 饒舌的建築愚論이란 기괴한 제목을 붙여 이리석은, 건축에 대한 잔소리나 해보자이거다. 도대체 건축이 學問이나 哲學이나 藝術이나 技術이나 裝置야 製飾이야라고 누가 묻는다면 딱부러지게 名答을 내릴 수 있는 建築大家나 敎授나 博士님들 있거든 손들어보십시오라고 소리치고 싶다. 우리 민족은 원래부터가 성현의 말씀이 어떡코하면 맥을 추지못한다. 聖賢의 말씀이니까, 우린 聖賢이 못되니까. 이런 일을 요새는 比較 劣等意識이라 한다던가. 聖賢의 말씀이니 지당하시겠고 명언이겠지하고 속시원하게 생각하면 그만인데, 믿을 수 없고 회의를 품게 된다.

이건도 반발도 질문도 없다는 말이 된다. 참말로 가소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말들이 하나같이 哲學的이고 敎訓的이란 점에서 그러할지는 몰라도 건축을 한답시고 50년이란 세월을 흘러보냈고 경노우대증을 가지고 다닐 社會的特惠를 받고 있는 요즈음 점점 더욱 외롭게 웃어본다.

建築의 歷史에서 (東西洋) 볼 때 우리의 선인들은 훌륭하고 멋있는 건축을 해놓았다는 점은 인정한다. 원래가 건축이란 학문이 他學문에 비해 그 내용이 복합적이고 外樣이 다양하고 시대의 변천과 지역성과 思潮의 흐름에 따라 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이 달라져만 가는데도 선인들의 명언은 (弄談이래도) 敎條나 信仰같이 생각하고 一言半句의 반론이나 거부가 별로 없다는 것은 우리의 先人들은 몹시 유식했구나 하는 생각마저 들게된다.

오만의 자기의 建築觀의 주장이 얼마나 될 것이며, 비건축인인 일반서민들의 의견이나 생각따위는 아예 무시된 일이 얼마나 될 것이며, 비전문인인 官權者들이나 富祐한 건축주들의 橫暴는 얼마나 되였는가? 이런 일은 마치 요즈음 민의를 우습게 알고 自稱, 指導者로 정치가라는 사람들(우린 그들에게 통치해 달라고 부탁한 일도 없었고 우릴 지도해 달라고 요청한 일도 없었는데도 말이다.) 그들은 자기를 스스로가 지도자라고 했고 정치가라고 저희들끼리 하고 있다. 그러다가 결국은 민의에 굴복하고도 노리며



특히나 준 양으로 생색을 내고 있으니 더욱 기소롭다는 말이다.

한국에서의 近代建築의 역사는 他國과는 판이하게 다르다. 젊은이들은 기성건축인이고 뭐고 따위의 말을 쓰고 있지만 예로써 우리 정치가가 지도자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이 정치교육이나 훈련이나 체험을 시간적으로 얼마나 했던말인가.

지도자나 정치가가 30~40년 정도의 시간으로도 가능할까? 건축의 기성이니 대가니 거장이란 30~40년 정도의 시간성으로 가능하단말인가? 먼저 시간의 학문이라고 하는 건축에서 시간성을 배제하고 建築云云할 수 있는가? 예를 들어 패전국이라고 할 일본의 경우만해도 패전국이라고해도 국민이 진멸했던 것도 아니고 그들의 건축의 역사적인 전통이니 선후배의 관계나 학교의 유치상황이나 서적이니 연구자료의 보유량등은 우리의는 비교되지 않으니 선후배나 기성이니 따위의 말이 성립될 것이겠지만 우리의 경우는 일제하에 일본인들 밑에서 눈치나 보다가 해방이 되었다. 다시말해서 한국의 근대건축에서는 기성도 신세대도 없다. 출발선을 그어놓고 老少가 동시에 준비, 출발! 식의 육상경기처럼 시작되었다. 더우기 학교의 장비문제, 교육제도문제, 교원의 확보문제등에서 생각하고 공부하고 열심히한 자가 앞설 수 밖에 없었던것도 사실이고 운 좋게 외국에 나갈 수 있었던 소수도 美軍駐屯下의 軍事建築(흔히 2'x4'建築이라함)을 求景하다가 서서히나마 시간이 흘러서 외국 건축서적에 접하게 되고 Time Siver 나 Grapic Stander 정도나 그후 일본에서 흘러 들어 온 신건축 정도로 정보나 사진을 보고 지냈을 뿐이다. 그후 A + U 니 기타 국제건축등의 잡지류에서 서서히

건축서적이라고 외국건축서적이나 일본서적에 접하게 되어왔다. 더우기 국가혼란기라 건설분야가 활발했던 것도 아니고 주택이래야 재래 일본식의 흉내내기나 해왔던 것이다. 그동안 정치나 사회의 혼란이나 6.25등등 해아릴 수 없는 過度期的 混亂 속에서도 서적은 어떤 경로를 거쳐서든 입수되었다. 가소로운 이야기는 모설계 사무실에서는 신건축 잡지를 펴놓고 "이번 Project 는 이 사진대로 하자"식으로 건축에서의 Elzvation 의 결정은 창의도 아닌 模寫를 해서 "멋진 건물이다"라고 평가를 받는다 하면 어떤 현상설계의 당선작이 외국잡지의 것을 그대로 모방해서 훌륭한 예도 한두가지가 아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은 건축이란 그 사회상 속에서 생성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볼 때 당연한 사건들이라고 치드라도 이제와서 그 문제를 일기할부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다. 다만 우리의 근대 건축사의 정립이 안된 이 마당에서 흘러간 시간대 속에 속하는 되돌아킬 수 없는 어떤 한나라의 건축의 초창기에 있었던, 또 있어야 했던 과정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보아야겠다.

근자의 우리의 사회상황은 위의 상황과는 천양지차가 있다. 외국에서 공부하고 귀국한 많은 사람들이나, 국내에서의 학교가 서서히 정비되어 修學한 학생들이나, 각종 루트로 수입된 외국서적들이나, 전체국민들은 건축에 대한 의식개념, 이해와 더우기 국내의 건설분야와 보조를 맞추어 활발해진 건축계의 활동상이나 건축재료의 생산과 건설분야의 외국진출 등 국제적사정과의 연관성등 이루말 할 수 없을 정도의 變化向上은 외래인들로 하여금 신화적 발전이라고 평을 받을 정도이고 국내의 고속도로나, 중공업등 급속한 (우리도 놀랄만큼)개발이나 발전은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다.

외국에 의존하고 외국에 동경하고 외채를 얻어서까지도
우린 땀을 흘린 것이 오늘의 G.N.P 요 수출축자인
것이요, Olympic 유치도 전반적인 조건에서 얻어진
것이지 누가 그냥 갖다준 것은 아니다. 5.16등의
대사건이나 사회적인 놀라운 사건도 많았지만 그래도
용케 슬기롭게 극복해 왔다. 그 좋은 예가 바로 서두에
말한 최후의 일보적전에서의 기적같은
정치문제해결이라고 보아야겠다. (외국인의 말을
빌리면), 건축에선 전기한 바와같이 이 명언들이 많다.
“건축은 그 사회상황 속에서 생성되는 것이면서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되지 않는다”라는 말대로 그 사회의
以下라고해도 현실적인 우리 사회상황의 以下란 뜻이
되겠지만 그 수준이 할지라도 東南亞, 中南美의
最上보다도 優位라고 자부할 정도라면 그것으로도
족하다. 그 이하로는 내려갈 수가 없을 뿐더러 그
이상으로 올라갈 확률이 너 무시되기 때문이다. 그
증거로서는 우리의 젊은 건축가들은 이 정도에서도
불평이 있다. 曰 建築情報不在, 建築書籍不足,
建築評論不在 라고 한다. 이것은 지나친 욕심인 것만
같다. 過剩된 의욕이라고 보아야 옳을 것이다.
建築情報는 각종 매스컴으로 범람해 있다. 建築書籍은
언어의 장애는 있다해도 購賣力분제이지 얼마든지
있다. 評論不在는 우리의 評論專攻이라든가 외국의
평론에 적용이 안되어 있을 뿐더러 발표력이나 문장력에
관한 분제이지 각자 나름의 평이나 의견은 충분히 있다.
오히려 이 세가지 不在니 不足이란 너무도 범람해
있어서 각자의 선택에 혼란이 있을 정도이니 결국은
不在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마저 든다. 우린
매일같이 직접 우리에게 불필요한 정보마저도
강요당하고 있다고 보아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우리가
저 태평양 건너의 흑인 가수나 배우들의 체격 Size 나
사생활까지도 강요받을 이유야 없지 않겠는가. 요는
각자에게 필요한 정보의 선택에 우린 더욱 곤욕을
치루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에게 직접 필요도 없는
정보인데 말이다.
건축가는 傲慢할 정도로 자기 나름의 건축관을 가지고
있다. 각자는 자기의 작품을 만족(대개의 경우는
솔직하게 불만족하면서도)한다. 그리고 남이 自作을
자랑하면 속마음으로는 픽 웃는다. 표면에 나타내지는
않지만 말이다. 필자 자신도 그런 경험을 몇번인가
가져본 일이 있다. 도대체 건축에 어떤 이 이상 더
훌륭한 것이 없다라는 규정이나 표준같은 것이 있을까?
물론 나라면 저렇게 하겠다 정도의 의견이야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도 절대는 못되는 것이다. 우린 가끔 국제

건축가는 傲慢할 정도로 자기 나름의
건축관을 가지고 있다. 각자는 자기의 작품을
만족(대개의 경우는 솔직하게 불만족하면서도)한다.
그리고 남이 自作을 자랑하면 속 마음으로는
픽 웃는다. 표면에 나타내지는 않지만
말이다. 필자 자신도 그런 경험을 몇번인가
가져 본 일이 있다. 도대체 건축에 어떤 이 이상
더 훌륭한 것이 없다라는 규정이나 표준같은
것이 있을까?

현상설계작품의 당선작이나 입선작을 볼 때가 있다.
그럴때 작품이 어떻게 당선될 수 있었을까?”,
“야— 이걸 과연 대단한 역작이구나”, “당선작보다
입선작이 더 좋아 보이는데” 등등의 생각을 가지는 때도
있다. 이럴때 내가 심사원이 될만한 자격이 없었으니까
심사위원들이야 저명한 건축가들일 터이니깐 그런가보다
(이건 내 자신이 자신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어떤 작품이 (그 다양복합한 요구조건이나 응모규정을
몰라도) 완전무결한 최상의 그 이상은 있을 수 없다라는
작품이 건축에 있을까? 만일 그러한 일이 있다면
건축이란 학문의 의미는 우습게 될 것이다. 그 최상의
것만 잘 이해하고 그것대로만 하면 된다는 이론은
성립될 수 있다. 때문에 건축이란 무한으로 이어지는
시도의 연속이요 시도의 진행형이라고 하지 않은가,
건물 하나하나를 평한다해도 그 결과는 동일한
것이되겠으나 그 건물의 건축주(發注者的의
決定權者)의 간섭이나 의견 역시 두통거리인 것이다.
그들은 당연히 “내돈 내고 내가 쓸 나의 건물을 왜 내
마음에 맞게 할 수 없어”라는 論調이다. 그래도 그들은
위탁한 건축가에게만 그런 행동을 할 뿐이다. 그들이
病이 나서 病院에 가서 專問醫의 진단을 받고 처방을
해주면 일언의 불평도 없이 순종한다.
그들이 만일의사를 건축가와 동일하게 대한다면 내
병인데 내가 먹고싶은 약이나 처방을 해 달라”고 할텐데
그렇게는 하지 않는다. 이유는 간단하다. 그가 건축에
대해 알고있는 저속한 상식보다 病이나 建康에 대한
상식이 없다는 점과 병은 직접적으로 고통을 참을 수가
없다는 점을 들을 수 있다. 그러나 건축은 그 상황이
고통과 다름뿐아니라 오히려 더 안락하고 즐기며
생활하겠다는 정반대의 입장에 있기 때문이라고
보아야하겠다. 醫療費와 設計費의 문제도 거의 같은



意味內容에서 일어나는 말썽임에 불과하다. 서두에 巨匠이나 先人들의 建築에 관한 명언이나 명구를 들먹였다. “좋은 平面은 좋은 立을 낳는다.” “形은 기능에 따른다.” “건축은 멀리서보면 대체로 아름답고 가까이가서 보면 대체로 醜하다.” “건축은 사용목적 이전의 造型이다.”, “黃金分割은 아름다운 것이다.” “모방이나 표절은 건축제작에 대한 모독이다.”, “건축의 생명은 純粹에 있다.”, “건축은 오직 裝置에 불과하다.”, “작가의 個性이나 思想이 깃들여 있지 않는 건축은 건축이 아니다.”, “국제불명, 주소불명의 건축은 장난이다.”, “奇怪는 奇怪일 뿐 건축이 될 수 없다.”, “표현의 자유는 무제한한 것만은 아니다.”, “건축엔 完全無缺이나 節對傑作이란 없다.”, “건축이란 무한으로 이어지는 試圖의 연속일 뿐이다.”, “건축은 창작이라고 우겨도 결국 連想에서 생성된다.”, “건축은 글이나 말을 하는 것은 아니다.”, “건축은 社會의 產物이지 건축주의 소유물만은 아니다.” “건축은 건축주만의 使用이라 보는 것만은 아니다. 만인이 보고 느낄 수 있고 즐길 수도 있다.”, “건축은 模倣의 一種에 불과하다.”, “동일한 건물도 核과 群에서 의미가 달라진다.”, 平面이 아름다우면 立面도 아름답기 마련이다.”, “입면이 아름다우면 평면도 아름다워진다.”, “건축은 機能的이어야 한다.”, “제 아무리 유능한 건축가도 그의 全盛時代에 한 두개의 傑作이 나올 뿐이다.”, “건축은 새로워야 한다.”, “건축은 상품이 아니므로 新舊가 자연스럽게 공존할 수 있다.”, “현대 건축은 設備가 그 건물의 性格이나 價値를 결정시켜준다.”, “표현은 사실보다 과장되게 마련이다.”, “어떤 물질도 건축의 자료가 될 수 있다.”, “주위환경과의 對照나 調和는 사실 의미가 없다.”,

“대지의 평당설은 경제력이 판정할 일이다.”, “마감이 曖昧한 곳은 보이지 않게하라.”, “新材料와 構造는 건축을 변조시킨다.”, “造型의 의인화나 의물화는 자신이나 능력이 없을 때 하는 일이다.” “각종 주의나 사조는 전체건축에 통용되지 않는다.”, “복고나 회고조는 기발의 추구에 불과하다.”, “건축에 표현이나 설명이나 이유는 변명에 불과하다.”, “건축은 일종의 건축가의 자기 위안이요 공지에 불과하다.”, “건축에서의 主從은 확고한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다. 건축의 각부 독립성이란 건축에 관계되는 일이 아니고 사회생활양식에서 요구되는 일이다.”, “다목적이란 경제용어이지 건축용어는 아니다.”, “건축은 인간생활의 그릇이요 장치일 뿐이다.”, “건축에서의 시간성이란 模糊해 간다. 利潤追求가 우선해 가기때문이다.”, “용도나 사용목적 없는 건축도 건축은 건축이다.”, “조형물과 건축의 구별은 할 수가 없다.” “미와 감각의 혼동은 현대의 상식이다.”, “문화와 예술의 구분은 언어적으로 구분할 수 없다.”, “예술과 기술과 기능창조의 구분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表現主義와 象徵主義와의 차이는?” 各樣의 主義나 樣式은 그것으로 건축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으로서 그것을 표현하는 일이다. 인간은 아니 건축가들은 자연과 건축을 강조하면서도 실제로는 건축에서 자연을 等閑視한다. 건축이란 실제의 건축보다도 時間性이 더욱 건축에 의미를 부가한다. “건축이란 계획도면의 창작에서 제도판 위의 도면과 본인의 대결이다. (적절한) 건축가가 승리하면 그 도면은 살아 움직이고 건축가가 패하면 그 도면은 무의미한 紙片이 된다.” 결국은 건축이란 視覺的인 것이 된다. 이것은 存在와 生存과의 관계와 흡사하다.

〈다음호에 계속〉

韓國近代建築의 再照明(3)

金晶東

북원대학 건축학과 부교수

Serial/A Study on the Modern Architecture of Seoul
by Kim, Chung-Dong

目 次

- ⑦ 施病院
- ⑧ 英國公使館
- ⑨ 獨立門
- ⑩ 프랑스公使館
- ⑪ 明洞聖堂
- ⑫ 貞洞第一敎會
- ⑬ 梨花學堂 本館
- ⑭ 韓國電氣公社
- ⑮ 獨逸領使館邸
- ⑯ 尚洞敎會
- ⑰ 協律社
- ⑱ 紀念碑閣
- ⑲ 손탁호텔
- ⑳ 세브란스紀念病院
- ㉑ 勝洞敎會
- ㉒ 龍山停車場
- ㉓ 徽新 웰스紀念堂
- ㉔ 벨기에領使館
- ㉕ 新文館

13. 梨花學堂 本館(Main Hall)

위 치: 貞洞 20
 착공년월일: 1887
 준공년월일: 1889. 12
 실 계 자: 미국인+沈宣錫
 시 공 자: 沈宣錫
 건축규모: 구 조: 벽돌조
 층 별: 지하, 지상2,
 대지면적: 6,120평
 건축면적: 평
 연 면 적: 평
 보존 상태: 1950년 6. 25동란시 폐쇄

1886년 5월 31日 미국 北監理敎의
 宣敎師 M.F.Scranton 은

▼ 1890年代, 梨花學堂 韓屋校舍(1887~1896)



「梨花學堂」을 설립했다.
 貞洞의 Scranton 의 집에서였다.¹⁾
 Scranton 부인은 이미 1885년 가을에
 6,120평(5에이커해당)의 땅을
 사들였는데, 그 안에는 큰집 한 채와
 작은집 18채가 있었다.²⁾
 그는 이 터를 이용 女學堂을 개설한
 것이다. 이로써 韓國 女性 敎育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明成皇后는 1887년 가을 이 學堂에
 「梨花」라는 校名을 下賜했다.³⁾
 학당의 신교사는 이 때부터
 필요해졌다. 초기 韓屋교사는 길이
 약88 feet, 넓이 80 feet 의
 “C”자형으로 설계되었다.
 外署督辦 金允植의 도움으로 조선인
 목수와 일꾼들이 모아졌다. 공사를
 위하여 대지 내에 있던 초가집 아홉
 채가 헐려져 나갔다.
 새 교사는 190間이 넘는 건축면적으로
 세워졌다. 공사는 10개월만에 끝났다.
 파랑개 잔디가 깔린 교정위에 축대를
 놓고 우뚝 세운 韓屋校舍였다.
 7~8개의 교실이 만들어졌다.⁴⁾
 수업은 찬송가를 영어로 배우고 예배를
 보는 정도였다.
 본격적인 梨花의 校舍群은
 西洋式本館(Main Hall)이
 세워지면서 시작되었다.
 韓屋 校舍로는 늘어나는 校勢를
 더이상 수용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10년간을 교사로 쓰던 초기 한옥
 교사는 1896년경 헐리게 되었다.
 미국에서 설계도를 가져오고 (건축가는
 未詳) 건축자재도 도입했다.



▲梨花学堂 教室. 의자의 디자인이 特徴的(植民地史)

校舎 건축은 한국인 건축가 沈宣錫이 담당하였다.

본관 교사는 1897년 착공되었다.①

尹一柱는 이 건물에 대해

「... 2층의 간소화된 Gothic 식 벽돌 건물로서, ㄷ자형 평면에 下층과 2층 일부는 Arcade 로 한 외에 별반 장식은 없고 楣式窓과 雙窓 arch 의 窓을 섞어서 쓰고 있으며 물매 급한 함석 지붕 등은 貞洞 敎會의 수법과 상통한 데가 있다...」②

고 말하고 있다.

이 교사는 1899년 12월에

준공되었다. 그러나 이 19세기 말의 유서깊은 교사는 1950년

6.25動亂으로 말미암아 파괴되어 버리고 말았다.

이 Campus 에는 본관 외에도

Simpson, Frey Hall 등이 있었다.

「Simpson Memorial Hall」은

「Main Hall」다음에 세워진 교사였다.

대지는 貞洞 30번지를 추가 확보했다.③

Simpson 기념관은 1914년 착공하여

1915년 3월 준공되었다.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세워진 벽돌조

건물이었다. 건평은 129. 5坪이었다.④

「Frey Hall」은 「손탁

Hotel」자리에 세워졌다.(貞洞

29번지) 1922년 8월 착공하여 1923년

9월 준공되었다. 설계는 미국인

Cros 가 했고 공사는 중국인 王公溫이

말았다.

건축 연면적은 716평으로 150명을

수용하는 기숙사, 교실 10개, 실험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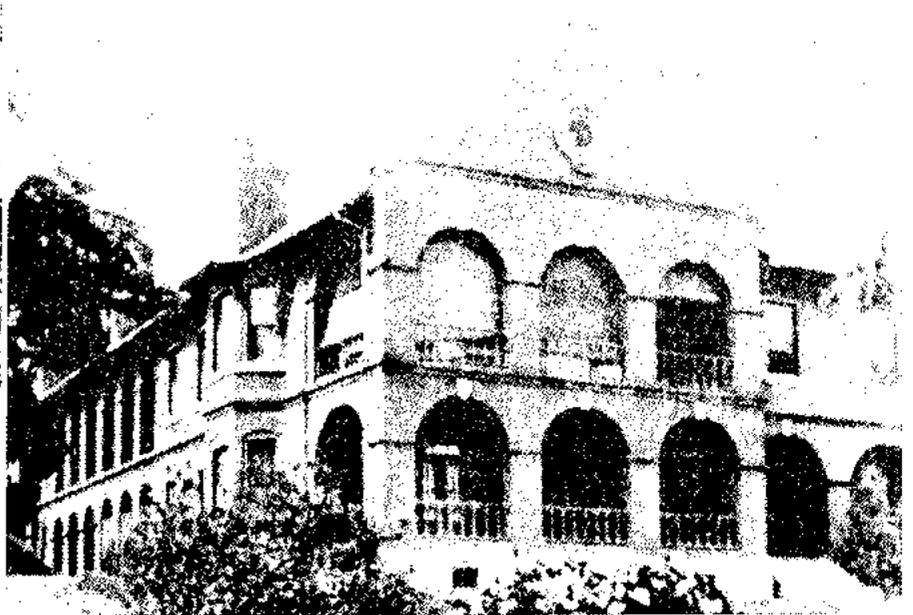
3개, 회의실 1개, 식당, 3인의 선교사

선생과 한국인 선생의 숙사, 부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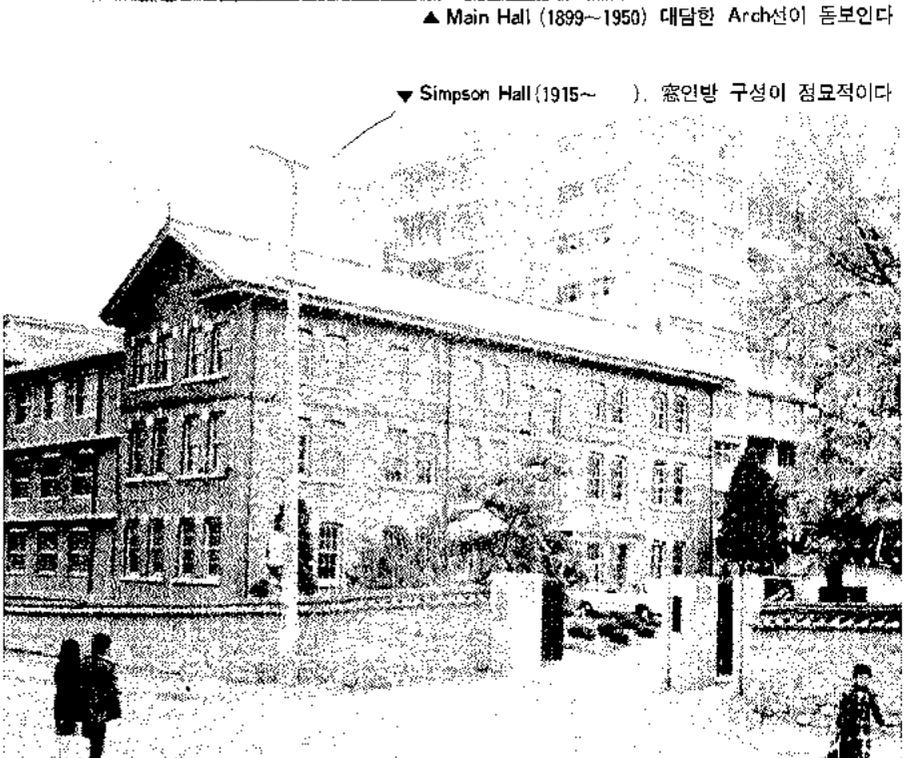
재봉실, 도서실, 사무실, 응접실이

있고 수도, 전기, Steam 시설이

완비되었던 교사였다. 이 건물은



▲ Main Hall (1899~1950) 대담한 Arch선이 돋보인다



▼ Simpson Hall (1915~) . 窓안방 구성이 정묘적이다



▼ Frey Hall (1923~1975) 지붕면 창과 굴뚝이 특징적이다

梨花女專(梨花女大)이 新村으로 옮긴 뒤, 1975년 화재로 燒失되었다.

14. 韓美電氣會社

위 치: 鍾路 2街 (長安빌딩사리)
 착공년월일: 1898. 2.
 준공년월일: 1900
 설계자: 美國人(?)
 시공자:
 건축규모: 구 조: 벽돌조
 층 별: 지하, 지상2층, 屋塔, 時計塔
 대지면적: 평
 건축면적: 평
 연면적: 198평
 보존상태: 1960년 헐림

韓國電力의 모체가 韓美電氣會社이다. 개화기의 한반도에 불을 밝혀준 크나큰 공헌을 한 회사이다.

『... 이 시대는 묘한 自家撞着의 시대였다고 특징 지을 수 있다. 외국인에게는 어떠한 이권도 주지 않는다는 내용의 勅令이 頒布됨과 때를 같이 하여 서울에 電車를 운행하고 발전소를 세우기 위하여 漢城電氣會社가 설립되었다...』^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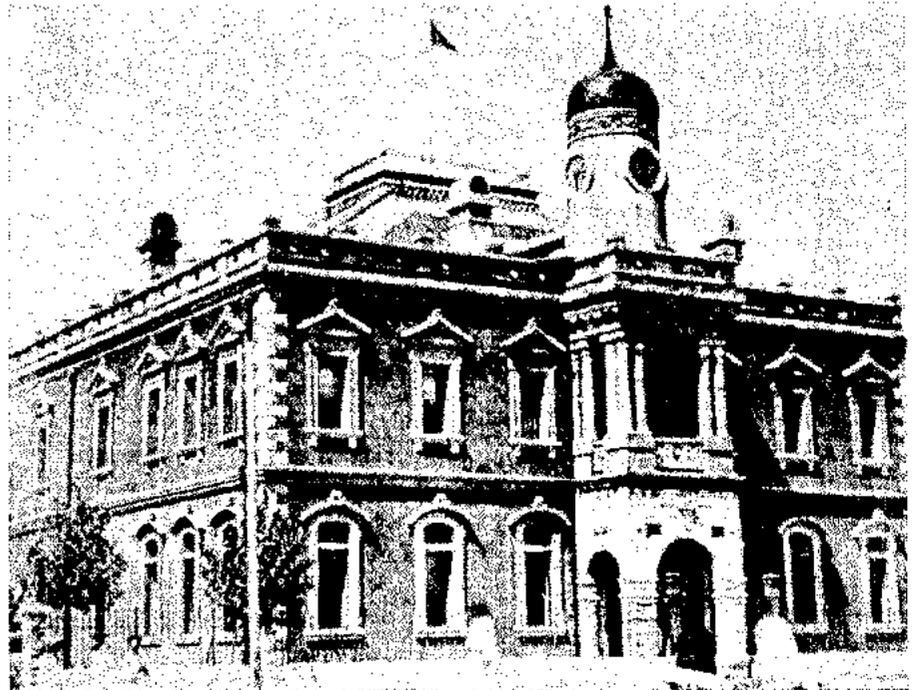
는 Hulbert 의 1906년 기록에 의하여 이 회사의 설립 의도를 살펴볼 수 있다. 회사는 1898년 2월 한국 皇室의 승인에 의해 美國인 H.Collbran 과 H.R.Bostwick 가 공동으로 추진하여 세웠다. 韓美電氣會社의 사옥 건립 년대는 Allen 이 주한미국공사와 총영사로 재임중이던 1900년으로 추정되는데^② 이는 李보華의 「京城記略」에 나타난다.^③

『... 1902년 1월 5일에 鐘路 電氣會社가 火하고 동 7월에 改建하여 종래와 如同會社의 사무소에 充用하였다...』

고 기록하고 있다.

1900년경 준공하여 2년 정도 지난 후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그 후 同形으로 다시 지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이 건물은 1900년대초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 외교관들에 의해 사진으로 기록되었는데 그중 하나의 사진은 韓美電氣會社의 공사 진행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④ 이는 建築技術史의으로도 가치가 매우 높은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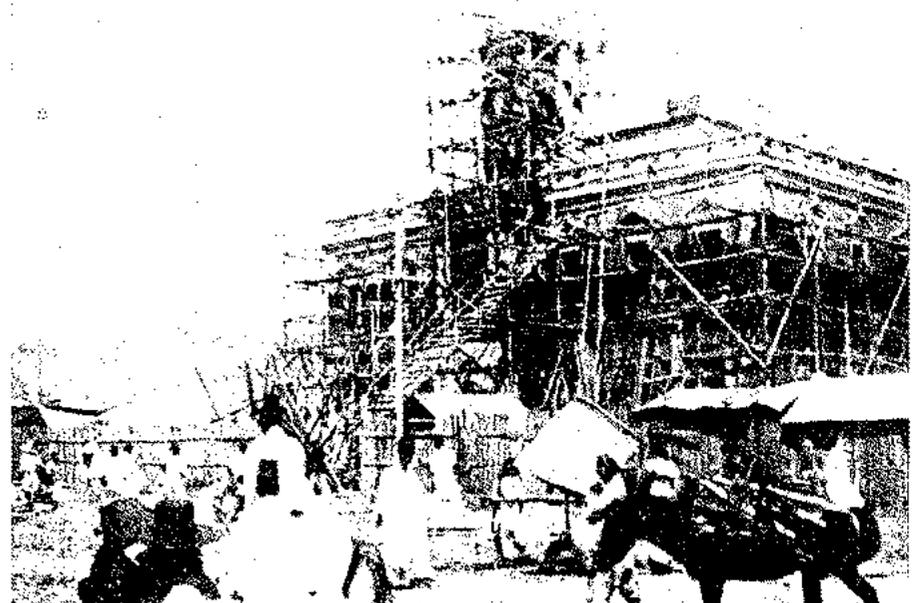
▲ 時計塔이 独特하다 (Allen, 朝鮮見聞記)



▶ 鍾路거리에서 바라본 韓美電氣會社 (韓國史大系)



▼ 工事中의 写真으로는 드물다 (Korea Korea)



◀ 和信臨時營業所, 時計塔이 사라졌다 (和信50年史)

현장이 오늘의 鍾路 YMCA 건물의 우측(長安빌딩자리)인데 거리는 매우 이색적인 모습이고 멀리 北岳도 보인다. 종로 거리는 아직 말들이 다니고 있는 정도였다. 한적하고 풍요로운 모습이다.

목재 飛階사이로 준 단계에 있는 건물의 모습이 보인다. 본체 위로 지나치게 과장시킨 Drum형 時計塔도 보인다. 이 건물은 벽돌조 2층의 소규모 건물이나 실제로 건물은 더 커 보이고 웅장하게 느껴진다. (전체 면적은 198坪 정도였다.)

그것은 석재 Arch 로 강조된 들출 玄關部와 時計塔을 받치고 있는 Ionic Order 의 雙柱 Balcony 부분들 때문이다.

窓門 引枋부분은 1층을 Arch 로

2층은 △으로 각각 장식하여 건물 전체에서 Renaissance 풍이 느껴지게 했다.

벽의 모서리는 Corner 石으로 교차시켰고 Entablature 부분은 석재난간으로 변형시켜 돌렸다. 지붕의 중앙부는 들어올려 또 하나의 건물을 세운 기분이다. 골뚝도 하나의 意匠材로 쓰였다.

이 건물은 1900년대에 가장 훌륭하고 아름답게 세워진 西洋館의 하나였다. 설계자, 시공자는 모두 未詳이다.

이 건물은 1915년까지는 韓美電氣會社의 社屋으로 쓰이다가 한미회사가 일본인 京城電氣會社로 넘어간 이후로는 鍾路警察署에서 임시로 차용하였다.

종로경찰서는 1929년 8월까지 이

건물을 사용하였다.⑥

한민족의 怨府가 되었던 鍾路警察署로 쓰여질 때이던 1923년 1월 12일, 金相玉 義士의 投彈으로 건물의 일부가 파손되기도 했다.⑦ 1929년 이후는 遞信局 簡易保險課가 쓰게 되었다.

이 건물은 1935년 和信百貨店이 빌려 和信의 임시 영업소로 개수되었다.

「... 개점장소 문제를 해결한 和信에서는 즉시 시대에 있는 한국인 목수, 중국인 목수, 일본인 목수 할 것 없이 동원 가능한 수대로 투입하여 건물 안팎의 개보수작업 및 상품 Case 의 신조작업을 진행시켰다...」⑧

이 건물은 그 후 6.25로 인해 파괴되었다.

그 자리에 長安빌딩이 들어섰다.⑨



▲ 獨逸領事館에서 南大門이 보인다(마당 1985. 1.)



▲ 北洞(수송동), 첫 領事館(빌런도르프)

15. 獨逸 領事館

위 치: 尙洞(南倉洞)

착공년월일:

준공년월일: 1901. 3

설 계 자: Swiss 인(?)

시 공 자:

건축규모: 구 조: 벽돌조

층 별: 지하, 지상2층, 屋塔

대지면적: 평

건축면적: 평

연 면 적: 252 평

보존상태: 1970년경 헐림

「... 다음날 나는 燕尾服과 보자를 높이 쓰고 인력거를 타고 獨逸領事館으로 향했다. 領事館은 高地에 자리를 잡고, 높은 담에 둘러싸여 있었다. 정돈이 잘된 길이 정원 사이에 나있었으며 길이 끝나는 곳에 벽돌로 된 아름다운 건물이 한 채 서 있었는데 이 건물이 바로 領事館邸였다...」⑩

지금으로부터 80여년전 露日戰爭에 종군했던 Sweden 기자 아손 그랩스트는 우리나라에 입국, 서울을 여행하던 중 당시의 駐韓獨逸領事館(German Legation)을 방문, 그 건물을 본 기록을 斷片으로 남기고 있다. 그 기록은 다음과 같이 계속되고 있다.

「... 그는 領事館내에 멋진 집을 가지고 있었고... 領事는 그의 집과 庭園에 대해 커다란 긍지를 가지고 있었다. 나를 이곳 저곳으로 끌고 다니며, 있는것, 없는것, 모두를 보여 주었다... “우리 領事館이 있는 동네는 尙洞(Sang-dong)이라 하는데 400여년 전에는 다섯개의 궁궐이 있는 동네라는 뜻으로 五宮關(O-gung-kol)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요.”...」⑪

우리나라 정부는 高宗 20년(1883. 10. 27)

英國, 獨逸과

“修好條約·通商章程”을 조인했다.

이에 따라 독일은 서울에 영사관을 설치하게 되었다.

최초의 영사관은, 당시 總稅務司 顧問이었던 Möllendorff (木혹은 穆參判으로 불리기도 했다)에 의해 알선이 되어 그가 살았던

집(Möllendorff's House) 이었고, 그 후 여러 곳을 이전하게 되었다.⑫

1901년 3월에는⑬ 南倉洞에 대지를 매입, (연세대학교에 소장되어 있는 지도의 위치) 붉은 벽돌조 2층 연건평 252평의 건물을 지었다.

입면은 수평선을 강조하기 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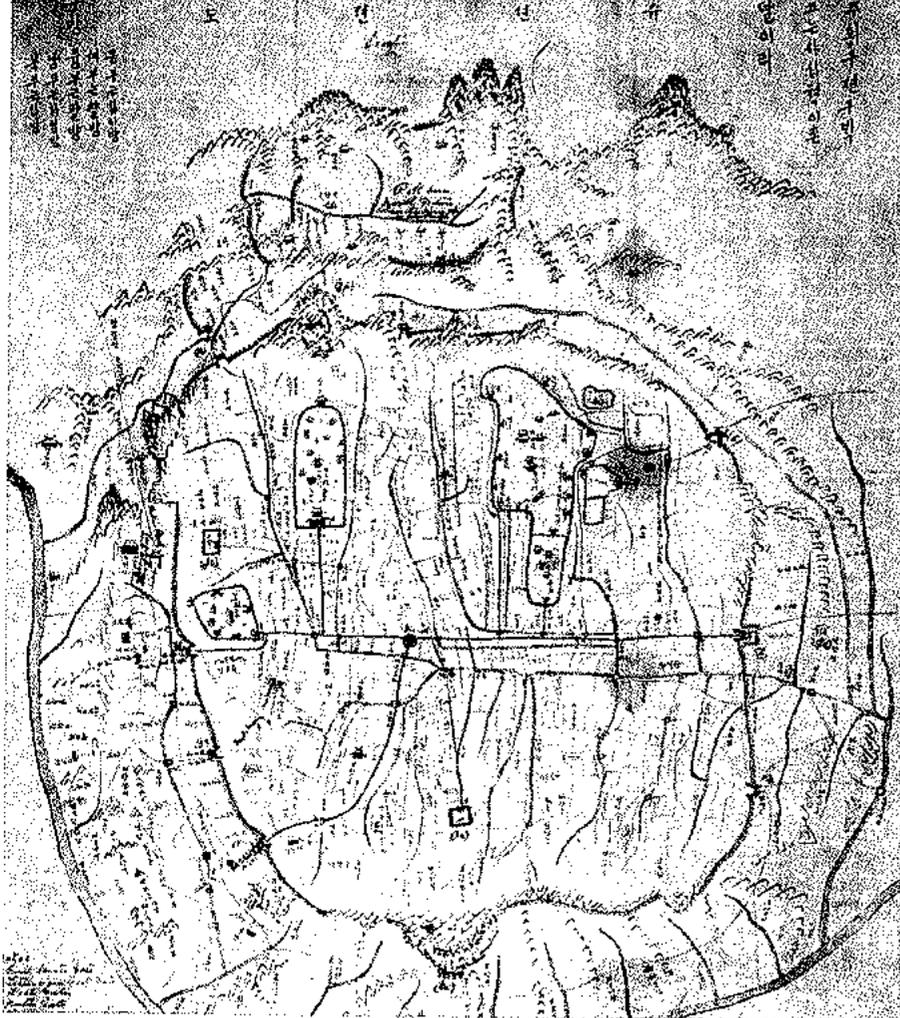
Band 를 썼고 2층 위 지붕에는

Pediment 를 두어 안정감을 주었다.

노출형 골뚝이 평면의 중앙에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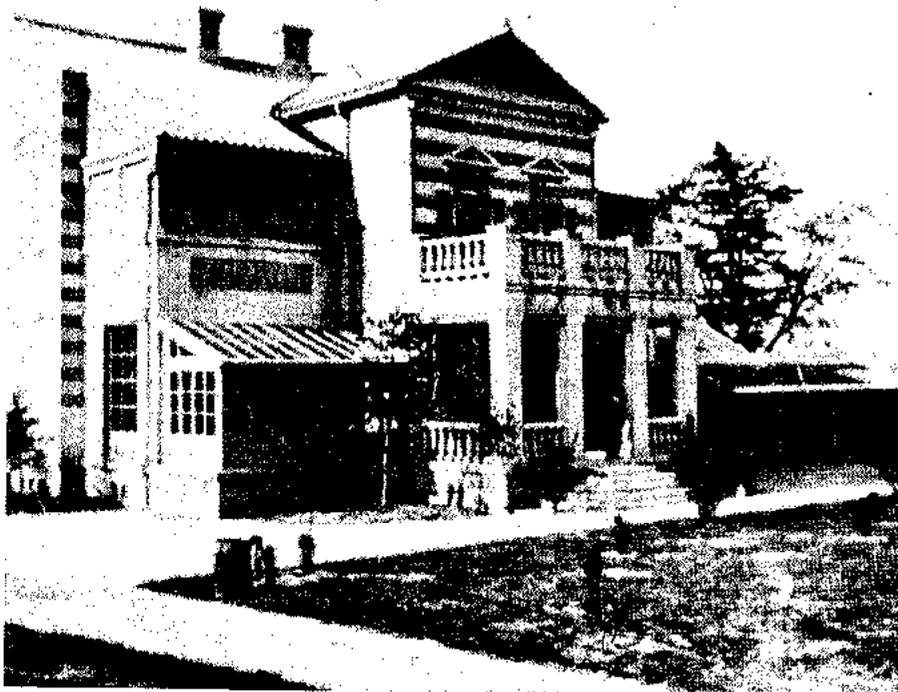
Fire Place 를 설치한 것으로 볼 수

首善全圖



首善全圖 (Seoul), 獨逸領事館 및 各國 公使館들이 표시되어 있다. ▲
宣教師들이 한글과 영문으로 位置를 적어놓았다. (延世大 博物館, 900×645)

領事館 正面部 (최인진) ▼



있다.

本館 面積 252평은 당시 규모로는 비교적 큰 것이었다.

Georgian시대 (Colonial시대) 住宅風 建물의 典型이라 할 수 있다. 사진에는 別棟으로 하나의 부속 건물도 보인다. 그러나 1905년 乙巳條約이 체결되자 獨逸領事館은 철수하였다.◎

그 후 영사관 건물은 日帝의 京城俱樂部로 사용되었고 일제 말부터는 남대문 세무서로 사용되어 오다가 1970년 경에 민간에게 불하되어 헐려버렸다.

하나의 훌륭한 外交史的 가치가 있는 건물이 헐린 아쉬움이 크다.

16. 尚洞教會

위 치; 尚洞 (南倉洞 1번지)

착공년월일; 1900. 7. 30

준공년월일; 1901. 5. 12

설 계 자;

시공자; 沈宣錫

건축규모; 구 조; 벽돌조

층 발; 지하, 지상1층, 옥탑, 鍾塔

대지면적; 평

건축면적; 평

연 면 적; 평

보존상태; 1974년 헐림

尚洞教會는 尚洞病院教會로부터 시작되었다.

1900년 7월 30일 모퉁이 돌(隅礎石)을 놓은 이 교회당의 터는

M.F.Scranton (施蘭敦)이 1889년부터 尚洞病院으로 사용했던 곳이다.◎

尚洞教會가 세워진 지역의 원래 이름은 南倉洞으로 宣惠廳의 창고가 있던 곳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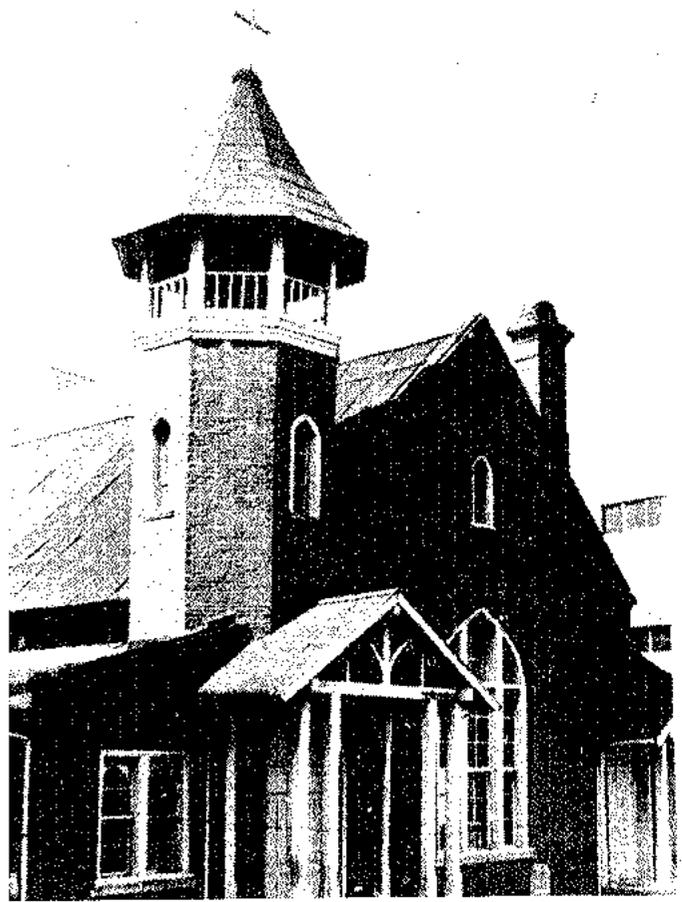
그러나 스크랜튼이 尚洞에 자리를 잡고 의료 선교를 시작했을 때에는 이미 宣惠廳의 창고도 대부분 없어졌고 그 울창한 숲도 사라진 후였다.

교회는 1893년에 설립됐으나 이제 신건물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 그 후에 畫工의 繪堂 圖形넨 거슬가지고 離距을 시험하니 기리가 부족할 듯한지라 그런고로 열 석자를 더 느리기로 작정하니라 옛때까지 大韓敎友가 이 집짓는 일이 연보할 틈을 엿지 못하였더니...(中略)... 모퉁이 돌



教會의 地下室, 海牙密使事件의 場所性이 있다! 尙洞教會 90年史! ▲
鐘塔의 線이 特徵的이다! 尙洞教會 90年史! ▶



뜻는 목사들은 아편설나와 施蘭敎이오 이 會堂 짓는 일 맞흔이는 심의석이오 간역하는 이는 박원식이오...」⁹⁾

1900년 7월 30일 기공된 교회는 이듬해인 1901년 5월 12일 (主日 아침) 奉獻式을 舉行함으로써 韓國 教會 建築史에 또 하나의 획을 긋게 된 것이다.

건물은 전체적으로 折衷樣式을 따르고 있고 평면은 좌우 대칭이다. 정면은 塔形 鐘塔으로 변화를 주었다.

Brattice의 종탑은 8각형으로 변형되었는데 Top 부의 Cap이 아름다운 曲線美를 보여주고 있다. 탑은 계단으로 오르게 하고 Arch 형 창문을 뚫었다.¹⁰⁾

박공 지붕의 Pediment는 단순화시킨 Arch 창을 Point로 두었다.

가느다란 굴뚝과 굵은 종탑은 서로 수직선을 대비시켜 상승감을 주어 교회의 상징적 요소가 되도록 했다.

정면부에 있는 1개의 Arch 창은 비교적 큰 Four-Pointed Arch로 그 Window Tracery는 한국적인 창살 형태로 단순화되었다.

건물 진입부는 木骨 Truss를 내달았다.

주재료는 질고 붉은 벽돌로 치장했다. 당시 이 교회는 장안의 명건물의 하나가 되었다.

또한 상동교회 지하실에서는 海牙密使事件(1907년)이 모의되어 독립운동의 장소성을 함께 갖게 되었다.

그러나 교회당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훼손되어 갔다.

「... 1901년에 완공된 우리 예배당건물은 20여년이 지나는 동안 큰 수리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페인트도 낡고 지붕과 천정도 헐어지고 입구 가까이 마루도 많이 상하였다. 보기에도 초라하였다...」¹¹⁾

따라서 교회는 손질을 하게 된 것이다. 일본의 패망이 질어가던 무렵인 1944년 3월에 이르러 일본은 교회의 문을 닫게 하고¹²⁾ 그들의 전쟁 자금을 확보키 위해 교회 건물까지 매각토록 했다.

해방과 함께 尙洞教會는 새로운 교세를 확장해 나갔다. (1973년 1월에는 자발적인 재개발 사업을 벌여 교회를 헐고 1977년 새 건물을 세웠다.)¹³⁾

17. 協律社

위 치: 新門路 1가 58-1.16, 18일대

착공년월일:

준공년월일: 1902. 8

설 계 자: 李採淵 (?)

시 공 자:

건축규모: 구 조: 벽돌조+목조

층 발: 지하, 지상 2층, 옥탑

내지면적: 평

건축면적: 평

연 면 적: 평

보존상태: 1914년 燒失

“社”의 의미가 「寺」나 「會社」에서 온 것 같은 착각이 드나 1900년대의 “社”는 「劇場」을 의미하는 용어였다.

團成社, 長安社, 演興社 등이 모두 극장이었다.

그 후 일제 시대에는 “座”라는 말로 바뀌 불려졌다.

한국 최초의 극장은 1902년 8월에 세워진 宮內府 소관의 協律社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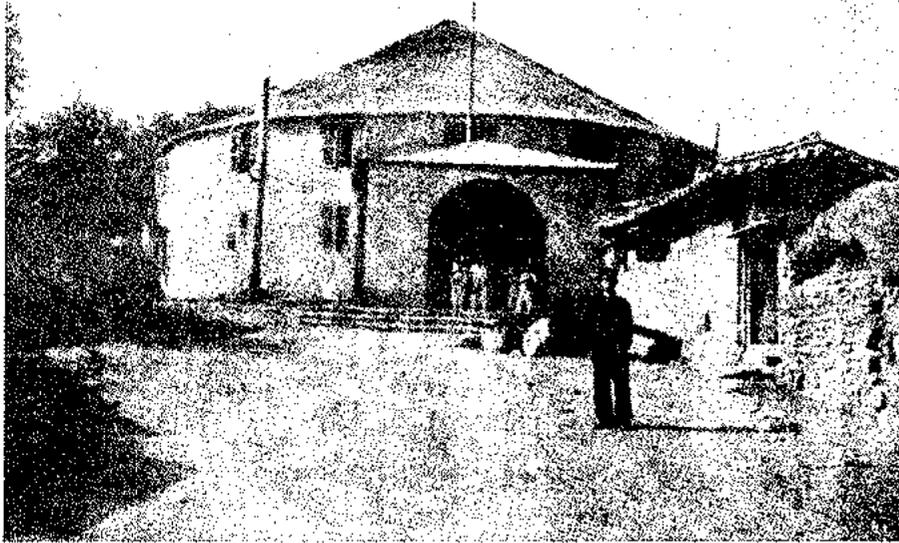
「... 가난한 城人들에게는 학교보다도 극장이 더욱 필요했다. 왜냐하면 극장은 그들에게 무엇인가 회상의 대상을 주고 여흥에 대한 갈망을 충족시켜 줌으로써 잔 재주나 부리는 것을 막을 수도 있을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던 중에 반외국식 극장이 문을 열었다.

그리고 이 곳에는 손재주나 즐타기가 무용과 무연극으로 바뀌었으며 자리값만 가지고 있으면 지위 높은 사람과...」¹⁴⁾

Allen의 기록에 의하면 이 극장이 半外國式 극장으로 나타났는데, 그 시설, 규모면에서 이른 바 현대식 극장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演戲場級의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皇室에서 직접 관여했고 개화 초기의 무대가 갖춰진 옥내



協律社(圓覺社)의 平面形은 圓型이다(李杜鉉, 韓國新劇研究) ▲

극장이었다는 의미에서 가치가 매우 높은 것이다.^⑩

이 극장의 위치에 대해서는 여러 장소 설이 있으나, 白淳在는

『... 圓覺社 劇場의 위치는 다른 곳이 아닌 지금의 新門路 파출소 건너편의 셀석유회사가 들어있는 빌딩(구 救世軍 本營자리)의 뒤에 자리잡았던 곳이 곧 원각사 극장의 위치임을 분명하게 밝혀줄 필요가 있다...』^⑪

고 결론내리고 있다.

이곳에는 이미

官人俱樂部(軍人會館) 건물이 있었는데 여기에 演劇場을 시설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協律社는 1906년 4월에 “홍행이 저속하고 난잡하다”는 守舊的 관료들의 반발에 밀려 門을 닫게 되고 말았다.

그러나 1908년 7월 같은 건물의 내부를 개수하고 이름을 圓覺社로 바꾸었고 대중들에게 연극 전용 극장으로서의 모습을 다시 보이며 幕을 올렸다.

본격적인 私設 극장 시대의 시작이었던 것이다

그것은 「銀世界」의 작가 李人植이 황실로부터 극장을 대여받음으로써 비롯된 것이다.

이 곳에서는 唱과 新劇이 함께 공연되었다.

協律社(圓覺社) 건물 자체는 지금 봐도 매우 Modern 하다.

원형 평면에 원뿔형의 지붕 모양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붕은 회색 양철 지붕으로 덮여

내렸다. 圓覺社는 마치 Rome 시대의 Pantheon 을 보는 기분이다. (AD 120-124).

특히 전면의 4각형 현관부의 모양이 더욱 類似하다.

이 건물에 대한 2차 자료^⑫ 들을 종합하여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극장은 붉은 벽돌조 2층으로 지어졌고, 東南 쪽으로 정문(玄關)을 두었다.

매표구는 그 곳에 근접했다. 내부 평면은 1층에서 무대를 전면으로 두고, 계단식 좌석과 평석(일반석)으로 구분했다. 중앙부는 Open 됐다.

좌석은 電車の 의자처럼 형으로 뻗어 있었다.^⑬ 남녀는 유별하여 따로 칸을 막았다.

매점, 喫茶所, 변소, 신발장 등을 주변에 두었고 무대 뒤로는 소도구실, 의상실도 마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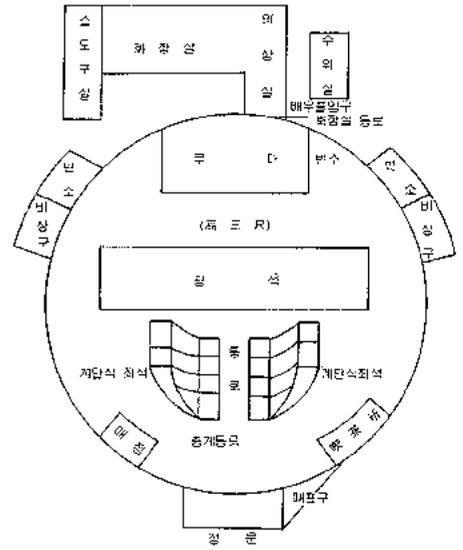
2층은 전부 특석으로 두었다. 관객 수용 능력은 600~1,000석, 당시로는 비교적 큰 규모였다.

북측에 있는 무대를 중심으로 三方의 관객시야를 톤 것은 計劃 各論의이다. 평면은 flat 가 아니고 step 식이었다. 즉 전열에서 후열로 점차 높아지도록 되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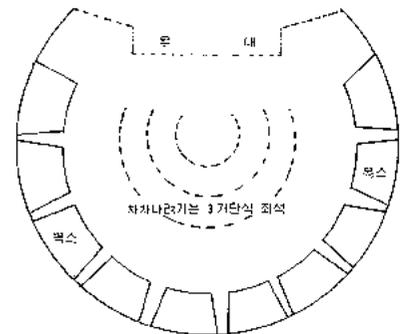
내부는 모두 목조로 되어 있었다.

사진의 전신주로 보아 내부는 이미 진기 시설이 완비되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이 극장의 建築設計者, 施工者는 未詳이다.

『... 단지 이 훌륭한 극장이 누구의



劇場舞台 1層 平面圖(原典, 尹白南) ▲
2層 平面圖 ▼



설계에 의해서 건축 됐느냐에 대해서는 분명치 않지만 이를 말설한 사람으로는 尹白南을 들 수가 있다.

그의 말에 의하면 당시 漢城判尹이던 李採淵의 建築案이라 하고 있는데 그는 서양 건축에 몹시 조예가 깊었다 하니, 圓覺社 극장 건축도 그가 관여하였기에 가능한 인물로 등장시켜 볼 수도 있을 것이다...』^⑭

圓覺社는 1909년에 들어서면서 문을 닫게 되고 말았다.

그리고 건물은 1914년에 일어난 화재로 인하여 소실되어 버리고 말았다.

이 演劇場 건물의 복원을 기대한다.

18. 紀念碑閣

위 치: 光化門4거리(世宗路142-3)

착공년월일;

준공년월일: 1902.9

설 계 자: 沈宣錫

시 공 자: 沈宣錫

건축규모: 구 조; 목조

층 별; 지하, 지상1층, 옥탑

대지면적; 평

건축면적; 평

연 면 적; 62.7m²

보존상태: 1979년 復元

高宗 即位 40年 稱慶 紀念碑閣은 한국의 뿌리깊은 전통과 물밀듯이 밀려오는 신문화의 접점에서 진통하던 한 시대사를 증언해 주는

Land mark 적 요소로 존립하고 있다. 또한 장소성으로는 전국의 里程元点(中心点)으로서 光化門 네거리의 한편에 입지하고 있다. 이 碑閣은 1902년 9월 沈宣錫에 의해 준공 되었는데, 이는 高宗의 强制的 耄老所(略稱, 耄社) 입소를 기념(?)하고 또한 그가 登極한지 40년이 되었다며 이를 경축하기 위해 세워진 것이다.

면적 62.7㎡의 비교적 적어 보이는 이 碑閣은 정면 3칸, 측면 3칸에 사모지붕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각면은 보는 장소에 관계없이 모두 같게 보인다.

碑閣의 내부에 세워져 있는 碑 그 자체는 거북의 형상을 하고 있으며 등 위는 龍頭머리로 조각했다. 그 碑의 표면에는 “大韓帝國大皇帝 寶齡 望六旬 御極 四十年 稱慶 紀念碑並序”라는 글이 새겨져 있다. 그 전면에는 “萬歲門” “英王六歲之書”라고 새겨진 萬歲門을 세웠다. 이 碑를 덮고 있는 비각의 지붕

모임부분에는 절병통이 세워져 있는데 그것은 陶器로 만들어져 있다.

절병통에서 내림마루로 뻗은 허리부분에는 4마리의 龍頭와 24개의 雜像을 올려 놓았다. 비각의 주출입구 萬歲門은 石材로 세워졌고 Arch 로 둘러졌는데 돌 물딩과 조각이 정교하여 그 현대적 감각이 진통적인 본 건물과도 잘 어울리고 있다. 문짝은 철격자로서 萬歲라는 문양이 새겨져 있다. 이 문은 日帝때 無知한 일본인이 부단이 훔쳐가 자신의 집에 세워놓은 바도 있다.

碑閣의 주위는 Arch 門을 중심으로 전형적인 궁중식 담장으로 둘러져 있고 정적인 내부 공간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 단아한 담장은 철거되었고, 현재는 투박한 돌 난간 담장으로 둘러쳐져 있다. 이 담장도 원형대로 복원되어야 할 것이다.

이 碑閣은 1919년 3.1운동의 한 현장으로도 사용되어 抗日的 상징적 장소성을 추가하였다.

碑閣은 1973년 전체적으로 해체하여 복원된 바 있다. (1973. 6. 21~7. 25) 현재는 碑閣의 동북쪽에 거대한 大韓教育保險 빌딩이 밀접하여 세워져 있어 작으나 아름다운 이 비각을 더욱 왜소하게 만들었다. 광화문의 Land mark 적 성격도 도시화에 의해 점점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1969. 7. 18國有로 지정)

19. 손탁호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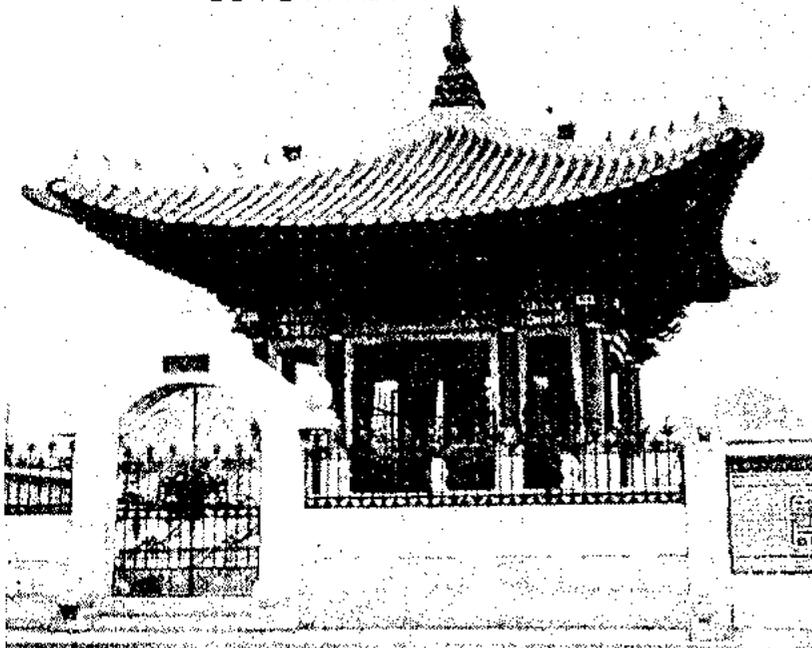
위 치: 貞洞 26번지(梨花女高內)
 착공년월일: 1902. 10
 준공년월일: 1903
 설계자: Sabatine(Russia)(?)
 시공자:
 건축규모: 구 조, 벽돌조
 층 별: 지하, 지상2층, 옥탑
 대지면적: 184평
 건축면적: 평
 연면적: 평
 보존상태: 1922년 월립

손탁호텔은 貞洞 외국인촌에 세워진 국내 최초의 西洋式 Hotel 이었다. 이 Hotel 은 손탁에 의해 1903년에 세워졌다.

中年으로 未亡人이었던 손탁은 France 의 Alsace-Lorraine 출신이었다. 그녀는 1885년 10월 駐韓 Russia 公使로 부임하는 Waber 를 따라 朝鮮에 왔다.

그녀는 웨베르의 전거로 德壽宮의 御用係를 맡게 되면서 高宗 및 高官들의 서양식 식기와 양식 실내 장식품 류의 구입에도 관여하게 되었다. 또한 Russia 공사관의 외국인집대의 일도 맡아 했다. 그녀는 高宗과 친분을 맺고

3·1運動時 紀念碑閣(韓國史大系 8) ▶
 담장이 변화되어 있다(James S. Gale, Korea in Trausition)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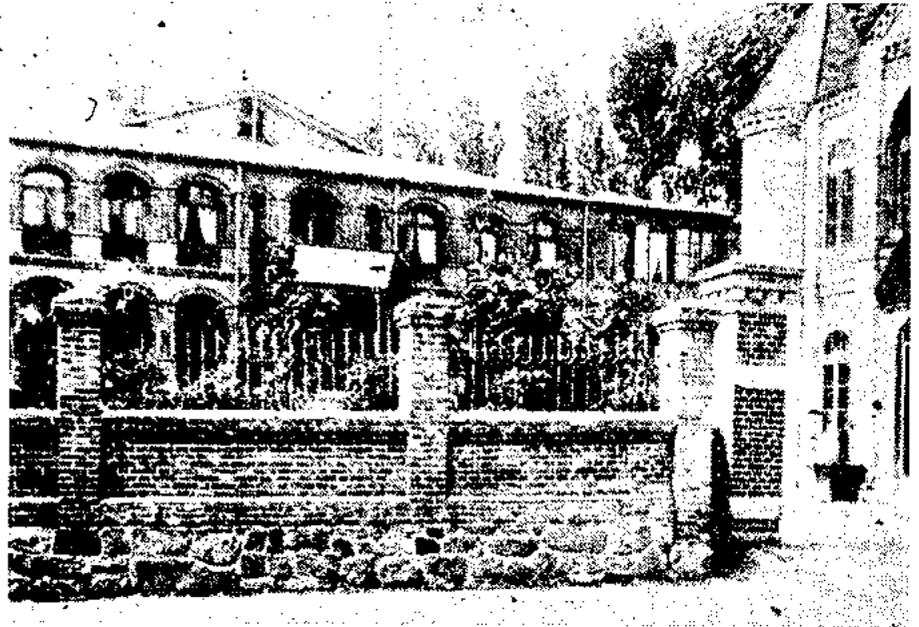




▼Arcadeer 玄閣이 정교하다 (韓國史大系, 7)



貞洞派인사들이 드나들던 호텔 (韓國史大系, 7) ▶
1987年 貞洞 Club의 Sontag. ▲
오른쪽두번째 (韓國史大系, 7)



정계이면에서 마돈나로 활약하여 오던 중 그 10년 후인 1895년 高宗으로부터 德壽宮 궁전의 일부 땅을 파격적으로 割與받았다.④
당시 그녀의 집은 외국인들의 集会所(사교적) 역할을 했는데 淸日戰爭(1894) 후에는 미국인이 주축이 되어 구성한 貞洞 Club (俱樂部)으로 이 집이 사용되면서 사교계의 중심지가 되었다. 그러다가 1902년 10월 舊屋을 헐고 그 자리에 새로 벽돌조 洋館 Hotel 을 짓게 됐다. Russia 의 建築家(시공자)에 의해 세워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 Hotel 은 1903년 준공되었다.④
서구식 설비를 갖춘 이 Hotel 의

1층은 보통객실과 식당, 다방④이, 2층은 왕궁, 귀빈들의 객실로 각각 사용되었다.
손탁호텔은 이후 韓末 各國 외교사절들과 韓末 大臣, 그리고 開化派들의 사교장이 되었다. 또한 1900년대의 서양 문물을 소개하는 대표적인 창구가 되기도 했다. 이 Hotel 은 벽면 전체를 Arcade化해 “貞洞 Russian Style”의 전형이 되었다. Hotel 은 기단을 띄우고 계단 진입토록 했다. 입면과 평면은 현관을 중심으로 좌우 완전 대칭으로 했다. 들출 현관의 상부는 Balcony 를 만들었다.
상하층의 창문선은 Ornament 로

강조했다. 창은 납작한 바스킷 핸들 형 Arch 로 하고 창사이의 벽은 기둥같이 처리했다.④
손탁은 이 Hotel 을 露日戰爭(1904)후 France 인 브엘에게 팔았다.④
그러나 1910년 韓日合併이 된 후에도 Europe 식 Hotel 로 계속 사용되었다.
이 Hotel 은 1917년 梨花學堂에 팔려 女學生寄宿所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梨花學堂에서는 (미국인 女宣教師에 의한 판단으로) 이 외교사적 가치가 높은 건물을 헐어버리고 그 자리에 Frey Hall 을 세웠다.④

參考文獻

13) 梨花學堂本館

- 註1. 房은 가로8尺, 세로12尺의 두칸 방이었으며, 흙벽을 뚫고 세 개의 사진틀로窓을 만들어 놓고 있었다. (李圭泰코너, “朝鮮日報”, 1986. 5. 31).
- 安東林, 李敬南, 「梨花學堂」, 鮮文出版社, 1973, p. 58
 - 朝鮮王室의 상징의 꽃이 「梨花」였다. (벚꽃같이 순결하고 아름다우며, 배 맛과같이 시원하고 좋은 열매를 맺으라는 뜻이 있다. 「서울 600년사」, 제3권, p. 651. 「梨花80年史」, p. 44). 또한 이터 일대가 배밭이었다.
 - 「梨花學堂」, pp. 44~108
 - 敎舎는 방이 스무 개에다 목간하는 방, 공부하는 방, 자는 방, 사무 보는 방으로 되었고, 신을 신은 채 출입할 수 있게 했다. Steam 실비도 갖췄다. 앞책 pp. 236~240
 - 尹一柱
 - 援護局 待從院이 있었다. (1896설립~1910폐쇄).
 - 1922년 3월, 1960년 7월 2차에 걸쳐 증축되었다. (630. 2坪이 되었다.)
 - 1925년 梨花女專이 됨.

14) 韓美電氣會社

- 註1. H.B.Hulbert, 「大韓帝國滅亡史」, 1980, 평민사, p. 162.
- Allen 은 駐韓美國公使館 書記官 (1894), 公使(1897) 總領事(1898), 全權公使(1901)를 두루 거치고 있었다.
 - 尹一柱 「韓國現代美術史」 pp. 24-25 (再引用)
 - Burton Holmes Travelogues (「서울기행」, 1899년입국, 1901년 출간).
 - 중로경찰서는 1929년 8월 平理院 및 漢城裁判所 건물(현, 제일은행 본점 신축현장 후편 소재)로 이전하여 갔다. 경찰서의 본 건물은 1937년에 세워졌다.
 - 「서울 600年史」, 제4권, p. 95.
 - 「和信 50年史」, p. 138-140.
 - 長安빌딩이 들어섰으나 이 건물은 그 후 종로 거리 확장으로 헐렸다. 현재 長安다방 건물이 서있다.

15) 獨逸領事館

- W.A.Son Grebst, “코레아”, 1905, 김상열譯, 1985. 1, 「마당」, p. 41.
- 앞 책 p. 41.
- Paul Georg von Mölendorff (獨); 그가 總稅務司 顧問으로 1882년 부임하자 閱錄稿가 살던 禰洞집(현 수송동 종로구청자리)이 그에게 하사되었고 그는 이 집을 양옥으로 개축하여 그가 떠날

- 때까지(1885. 10)사용하였다. 그후 독일 영사관으로 한동안 사용되었다. (뮐렌도르프, 김재관편저, 1984, 현암사, pp. 70~71)
- 설계자는 미상이나 徐載弼의 回顧錄에 獨逸公使館에 Swiss 인 (...설계도를 잘한다는...) 이 있었다는 기록으로 보아 公使館의 設計者가 그가 아니었나 추측된다.
 - 獨逸領事館은 1903. 4 공사관으로 승격되었다. 그러나 1905년 철수 후에는 영사관으로 격을 낮추어 존속되었다. 1906년에는 平洞(橋南洞) 26번지의 韓美電氣會社 H. Collbran 의 邸宅을 구입하여 館邸로 사용하였다. (「京城府史」, 제2권, p. 82).

15) 尙洞教會

- Scranton 이 미국 선교부의 돈으로 尙洞 일대의 토지를 사 모은 것은 1886년 봄부터의 일이고 敎會 창립예배는 1886. 10. 9 이었다.
- 스크랜튼이 지은 1901년의 「尙洞敎會略史」(1974년, 尙洞敎會를 열 때 발견함).
- 교회의 鍾은 당시 전국에서 가장 컸던 것으로 Top部의 시공 전에 설치한 것으로 보여진다.
- 「尙洞敎會 90年史」, 1980, pp. 173~199.
- 이 당시의 교회 탄압은 다음 기록에 잘 나타나고 있다. “집집마다 神社의 새끼인 가미다나 神柵을 위하고 아침 저녁으로 가족들이 그 곳을 향해 절을 하라는 것이다. 서울의 상동교회 안에는 가미다나를 위해 놓고 皇道文化館이라는 간판아래 지방 牧師들을 모아놓고 미소기, 鍊成을 시키면서 세뇌 공작을 하였던 것이다.” (「琮橋敎會 70年史」, 1970, p. 67).
- 새 교회 현상 공모에는 三元社의 것이 당선되어 오늘의 새로나 백화점이 되기에 이르렀다. 교회는 7, 8층을 사용.

17) 協律社

- Allen, 「朝鮮具聞記」, p. 127.
- 이에 대해서는 白淳在의 “圓覺社劇場研究”(中央大院碩論, 1974).
- 앞 論文 p. 39.
- 金在喆 (「朝鮮演劇史」, 1933) 李社鉉 (「韓國新劇史研究」, 1966) 白淳在 (「圓覺社劇場研究」, 1974) 柳敏榮 (「韓國劇場史」, 1982)
- 이것은 階段 자체가 椅子이었다는 실과 따로 의자를 설치했다는 실이 있다. 제단 자체는 목조의 마루를 깔았던 것으로

- 보여진다.
6. 白淳在, 앞 논문, p. 72

18) 紀念碑閣

- 전국 中心의 支點을 알리는 里程元標도 이 곳에 있다.
- 望六句은 51세의 뜻이며, 御極은 즉위의 뜻이다. 같은 正一品 輔國崇祿大夫 議政府 議政大臣 尹容善(尹妃의 祖父)이 짓고, 글씨는 陸軍副將 閔丙奭이 쓰고 篆字는 純宗이 썼다. 萬歲門의 세글자는 英親王이 6세에 썼다. (京城便覽) 1929, p. 19).
- 현재는 질병통이 간략한 것으로 변해 있고 龍頭, 雜像 등은 모두 없어져 버렸다. 이는 1979년 해체 복원 시 고증이 잘못된 것으로 다시 원형 복구되어야 할 것이다.
- 1920년대 目下 本町二丁目에 살던 일본인古城梅溪의 집 대문으로 옮겨졌다. (京城便覽), 1929, p. 19). 이 문은 1954년 7월 碑閣을 보수할 때 찾아다 原位置에 복원했다.

19) 손탁호텔

- 현재 梨花女高 위치(京城府史, 제1권)
- Alsace-Lorraine (일사스-로렌)은 佛領인에 1871년 독일에 빼앗겼으나, 세계대전 후 다시 佛領이 되었다.
- 손탁(Sontag 孫澤 1854~1925)은 Wäber (웨베르)의 妻이 되었다. 후에 威寧殿 別人入侍라 불리었다.
- 「韓國觀光 Hotel 發展史」 韓國觀光協會, 1982, p. 46.
- 현재의 德壽宮 뒷담에서 도로 건너 西便에 있는 땅으로써 이 곳에는 왕궁 부속 건물들이 있었다. 부속 건물은 住宅과 貞洞 club 으로 병용했다.
- 이 Hotel 의 설계자와 시공자는 德壽宮의 惇德殿, 重明殿 그리고 Russia 領事館과 그 수법들이 비슷한 점으로 보아 모두 Sabatine 의 작품이 아닌가 생각된다.
- 이 Hotel 茶房은 서울에서 Hotel 식 茶房의 시초가 된다.
- 尹一柱.
- Russia 는 전쟁에서 져고, 손탁은 그녀 자신이 France 인이었기때문에 France 인에게 매각했던 것이다. 손탁은 1909년 朝鮮을 떠나 France 에 가서 생활하다 1925년 그 곳에서 사망했다. (1986. 10. 11 朝鮮日報, 李圭泰코너)
- 1922년 10월 6일 Frey Hall 의 定礎式 이 있었다. (「梨花80年史」, p. 142).

하우징과 홈잉

4 월호 회원작품을 중심으로

金炳潤

꾸밈 편집부장, 한양대학교 강사

Criticism / Housing and Homing
by Kim, Byung-Yu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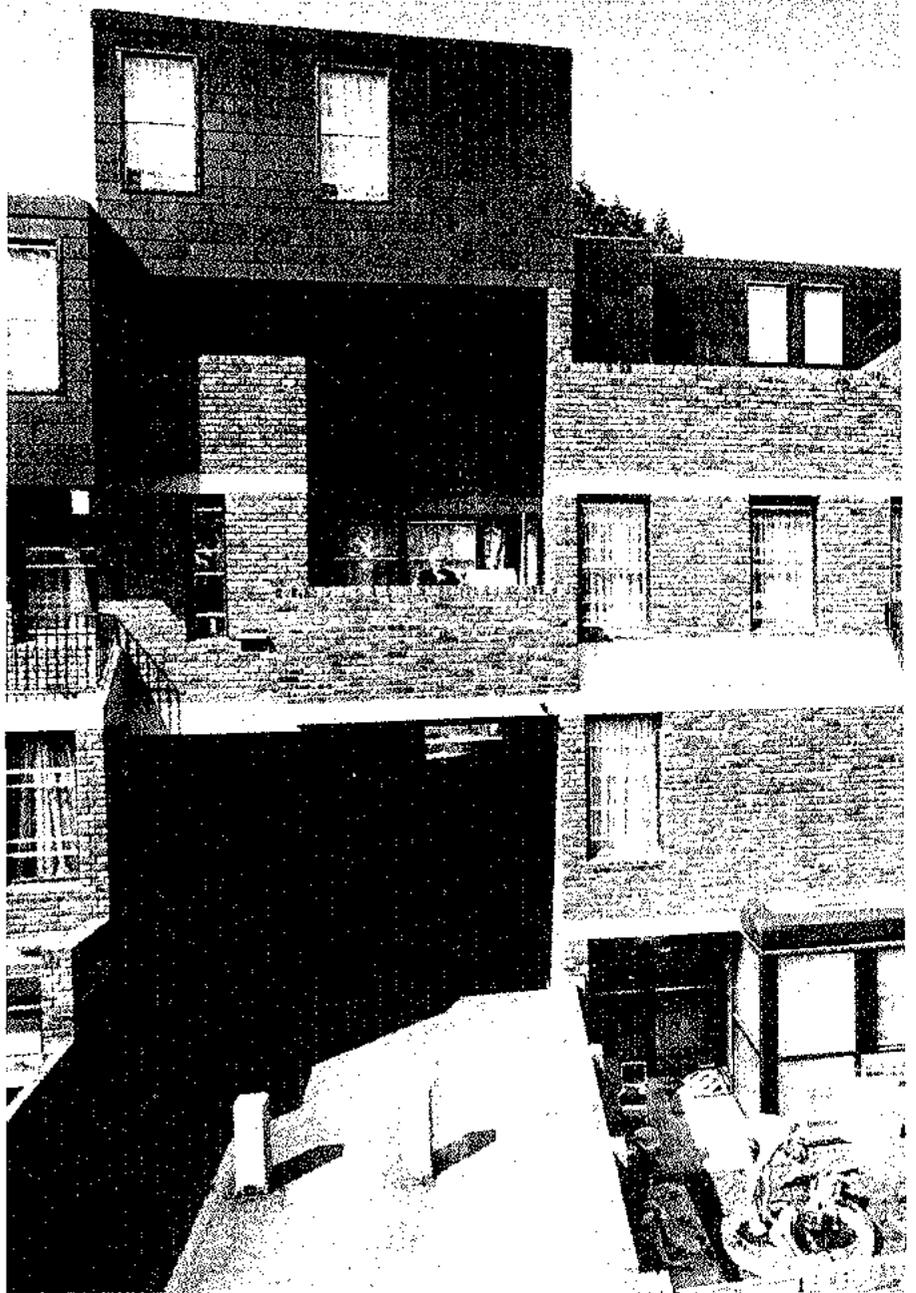
1. 서

60년대 중반 영국 건축사협회인 RIBA 의 회장을 지낸 라이오넬 어셔 경은, A Broken Wave 란 저서에서 아주 간결하게 주거의 시대별 변천이념을 그의 책 마지막에서 언급한 바 있다. 「40년대에는 하우징은 정책적인 문제라고 건축가들은 믿어왔다. 만약 정치가들이 철과 콘크리트의 사용으로 과감히 과거의 것을 치환하여 문제를 해결시킬 근대건축에 치중하였더라면 하고 생각해 본다. 그들은 그러나 지나치게 성급하였기 때문에 실패하고 말았다.」 「50년대에 이르러서는 건축가들은 주거의 시설이 사회적 기능을 올바르게 합법적인 상태로 이끌어 올릴 것이며 이 주거를 사회적인 근본적 문제라고 믿게 되었다. 홈(Home) 대신에 우리는 거주처를 지었고, 단독의 소유보다는 공동의 생활을 발코니를 두기 보다는 연결복도를 갖기 원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러한 공유개념에 익숙치 못하여 만족할 수 없게 되었다.」 「60년대에 이르러선 우리가 지닌 문제를 기술적 해결책으로 총력을 기울였다. 우리의 기대는 기술이 제공하는 만큼, 대량의 주거공간들은 질적으로도 자생적인 면모를 갖추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역시 기술도 이질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다.」 어셔경의 60년대의 실패상은 구체적으로 1968년에 일어난 로난·포인트 붕괴사건을 배경에 짙게 담고있다. 공업화가 부른 Free standing 의 고층 아파트형 Ronan Point 는 한쪽부분의 가구에서 일어난 가스 폭발이 도미노 게임에서 쓰러져 가는 도미노 패처럼 수개층을 붕괴시킨 사건으로 영국 建築史에서는 두드러지게 교훈을 남겨준 시대적 혼적으로 각별히 다루어지는 사건이다. 다시 어셔경은 마지막으로 「오늘날에는 주거의 건축적해결이 논의 되는데, 이는 친밀함, 스케일, 전통적인 내국적 형태들, 지층, 옛 건물의 재생 등을 내세우는 것이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길 바라는데 이에는 아주 위험한 면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이제 더 이상 건축가는 불평을 토로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아주 의미 심장한 그러면서도 정곡을 맞아 비틀거리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도 된다. 바로 어셔경이 관찰한 40년대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주거의 실행이 빚은 대하드라마를 우리는 아주 비틀거리는 형편으로 여지없이 급속도로 경험하고 있다고 본다. 물론 외국의 차관에 의해서 세운 아파트의 수효만큼 아픔이 겪게되는 것이지만 소위 제3세계의 일국이라는 명단에서 제외되지 못하는 현실을 미루어 크게 아픔을 확대시킬 필요는 없는 것이다.



▲유럽의 가로형주거전형
▶하우징 미커스로드(Lond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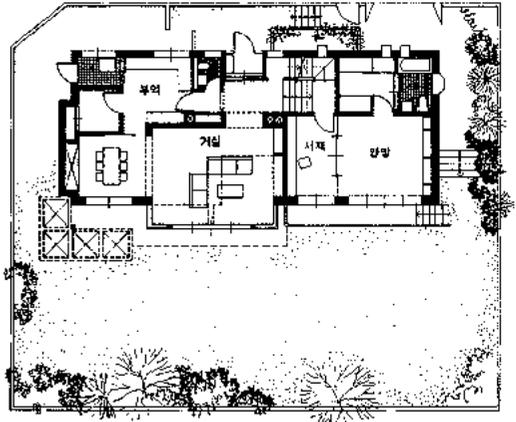
제목에서 주는 하우징이 이미 한 세기에 가까운 어휘의 전통을 지닌 반면 홈잉은 상대적으로 친숙하지 못한 것으로 일견 상흔이 없어 보이지 않으나 하우징 페어 또는 홈잉등 고유의 진솔해야 할 인류의 숙제가 그 빛을 달리 하여감을 느낀다. 우리는 이서경이 지적한 40년대의 건물과 50년대, 60년대,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찰한 저층의 지방색조를 지닌 소위 빌리형, 한국의 건축적 성격을 잘 나타내어줄 전통회복형등 모두를 간직하고 있으며, 이제 그가 가장 위험하게 내다본 지금의 미래에 대해서 별걱성없이 열중하고 있는 것이다.

▼류순수작 삼하리A씨택

2. 전통적 비내쿨러와 서구적 비내쿨러

이미 많은 지상의 소개를 통해서 잘 알려져 있는 두개의 주택. 이공건축 류순수씨의 삼하리 주택과 일건건축 황일인씨의 군자동 주택에 대해서 언급함은 새삼스럽기 까지하나 다시 한번 경향신문사 주최의 87하우징페어에서 수상하였으므로 그의 의미를 더욱 새롭게 갖는 것이다. 맑고 청명한 날씨에 자연에 서있는 느낌은 사람에게 친숙한 본연의 모습을 깨닫게 해준다고나 할까. 역방향의 하늘과 정방향의 땅사이 비어진 공간은 공간대로, 무엇인가 담겨질 내용에 대해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채 그곳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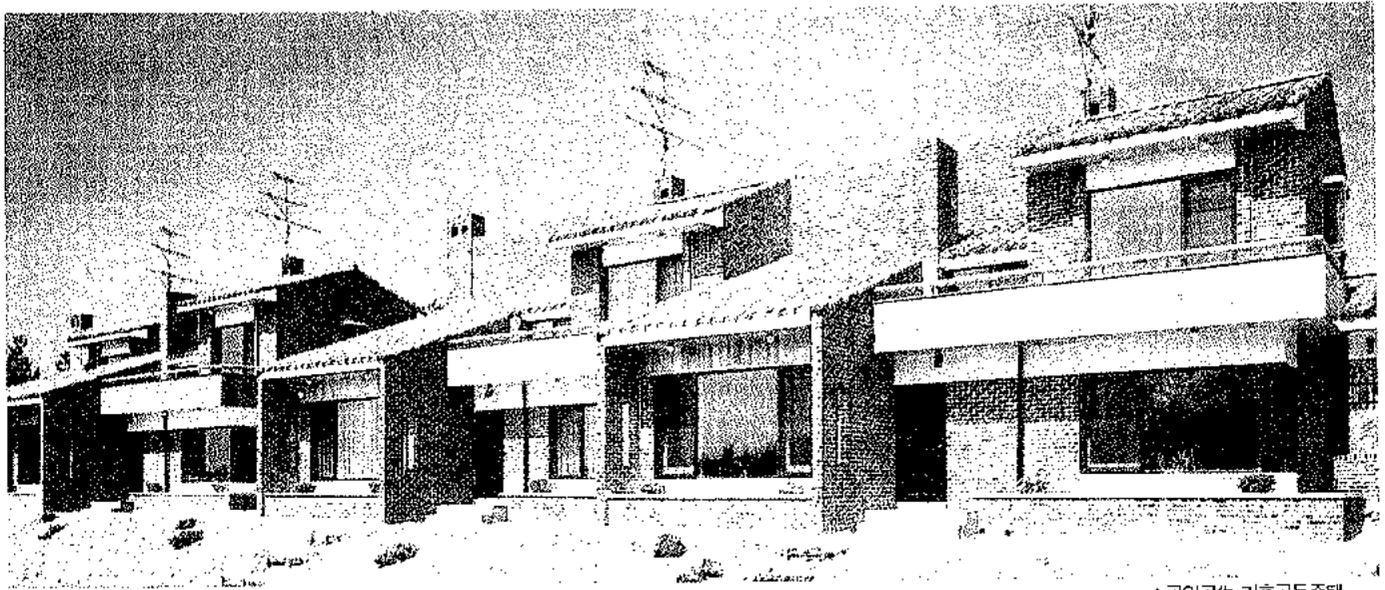
있다. 서울의 근교라 할 수 있는 이곳에 일견 로맨틱한 한채의 아담한 집이 자연과 어우러져 있다. 사용된 요소 요소에 전통을 고집하는 건축주와 건축가의 집념이 서려있어 보이지 않으나 중간에 보이던 연결 집근 부위와 더불어 아주 길다란 수평의 지붕 처마씨는 오히려 우리가 자주 보아온 미국의 전원 주택에서의 지붕 모습을 지을 수 없게 한다. 이 지붕에 사용된 강한 기하학적 표현만 아니라면 어떻게 보아도 낯익한 우리의 건축적인 발상이 아니라할 수 없다. 서까래의 표현, 기단과 초석이 선명하고 회벽과 주요 구조재의 노출, 지역성 추출의 석재쌓음, 주심도리에 얽혀져 내외부에 노출되는 서까래, 요소로서 어김없이 사용된 한식 미닫이 창과 들개창, 목재의 은은한 톤과 한지 등이 주는 고유함등 원형을 일깨우쳐 주는 강한 표현이라 여겨진다. 계획에 있어서는 법적제한과 이에따른 규제사항으로 어렵고, 넘어서질 못하는 문제들로 시작되었을 것이다. 개발 제한에 따른 규모의 문제가 가장 어려운 것이었을 것이고, 지역성의 유발은 선택적이었을 수도 있다. 이에서 실질적인 문제로 미적 형식상의 유도를 꾀한 유기주의적 입장과 고전형식으로서의 부분적 건축어휘구사 등을 종래 주거양식의 원형을 일깨워 주는 점이다. 단, 공간의 프라이버시 문제에서 절충된 서구의 비정형 평면배치방식이 자유로이

상식되어졌는데 주어진 조건적 문제로 사료된다. 물론 미적형식상의 문제에서는 그 표현에 있어 극도의 단순함과 최소한으로 제한된 구성미를 보여주는데 이는 튜터양식의 그것과도 유사한 구조재로서의 목재사용과 습식벽의 구성으로서 뚜렷한 역사성을 내포한 심미적이면서도 실용적인 면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이상 삼하리 주택은 있는 그대로 보기에 좋은 전원주택의 면모와 내제한 고유함에의 편승등으로 시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전형으로서 제안적이라 할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완결을 이루지 못한 평면적 접근이나 부분적 이완이 주는 긴장과 해이는 지속적인 문제로서 도전적 제안이 출범이 되고 있다. 일견건축 황일인씨의 근자동주택은 또다른 전형으로서의 시도적인 제안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여서가 지적인 작금의 형태 즉 지역성의 유발을 의식케된다. 미적인 형식의 문제에서 주도된 요소들은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지역적 추출의 석재 벽면, 벽체와 크게 분리되지 않은 지붕. 이 지붕에 대해서는 Transformations in the Modern Architecture 에서 드렉슬러가 지적인 풍토적 버내쿨러나 정크스가 분류한 네오 버내쿨러 (Neo Vernacular) 의 재현과도 유사하게 보여진다. 포스트모던의 비판적 실체를 추출함으로 포스트모던의 당위성을 확립하려는 저자의 의도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이러한 현상 즉, 지역주의 예로의 화귀현상은 과거의 재현에 따른 인용부호의 선택에서이며 이것은 정통적 복고주의가 아닌 유사한 복고주의라 비판한데 있다. 다시말해 이러한 건물의 혼성 복합을 뜻하는 것이다. 특히 정면의 상부벽면에 에스프리로 등장한 두개의 고전적 이휘는 구조적 의장처럼 보이면서 장식적인 인용부호로 보여지지 않을 수 없다. 건축주의 여행에서 얻은 강한 취향이 부른 것일 수도 있겠다. 평면에서 살펴보면 안방과 얇은 슬라이딩 문으로 연결된 서재에서 강한 인상을 받게 된다. 단면상으로 보면 이 서재와 안방의 부분은 스킵후로어 방식으로 높이를 달리 하며 프라이빗 존의 성격을 강화시키고 있다. 외부에서 경험한 석재의 벽면과 백색의 구성주의적 요소를 지닌 상부그리드 파골라를 떠받치는 기둥등을 다시 내부의 주조를 이루는 표현에서 느끼게 된다. 오히려 실내는 더욱 간결한 느낌을 주는데 이는 흰색의 벽체등이 구조적 기능적 표현이외엔 절제된 면모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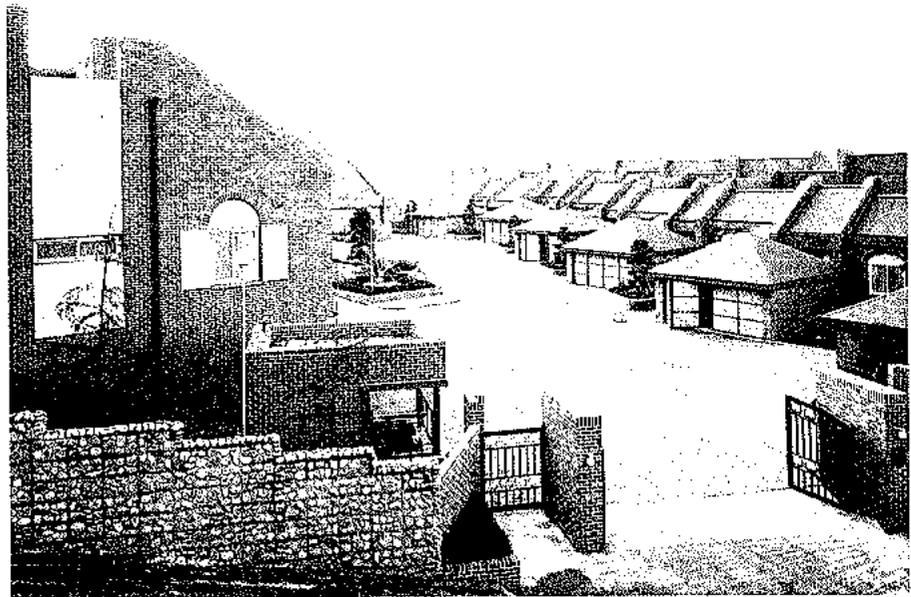
3. 건축적 해결 버내쿨러의 연속

향중합건축의 기흥 공동주택은 그룹원의 D-연립주거 단지와 프로젝트의 성격상 유사함을 보여준다. 연립주택의 모노티너스를 해소하고



▲공일관작 기흥공동주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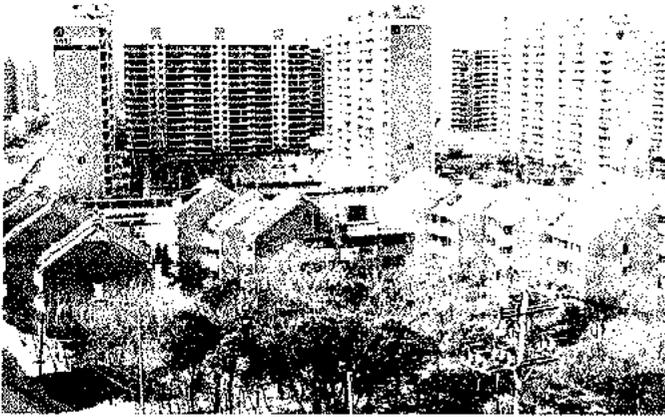
공동체 개념의 개별성을 유발하여 독자적인 아이덴티티를 높이려 하고 있다. 주거의 이상적 논리가 대두되면 빠르게 정착하는 시대적 면모를 지니고 있으며 구조적 측면과 이념적 측면을 모두 지닌 Parti-Wall의 강조적인 돌출이 그 뚜렷함을 보여준다. 우선 양자가 모두 폐쇄적인 개인기업의 사택같은 인상을 질게 지니고 있다. 따라서 점용성의 문제에선 제한적이라 할 수 있으며 에스프리나 제안적인 면모를 지니는 문제에서도 미약하게 보여진다. 테임스미드의 개발이나 파크힐(Park hill) 등이 보여 주었던 근대건축의 총격으로서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환경과 동일한 조건속에서 동일한 대접을 받으며 살아가는 이상주의적인 건축의 패러다임을 더이상 긍정하지 못하였을 때 결국 개인적이고 보다 경쟁적인 이상주의적 도시생활을 꿈꾸게 되었고 의미상 불합리하나 실제상론 공동체 의식을 확보하기 위해 개별적 주거는 더욱 분리 되어져야만 했다.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반복적인 요소를 지니나 전체로서 복잡하게 느껴지고 두드러지고 개별성이 강하며 독특한 독자성을 유발케 하는 방식의 주거 형태가 등장하기 시작했고, 영국의 다본 앤 다크의 건축설계에 의한 런던의 마커스가 주거단지는 새시대의 이상적 표본으로 등장하였다. 70년대 초반의 일로서 단순히 외적인 형태로서 뿐만 아니라 유니트 주거형태의 새로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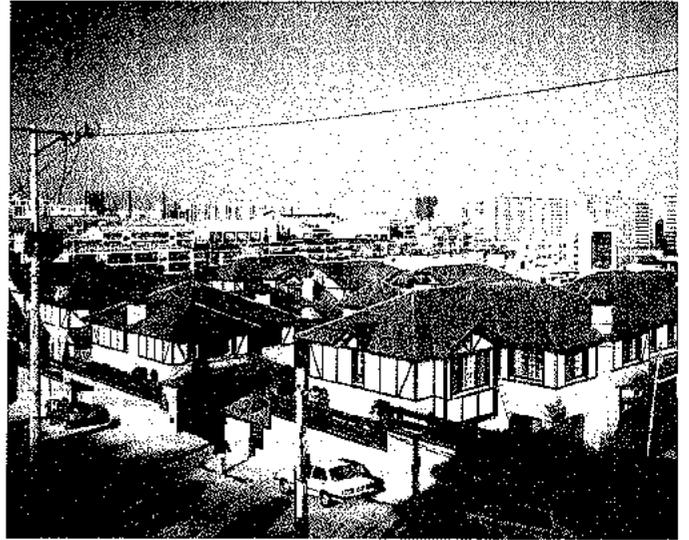
▲광성대, 조중식작 D-연합주거단지

▼Delft Holland





▲강성익작 고덕백산빌리



▲박상돈작 서초동상암빌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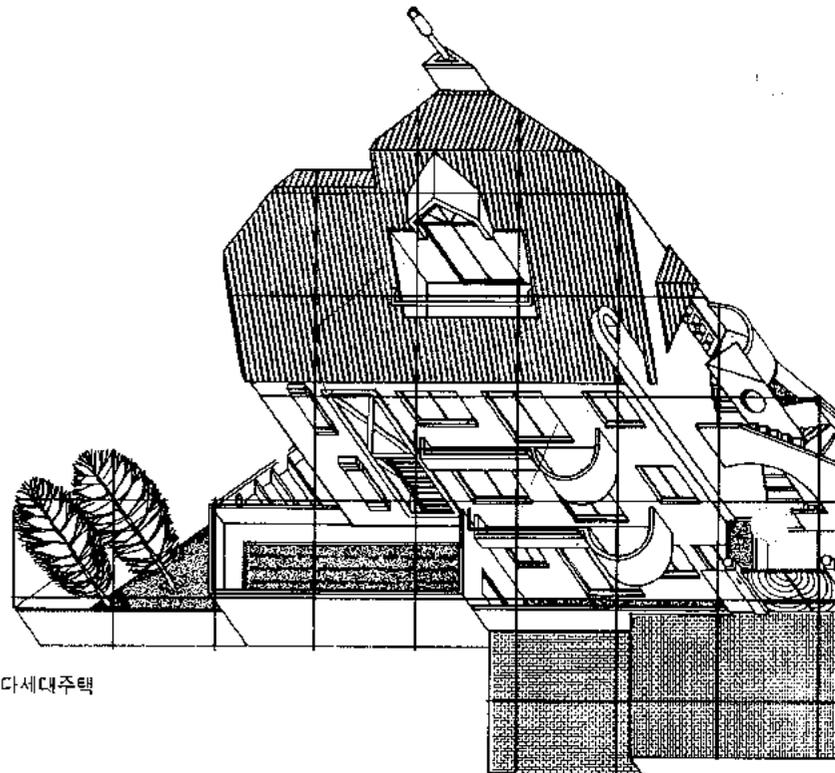
제안으로서도 독창적이었다고 평가된다. 이러한 전형들이 현재의 흠을 꿈꾸는 도전들에 배경적 규범으로써 내재하나 실제적으로 뚜렷한 제시와 목표수반이 미약하여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 앞으로도 계속 이와같은 유형의 건물이 계획되어지리라 여겨지나 인지할 내용은 이러한 시대적 패러다임에 내재하는 원인적 규범과 집용상의 문제에서 충분히 검토 되어져야 하리라 본다.

4. 다세대의 인식과 다양성의 창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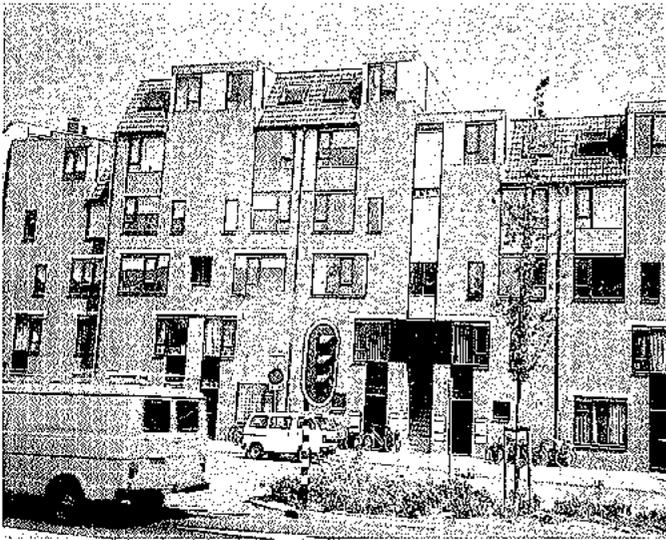
새로운 주택법규가 제안되고 공동주거의 새로운 인식과 더불어 새롭게 등장한 다세대란 어휘는 상업적 시운에 편승하여 급속도로 진개되어져 왔고 그 맹렬한 제안들이 다소 침체된 상태에 와있다고 본다. 표본적 주거형태들은 우리 실정에 알맞는 요소들이 취합되어 영글어진 독특한 주거의 개개번수로서 등장한 특수해법의 일반화에 의미를 두었다. 건축가의 각별한 배려는 특수한 일의적 창출로서 일반론으로 이해되지 못하였고, 도시환경적 측면에서는 이러한 특수한 규범보다는 일반해의 집용과 중요성이 오히려 바람직한 것으로 이해되어 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도시환경적 측면보다는 전자의 건축가의 특수한 소묘가 우선하고 있으며 도시구조와 환경에 부응하는

가로형 주택이나 일반해의 정립에서 나온 결과가 아닌 Free standing 의 단독 주택형을 우월하게 받아 들이고 있다. 이러한 형태는 세미 디테취드 형태와는 다른 면모를 지니며 오히려 오늘날의 「하우징 액션」에 의한 리 해빌리테이션으로 생성되는 공동주거형의 규범과 일치하는 것이다. 표면상으로 몇가구가 주거하는지는 알길이 없으나 공간의 재계획에 의한 분할에 의해 여러 세대의 주거공간이 구분되어지는 것이다. 바로 어서가 지적인 옛건물의 재사용 그것도 새로운 용기로서 재사용 하는 것이다. 이미 언급한바에 따르면 다세대 역시 우리가

찾은 규범이기는 해도 이념상 선진의 리 해빌리테이션과 다를바가 없다. 오히려 도시환경적 측면에서 보면 이러한 선진국가들의 기존 건물들은 가로형으로 정연하게 건립되었었기 때문에 도시환경적 측면에서도 또한 건축적 측면에서도 그 이상이 조건에 맞아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우리의 다세대는 작금에 변칙적인 운용으로 본래의 의미를 상실하고 있지는 않고 있으나 싶다. 우선 특수해의 영역에서 일반해를 취함하여 시대적 패러다임을 창출해 내지 못하고 있으며, 더우기는 기존의 빌라형과 소규모 저층 아파트의 이미지를 그대로



한충국작 수유동다세대주택



▲Delft, Holland



▲Hague, Holland

지난채 발전해 가고 있는 것이다. 약간의 개별성을 준 저층형아파트와 밀반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못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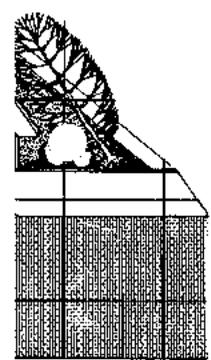
수유동 나세데 역시 전조의 단독형 특수혜에 머물고 있으나 이념적으로 파악된 전체적인 형태적 매려는 곧 가로형 형태에서도 모여질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고 여겨진다. 마치 아테원의 테라스 하우스에서 보여준 다양성이 유발되도록, 한것 독자적인 모멘트를 각 유니트에 두고 있다. 지역적 특수성으로 그것이 가로형으로서 발전이 불가한 경우 이러한 접근은 우선 시대적으로

요구되는 개별성 창출에 부응하며 우월성과 표출적 인간 본능에 대응하는 표현이라 여겨진다. 주어인 여건과 짜여진 예산 속에서 제한적 형태구사의 일면도 없어 보이지 않으나 우선 대지의 활용이 탄력있게 이루어져 있음에서 선도를 느낄 수 있다. 밀리는 우선 엄청난 복합적 요소들의 융합으로 이루어진 유형으로서 이해 되어질 수 있고, 주위에서 보여지듯 고층의 아파트 블록들에 둘러 쌓여 있기도 하고, 전원적 요소를 지니기도 하며, 독립된 구역안에서 독자적인 정원들을 갖고 있으며, 지배적으로 서구적 비내클러의 모습들이며 비교적 상류층의 정유로 되어있고, 배경에 깔린 상흔의 면모를 지울 수 없다. 첫번째 원인 규명의 대상은 층고를 달리하는 Mixed Development 의 흔적에서 그 하나를 찾을 수 있으며, 공동주택으로 얻어진 여유공지는 비교적 풍부한 전원적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다. 형태상의 문제에선 이미 진술한 바대로 근대건축이후의 이상적 전형들이 추구하는 개별적이며 독자적인 형태, 그리고 지역성의 유발등 복고의 의미를 지닌 형태들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서구적이란 표현이 이젠 어설프게 받아들여져도 모른다. 그러나 특히 주거의 문제에 있어서의 논의의 대상밖의 문제는 극히 적다고 보기 때문이다. 바로 이점은 주거에 있어서의 문제는 우리자신의 문제이고

현대물질문명, 정신문화의 비판이기도 한 것이기 때문이다. 상류층의 점유와 상흔은 건축적 논의의 밖의 일로 여튼 그 원인 규명 대상은 실제 다발적 수요가 요구되어지는 상황에서 건축적 해결의 다양한 새모범적 추상의 표현에 있다. 즉, 친밀함, 지역성의 유발, 저층선호, 스케일 등이 바로 그것이다.

5. 결

이상 지난 4월호에 게재되었던, 경향하우징페어의 수상작들을 중심으로 주거와 연관된 제반 사항을 주로 원인규명 측면에서 살펴 보았다. 「인간은 연장을 만들기 이전부터 상징을 조형한 동물이다.」라고 버클리의 건축조경대학교수인 클레이 쿠파가 그녀의 글 'The Houses as Symbol' 에서 서두에 전체 한것처럼 삶 그 자체를 상징화하고픈 인간의 심정이나, 자신의 모습을 조형하는 일이 곧 집을 짓는 일과도 같이 보여진다. London 의 빅토리아 테라스 하우스를 포스트모던의 지어지는 형태 규범으로 승화시킨 찰스 젡크스의 심볼리즘 역시 그의 실제적 표현인 것이다. 「예술에 있어서 진보란 사멸을 의미한다」함에서 역시 인간의 물질문명이 부른 진보된 형태들이 결국 진보됨으로 사라지는 현상처럼 우리모습, 살아가는 모습이 담긴 표현으로서의 주거는 우리 자신이 지닌 문화적 유산의 표상이라고 본다.



1. 서언

본고는 우리나라의 건설분야에 도입하여 시행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는 건설업에서의 분쟁조정제도에 대하여, 미국 AIA(American Institute of Architect)의 Construction Contract Form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공사와 관련한 분쟁의 조정제에 대한 제도의 운영과 그 활용실태를 검토·분석 하므로써 향후 우리나라에서의 건축사의 건축공사감리와 그에 수반되는 분쟁의 조정업무수행에 참고가 되게 하고자 한

建築工事의 監理에 수반되는 紛爭의 調停制 運營實態

Feature/Arbitration in building Construction Work
by Lee, Jea-Ok

李 在 玉

建設部 住宅局 技術指導課 建築技術

것이다. 이와같은 분쟁의 조정제도를 미국의 경우를 가지고 소개하는 이유는, 미국의 경우 사유재산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몇백년전부터 수많은 재산상의 소송이 끊임없이 이루어져, 시방서나 계약서는 물론 건축공사의 분쟁조정제에 대해서도 오랜 역사와 전통을 기반으로 제도와 법률이 개선되어져 왔기 때문이다. 미국에 있어서도 건축사등의 기술자들은 관련법이나 법률가 또는 행정하는 사람들의 자유재량적 유권해석에 의해서 때로는 많은

편파적인 판정과 부당한 제재와 불이익 처분을 전통적으로 받아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들은 이에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해서 소위 농업자라는 다수의 힘이 필수불가결하다는 위기의식아래 각종 위원회라든가 다양각색의 권위있는 학회와 협회를 탄생하게 한 것이다. 이와같은 자구책의 대표적인 예가 AIA인데, AIA는 건축사와 건축기술자들의 권익옹호를 위해 스스로 많은 연구는 물론 당시까지의 관례등에 대한 장기간의 연구 검토를 거쳐 건축공사에 대한 전문적인 시방서를 만들고,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을 만들었으며, 나아가 계약서등도 별도로 만들어 내어 이를 거의 모든 건축공사에서 통용토록 하므로써 법정에서 건축공사와 관련한 소송을 함에 있어서는 기술적 시방서나 계약의 내용등에 관해서는 AIA의 관련규정이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되는 풍토를 조성하는데 성공하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대한건축사협회나 기타 유관단체가 서로 합심하여 AIA에서 기울인 것과 같은 연구와 노력을 경주하여 건축사나 건축기술자들이 비전문가에 의해서 판정되는 법률이나 또는 비전문가들의 판단에 의해서 스스로의 권익이 침해받지않고 더욱 옹호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같은 노력의 일환으로는 대한건축사협회와 대한건축학회 등에서는 미국에서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권위있는 시방서나 관련규정 및 규격 등의 연구제정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건축전문가들의 집단적이고도 공통적인 기술적 견해의 창출을 도모하여야 하며, 이와같이 창출된 전문가의 견해가 미국에서와 같이 건축물의 설계나 시공 또는 감리 등의 여러가지 문제에 대한 판결이나 유권해석 등을 선도할 수 있는 공신력을 갖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구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본고는 따라서 건축공사의 감리에 수반되는 분쟁의 조정분야에 있어서도 AIA 등의 관련전문기관이 건축사나 건축기술자들의 권익옹호를 위해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또한 관련제도의

개선을 위한 그들의 노력에 대해서도 소개함으로써 향후 건축분야에 있어서의 분쟁의 조정에 관한 국내관련단체의 업무추진에 참고가 되게 하고자 한것이다.

2. 建設工事中의 紛爭調停制度 運營의 目的

미국에서는 건축공사의 감리에 따르는 모든 분쟁은 美國紛爭調停委員會 (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 에서 정한 建設業紛爭調停規程에 의해서 조정되도록 하고 있다.

미국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상기한 紛爭調停規程에 의해 분쟁을 審議하여 처리토록 하므로써 법원에의 提訴를 가급적 지양토록 하고있다. 이와같은 분쟁조정 목적은 자주 잘못 이해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건설공사에서의 紛爭調停制度運營의 目的을 분명히 밝혀두고자 한다.

분쟁조정 목적은 우선 분쟁에 대한 訴訟行爲를 調停行爲로 대체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미국에서의 경우 시공자로 하여금 上記한 미국분쟁조정위원회의 建設業紛爭調停規程을 수락토록 하는것은 우선 시공자가 분쟁조정위원을 천거함에 있어서 嚴正中立의 위치를 견지 할 수 있는 조정위원을 천거하되 절대로 자기의 친구나 지면인사로서는 천거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의미하게 되어있다.

3. 紛爭調停委員의資格

분쟁조정위원은 상기한 분쟁조정규정에 따라서 자격이 있는 전문가중에서 선정토록 되어있다. 분쟁조정은 따라서 단정한 中裁나 화해를 의미하는것이 아니라, 기술적으로 법적절차등에 굳이 일치시킬 필요성이 없는 私設裁判인 것이다.

다만 일반법정에서와는 달리,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증거만을 토대로 하여 결정을 하여야 하며 조정위원은 심의를 함에있어 자기 자신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

미국에서는 건축공사의 감리에 따르는 모든 분쟁은 美國紛爭調停委員會 (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 에서 정한 建設業紛爭調停規程에 의해서 조정되도록 하고 있다.

분쟁의 조정은 재판시에 따르고 있는 절차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즉 어떤 事案을 다루는데 있어서 재판의 경우에는 紛爭調審議의 경우와는 아주 현저하게 다른 절차와 방법으로 辯論을 하게 되어있다.

”

특정한 지식을 얼마든지 활용할 수가 있는 것이다.

조정위원은 그 자신이 판사이고 배심원이며 사실을 확인하는 전문가이다.

다시말해서, 이들에 의한 판결이 편견이나 부정 또는 사기 및 계약적 권한침해 등의 불합리성을 내포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들에 의한 판결은 법에 의해 판단할 수 있는 최종판결이 되는 것이다.

4. 紛爭調停의 節次

분쟁의 조정은 재판시에 따르고 있는 절차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즉 어떤 事案을 다루는데 있어서 재판의 경우에는 紛爭調審議의 경우와는 아주 현저하게 다른 절차와 방법으로 辯論을 하게 되어있다.

즉 한쪽의 변호사는 우선 자기쪽만의 변론을 하게되고 그런 다음에 다른쪽의 변호사가 그쪽의 변론을 하게된다. 따라서 각자의 진술에 대한 논쟁은 금지되도록 되어있으며 증거 또한 이쪽이나 저쪽의 변호사에 의해서 별도로 제출되어 지게 되어있다. 변호사들은 또한 당사자간에 합의만 이루어지면 언제든지 판결을 연장시키는 데 능숙한 사람들이다. 그러나 분쟁조정위원인 경우에는 한편의 진술을 듣고난 다음 다른편의 진술을 듣는 절차의 번거로움을 생략하고 모든 증거자료를 즉시 한 장소에 제출토록할 수 있다. 즉 분쟁조정위원은 여러가지 소문을

포함한 모든 증거자료를 받아들일 수 있으며 시간에 구애받지않고 어떤 질문이나 조사를 목격자나 당사자 또는 변호사등에게도 직접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분쟁조정위원은 또한 분쟁에 대한 심의를 수행함에 있어서 그 절차를 자기가 하고 싶은대로 수정하여 시행할 수도 있으며, 또한 정해진 기한내에 접수되지 않는 자료에 대해서는 이를 받아들일 의무도 없게 되는데 이와같은 이유는, 대부분의 조정위원이 미국의 경우에는 無給이고 또한 다른 도시나 다른 주에서 선정되어져 오기 때문이다.

5. 紛爭調停委員의 判決效力

분쟁조정위원의 판결은 다음과 같은 外形的 변칙성을 내포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유효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와같은 외형적 변칙성으로서는 첫째로 분쟁조정위원이 일방에게 편파적인 심사를 하였을 때로서 예를들면, 분쟁조정위원이 타방의 당사자가 알지 못하는 특별한 혈연관계를 일방의 당사자와 갖고 있을 때 또한 他方의 당사자가 전혀 알지 못하는 업무상의 유착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 이를 외형적 변칙성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둘째로 분쟁조정위원이 당사자들중의 어느 당사자로부터 뇌물을 제공받게 되며 이 또한 외형적 변칙성으로 간주하고 있다. 분쟁조정위원은 분쟁의 조정과 관련하여 자기가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그 이유를 밝힐 필요가 없게 되어 있으며 스스로의 심의절차에 대해서도 기록을 할 수도 있고 또한 기록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있다.

분쟁조정 심의시에는 법정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다음의 증거자료를 받아들여 심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즉 관련자가 제출하는 서류나 편지가 확증이나 정밀조사가 결여되어 있더라도 이를 받아들여 검토할 수 있고 당해사안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나, 현재 계류되어있는 사안과 유사한 다른 업무의 수행에 대한 자료검토 결과를 증거로서 채택할 수도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당사자간에 사전에 충분한 검토없이 체결한 계약에 관한 추후의 구두증언 또한 증거자료로 채택할 수도 있으며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의 의견을 증거자료로 삼을 수도 있도록 되어 있다.

분쟁조정 절차가 부분적으로는 변호사의 변론을 허용치 않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변호사들은 상당한 반론과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 실제 건축공사의 유능한 施工者 또는 監理者나 技術者는 변호사 없이도 충분히 전문적인 변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절차는 일반 변호사가 만일 분쟁조정위원회의 의장이 되어 기술적 사안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 어려울 경우 등에는 판결에 있어서 상당한 위험성을 내포하게 되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이제까지의 관례를 보면 분쟁조정위원으로 시공자들이 참석하면 이들은 發往者들에 대해서 발주자나 건축사가 내릴 경우의 결정보다도 상당히 편파적인 결정을 내리기 쉽다.

전문가들의 이와같은 경향은 다른 분야에 있어서 유사한 事案이 발생하는 때보다도 자기분야에서 특정의 紛爭事案이 발생할 때 더욱더 가혹해지는 보편적 경향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분쟁조정위원들은 자기들이 내리는 판결이 사직판결이어서 공공의 청분회등에서 발표나 발언에서와 같이 자기의 직업에 그 결과가 크게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에는 주로

“

만약에

어느 변호사가

법률에 의한 명확한

유권해석을 제시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변호사가 자기가 변호하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값진 역할을 수행했을 뿐이며 그로인해 紛爭調停이 좌우되는

것은 아니며 특히, 법적으로도

두가지의 說이 공존하고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은

이 두가지의 설을 전부

목살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다.

”

자기나름대로의 소신에 보다 많은 비중을 두고 심사에 임한다.

6. 紛爭調停委員의 權限

분쟁조정위원은 비록 법률적으로는 위법여부를 가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할지라도 때로는 윤리적인 결정을 내려야만 할 때가 있다.

분쟁의 조정시에 만약에 어느 변호사가 법률에 의한 명확한 유권해석을 제시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그 변호사가 자기가 변호하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값진 역할을 수행했을 뿐이며 그로인해 紛爭調停이 좌우되는 것은 아니며 특히, 법적으로도 두가지의 說이 공존하고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은 이 두가지의 설을 전부 목살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니국의 많은 주에서는 분쟁조정위원이 분쟁 당사자에 대한 소환권을 갖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이들을 소환하여 증거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美國紛爭調停委員會規程에 의하면 분쟁조정위원은 분쟁조정을 위하여 요구된 클레임에 대해서만 결정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분쟁조정위원이 同事案과 관련하여 추가로 클레임을 접수하여 판결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클레임을 제출한 당사자에게 그것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에 의해서 편파적인 결정을 내렸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되어 있다.

7. 紛爭調停制度의 運營에 따른 長點

건축공사의 監理에 수반되는 紛爭의 調停을 위한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에 따르는 장점을 大別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로 裁判에서의 같이 처리에 대한 잦은 연기나 지연을 가급적 줄일 수 있다.

또한 委員會가 紛爭에 대한 決定과 處理를 하는 明確한 날짜가 會議전에 미리 明示된다는 장점이 있어 공사의 수행에 따르는 후속조치를 계속해서 취해 나갈 수 있는 점 또한 장점이 되고 있다.

둘째로 소송의 費用이 節減하게 된다. 소송의 비용이 줄어드는 이유는 우선 紛爭調停委員會에서의 審議 및 議決期間이 우선 裁判의 경우보다는 훨씬 짧기 때문이고 분쟁의 당사자들이 법정에 제출하기는 곤란한 정도로 신빙성이 높지않은 증거자료라고 하더라도 이를 위원회에는 별다른 마찰없이 제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주요한 事案이 분쟁조정에 들어가면 동일한 공사에 있어서의 사소한 사안에 대한 분쟁 또한 당사자들간에 전혀 양보하려 하지않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분쟁당사자들인 주요한 事案에 대한 분쟁조정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이와같이 사소한 사안에 대해서도 서로 조금도 양보하려고 하지않다가 일단 주요 事案에 대한 분쟁조정결과가 밝혀지게 되면 그때가서야 그 밝혀진 취지를 감안하여 사소한 사안에 대해서도 분쟁이 조정대상에 올라갈 경우의 처리결과를 거의 예견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

건축물예의 미적효과에 대한 건축사의 판단이 최종적이라고 하는 의미는 다시말해서 시공자로서는 건축사가 내리는 美的 效果에 대해서는 어떠한 형태의 거부도 할 수 없다는 뜻이므로 美的 效果에 대한 판단이 아닌 事實 즉 공사비라든지 공사의 질이라든지 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분쟁을 할 수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건축공사의 수행에 따른 분쟁은 건축사가 내리는 미적인 효과를 제외한 여타의 모든 事實을 그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다.

”

결정사항에 대해서만 법원에 제소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미국의 토목학회(ASCE)의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에는 감리자가 내리는 결정이 최종적인것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AIA 계약 일반 조건의 규정에서는 美的인 事項에 관한한 建築士의 決定은 最終的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같이 건축물예의 미적효과에 대한 건축사의 판단이 최종적이라고 하는 의미는 다시말해서 시공자로서는 건축사가 내리는 美的 效果에 대해서는 어떠한 형태의 거부도 할 수 없다는 뜻이므로 美的 效果에 대한 판단이 아닌 事實 즉 공사비라든지 공사의 질이라든지 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분쟁을 할 수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건축공사의 수행에 따른 분쟁은 건축사가 내리는 미적인 효과를 제외한 여타의 모든 事實을 그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다.

다음은 현재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분쟁의 처리에 대한 절차를 간략히 소개한 것이다.

가. 紛爭調停의 申請

분쟁에 관련된 당사자들은 그들의 논쟁을 분쟁조정위원회에 정식의 분쟁으로서 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해서 제약을 받도록 되어있다.

AIA의 施設工事契約 - 一般條件에는

건축사나 감리자가 시공자와 발주자간의 견해차이에 대해서 서면으로 최종적인 결정을 내린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여야 유효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같은 유효기간은 분쟁조정위원회 의해서 변경시킬 수 없도록 되어있으며 또한 분쟁조정위원회는 契約事項에 대해서는 그 판단을 내릴 수는 있지만 그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무시할 수는 없도록 되어있다.

나. 二重紛爭에 대한 處理

일반적으로 분쟁은 2중 또는 3중으로 분쟁조정을 요청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예를들면, 下都給者는 原都給者에게 클레임을 할 수 있으며, 原都給者 또한 당해 사안에 대해서 發注者에 대하여 클레임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안을 분쟁조정위원회에 調停審議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3당사자의 합의에 의해서 하나의 분쟁조정사안을 만들어 제출하도록 되어있다.

다. 他國과 관련된 紛爭調停要請

미국에서는 요청된 분쟁조정 事實이 비록 他國과 관련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를 자국내의 분쟁조정위원회에 심의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있다.

9. 結語

건축공사에 수반되는 분쟁에 대하여

이를 조정하기 위한 紛爭調停制度의 運營은 건축공사가 短期間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공기상의 제약요건을 감안할 때 대단히 효과적인 제도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와같은 제도가 본격적으로 운용되지는 않고 있으나 최근 이에대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고 있어서 이에 익숙치 못한 감리자에게 향후의 업무수행에 참고가 되게 하고자 현재 미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분쟁조정실태를 분석정리한 것이다.

미국에서의 경우는 지역이 광대하고 오래전부터 건축공사의 수행과 더불어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발생된 분쟁은 꾸준히 조정되면서 진행되어온 공사의 사례가 많은데 비해,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건축공사의 감리등에 따르는 대부분의 분쟁은 建築士가 중재하는 바에 따라서 화해되어온 것이 관례였고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원에 제소되어 처리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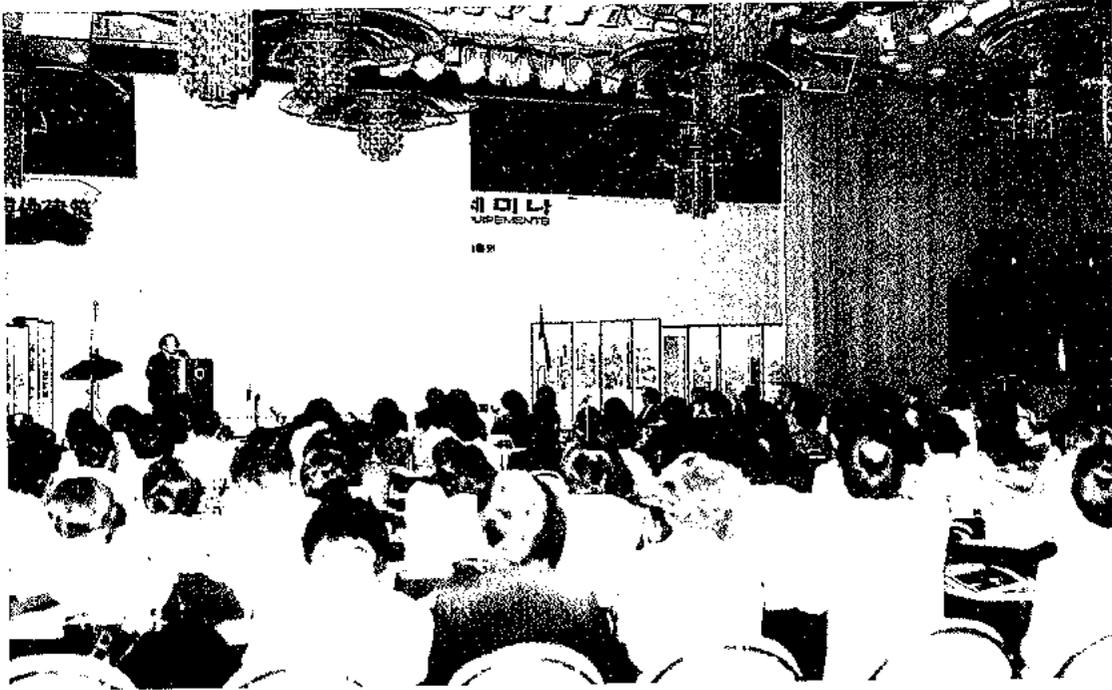
그러나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건설업에서의 분쟁조정법이 발효되게 되면 이제까지는 소송의 번거로운 절차때문에 분쟁의 제기를 기피해왔던 사안들조차도 상당수가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이 요청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또한 이제까지는 建築士의 중재에 의해서 간단히 화해가 되었던 사안들도 많이 분쟁조정의 요청대상이 되리라고 볼 때, 앞으로는 감리자가 시공자에 대하여 契約이나 契約書類 등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림에 있어 보다 정확하고 확실한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監理者가 施工者에게 내리는 指示에 있어서도 관행이나 자신의 경험에 의한 지시보다도 契約內容에 充實한 指示가 되도록 하고 示方書나 圖面 등 계약서류의 작성에 있어서도 보다 신중을 기하여 작성하여야만 빈번한 분쟁의 발생을 막고 또한 분쟁의 조정에 따르는 시간의 낭비를 미연에 방지하여 소정의 공기내에 추가비용의 부담없이 공사의 감리를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한·불 문화시설 건축세미나 및 전시회

Architecture Semina & Exhibition / Cultural Services of Korea and France



한국건축가협회(회장 유학준)는 지난 7월 3일 부터 6일까지 한불문화건축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와 전시회는 우리나라와 프랑스의 수교 10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최근 수년간 양적으로 증대한 두나라의 동서양 문화를 대표하여 그들의 경험을 교환하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열렸다. 본 행사는 우리측에서 한국건축가협회와 국립현대미술관이 주최하고 대한건축학회와 본 협회가 협찬하였으며 프랑스측에서는 프랑스대형문화시설기획단, 프랑스건축원, 주한프랑스문화원이 주최하였다. 7월 3일과 6일 서울하이아트호텔 리젠시볼룸에서 개최된 세미나에서는 「문화정책과 시설」을 주제로 우리측에서 김석철(종합건축사사무소 아키반)회원등 7명이

프랑스측에서 이브 도즈 단장과 9명이 양국의 문화정책및 문화시설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을 가졌다.

한편 과천 국립현대미술관에서는 한·불 양국의 문화건축물 전시가 7월 3일부터 30일까지 열린다. 본 전시회에는 우리측에서 전시공간으로 국립현대미술관, 국립중앙박물관, 독립기념관, 진주국립박물관, 청주국립박물관, 공연장으로 국립극장, 세종문화회관, 예술의 전당, 국립국악당, 문화공간으로 경복궁 경희루와, 창경궁이 전시되었고 프랑스측에서 떼뜨 데팡스, 라 빌레뜨 공원, 루부르궁 등 20여점이 전시되었다.

본지에서는 프랑스측에서 출품한 작품중 지면관계상 9작품을 선정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파리의 대형기획물

Grands Projects à Paris

2000년을 맞이하는 프랑스는 풍피두 센타 계획에 버금가는 대규모의 프로젝트들을 발표했다. 이 10개의 기념관 건축 가운데 일부는 이미 완공되었고, 나머지는 프랑스 혁명 200주년이 되는 해인 1989년까지 모두 완공할 예정이다.

이 대규모 프로젝트들은 파리역사의 중요한 과정이 될 것이며 사람들은 건축물, 박물관, 공원으로 가득찬 파리와 창조, 아이디어 그리고 미래를 향해 활짝 열려있는 도시를 보게 될 것이다.

대규모의 건축계획은 다양한 형태의 지성과 예술이 만나는 장소에 관한 것이다. 이런 새로운 세대의 건축물은 대중들에게 널리 개방이 될 것이며 특히, 젊은이들에게는 다양한 문화와 지식의 접근을 가능케 해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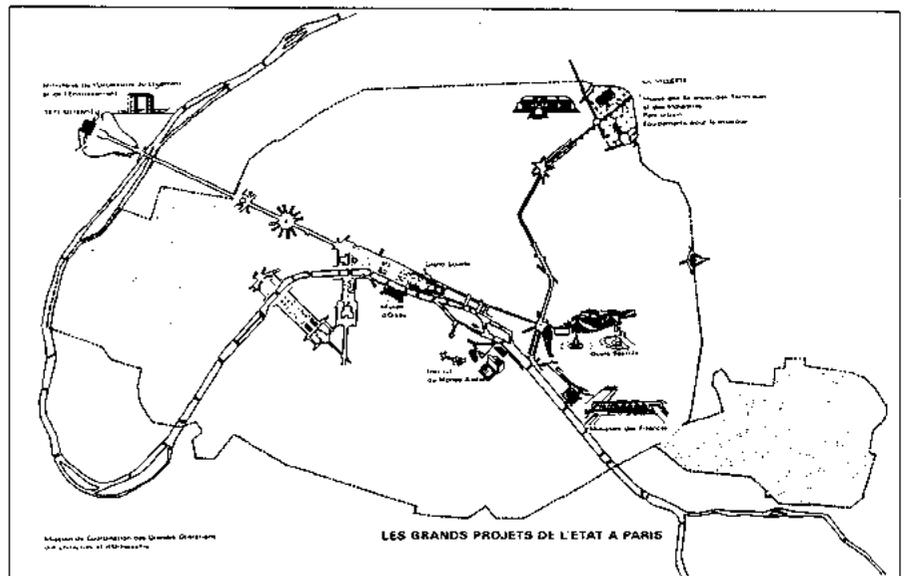
1982년 3월에 발표된 정부차원의 대형 프로젝트의 근본적인 목적은 파리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전대통령의 7년 임기중 결정된 4가지 실행계획은 이미 확인되었다.

오르세 미술관, 과학 산업관은 이미 대중에 공개가 되었고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다.

아랍 세계 연구소와 페르 데팡스는 재검토된 결과 착공되었다. 여기에 5개의 새로운 건축공사 대 루브르궁과 재무부의 이전, 바스티유 광장의 새로운 오페라, 거대한 도시의 공원과 라 빌레뜨의 정비, 마무리 작업의 음악단지등이 첨가되고, 또 1986년의 국민교육 박물관의 재개발과 특히 20년이상 문을 닫았던 역사 박물관의 보수작업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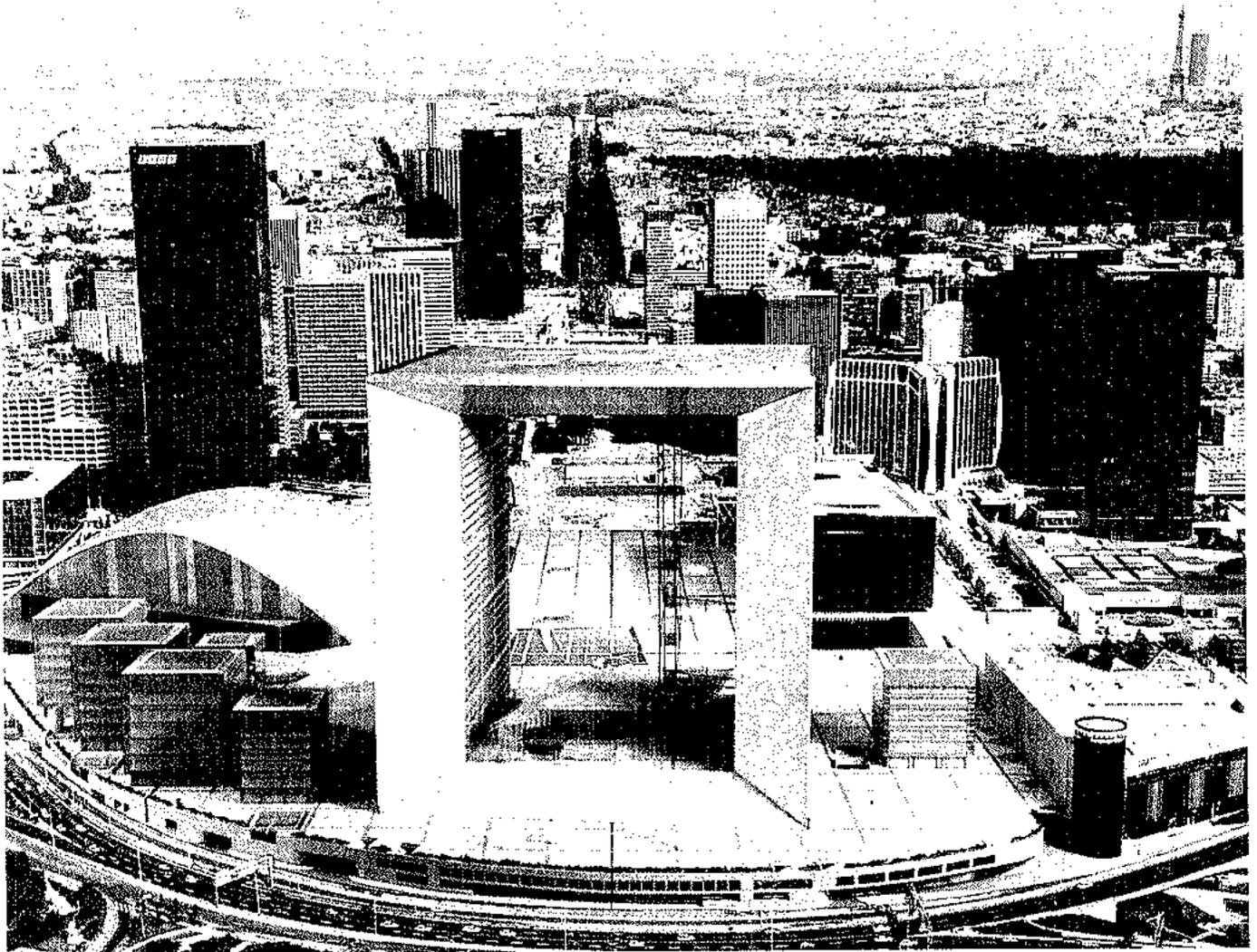
이미 파리에서 펼쳐진 일련의 노력이 많은 지방주요도시와 해외거주 프랑스령 현에의 시장을 자극하였다. 이 대형프로젝트들의 실현은 국가적인 응모로 수상자들이 정하여졌다. 최근 10년은 경제사회적 변화가 많은 해였다. 프랑스는 문화적 유산과 사회의 이해를 돕기위해, 또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문화적 건축물의 자금조달에 더 힘쓸 것이다.



떼뜨 데팡스

La Grande Arche de la
Defense

□감독 : 떼뜨 데팡스
□건축가 : — Johan Otto von Spreckelsen
(국제음모당선자)
엔지니어링 자문 : — Erick
Reitzel
— Jean-Pierre Buffi
(부속건물 설계 구상)
□엔지니어링 : Coyne et Bellier, Serete,
Trouvin



세계에서 가장 우아한 역사적인 선을 지닌 샹젤리제의 연결이 데팡스에서 이어질 것인가, 아니면 끊어질 것인가하는 반세기나 계속된 논란은 조안 오토 폰 스프레켈센의 대형건축물은 마침내 국제음모의 수상자들중 보기드문 우아함의 결정적인 대답을 내놓았다. 각각 110미터의 속이 빈 입방체는 (카라라산) 휘내리식으로 꾸며졌고, 역사적 전망을 보여준다. 단순한 형태의 건물이지만 뛰어난 기술적 성과를 보여준다. 300,000톤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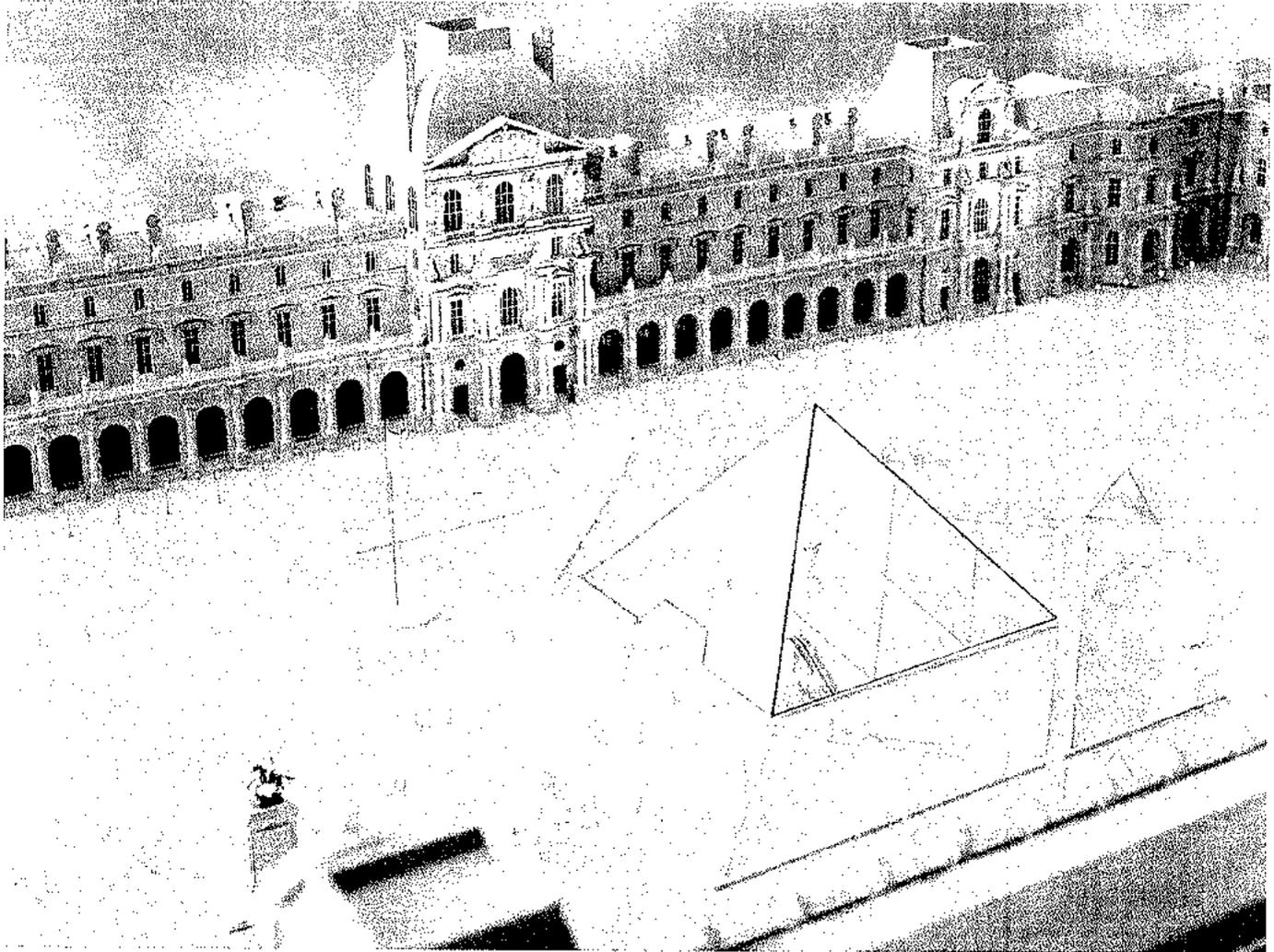
입방체는 확장된 연결이 없는 한 개의 큰덩어리이며 30미터의 12개 기둥이 받치고 있다. 4개의 강도증가 콘크리트가 건축물을 두르고 안정감을 주고 있다. 이 대형조형물은 사람이 거주하는 건물로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대중에게 활기를 주기위함이다. 지붕은 건물중에서 가장 뛰어난 부분이며, 세계 문화적성격의 건물을 뒀고있다. 건물주변은 장 뻐에르 뷔피에 의해 구상이 되어졌는데 사람들이 걸어다닐

수 있게 구상이 되었다. 바깥쪽으로는, 남쪽 화랑과 북쪽 측랑이 도보 통행으로 가능하도록하는 데팡스의 확장작업을 구상하고 있다. 1989년에 완공될 이 건물은 파리의 주요 건축물들의 일나되지 않은 리스트에 있으며 프랑스의 명성을 굳건히하는 상징적 건물이다.

대 루브르궁

Le Grand Louvre

□감독 : 대 루브르궁
□건축가 : Ieoh-ming Pei
Michel Macay et Georges Duval
□엔지니어링 : Serete et Sogelerg
Setec, Socleteg, OTM,
Planitec, Copibat



루브르는 이름은 궁과 박물관을 동시에 지정하고 있다. 세계에서 큰 궁의 하나인 루브르는 12세기 말엽에 착공되었다. 세월이 흐르면서 프랑스는 800미터도 넘는 센강을 따라 이 건물을 짓기 시작하였다. 박물관 자체는 1793년 프랑스 혁명때 생겼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어온 것인데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작품들을 보유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다양한 작품들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7개의 부서로 구성되어 있는데 동양의 고미술품에서 현대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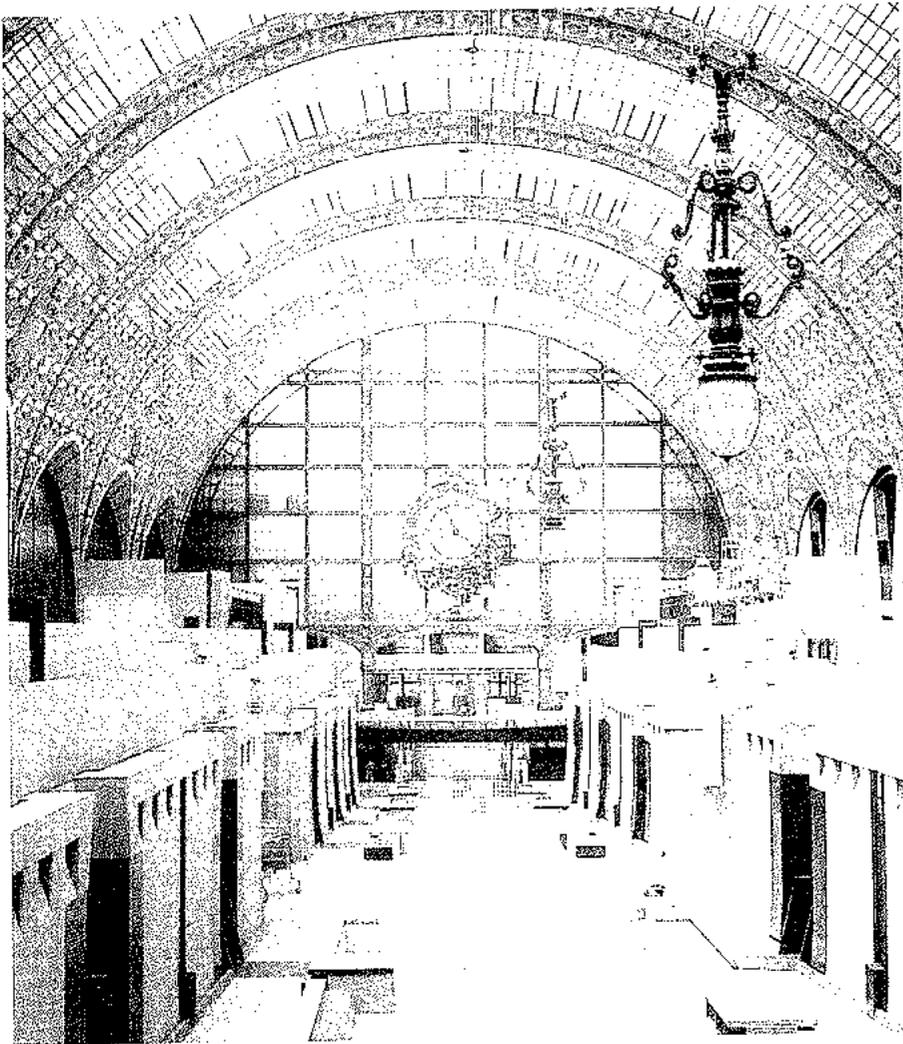
미술품과 대생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작품을 망라하고 있다. 박물관과 궁 두가지 기능을 수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사실, 길고 불편한 박물관은 건축물개념의 예술작품의 전시와 보전이라는 기능에 적합하지 못한 공간을 갖고있다. 그래서 1981년 대통령은 루브르에서 재무부를 이전토록 명하였다. 이런 결정이 대 루브르궁 계획을 가져왔다. 이제 궁을 독차지하게된 박물관은, 박물관안에 여러 작품들을 전시하게 된다. 두개의 건물을 사이에

두고 지하실과 연결된 전시실은 대중에게 공개될 것이고, 박물관 서비스와 체계적인 설비를 갖춘 이 건물의 중앙은 유리 피라밋으로 된 것이 특징이다. 베이라는 미국인 건축가의 계획이다. 그는 프랑스인 뒤발과 마카리와 함께 일했다. 현재 공사중인 과감한 형태변형공사는 1988년 상반기에 완성될 것이다. 관공서 이전후에 다시 일반에게 전시할 것이다.

오르세 미술관

Le Musée d'Orsay

- 감독 : 오르세 미술관
- 건축가 : Pierre Colboc, Renaud Bardon, Jean-Paul Philippon
- 내부건축가 : Gae Aulenti
- 엔지니어링 : Setec-Foulquier, Commins, Copibat, Guindollet, Preventec, Trouvin



루브르와 빌리리 공원을 마주하고 있는 오르세역은 세계에서 두드러지게 아름다운 지역이다.

1900년에 있었던 만국박람회를 위해 세워졌던 이 역은 19세기 후반기의 긴장과 변화를 잘 보여주고 있다. 기념비적인 정면, 공식예술의 특성에 부응하는 장식과 금속과 유리로 된 멋진 측랑은 엔지니어와 건축기술의 절정을 나타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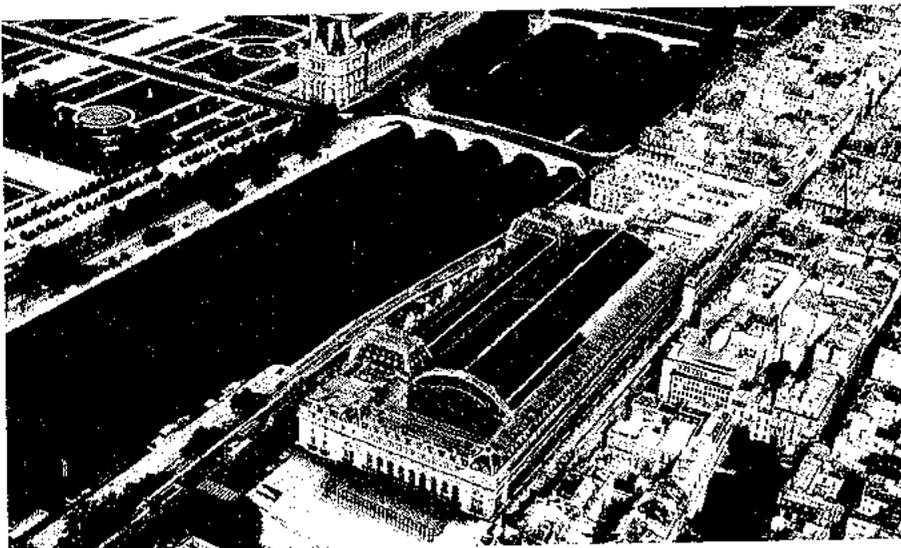
시대의 증인인 이 역은 1973년에 복원되었다. 5년후에는, 1848-1914년 사이의 예술창조품 전시에 쓰일 미술관건설로 결정되었다.

이 건물의 재건과 변경은 피에르 콜복, 르노바르동, 장 뵈 필리폰이 맡았다. 1979년에 수상하였다. 계획은 원래의 작품을 존중하는 것이다. 커다란 앞뜰, 유리로 된 지붕을 가진 정문, 투명한 측랑, 개 오렝티 여사가 새로운 건축양식처럼 내부정리를 구상했다. 미학은 현대적인 것이다. 전시실은 가장 훌륭한 조명시설, 전시조건, 안전과 안락도를 갖춘 것이다.

미술품, 조각, 건축물, 음악, 사진, 영화, 장식미술 등 예술의 모든 분야가 오르세 미술관에서는 보여질 수 있다.

미술관은 한 시대의 다양한 면을 감상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을 하고 있다. 우리의 시대를 알리는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인 변화와 예술창조의 관계를 이해를 돕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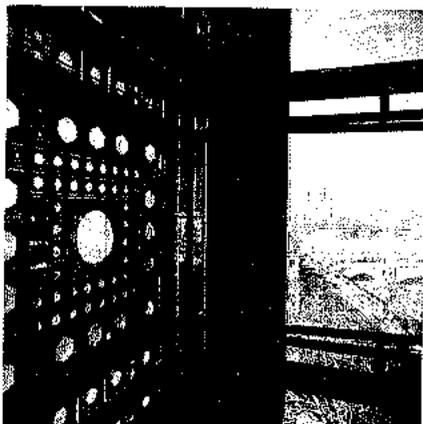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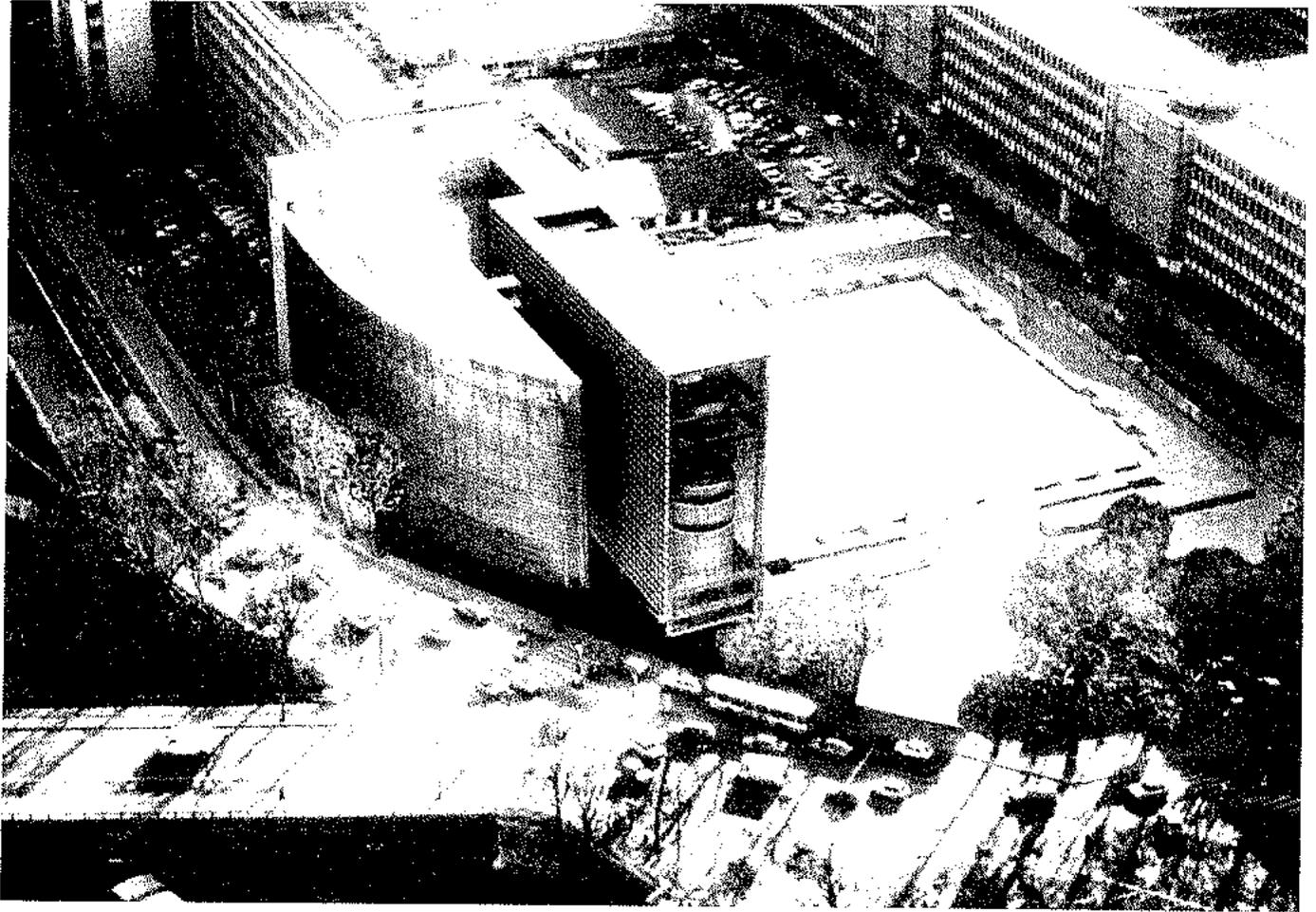
1986년 12월 9일부터 문을 연 오르세 미술관은 성공을 거두었다. 루브르 박물관과 퐁피두센터와는 다른 문화의 면을 보여주는 미술관이다.



아랍 세계 연구소

L'institut du Monde Arabe

□감독 : 아랍세계 연구소
 □건축가 : Jean Nouvel, Pierre Soria,
 Gilbert Lezenes et
 Architecture-studio
 □엔지니어링 : Setec, Planite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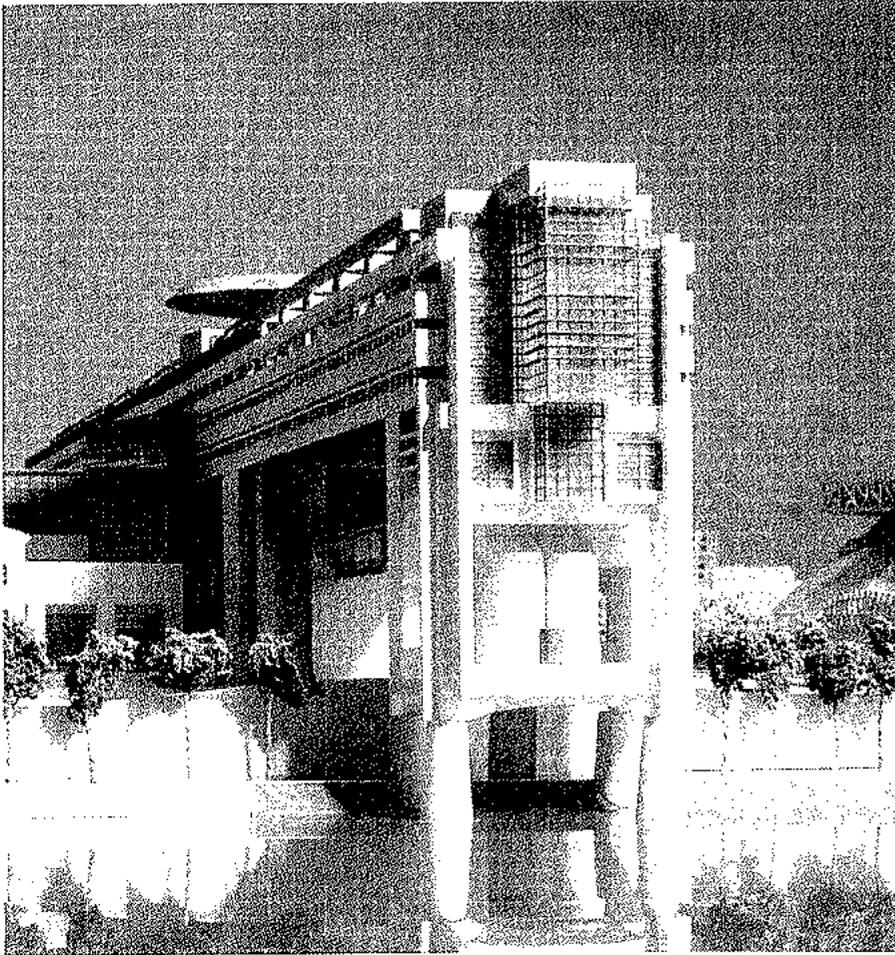
빠리의 중심부에 있는 아랍 세계 연구소는 두 문화의 만남 장소이다. 프랑스와 20개국의 아랍 국가들의 공동의 작품을 가지고 있는 이 연구소는 천년간 두 풍성한 문화의 예술, 기술, 과학의 교류 장소이다. 배치에서 좀 예외적으로 라탱가의 임구부분으로 생 루이섬을 마주하고 있다. 100,000권의 장서를 보유한 도서관, 500점의 작품을 가진 박물관, 현대적 화방, 2개의 전시실, 정보센터, 아랍 세계 텔레비전, 400석의 강당, 식당, 서점등이 있다. 장 누벨, 피에르 쓰리아, 질베르 레젠스, 콩크르의 수상자들에 의해 구상된 섬세한 두 문화의 접합체를

만들어 냈다. 건물 북쪽에는, 빠리의 전통이 스며있으며 정면은 생 제르맹 거리와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는 박물관의 창에 빠리 건축물의 윤곽을 보여준다. 건물 남쪽에는 27,000막판과 242계시관들이 불빛에 따라 열렸다 닫히곤한다. 이렇게 정면이 현대식 커다란 덧문으로 만들어졌고, 도서관의 불빛을 조정한다. 담, 안마당, 빛에 의한 그림자 장난이 하얀 대리석에서 벌어지고 이런 것들은 과감한 현대아랍건축양식이다. 건물의 중간 부분은 노트르 담 사원의 뒷부분으로 통하는데 이것은 바치 두 문화를 연결하는 상징 같다.

재무부 새청사

Le Nouveau Ministère des
Finances

□감독 : 프랑스경제재무민영화성
□건축가 : Paul Chemetov,
Borja Huidobro
□엔지니어링 : Serete, Setec, Sechaud et
Bossuyt, SGTE, Seri-Renaul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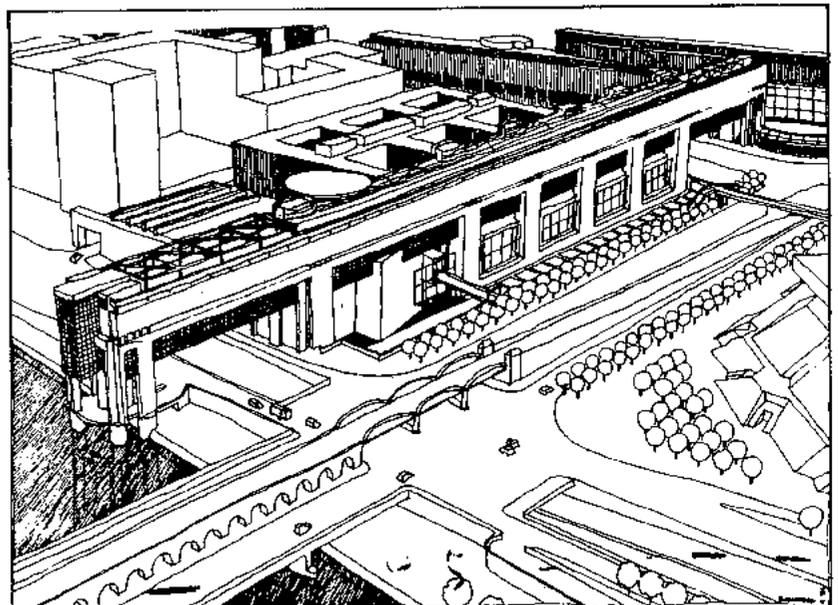


재무부에 소속된 여러 부서들은 파리의 곳곳에 퍼져있다. 베르사이에 의해 세워진 건축물은 규모가 큰 부서들을 다시 재편성하고 가장 근대적인 활동기구로 채워질 것이다.

이 건물은 리용역과 Palais omnisport (스포츠광장) 근처에 설치된다. 이것은 파리의 동쪽지역 재평형을 위한 것이다. 뽀 케메트브와 보르자 위도르브, 국내건축 경쟁시험의 수상자들은 225,000평방미터의 새건물을 세운다. 5,200기관을 수용할 수 있다. 넓고 잘 구상된 작업영역과 정보망과 사무실간의 연결 강연장, 스포츠실, 식당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갖추고 있다. 이 건물은 작업조건을 개선할 가져올 것이다.

주요건물은 쟈가에 있는데 건축물의 완공은 1988년 하반기로 예정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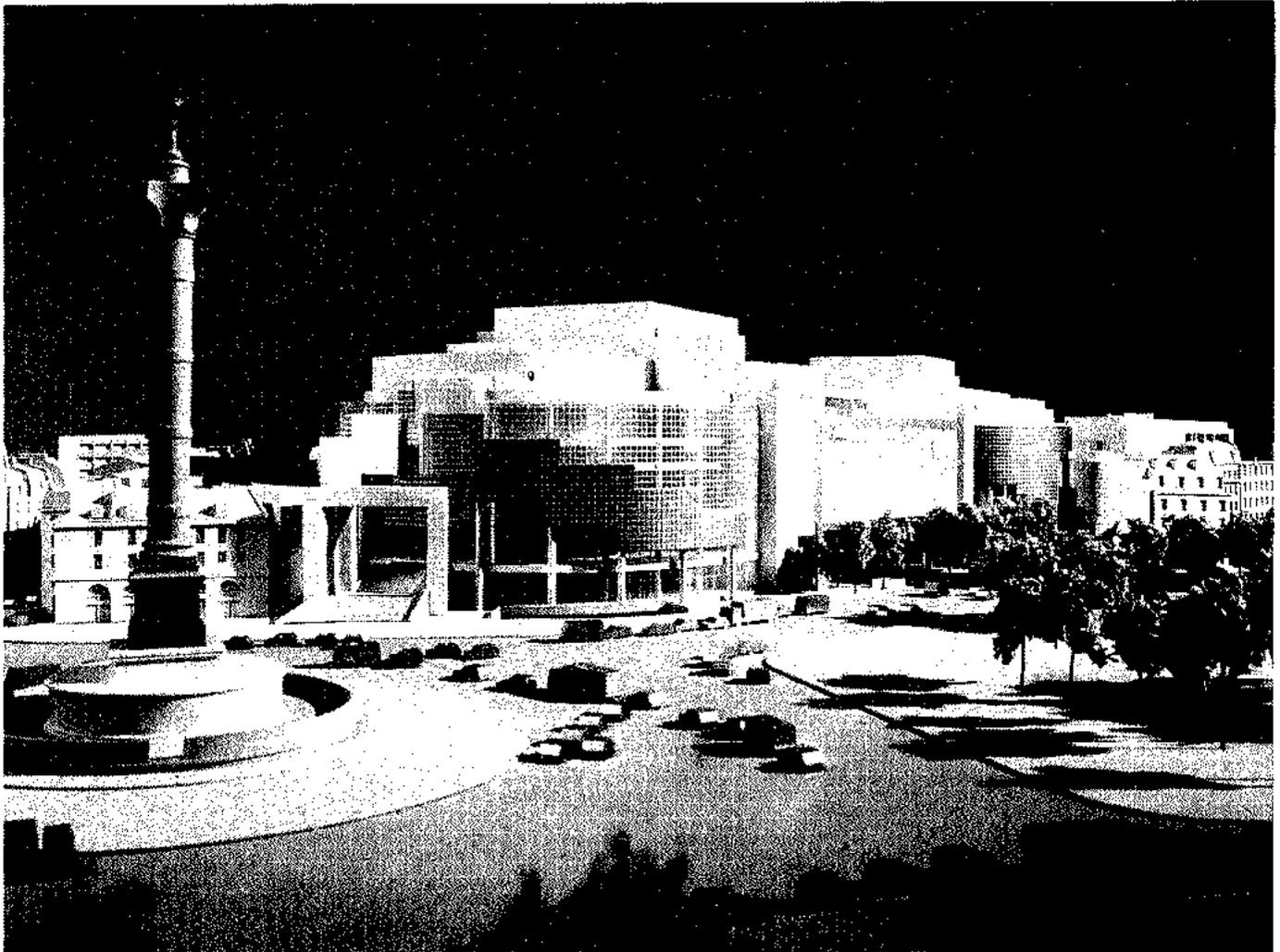
보충 기획은 리용역에서 실현될 것인데 앞으로 일반 세무과의 1500명의 공무원들이 일하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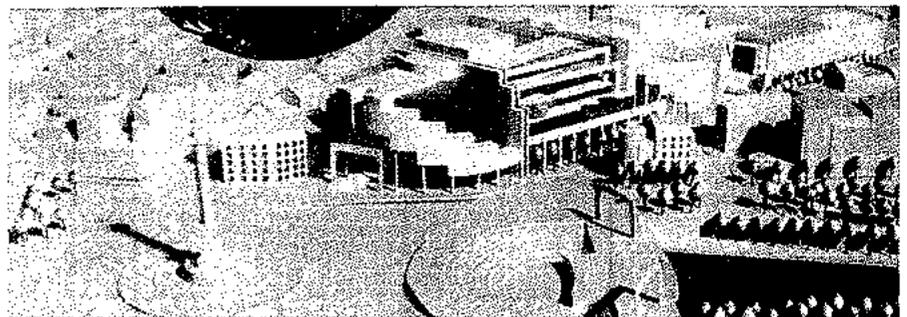
바스티유 오페라극장

L'Opéra de la Bastille

□감독 : 바스티유 오페라극장
 □건축가 : Carlos OTT, Saubot et Julien
 □엔지니어링 : Setec-Sodeteg-EMH-
 R. Biste, Fechoz, Serete,
 Trouvin



오페라와 무용의 발표를 위한 대극장은 바스티유 광장에 세워진다. 가장 현대적인 발표방법을 가진 거대한 시설이 될 것이다. 가르니에 궁전과 더불어 바스티유 광장에 세워질 오페라극장은 서정적 오페라의 다양한 형태에 늘어나는 대중들의 취미를 만족시킬 것이다. 건물의 위치는 이상적이다. 바스티유 위치는 전통적으로 볼때 축제와 행사의 이미지와 연결되어 있다. 또한 역사적으로 중요한 곳이기도 하다. 파리의 동부 지역은 세계적인 수준의 문화적 시설을 소유하게 될 것이며, 수도의 위신과



이미지를 한층 강화할 것이다. 현대건축가이며 1983년에 국제응모에서 수상한 카를로스 오토는 이 지역의 구조를 존중한다. 유리과 금속의 혼합사용, 보다 전통적인 자재의 사용은 건물의 기능을 잘

나타내고 있다. :2700석의 커다란 홀, 오페라 하우스, 600석의 계단식 강당, 연습실, 무대장식실에 완벽하게 꾸며진 홀. 완공은 프랑스혁명기념일 200주년을 맞는 1989년 7월 14일로 예정되어 있다.

그랜드 홀

La Grande Hal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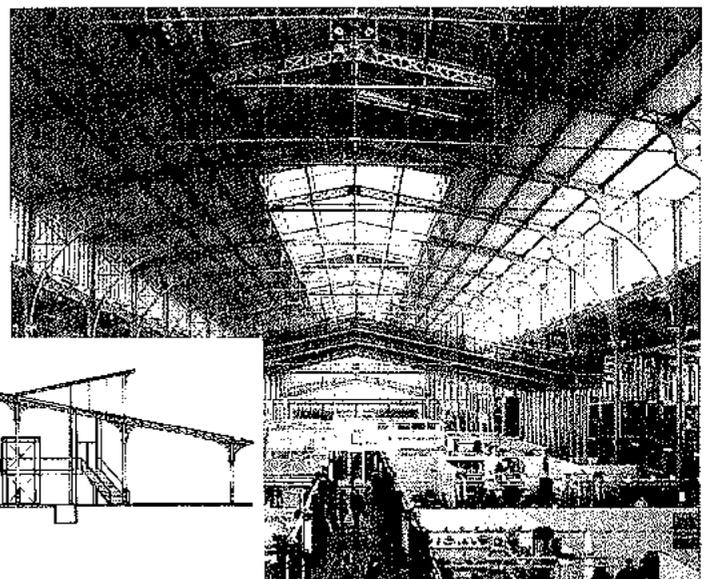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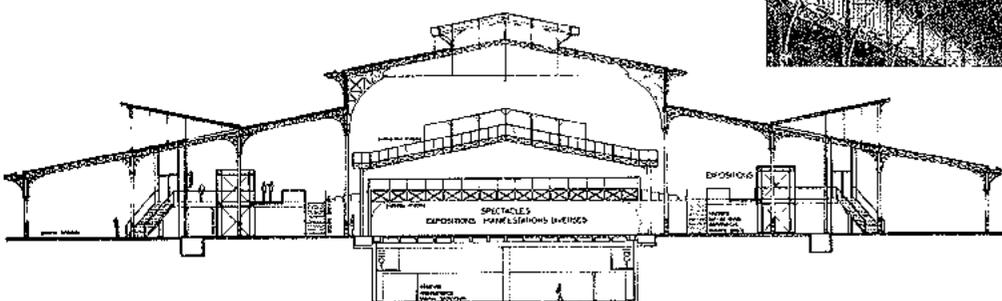


라 빌레뜨의 기존건물중에서 1867년 메렌돌이 건축한 소시장 건물은 19세기 철조건물중 가장 아름다운것 중의 하나이다.

건축가 레이첸과 로베르는 이 건축물을 각종 문화행사(공연, 전시회, 음악회)를 치를 수 있으면서도 원래 모습을 잃지않도록 배려하여 2헥타에 달하는 공간을 재보수 활용하였다. 중앙홀 부분에는 철골받침대가 없도록 설계 되었으며 지하에 내장된 이동빙음벽을 사용하여 공연장을 분할할수 있었다. 이동트랩이나 이동무대를 사용함으로써 공연장을 변조시킬수 있으며 무대장치를 설치할수 있게 하였다.

지하에는 300석 규모의 홀과 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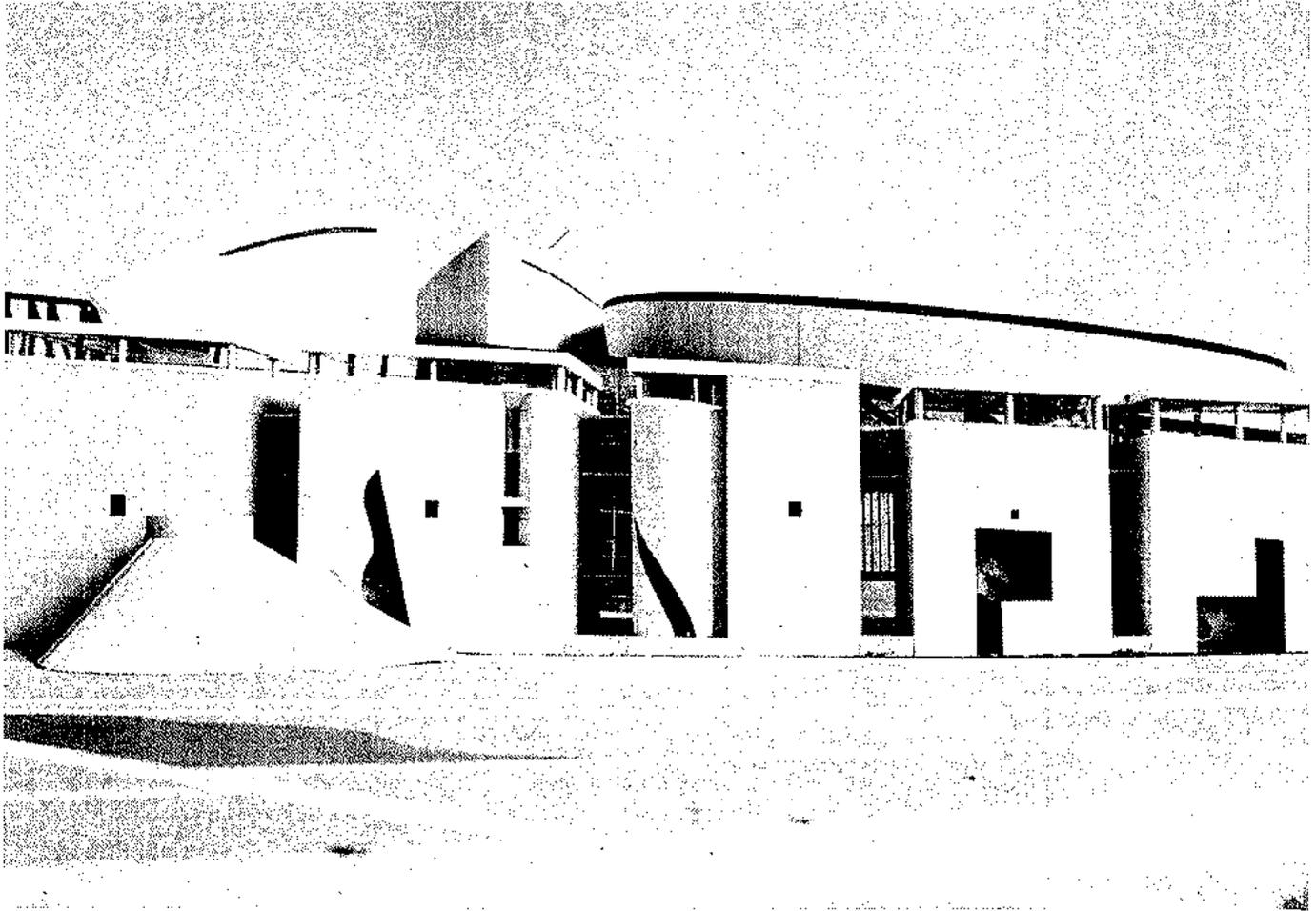
정면입구는 유리를 사용하여 안쪽으로 쏙 들어가게 만들어져있어 건물의 전체적인 투명감을 느끼게해주며 외부쪽으로 회랑을 만들어놓고 있다. 그랜드 홀 (La Grande Halle) 은 복원되어 1985년부터 사용중이다.



라 빌레뜨 음악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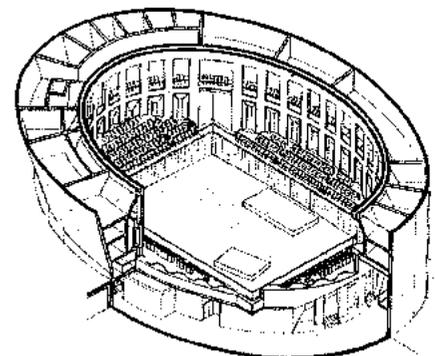
La Villette
La Cité de la Musique

- 감독 : 라 빌레뜨 대공원
- 건축가 : Christian de Portzamparc
- 엔지니어링 : Sodeteg, Sodelerg, Commins, Gemo



프랑스에서 음악활동이 놀랄만한 소생을 기할즈음에도 빠리 국립 음악원은 낡은 시설을 사용하고 있었다. 음악도시의 창설은 무엇보다도 바로 이런 시설부족상황에 부응하여 이루어졌다. 라 빌레뜨의 새음악학교는 새로운 교육법에 필요한 수단들, 즉 작업실, 단체·공공실습실, 연습실, 방음실, 미디어텍크등을 갖추게 될 것이다. 그 지역 남쪽의 정면적인 사자분수정원 서쪽에 위치하는 음악전당은, 동쪽으로는 현대양상블, 음악박물관, 음악교육기관과 함께 800내지 1200석의 연주실이 있는 두번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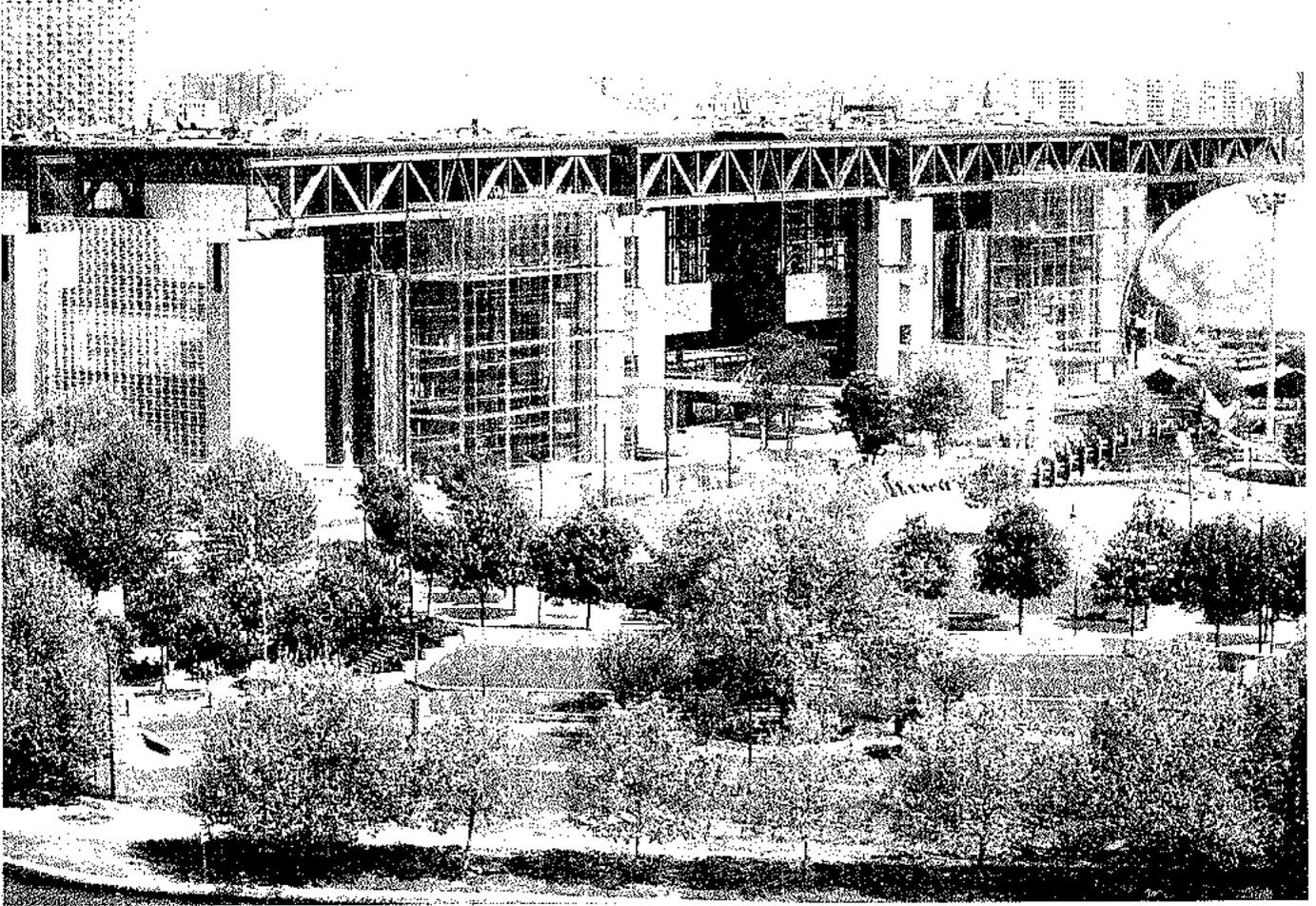
단지를 두고 있다. 대회수상자인 포쎈 빠르그는 두 부분을 대조시켰다. 즉, 서쪽에는 빠리의 전형적 형태로서 안정스런 양상블을 이루고, 동쪽에는 전통적 도시덩굴손을 섬세한 나선장식 주위에 기하학적으로 다이내미한 구성을 시도하였다. 나팔모양의 외관은 이곳이 바로 음악전당임을 상기시킨다. 이 음악전당은 1989년 대학입학시기에 문을 열게 될 것이다.



라 빌레뜨 과학산업관, 제오드

La Villette
La Cité des Sciences et
de l'Industrie, La Géode

□ 감독 : 라 빌레뜨 대공원
□ 건축가 : Adrien Fainsilber
□ 엔지니어링 : Algoe, Satoba, SGTE
Trouvin, Technip, Sodeteg,
Serete



라 빌레뜨 북쪽에 위치했던 길이 250m, 폭 120m의 상당한 규모의 과거 도살장이 1986년 3월부터 대규모 과학시설을 들여 놓음으로써 과학산업관이 되었다.

1980년 대회수상자인 웬실베르는 세가지 아이디어로 이 건물의 변형을 꾀했다. 먼저 건물주위를 에워싸는 도랑에 수로형식으로 막대한 물을 확보하고 그 규모를 강조했다. 다음 초목을 심어 그 지역 통합에 기여한다. 기술적 경묘함과 대담성이 놀랄만하게 어우러진 남쪽 외관에 측면 32m의 3개의 온실을 설치하여 센터내부에 초목을 들여 놓는다. 그리고 120m씩 떨어져있는 외관들 사이의 거리에도

블루하고 자연광을 내부 어느곳에서나 받아들일 수 있게 하고 있다. 그것은 17m지름을 갖는 회전식 등근 지붕이 있어 그곳에 설치된 거울이 광선을 자동적으로 포착하여 커다란 환영홀에 빛을 투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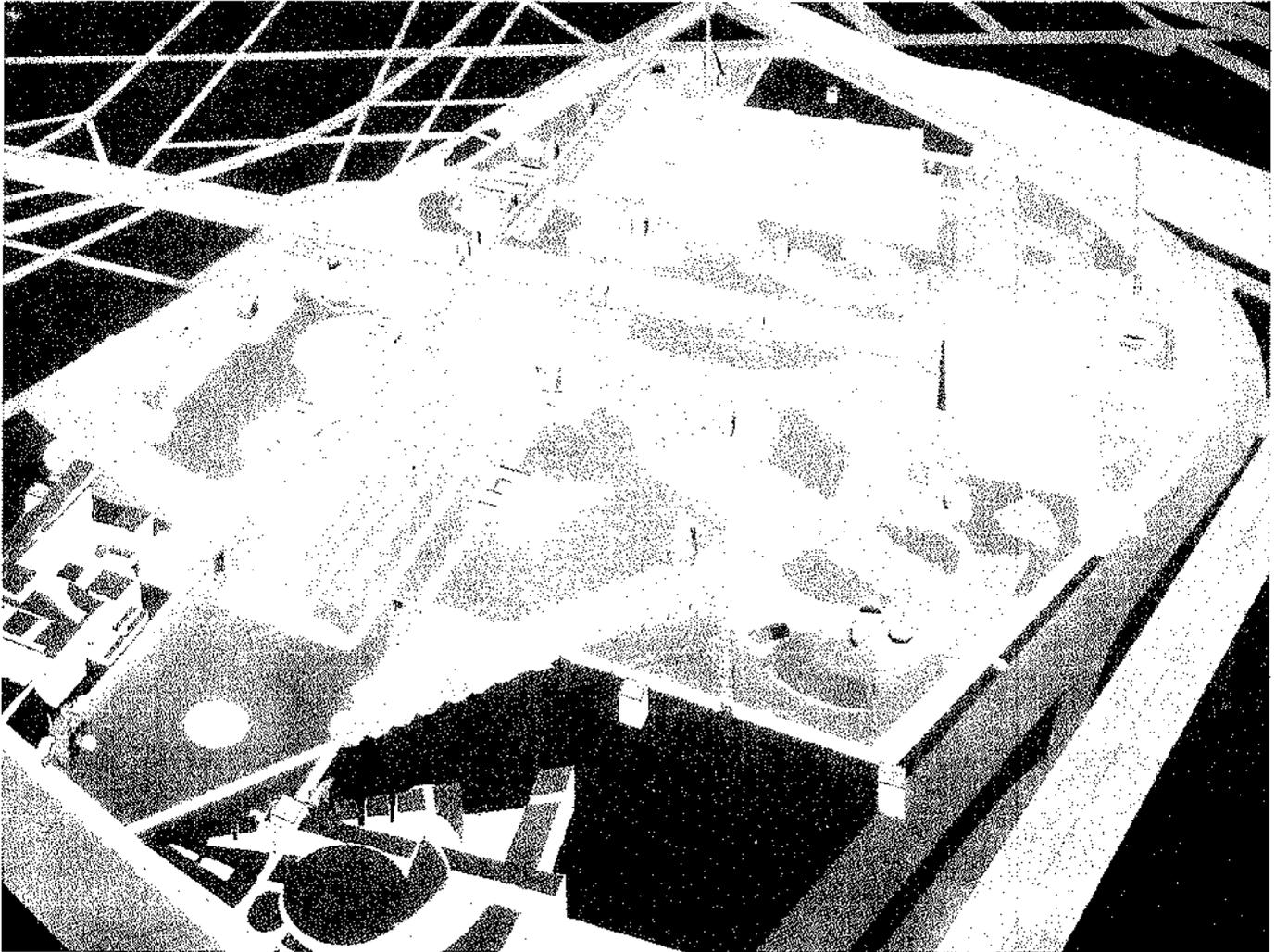
센터 앞쪽 제오드의 빛나는 강철로 된 것은 모두 반사하는 구체는 유럽에서는 유일한 반구형의 영화관을 가지고 있다. 간단하면서도 강력하고 이쁜 메너리즘에도 빠져들지 않은 이 건축술로해서 1987년 국내건축대상이 바로 이 건축장본인에게 돌아갔다. 이 센터를 방문하게되면 내부가 여러행태를 띄고, 상호교류적인 것을 발견하게 된다. 세계에서 가장 크고

독창적인 이 과학의 총채지대에서 우리는 걸음을 내딛을 때마다 그리고 우리사신의 흥미에 따라 과학기술에 대한 지식과 접하게 된다. 3만평방미터에 배치된 상설전시장, 탐구실은 크게 4가지 분야, 즉 지상에서 우주까지, 생활탐구, 언어와 전달, 물질과 인간작업에 있어서 과학과 기술, 공업적 탐구가 세계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길 열망한다. 또 수많은 임시전시회들, 플라네타륨, 미디어텍, 과학의 현재를 알리는 방, 어린이용 인벤트리움, 루이 뒤미에르 상영실 등이 있어 발견과 경이와 학습 혹은 단순한 흥미를 위해 보는 재능을 다한다.

라 빌레뜨 공원

La Parc de la Villette

- 감독 : 라 빌레뜨 대공원
- 대공원건축 : Bernard Tschumi
- 그랜드홀(라 그랑드 알르)건축가 : Robert et Reichen
- 대공원 엔지니어링 : Setec
- 그랜드 홀(라 그랑드 알르)엔지니어링 : Arcora et Sogelerg



도시공원 혹은 도시가운데 정원인 라 빌레뜨공원은 새로운 정신을 반영하는 녹색지대이다. 동시에 자율적이며 대중적시설로써 일종의 여가지대이다. 즉 산책이나 축제의 공간이며, 과학산업관, 그랜드 홀(라 그랑드 알르), 제니프, 음악도시등 그 지역 대시설들간의 연결을 도모하는 등 질적으로나 다양성으로 매우 특징적인 문화의 총체를 이루고 있다. 빠리의 동북 기슭에 자리하는 이 대공원의 35헥타르는 도시와 중요부대시설이 부족한 교외 지역을 잇는, 그야말로 통합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국제대회의 수상자인 쥘미씨가 설계한 이 공원은 섬세하면서도 빈틈없이 구성되었다. 중요 유흥시설로써, 붉은 에나멜칠을 한 함석으로된 작은 건물들이 있어, 우리는 안네소, 간이식당, 가두판매점, 인스턴트 음식점, 어린이 놀이집, 온천장, 게임실등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들은 이곳저곳을 연결시키는 실내 화랑과 같이 폭선이나 직선으로 전체가 한선상에 놓여지며, 광장, 초원, 주제별 소규모 공원들과 같은 야외공간과도 나란한 선상에서 놓이게 된다.

그랜드 홀(라 그랑드 알르)도 이 대공원의 일부를 이룬다. 철과 유리로된 이 건축물은 이 장소의 내력을 잘 반영한다. 건조물의 변조가능성으로해서 다용도로 그 이용이 가능하다. 즉 록음악, 영화, 축제행사, 오페라, 전시회, 회합, 극부대, 회장등으로 모든 이용이 가능하다. 대공원의 제1구역 12헥타르가 1987년 여름에 개장한다. 그랜드 홀은 1985년 3월에 문을 열었다. 수많은 전시회와 발표회로해서 대공원은 이미 파리지역에서 가장 활발하다.

제 2 회

新人·學生 建築設計作品 公募

The 2nd KIRA Offering Prize for Newman and Student of Architecture

本協會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新人 및 學生들의 建築設計作品懸賞公募를 통하여 우리나라 建築文化藝術發展과 새로운 建築風土 組成 및 後進養成에 기여하고자 다음과 같이 新人·學生建築設計作品을 公募하니 뜻을 함께하는 新人·學生여러분들의 적극적인 參與와 聲援바랍니다.

■ 부 문

- 신인 : 지체부자유자 복지시설 및 기타.
(도심지내 소규모건축물 연면적 1,000㎡ 이하)
- 학생 : 제한없음(자유)

■ 자 격

- 신인 : 대학원생과 대학 및 전문대학건축과 졸업후 설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건축사 제외)
- 학생 : 각 대학 및 전문대학 건축과 재학생

■ 후원 : 건설부

■ 제작출품요령

- 패널규격 : 90×90cm (가로×세로, 규격엄수)
- 출품내용 : 1작품당 패널 3개이내 및 간략한 작품설명서
- 출품인원 : 1작품당 3인 이내
- 응모기간 : 1987. 6. 1~7. 30
- 출품기간 : 1987. 9. 1~9. 10
- 장 소 : 대한건축사협회 본부 및 각시·도지부사무국
- 기 타 : 모형출품은 금지하며, 모형사진과 도면을 사진으로 현상하여 패널화하지 말것.

■ 작품전시

- 전시기간 : 1987. 10~1988. 4.
- 전시장소 :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인천, 춘천에서 '87건축사설계작품순회전과 동시에 전시

■ 시상내용

- 신인
 - 금 상 : 1점(기념메달 및 상패, 상금 150만원)
 - 은 상 : 1점(기념메달 및 상패, 상금 100만원)
 - 동 상 : 1점(기념메달 및 상패, 상금 50만원)
 - 장려상 : 다수(기념메달 및 상패, 상금 30만원)
 - 가 작 : 다수(기념메달 및 상패)
- 학생
 - 금 상 : 1점(기념메달 및 상패, 상금 100만원)
 - 은 상 : 1점(기념메달 및 상패, 상금 70만원)
 - 동 상 : 1점(기념메달 및 상패, 상금 50만원)
 - 장려상 : 다수(기념메달 및 상패, 상금 30만원)
 - 가 작 : 다수(기념메달 및 상패)

■ 심사일표 : 1987. 10월중

■ 시 상 : 1987. 10월중

■ 문 의 처 : 대한건축사협회 출판사업부(전화 : 581-5711~4)

한국의 전통건축

張慶浩

문화재연구소 소장

Reprot / Architectural History of Korea
by Chang, Kyung-Ho

우리나라의 傳統藝術이나 建築도 우리의 민족성과 국민성을 나타낸다. 특히 건축이란 사람이 생활하는 空間을 이루는 營造物로서 그 생활환경과 양상에 따라 人爲的으로 형성된다. 따라서 건축은 그 환경뿐만 아니라 그것을 營爲하는 사람의 風俗과 性向등을 잘 나타낸다. 筆者가 여기 韓國建築의 根幹을 時代的으로 記述함에 있어 지금까지 나타난 重要자료를 중심으로 알기쉽게 설명하고자 한다.

1. 序

어느나라의 藝術이건 그 나라의 國民性을 반영하고 있음은 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傳統藝術이나 建築도 우리의 민족성과 국민성을 나타낸다. 특히 건축이란 사람이 생활하는 空間을 이루는 營造物로서 그 생활환경과 양상에 따라 人爲的으로 형성된다. 따라서 건축은 그 환경뿐만 아니라 그것을 營爲하는 사람의 風俗과 性向등을 잘 나타낸다. 筆者가 여기 韓國建築의 根幹을 時代的으로 記述함에 있어 지금까지 나타난 重要자료를 중심으로 알기쉽게 설명하고자 한다. 다만 이번 호에서는 序論的인 記述로 우리나라 건축의 特性과 歷史의 背景을 우선 적어본다.

1) 우리나라 傳統建築의 特性

韓國의 傳統建築文化는 東아시아 建築文化圈에 속해 있다. 즉 中國系 建築文化의 影響을 많이 받아왔지만 일부 海洋的 南方의 建築文化도 影響 받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外래의 文化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고 그 건축문화를 우리의 風土와 民族性에 맞게 적응시켜 우리의 독특한 건축문화로 발전시켰다.

우리나라의 민족성은 역사적으로 볼 때 대담하지도, 왜소하지도 않고 중용의 성격을 갖고있다. 그래서 他를 지배하려 하지 않고 他에 의하여 침범 당하려 하지도 않았다. 자연을 해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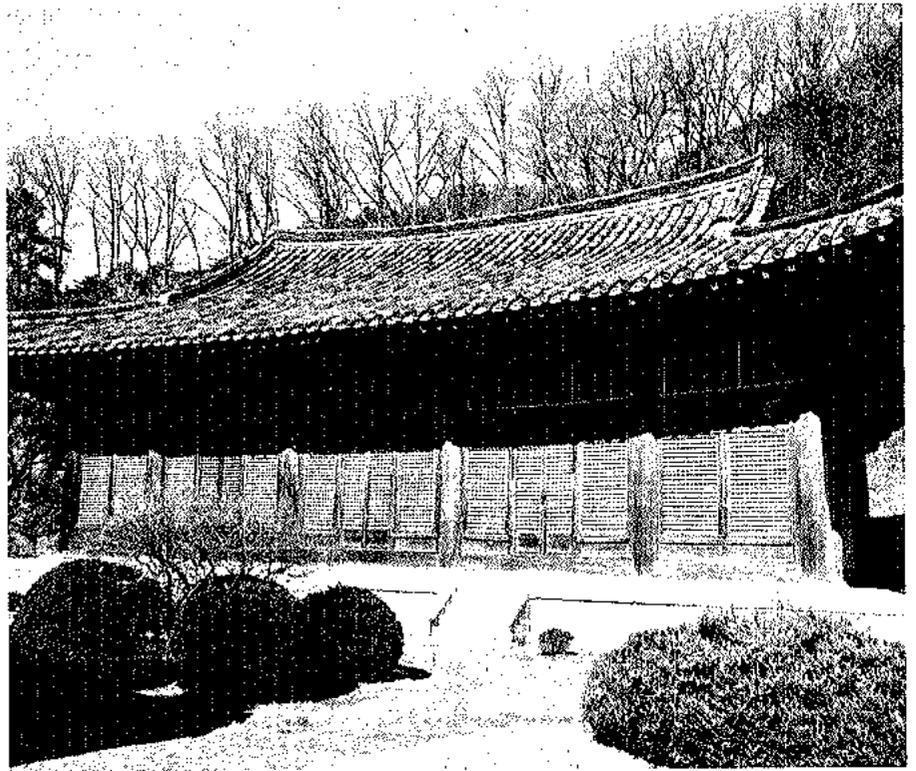
않고 敬畏하며 자연과 연관된 神靈을 숭배하였기 때문에 되도록 자연과 連續性을 갖고 조화를 이루기를 원하였다. 따라서 건축을 造營하는 태도 極大하지도 倭小하지도 않으며, 자연을 지나치게 개발하여 파손시키면서까지 건축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적응하려는 태도로 건축을 계획하려 했다. 또 중국이나 일본과 같이 제도에 얽매인 規範的 Detail 을 반드시 지켜오지 않았고 그렇다고 방종한 기법을 쓴 것도 아니면서 전체적인 비례와 조화미를 꾀한 것이 우리 전통건축의 특징이라 할 것이다. P.J.Grillo 는 말하기를 「農家の 디자인은 어떤 속임수도 편견도 없으며 특정한 스타일이나 시대에 따른 양식도 없고 그저 진실함이 나타나 있을 뿐이다…」라고 했는데 이말은 우리나라의 전통건축의 순박성을 대변해 주기라도 하는 것 같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건축은 시대에 따라 어떤 규범적인 양식을 뚜렷이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연의 진실성을 항상 존중하여 조화시키므로써 농촌의 村女와 같은 진실함과 소박함 그리고 수줍음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건축에는 永遠性이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제주도의 민가를 공부해 보면 이들이 얼마나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가를 금세 알게 될 것인데, 우선 이 지방의 氣像特性으로 거센 바람을 막기 위한 돌담을 집 주위에 둘러쌓고

〈柱心包 양식〉

〈부석사 무량수전〉(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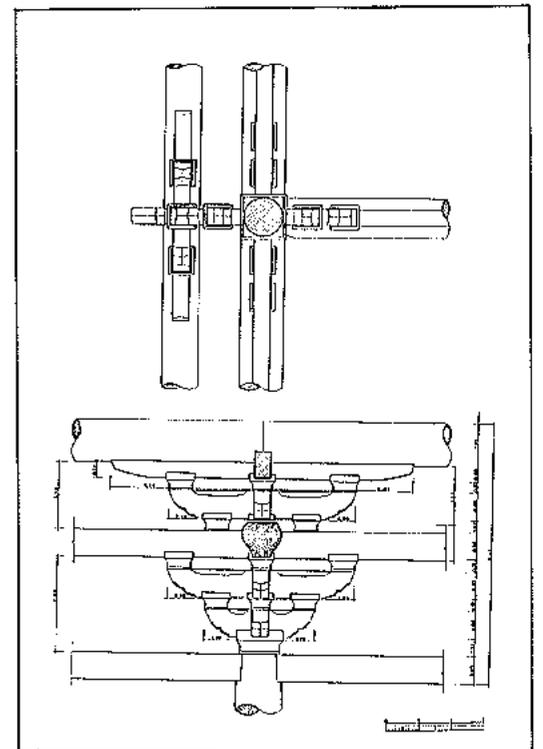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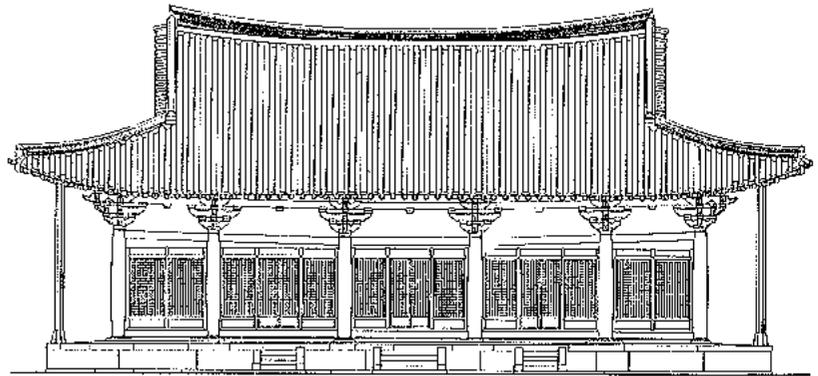
〈부석사 무량수전 정면도〉(中)

〈무량수전 栱包 상세도〉(下)



지붕에는 草屋의 새(풀의 종류)가 날아가지 않게 줄을 井字形으로 엮어서 묶어두었다. 뿐만 아니라 지붕의 형태와 그 곡선은 마치 한라산의 형태와 같이 낮으막하고 완만한 線을 이루고 있다. 이는 유구한 세월을 견디어 오면서 자연친식에 의하여 형성된 한라산의 형태가 이 지방에서 가장 견디기 좋은 이상적인 조형이란 데서 기인할 것이다. 오늘날 과학의 발달로 만들어진 비행기가 鳥類의 형태를, 또 로케트가 바다 속에 頭足類를 모방하지 않을 수 없다는 데서도 자연의 진실과 영구성을 느끼게 하기 때문이다. 이와같이 제주도의 민가를 만일 현대식 재료인 슬레이트나 洋기와로 고치고, 지붕을 높이 올리고 주위를 블록 담장으로 둘러싼다면 집이 오래 견디기 어려울 뿐만이 아니라 보는 이로 하여금 부조화된 거부반응을 줄 것이다. 필자는 인천가 現 中央博物館內 북쪽 景福宮을 내려다 보는 위치에서 宮內의 傳統建物들과 背後의 仁旺山이나 白岳山을 포함한 풍경을 바라보았는데 이때 느끼는 건축과 환경의 조화미는 한폭의 그림과 같았고, 반면 남쪽의 南山을 배경으로한 現代빌딩 숲을 바라볼 때 느끼는 것은 美라고 표현하기 어려운, 다른 느낌이었음을 솔직히 말하고 싶다.

이러한 결과는 都市計劃을 함에 있어 우리의 뿌리있는 傳統建築美에 대한



“

궁궐의 중심이 되는 지역의 주요건물배치는 左右대칭을 이루는 규범을 지키려 했지만 전체적으로 보아 자연조건인 지형에 맞추어 자유롭게 배치된 특징을 보이는 점이 중국이나 일본의 배치와 다르다고 할 것이다. 五行思想이 우리 건축에 영향을 준것은 이런 배치뿐만이 아니고 丹青을 彩色함에도 적용되어 색을 五原色으로 분류하여 靑, 赤, 白, 黑, 黃色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

이해가 부족하였던가, 아니면 經濟性 추구에 급급하여 都市美에 배려가 안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 건축은 사용되는 재료도 自然資料로, 풍부한 소나무, 화강암, 진흙 등인데, 이들을 가공하여 사용하기도 했지만 경우에 따라 이들 재료를 그대로 사용, 자연미를 나타냈다. 예를 들어 架構式 木造建築에서 自然礎石이나 基壇 그리고 원래 생긴대로 굽어진 木柱와 보 등에서 이러한 의도를 흔히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自然石 柱礎와 기둥을 맞추어 세우는 그랭이 기법과 굽어진 기둥과 벽선에 마춤기법, 굽어진 보(衡樑, 우미랑, 파도리 받침보 등)의 架構法이 발전하였다. 특히, 우리나라에는 질 좋고 耐久性 좋은 화강석이 많이 생산되어 이를 가공할 수 있는 기술이 옛부터 발달되어, 통일신라시대에는 佛國寺나 石窟庵과 같이 우리나라의 石造建築文化의 꽃을 피우게 됐다. 우리나라는 이미 삼국시대부터 중국의 영향을 받은 神仙思想과 風水思想에 의한 건축을 造營하였다. 따라서 건축을 함에 陰陽說과 五行說을 존중하고 인간의 吉凶禍福을 이 조건에 결부시켜 많은 제약을 받으면서 자연에 순화되는 건축을 해온 것이다. 예를 들어 景福宮은 조선시대의 正宮으로서 북쪽에 白岳山을 背山으로, 주요건물들을 南北軸에

맞추어 남에서부터 光化門과 弘禮門, 永濟橋, 勤政門, 勤政殿, 思政殿, 康寧殿, 交泰殿 등이 놓이고 그 외곽으로 동쪽에 建春門, 서쪽에 迎秋門, 남쪽에 光化門, 북쪽에 神武門을 건조하여 東→春·靑龍, 西→秋·白虎, 南→夏·朱雀, 北→冬·玄武, 中→黃·帝 등을 표현하는 五行思想을 따랐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고구려의 安祿宮이나 고려의 滿月臺 등 前代의 宮闕制度의 전통적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믿어지는데 궁궐의 중심이 되는 지역의 주요건물배치는 左右 대칭을 이루는 규범을 지키려 했지만 전체적으로 보아 자연조건인 지형에 맞추어 자유롭게 배치된 특징을 보이는 점이 중국이나 일본의 배치와 다르다고 할 것이다. 五行思想이 우리 건축에 영향을 준것은 이런 배치뿐만이 아니고 丹青을 彩色함에도 적용되어 색을 5原色으로 분류하여 靑, 赤, 白, 黑, 黃色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색의 사용도 중국과 같이 원색을 쓰지 않고 가급적 중간색을 만들어 사용하였거나 몇 段의 빛깔을 넣어 색의 조화를 꾀하는 한편 인위적 자극을 피하였음이 그 특징이라 하겠다. 이렇게 中庸을 벗어나지 않으려는 우리나라 전통건축도 사회적 필요에 따라 거대하고 놀랄만한 건축을 세웠으니, 그것은 신라의 皇龍寺를 대표적 예로 들 수 있다. 7세기初 건립된 皇龍寺

9層木塔은 목조건물로서, 높이 약 80m 가까운 놀라운 것이었다. 이것은 당시 우리건축의 기술이 얼마나 뛰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佛國寺의 紫霞門 앞이나 安養門 앞의 계단인 靑雲, 白雲橋와 蓮花七寶橋 또 그앞에 石築段과 泛影樓 밑에 놓인 擔遮形石柱와 釋迦多寶塔 등의 예를 보면 이것이 신라시대의 건축이지만 현대건축에서 논의되는 Harmony 와 Proportion 의 調和, Rhythm 과 Texture 의 Variation 등 그 모든 것을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것은 石窟庵에서도 느낄 수 있어 우리나라 건축예술의 극치를 이루고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전통건축은 중국건축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면서도 중국건축과는 다르게 소박하고 규범에 지나치게 얽매이지 않아 세부적으로는 정확히 짜여지지 않은 듯하면서도 전체적으로 정제된 통일성과 조화를 나타낸다.

2) 歷史的背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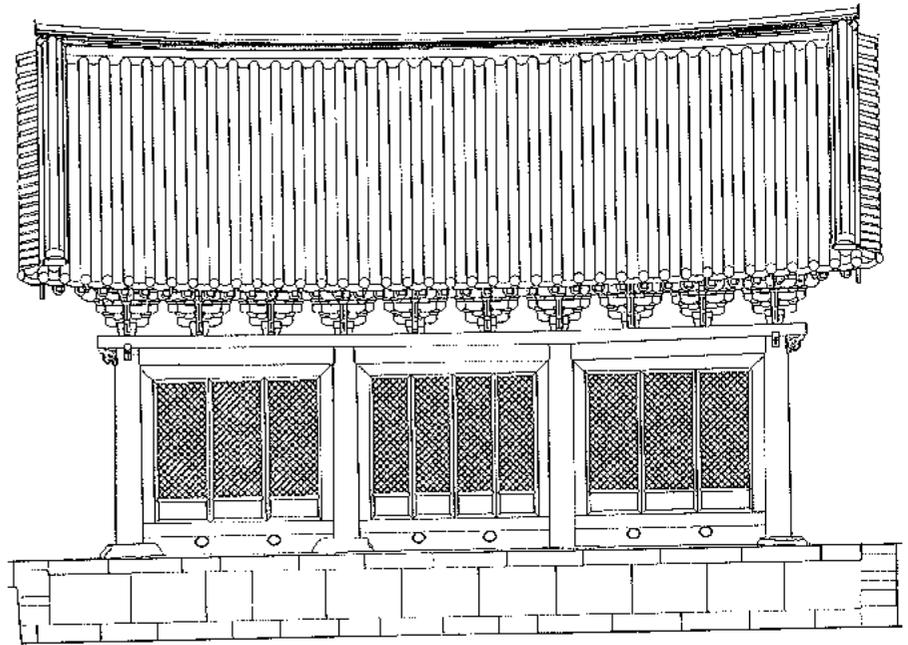
우리나라 민족은 言語學的인 분류에 의하면 Ural Altai 語族에 속하여 原始 Tungus 의 一派이며 Mongoloid 에 속한다. 이들은 고대 중국사에서 東夷系 종족으로 불리우고 있는데, 지금 중국의 만주일대와 몽고에 살면서 신석기시대에는 한반도에 남하하여 우리 한민족의 문화를 일으킨 것으로

〈多包 양식〉
 (개심사 대웅전) 上
 (개심사 대웅전 정면도) 中
 (개심사 대웅전 棋包 상세도) 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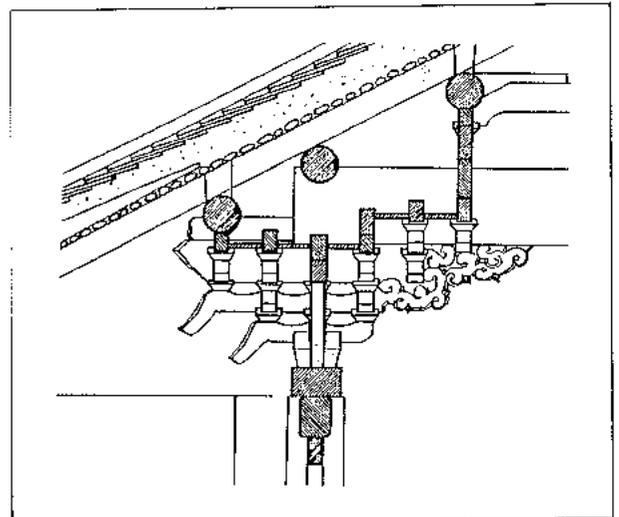


생각된다. 이들은 곰의 Totem 思想을 갖고 Shamanism 의 원시종교를 갖게되어 신령을 숭배했다. 壇君의 신화도 이러한 사상과 관련된 한 예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전통건축문화가 이들에 의하여 시작되었다고 확신하기는 곤란하나 이 시대의 주거지인 움집터가 한반도내에서 많이 발굴 조사되어 그 당시의 생활이나 건축수준 등을 研究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된다. 우리나라 新石器文化期는 학자들간에 그 編年을 달리하고 있지만 대체로 기원전 약 4,000년~5,000년으로 보고 있다. 이 시기에는 두만강, 압록강, 대동강과 한강의 연안지역과 동해안지역 등에³⁾ 그 遺蹟이 밝혀졌는데 그 움집터는 소규모의, 원형에 가까운 평면을 갖고, 집의 바닥이 舊地表下 30cm~100cm 밑을 파서 조성하므로써 외부 기온과 기상에 대처하였다. 이 시기의 건축이란 실내생활이나 휴식공간을 위한 벽체나 지붕을 원시적으로 엮는 것이 고작이었다. 그후 靑銅器時代의 編年은 대체로 기원전 8~9세기에서 前 300년 사이로 보는데 이때의 주거는 같은 움막집의 형식이면서 주거의 평면이 장방형으로 커지고 木造架構法도 발전되는 것 같다. 그러나 이때까지도 목재의 가공사용이 어려웠고 가급적 필요한 형태의 원목을 사용하여 만든 것 같다. 이 住居址의 遺構는 한강유역과



0 10



“

조선후기 17~18세기 이후에는 木構造 栱包이 細部形式도 퇴화되고 부조화된 장식으로 그 품위를 잃어갔다. 이것은 우리나라 건축의 전통성을 망각하기 시작함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건축의 양식은 지금까지 남아있는 木造建築의 栱包形式을 분류하여 柱心包, 多包, 翼工包樣式으로 부르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包作의 짜임새와 配置形式에 따라 분류된 것으로, 그 나름대로 특징은 설명할 수 있겠지만 양식의 분류로는 미흡한 점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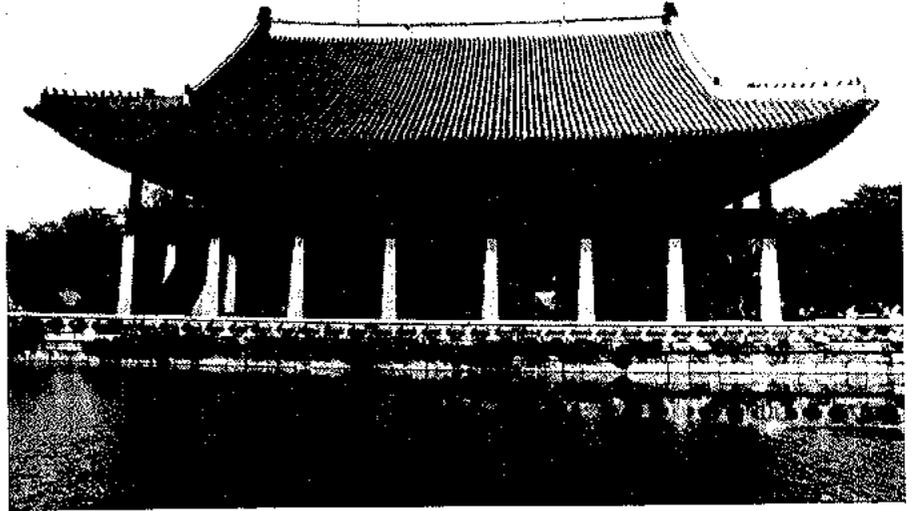
”

소양강, 영산강 유역에서 발견되고 북한에 압록강, 두만강, 대동강 유역에서 발견된다.⁴¹ 우리나라 건축이 새로운 기술도입에 의하여 발달되기 시작하는 것은 삼국시대초 3~4세기로 믿어지며 이는 冬壽墓를 비롯하여 고구려 壁畫古墳에 나타난 건축기술등을 근거로 추측되는 것이다. 5세기에 들어와서 이미 건물기둥에 엔타시스라던가 기둥위의 頭工 등이 사용되었음을 벽화로써 입증되었고 이러한 頭工의 사용은 중국 漢의 건축문화 영향을 받아 새로운 기법을 활용하였다고 믿어진다. 때마침 불교의 전래는 궁궐건축에서만 볼 수 있었던 화려한 건축이 불교요소인 木塔과 塼塔, 石塔 등의 多層構造가 가해지면서 木架構와 塼築, 石造 등의 건축기술을 더욱 발전시켜 대규모의 목조건축과 우아한 건축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초기에 궁궐배치를 모방했던 寺刹伽藍은 대칭적 배치와 회랑으로 둘러진 폐쇄공간의 엄격한 형성 등 새로운 건축계획이 발달하고, 통일신라시대에는 예술적 기교를 충분히 발휘하여 基壇과 石築은 물론 礎石에서 기와에 이르기까지 장식적인 意匠이 가해진다. 즉 불교건축문화는 7세기를 전후하여 전성기를 이루어 고려때까지 명맥을 이어가다가 15세기 조선시대에는 抑佛崇儒政策으로 퇴화되지만, 이때에는 深山幽谷에서

불교문화의 일부나마 보존되어 왔다. 이렇게 찬란하였던 건축문화도 다른 일반건축 문화의 유적과 함께 외적의 침략과 약탈로 초토화되어 그중 인화제로 된 건축구조는 모두 소실되어 알길이 없으니 건축사를 연구함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음은 가슴 아픈 일이다. 다행히 고려시대의 목조건물 數棟이 남아 있고 삼국시대 石造建造物이 남아있어 그나마도 傍證資料로 연구할 수 있음은 다행한 일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주택건축문화도 일찍부터 발달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그 한 예로 신라시대의 주택의 규모와 장식, 채색, 재료 등의 規制가 記錄⁴²에 나타나는 것을 미루어 보면可喜 짐작이 된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儒學의 성행으로 文廟, 成均館, 鄉校, 書院 등의 건축이 발전되는데 여기서는 佛寺建築과는 달리 비교적 감소한 건축을 나타냈다. 平面配置에 있어서도 새로운 형식을 나타냈다. 한편 옛부터 立地의 特性으로 外侵을 대비한 都城, 邑城, 山城의 城廓建築이 發達되었는데, 서울 城廓이나 水原城廓, 南漢山城이 그 예이다. 壬辰倭亂 이후 우리나라의 건축은 사회적 혼란에 의하여 차츰 그 역량을 잃고 건축구조가 단순화되면서 과거에 활용 발전시켰던 기술을 계승시킬 능력을 잃은 것 같았다. 그래서 조선후기 17~18세기 이후에는

木構造의 栱包나 細部形式도 퇴화되고 부조화된 장식으로 그 품위를 잃어갔다. 이것은 우리나라 건축의 전통성을 망각하기 시작함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건축의 양식은 지금까지 남아있는 木造建築의 栱包形式을 분류하여 柱心包, 多包, 翼工樣式으로 부르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包作의 짜임새와 配置形式에 따라 분류된 것으로, 그 나름대로 특징은 설명할 수 있겠지만 양식의 분류로는 미흡한 점이 있다. 즉 浮石寺 無量壽殿이나 鳳停寺 極樂殿과 같이 기둥 상부에서만 包作을 짜는 形式을 柱心包樣式이라 부르고, 서울의 南大門과 같이 기둥의 상부뿐만 아니라 기둥과 기둥사이 平枋 위에서도 包作을 짜는, 즉 空間包를 갖는 형식을 多包樣式이라 하고, 조선중기부터 盛行한 柱心包보다도 간소화된, 특수형식의 공포를 짜는 形式을 翼工樣式이라 부른다. 물론 이들 양식은 包作뿐아니라 架構에서도 약간씩 특징을 보이고 있음은 사실이나 이러한 양식분류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現存 資料와 遺構로서는 그 樣式의 發生, 全盛, 退化의 흐름을 밝힐 수 없다. 둘째, 이 當該 木造建物の 架構 및 栱包를 위주로 설명되기 때문에 당대의 건축특성을 포괄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 셋째, 3양식이 같은 시대에 혼용된

〈麗工系 양식〉
 〈경복궁 경회루〉(上)
 〈경회루 정면도〉(中)
 〈경회루 拱包 상세도〉(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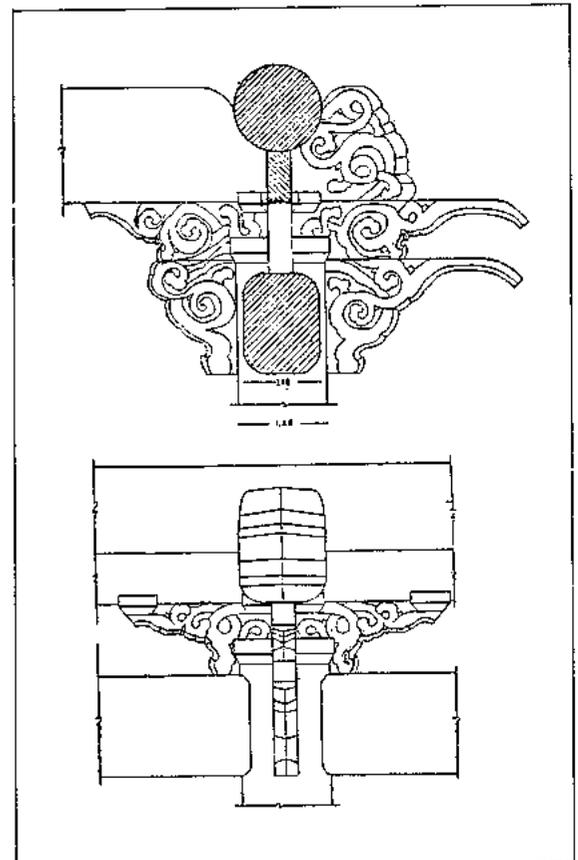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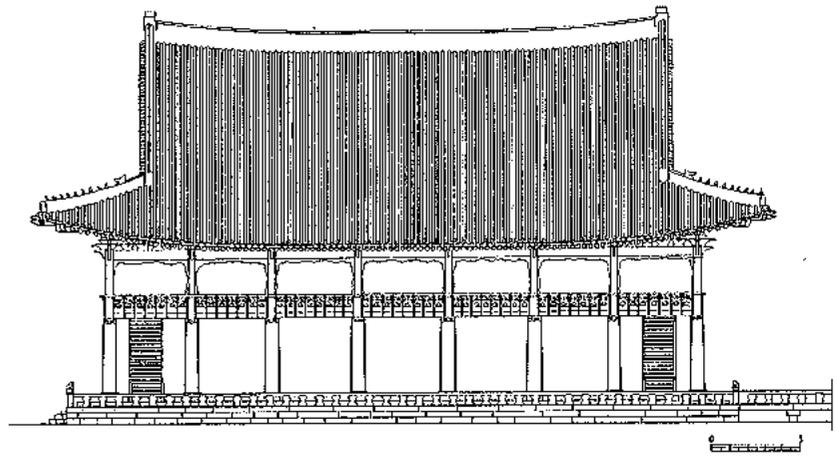


기간이 길기 때문에 양식의 時代的 特性이 없다.

넷째, 三國時代부터 高麗中期까지의 木造建築 實例가 없어 歷史上 長期間의 建築樣式 特性을 알 수 없다.

이상의 문제점은 양식의 분류 뿐 아니라 우리나라 建築史를 정립하는데 크게 어려움을 겪게 한다. 그러나 樣式分類에 어떤 뚜렷한 대안이 없어 현재로는 이를 바꿀 도리는 없지만 하나의 건축 형식으로서 인정하고, 장차 충분한 자료가 발견된다면 再考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상의 略述한 우리의 傳統建築史의 背景에 따라 다음에 繼續하여, 先史時代, 三國時代, 統一新羅時代, 高麗時代, 朝鮮時代로 나누어 可及的 資料中心으로 紹介하고자 한다. 《계속》



□註

- (1) Paul Jacques Grillo: what is Design?
- (2)丹青에 있어 '빛'은 단청의 착색순위를 밝은색에서부터 차츰 어두운 색으로 色帶를 두어 채색하는 것이다. 같은 色系(帶)를 2빛, 3빛으로 나누어 칠한다.
- (3)金正基 : 新石器時代 竪穴住居址再考, 崔永禧先生 華甲紀念 論叢, 1987.
- (4)金正基 : 우리나라 住宅의 歷史, 住宅公社, 「韓國 住宅의 어제와 오늘」, 1979.
- (5)三國史記 卷第三三 志第二 屋舍條.

중국전통건축의 이해(1)

박서홍

(주) 동림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Report/A Study on the Traditional Architecture of China
by Park, Suh-Hong



■ 글의 차례 ■

● 머리 글을 위한 Aphorism

- 환경과 건축문화
- 중국전통건축의 본질
- 건축물과 환경
- 정원과 환경

- 건축의 표준화와 예술성
- 건축의 발전 및 용어구분
- 건축물 배치 및 평면

- 입면과 구조 그리고 재료
- 장식효과와 색조
- 중국전통건축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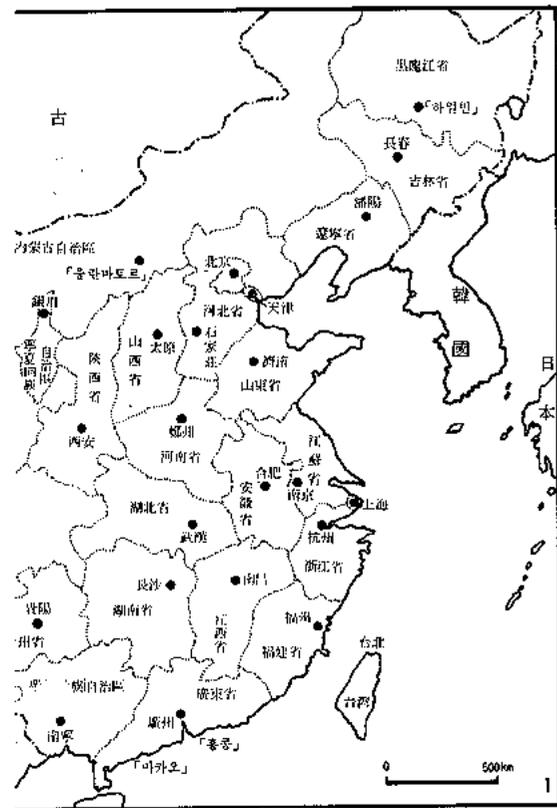
■ 머리글을 위한 Aphorism

“10억 인구의 중국”으로 지칭되는 「中國」이라는 어휘가 갖는 이미지는 오늘날의 우리에게 무척 고통스러운 양면성을 강요하고 있다. 그것은 우리와는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던 과거의 중국과, 꼭 그렇지만은 않은 현재의 중국과의 이질감이 그들의 정치적인 양극화(자유중국과 중공)의 속성으로서 설명될 수 있겠지만, 정치적이거나 지리적인 다원성이 인간의 역사에 의해서 일원화되어온 것을 상기한다면, 포괄적인 의미로서의 「중국」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것도 큰 과오는 아니라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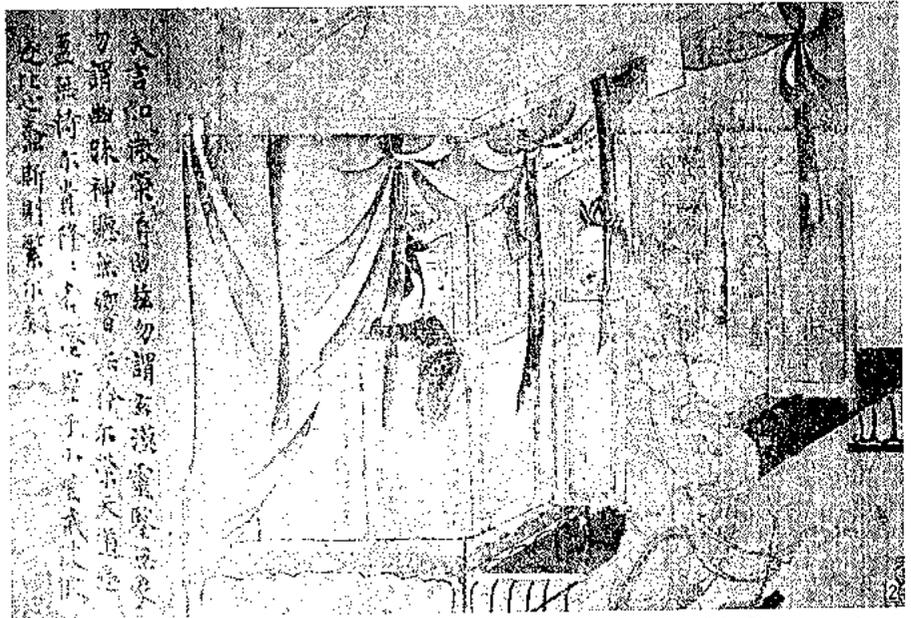
한국동란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근 30년에 걸쳐 「근대화의 과정」이라는 미명하에 간과되어지고 매도되었던 동양적인 제반 문제들에 대한 인식이 새롭게 의식되어지고 평가, 연구되는 요즘, 아시아 여러민족의 주체적인 문제로서 이해되어야 할 것 중 문화—선행된 하부구조의 근대화에 대응할, 상부구조로서의 문화—의 정립을 위한 접근은 필수적인 것이고, 건축에서도 이와같은 노력은 계속

시도되어야 한다고 볼 때, 현대건축이 자연과 인간관계의 새로운 설정을 통해 인간성의 회복을 위한 건축환경창조를 목표로 한다면, 자연을 살피 그 이법을 통해 형성된 동양철학의 기반위에 확립된 한국의 전통건축은 반드시 재조명되어야 할 것이며, 동아시아의 역사인식이라는 의미로 볼 때에도 건축문화에 대한 우리의 시각을 중국건축에 맞춰 보는 의미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문에서는 중국전통건축의 기본을 이루는 특징적인 요소중에서 중요한 사항을 발췌, 요약하므로써 한(漢)대에서 성숙해 그후 장구한 세월동안 다듬어진 중국건축문화의 단편에 접근을 시도하고자 한다. 건축용어의 표현은 원음표기를 원칙으로 하였으며 역사적으로 인지되어온 경우(국명이나 지명 등)에는 한자발음 표기를 하고 주석에 명기하였다. 또한 건축용어중에서도 원음표기와 의역표기의 구분 및 한계는 Wilma Fairbank의 「A Pictorial History of Chinese Architecture」에서의 구별원칙을 참조하였음을 부언하여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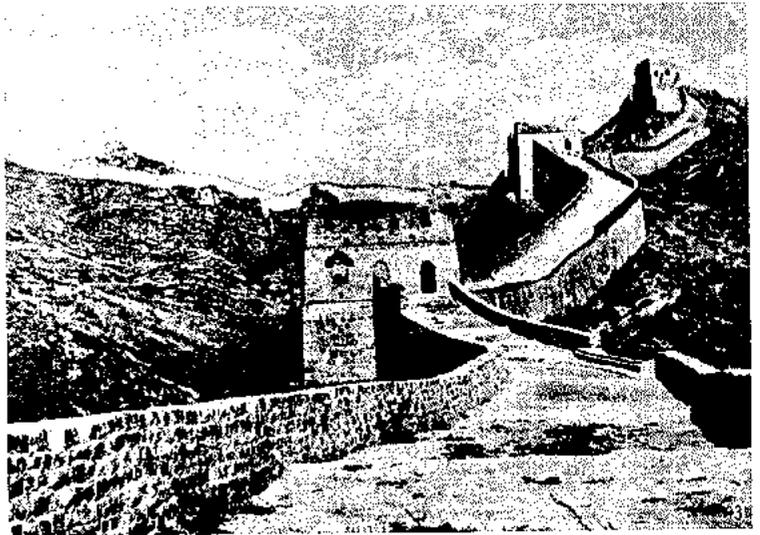
1. 중국지도 : 1981. 1. 1 시행, 행정구역도(중공개요, 국토통일원, 1985)



2. 푸키어즈(顧恒之. 폼대, 뉴스 존 두 위엔(安史箴圖卷)의 일부,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그림 (China Art, Japan)

■ 환경과 건축문화

농경생활이 주종을 이루고 있었던 중국문화권은 아주 광범위하여서 해양생활의 인도문화권과 오아시스생활의 이슬람문화권도 일부 포함하고 있다. 그 면적은 960만km²에 달해서 세계 제3위이며, 남북으로는 남사군도(南沙群島)에서 흑룡강(黑龍江)에 이르기까지 5,500km, 동서로는 파미르고원에서 우수리강까지 5,200km나 되어, 시차만해도 4시간 이상 생긴다.²⁾ 지역의 특색 또한 다양해서 남쪽은 대해(大海), 서남 및 동북은 고산삼림(高山森林), 서북은 사막, 동남 및 동북은 섬으로 되어 있다. 인구 또한 잡다한 56개 민족으로 구성되어진 다민족 국가를 이루고 있다. 그리하여, 이와같은 상이한 지리적 조건 또는 이질적인 자연환경에서 각각 문화적 특질이 다른 문화가 발달했으나, 어떤 하나의 문화의 출발이 서로 비슷한 점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주어진 환경과 여건에서 달라지기도 했고 혹은 아주 이질적인 문화요소가 비슷한 환경에 의해서 동질성의 결과를 이루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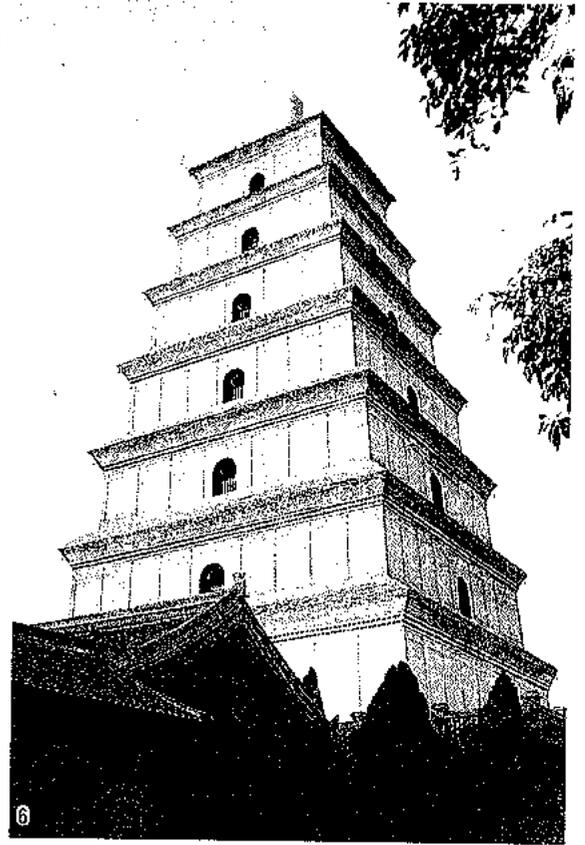


3. 장성, 칭칭(長城), 진(秦)대 중공통일후 흉노족의 침입을 막기위해 세운 성벽. 일명 만리(萬里)라고 함. (중국건축도집, 1981, Taiwan)
4. 유목 생활에 편리하도록 휴대와 이동이 가능토록 만들어진 몽고족의 주거. (중국건축도집, 1981, Taiw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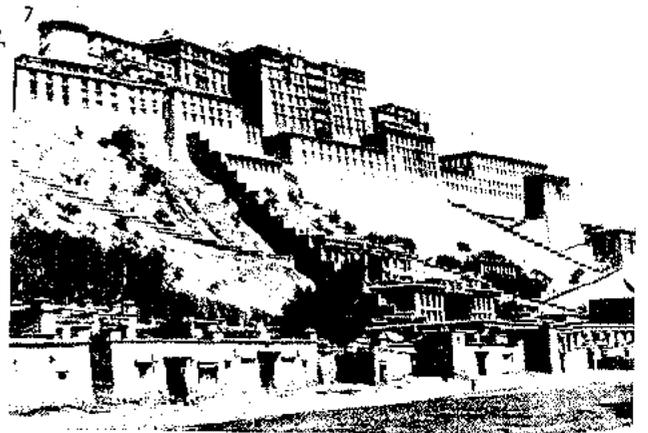
5. 청대, 건륭남순도(乾隆南巡圖)
북경 시가지의 당시 건축형태를 보이고 있음.
(中國名城古都, 1984, HongKong)

6. 대안탑, 다이엔타(大雁塔), 서안(西安), 당(唐)대 현장이 지은사(慈恩寺)에 있을 때 건립 (662년)된 7층전탑.
(中國名城古都 1984, HongKo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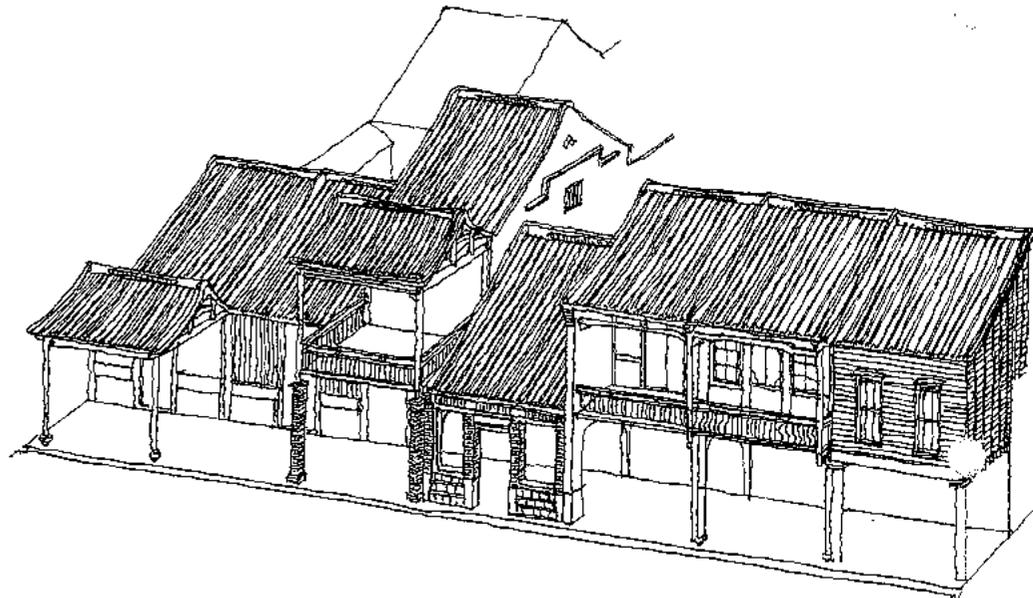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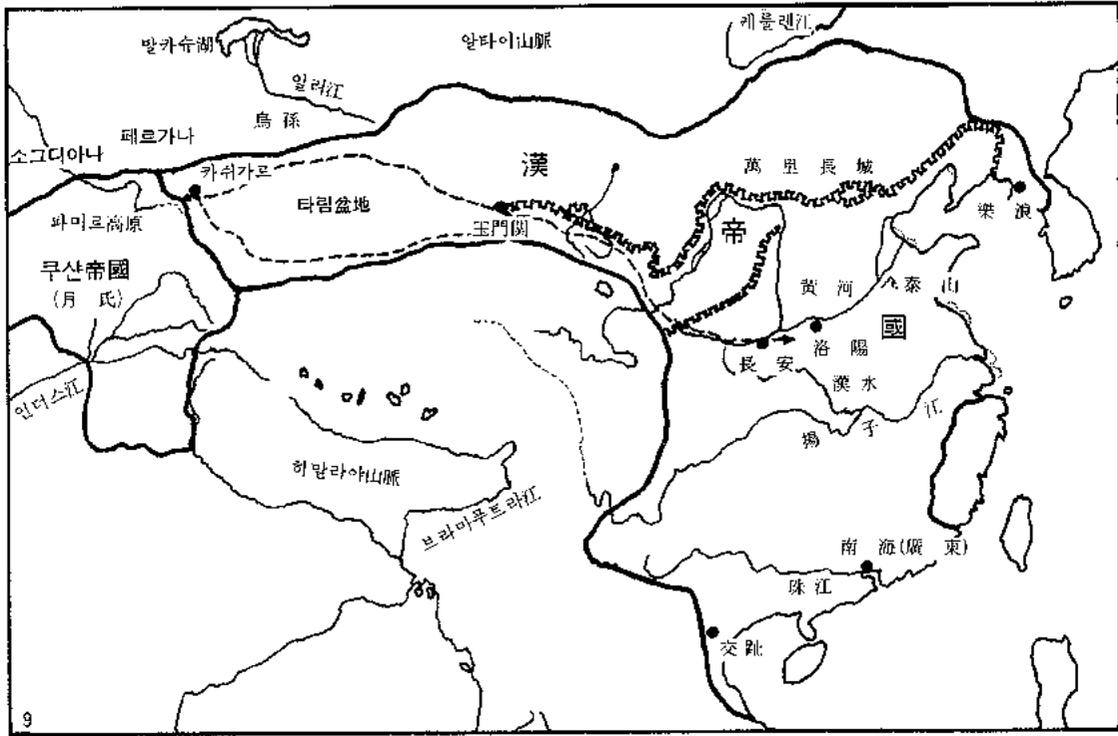
하였다. 건축문화 역시 이질적인 다양성에서 출발해서 일원화된 특색을 지니 내려오면서 일관성마저 갖게 된 것이었으니, 이것 또한 인간과 환경의 속성이라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각 민족의 건축은 각기의 생활 및 풍속에 의해서 매우 상이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으면서도 엄청난 다양성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사용하는 재료 및 기술은 전혀 틀리지만 각 지역의 독특한 건축의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는 바, 예를 들면 이슬람교의 건축은 문자나 췌엔공(尖拱)을 사용해서 장식하기를 좋아하여 이슬람교 사원, 스마우(寺廟)의 특유한 형태를 갖고 있으며, 장(藏)족은 기대한 고층건축을 선호하여 라마교 특유의 장식과 불탑(佛塔)을 발전시켰으며 몽(蒙)족은 유목생활에 필수적인 텐트식 주거를 개발하여(일명 蒙古包, 병구 빠오) 적응하여 왔다. 이런 것들 모두가 선명한 민족적 특징을 구비하고, 각기의 형식과 기풍에 있어 스스로의 발전을 이루어왔다. 또한 상고(上古)시대 이래로 한(漢), 위(魏), 진(晉), 남북조(南北朝), 수(隋), 당(唐), 5대(五代), 송(宋), 요(遼), 금(金), 명(明), 청(淸)대에 이르기까지 수천년간에 걸친 장기적인 문화교류의 결과는, 각 민족간의 건축에 있어 형식과 외형면에 있어선 현저한 이질감을 초래하였지만 본질적인 면에 있어선 많은 공통의 특질을 갖게되었다.

7. 서장(西藏), 남살(拉薩)에 있는 뿌다라궁(布達拉宮). 15층에 달하고, 후면의 산에 의지해서 세워졌기에 위압적인 모습을 나타냄
(중국 건축도집, 1981 Taiwan)



8. 남방건축 특유의 가로 형태(청대) 有步口式, 亭存脚式, 騎樓式 등이 보임. (전통건축, 이경림, 1983, Taiw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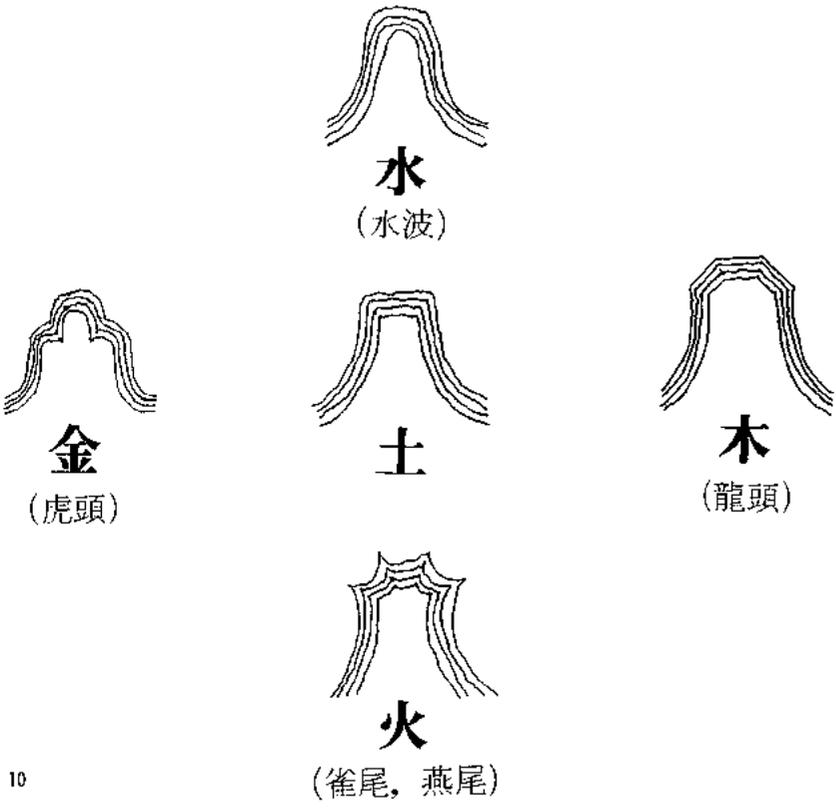


9. 현대 통일제국의 지도. (동양문화사, 라이사위).

■ 중국 전통건축의 본질

중국건축은 그 발상과 변천 과정에 있어 여타의 세계 여러 지역의 그것과 비교해서 독특한 체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오랜 역사를 바탕으로 해서 전통과 창작의 기본원칙을 보존하고 있다.

상고시대(BC 200년 이전, 은, 주, 춘추전국, 진³⁾)에는 환경(環境) — Ambient로서의 Environment — 의 요소가 그 속에서 생활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외부와의 왕래 및 접촉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의 생활방식과 풍습, 재료 및 기술에 의존해서 자기네들에게 적합한 건축을 창조할 수 밖에 없었고, 게다가 그들에게 적합한 수요와 경험에 의지해서 그것을 발전시킬 수 밖에 없었다. 환경에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한 것은 BC 200년 이후의 400여년간 지속되었던 한(漢, BC 204 ~ AD 220)대에 와서였으나, 그전까지의 다양했던 제자백가적 사상을 유교사상으로 통일해서 국가의 이념을 균일화했을 뿐만 아니라 그후 2,000년에 걸친 중국왕조의 성격을 결정하는 계기가 된 시기였다.



3. 전통 주택의 우뚝(屋頂) 형태중 산창(山牆)의 형식 금, 목, 수, 화, 토의 5行을 나타내어 풍수이론의 건축에 대한 영향을 의미한다. (이건릉, 戶外生活, 1990, Taiwan)



11. 한(漢)대의 명기(明器)에서 보이는 건축 (China Art, Jap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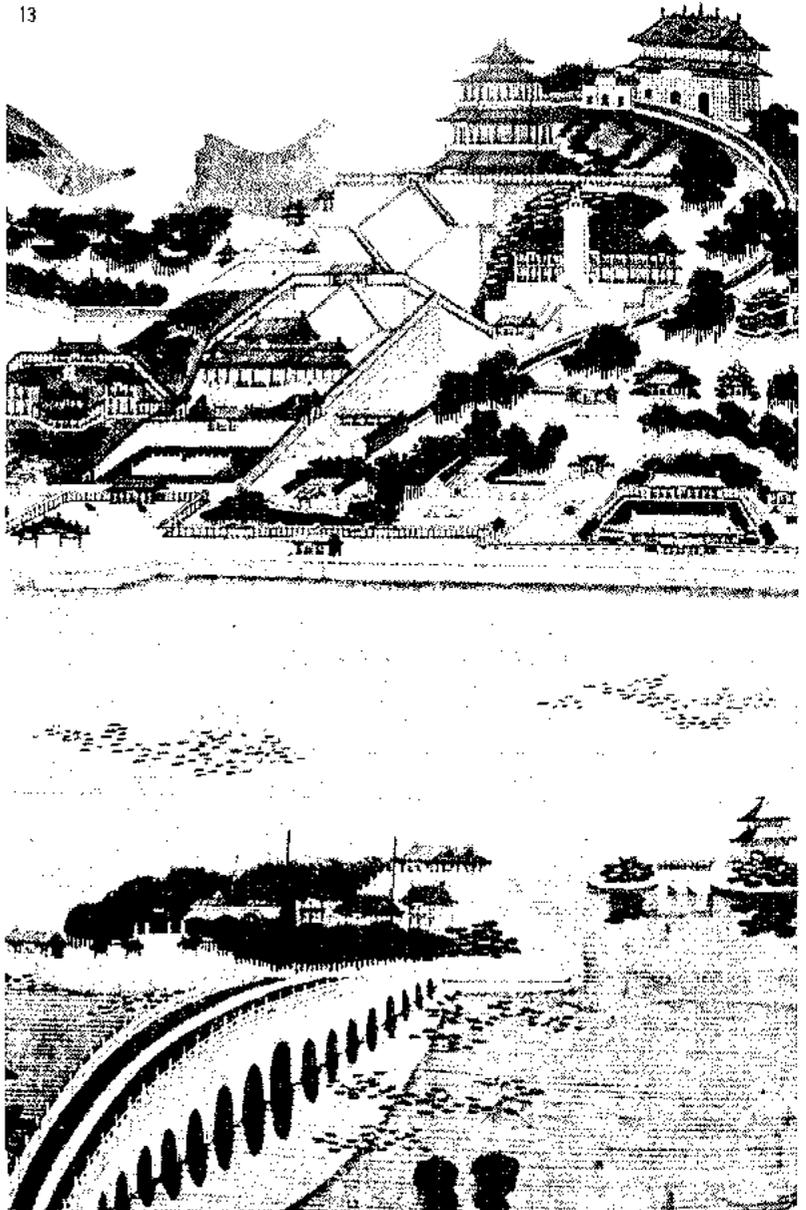


12. 위엔 밉 위엔(國明園)의 조감도. 청대, 황실의 정원 (China Art, 산수 화중에서, Jap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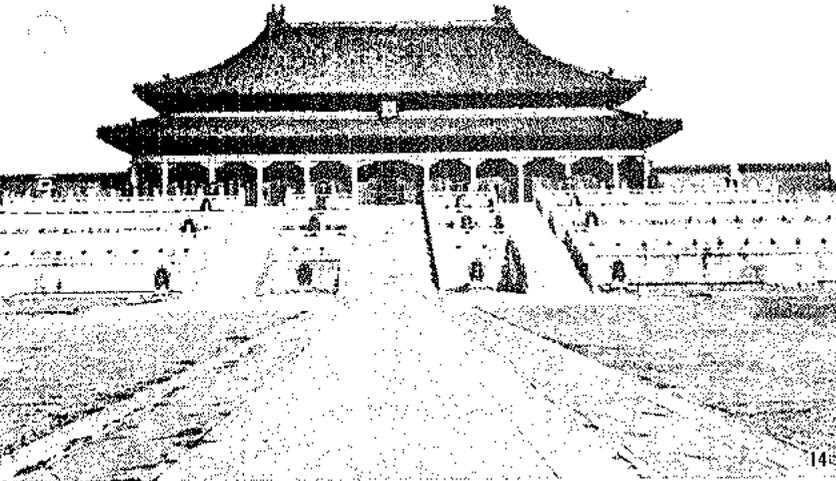
서방과의 왕래 또한 이 시기에 와서야 빈번해지기 시작했으나, 진(秦)을 이어 현재의 중국의 기초를 이루는 영토를 확대한 위에 서역을 통한 지중해 세계와 동아시아의 교통로를 개척해서 서방과 중국의 양대분화의 교류를 이룩하게 되었다. 문화 또한 이 시기에 와서야 점차로 외래의 영향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으며, 이 당시의 건축 역시 그때까지의 누적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완성된 체계하에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해 나가기 시작했다. 그 시기에는 목조와 벽돌(磚石)구조의 기술은 이미 거의 완성이 되어서 벽돌 및 기와 등이 중요한 건축재료가 되었음은 물론 대량생산의 공급체계를 갖추기까지 하였다.”

중국건축 특유의 배치형식이 이미 형성되어 기본을 이루었고 건축이 사회생활의 각종 수요를 만족시켜주는 수준에 도달하여 그후 2,000여년 동안 중국건축의 기본행태를 형성하는 근간을 이루게 되었다.

한(漢)은 대륙을 통일한 제국으로서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부분에 걸쳐 비교적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었다. 그 시기부터 시작해서 반(半)식민지, 반봉건주의사회의 사회구조를 유지하였으며 그후 2,000여년이 경과하도록 사회제도와 경제제도의 근본적인 개혁 및 변화는 없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한대의 건축은 그 당시에 이미 완비된 골격을 이루었고, 그것은 아주 자연스럽게 중국건축의 근간을 형성하는 기본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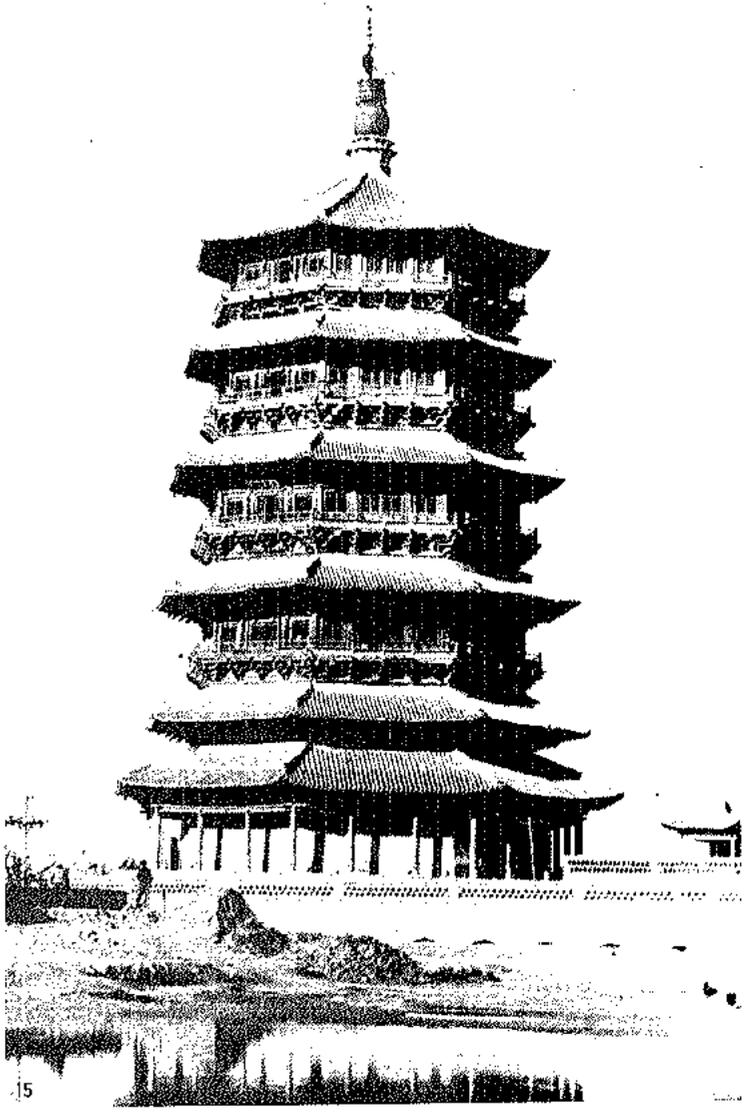


13. 이 허 위엔(頤和園), 주 12) 칠조 (中國名城古都, 배이장련, 1984, Hongkong)



14. 구궁(故宮), 타이허디엔(太和殿), 베이징, 청대(강희, 1662~1772) (A Pictorial History of Chinese Architectsue)

15. 휘공스(佛宮寺) 석가목탑, 산서(山西)에 있음. 현존하는 제일 오래된 유일의 목탑(木塔). 1056년 건립. 요(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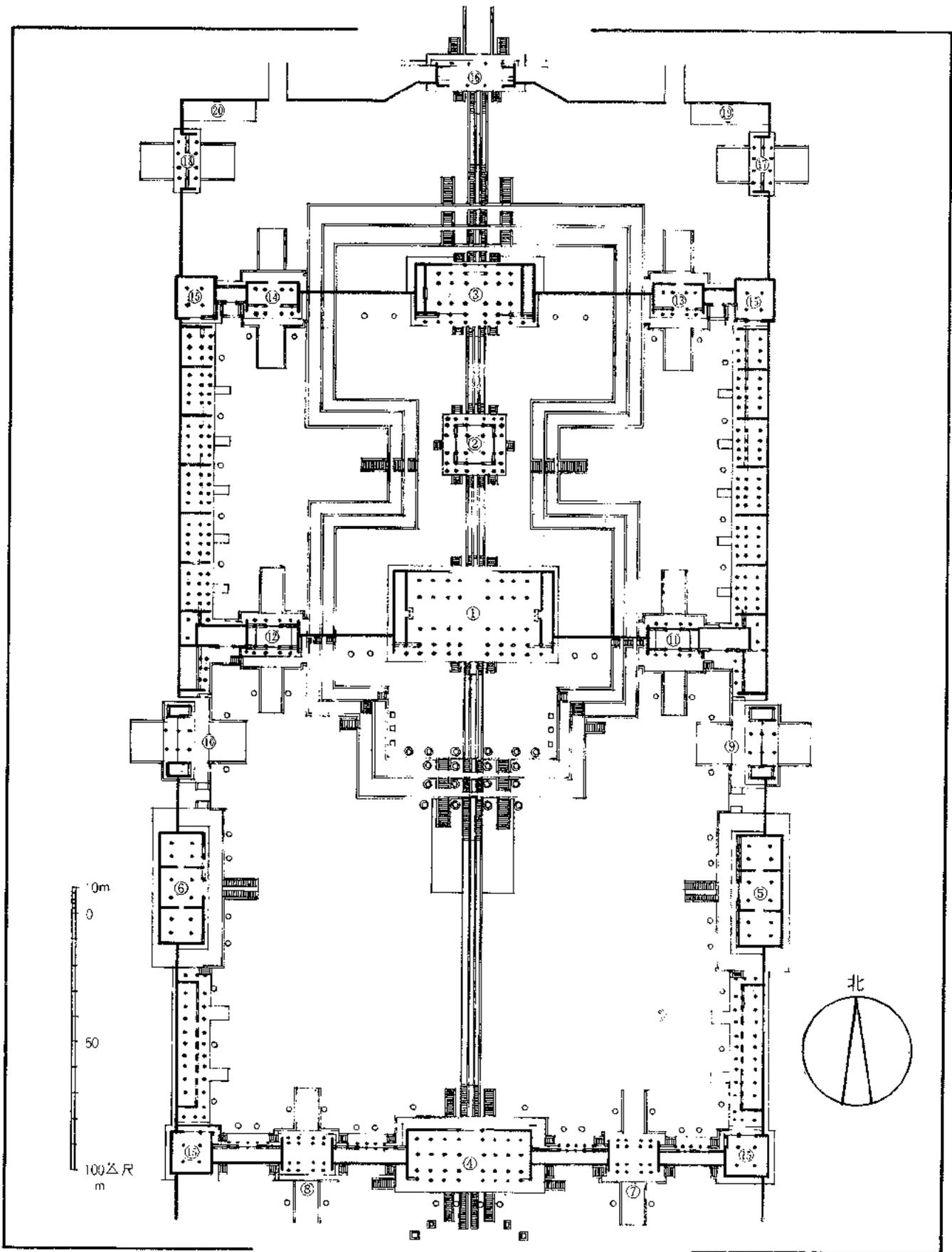
그후의 건축에 있어서의 발전이란 그것에다 단지 살을 덧붙이고 옷을 길아 입히는 정도의 양태만을 나타내었을 뿐이고 편리함과 쾌적함, 아름다움과 수려함, 대량생산과 계획생산 등의 요소만이 가감되었을 뿐이다.

■ 건축물과 환경

고대 중국의 장인들은 자연환경을 이용하기를 좋아해서 독특한 분위기의 환경을 많이 만들어 내었다. 즉 주위 환경과 건축물이 서로 유기적인 결합체로서 인식되게끔 서로가 서로에게 돋보이게 처리하는 수법을 사용하였다. 평탄한 지면위에 건축물이나 수목 등을 사용하여서 일정한 환경을 창조하였는데, 예를 들면 구궁(故宮) 3대전(三大殿)의 처리 방법에서 보듯이 거대한 스케일의 정원을 만들어서 웅장한 건축물들과 함께 그속에 들어오는 사람들로 하여금 위압감과 압박감을 느끼게하여 「왜소한 인간」이라는 느낌을 갖게 하였으며 심지어는 말하는 소리조차도 조심스러워지도록 유도하여 그러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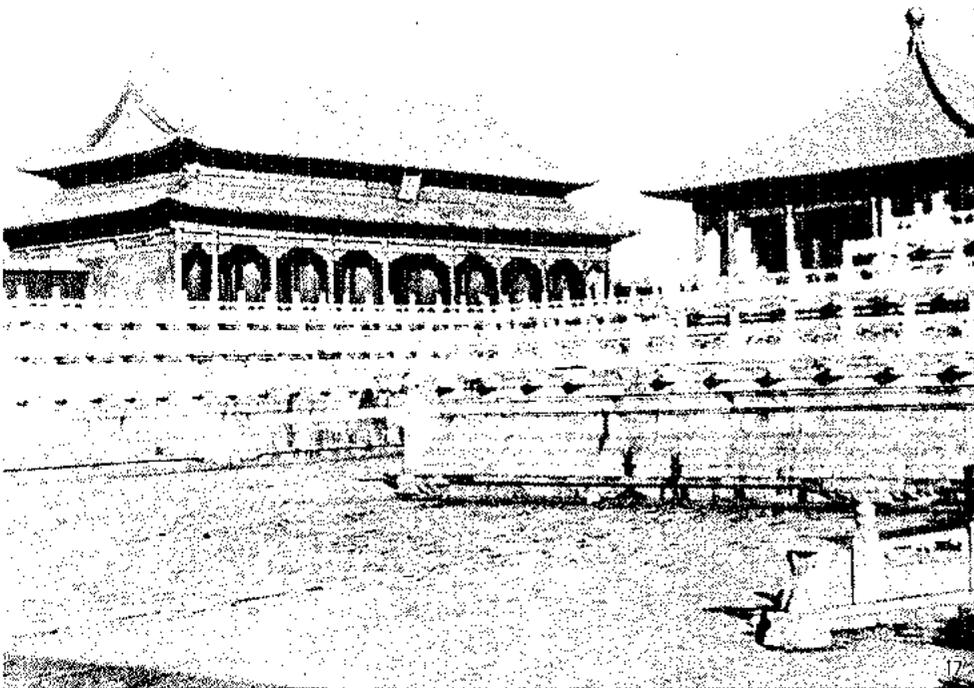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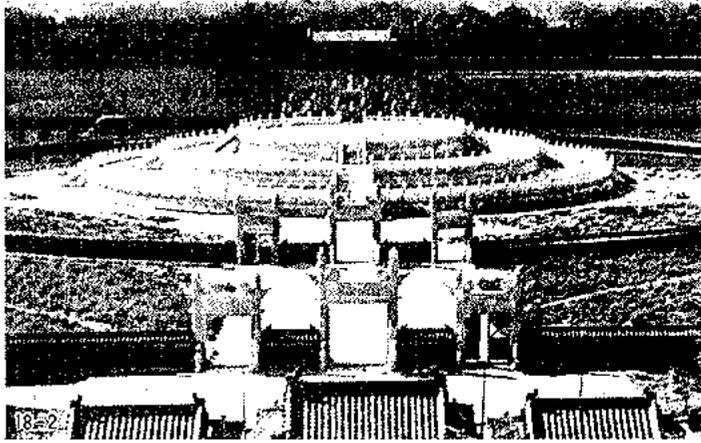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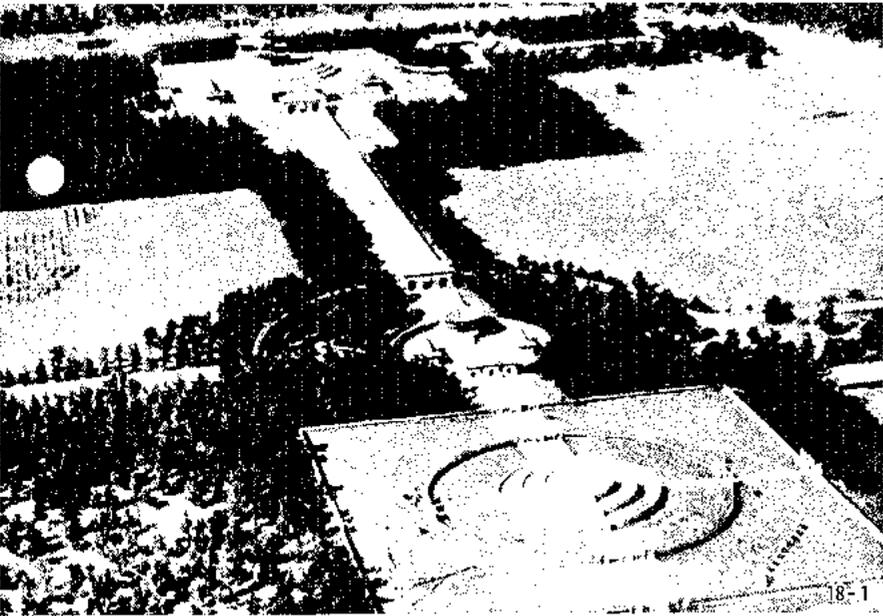
환경중에서는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엄숙한 기분이 들도록 하였다. 타이 마우(太廟)나 티엔 탄(天壇) 등은 신(神)에게 제사지내는 장소로서 또 하나의 특별한 공간을 연출한다. 중심축선상에 있는 건축물의 외부들 백백한 백수림(柏樹林)으로 둘러싸 놓아서 사람들이 그 앞에 도달하기 전에 수림대속에서 깨끗한 마음을 갖도록 하며 건물의 기능에 맞는 신묘하고 유현한 감정을 지니도록 처리하고 있다. 티엔 탄의 경우에는 아주 높은 기단위에 건물을 축조하여 그곳으로 이르는 통로가 연접되지 하여서 (통로 부분의 높이가 지면에서 3m 위에 위치) 건축물이 나무꾼 위에 우뚝 솟아있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 이러한 수법으로써 숭고하고 장엄한 기분을 느끼게끔 외부공간을 설정하고 있다.

궁전(宮殿)속의 주거부분과 주택 등의 정원에서는 관상수를 심는 경우가 많으며 쫘우랑(走廊)과 빠우 샵(抱廈) 등을 이용하여 정취적인 생활의 감각을 높이도록 처리하고 있다. 청 너이 와이 빠 마우(承德外八廟)는 지형의 조건을 가장 잘 이용한 경우인데, 그안의 건축물은 산비탈에 축조되어져서 각기의 건축물마다 그 위치를 결정하는데 있어 심사숙고한 흔적이 보인다. 그걸 만든 장인은 원래의 지형에다 단지 약간의 정리만 하였을 뿐으로, 큰돈을 들이고 거대한 노동력을 들여 지형을 변경시키는 행위 따위는 고려하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은 모든 건축물이 주위의 지형환경과 사안환경에 묘한 조화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농조되게끔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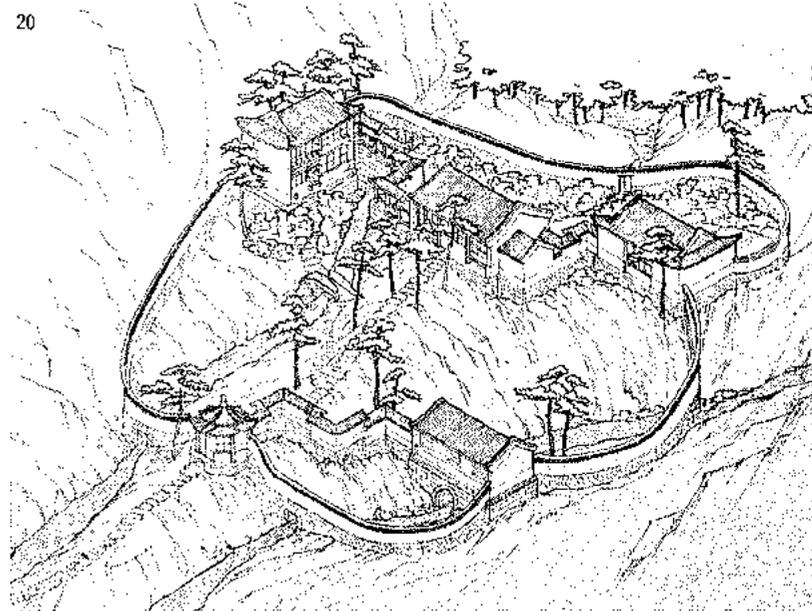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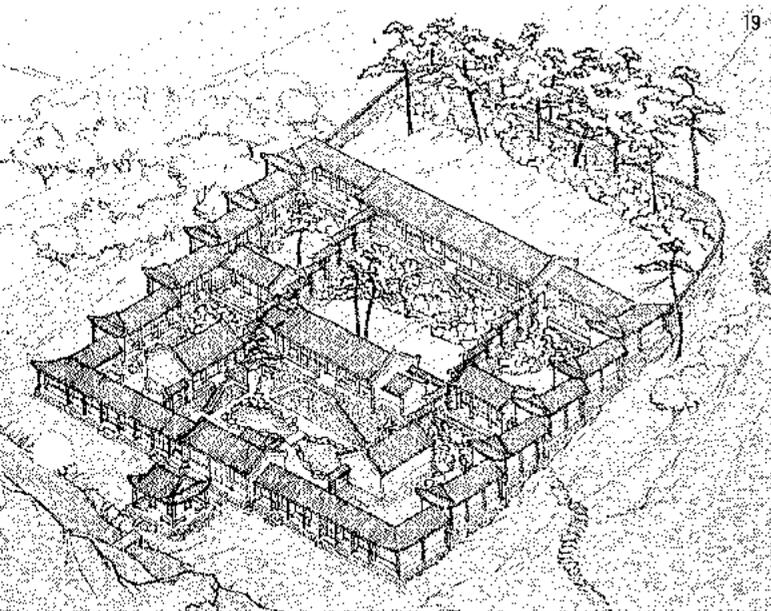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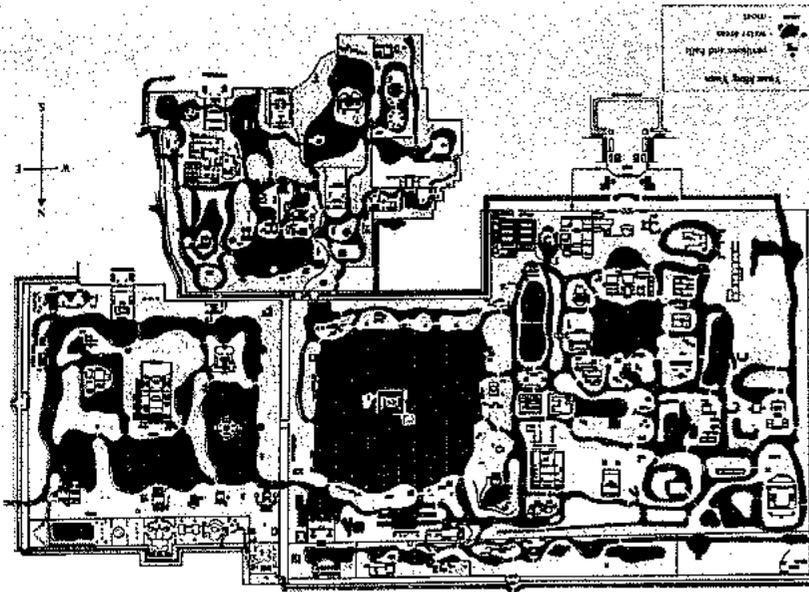
- | | | | |
|-------------|------------|-------------|------------|
| ① 타이허대전 太和殿 | ⑥ 홍익각 弘義閣 | ⑪ 중좌어연 中左門 | ⑮ 지안청면 乾清門 |
| ② 중허대전 中和殿 | ⑦ 자음더문 昭德門 | ⑫ 중우어연 中右門 | ⑯ 장원면 隆遠門 |
| ③ 배우허대전 保和殿 | ⑧ 쯤뚜면 貞度門 | ⑬ 허우주어연 後左門 | ⑰ 퉁중면 隆宗門 |
| ④ 타이허면 太和門 | ⑨ 쯤어어연 左翼門 | ⑭ 허우요면 後右門 | ⑱ 즈빈황 直班房 |
| ⑤ 티전가 體仁閣 | ⑩ 요어연 右翼門 | ⑮ 자우로 角樓 | ⑳ 군지추 軍機處 |

15. 베이징(北京), 궁궐(故宮) 전체배치도. [A Pictorial History of Chinese Architecture]



- 17. 구궁, 중허 디엔(中和殿)과 배우 허 디엔(保和殿), 청대 건물, (중국건축 도집, 1981, Taiwan)
- 18. 티 엔탄(天壇), 주6 (중국 건축도집, 1981, Taiwan)
- 19. 칭더어와이빠마우(承德外八廟)중의 일부 조감도 리화반위예(梨花伴月), 주10) 참조
- 20. 칭더어와이빠마우(承德外八廟)중의 일부 조감도 배 쟡 탕(碧靜堂), 주10) 참조.





21



21. 이허위엔(頤和園), 주12) 참조 (中國名城古都), 1924 HongKong)
22. 위엔밍 위엔(圓明園) 배치도 청대 황실의 정원 (Chinese Garden)
23. 이 허 위엔(頤和園) (Chinese Garden)
24. 이 허 위엔(頤和園) (Chinese Garden)
25. 이 허 위엔(頤和園) (Chinese Garden)
26. 이 허 위엔(頤和園) (Chinese Gard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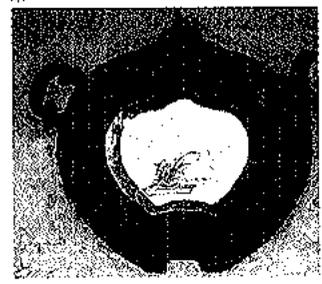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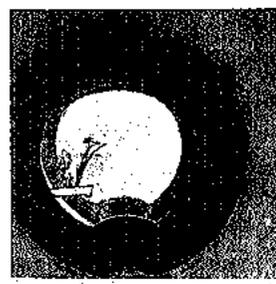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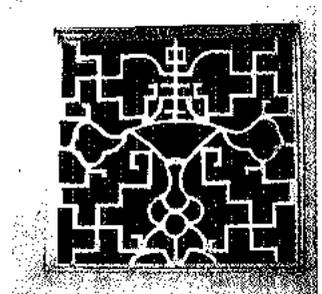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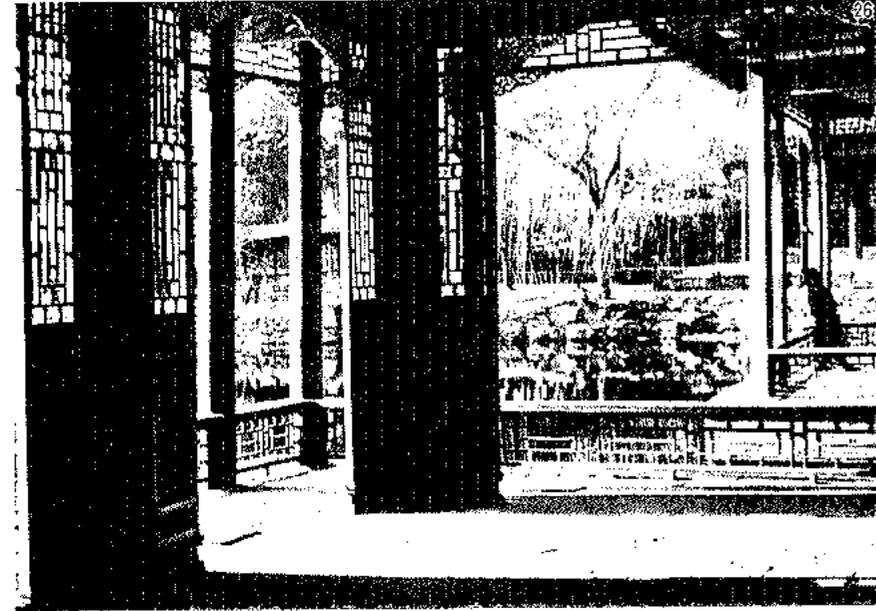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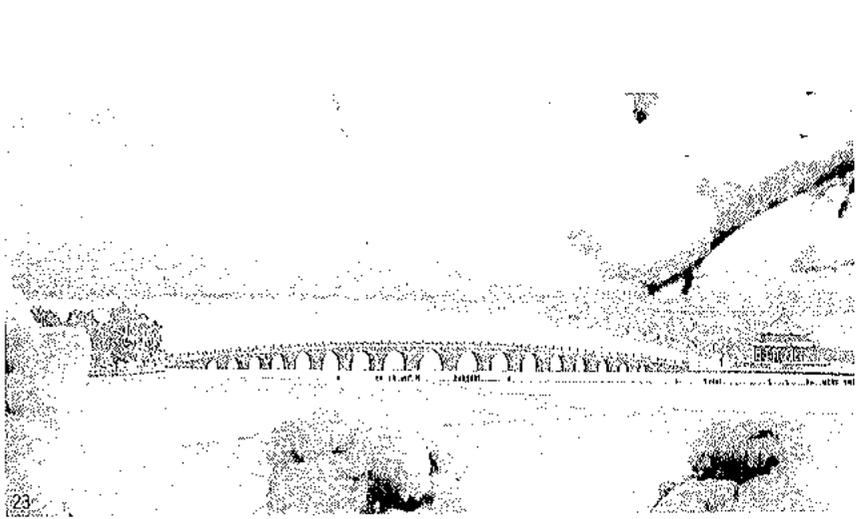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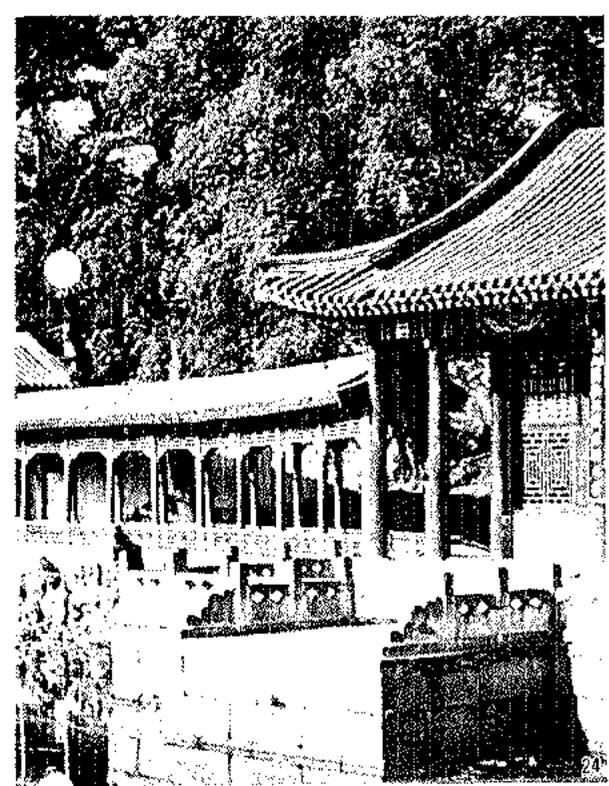
정원(팅 위엔, 庭園)과 환경

정원 텡 위엔(庭園)¹⁴⁾은 그 표현에 있어서 「건축과 환경의 결합」이라는 요소를 아주 풍부하고 다채롭게 엮어내고 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자연지형을 이용해서 축조한

이 허 위엔(頤和園)¹⁵⁾의 경우나, 완전히 인공적인 요소를 가미해서 축조된 북해(北海)의 경우는 물론 자연적인 요소와 인공적인 그것을 반씩 이용해서 만든 강남(江南) 여러 곳의 텡위엔 모두가 공통적으로 창조 의 기본원칙을 갖고 있다. 위엔 안의 모든 환경구성 요소들은 자연지향적인, 자연과 접근하려는 강렬한 욕구를 표출하고 있는 바 계절이 나팔 때마다 어떤 시각에서라도 서로 다른 색다른 풍경을

갖게끔 구성하여 인상적인 배치가 되도록 많은 힘을 쏟았다. 그와같은 요구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선 수목, 돌, 나무 및 물까지도 주요한 기본구성 인자로서 사용할 수 밖에 없었고 건축물은 물론 자연과의 융합에 있어 필수적이며 근원적인 역할을 하였다. 따라서 텡위엔 안의 건축물이란 반드시 획일적이고 규정화된 형식에 의했던 것이 아니고, 보다 자유분방스럽게 표현되었으며, 자연과 지형환경에 따라서 매우 불규칙적인 처리에 의거하는 수가 많아 인공적인 방법에 의해 조성될 텡위엔 안에서 사람들이 자연의 정취와 경치에 배려된 것은 능히 가능한 일이었으리라고 생각된다. 텡위엔안의 건축물에 있어선 특히 세부 디테일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예를들면 난간, 황기(窓格),¹⁶⁾ 러우황(漏窓)¹⁷⁾, 빛 지면 등의 요소들은 모두 주위 환경을 극히 의식해서 나온 디자인으로 볼 수 있다. 텡위엔 건축에 있어서 문과 창 의 위치 및 형태는 아주 큰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문과 창을 통해 보이는 정원의 경치를 매우 중요하게 여겨서 그 아름다운 풍경을 실내에 끌어들이 한 폭의 화폭인 양 감상하고 즐기는 생활을 영위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과 창 의 설계시에는 그것들의 외부의 경치를 수용할 수 있게끔 테두리나 문양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였으며 이런 방법이야말로 건축과 자연이 결합, 조화를 이룬 독특한 예라고 할 수 있겠다. <다유호에 계속>



■ 주

- 1) 진일의 세계관으로 본 한국 전통 건축의 공간적 특성에 관한 연구, 박경림, 박사학위 논문, 1986.
- 2) 중공개요, 국토풍일원, 1985.
- 3) 중국 건축사, 양스칭(梁思成), 건축사 시대구분중, 1981, Taiwan
- 4) 중국 건축 도설 개요, 1979.
- 5) 베이징(北京), 쑤징칭(蘇頌成) 4대불인의 영역을 구궁(故宮)이라 함. 기본배치는 명초에 이루어졌고 현존 건물은 청대에 중건됨. 타이 허 디엔(太和殿),

- 중 허 디엔(中和殿),
 싸우 허 디엔(保和殿)을 말함.
- 6) 구궁의티엔 안 언(天安門)과 우먼(午門)사이의 양측 건물중 동측에 있음. 명대 중건(1573~1620), 청대에 재수.
 - 7) 베이징 외성의 용평면(永定門)안의 동편에 위치, 명대 창건, 청대 중수됨.
 - 8) 지붕과 마타이 있는 보도.
 - 9) 저실(戟星) 주변을 둘러싼 작은방.
 - 10) 허베이(河北), 청 더어(承德)시에 있는 청대 제왕의 피서지. 이궁 또는 행궁 이라고도 함.

- 11) 문인들이 사를 읊고 모이는 장소. 큰 규모의 정원은 위엔 린(園林)이라 하고 보다 더 큰 규모의, 사냥까지도 가능한 것을 위엔 요(園囿)라 함. 텡위엔은 보다 작은 규모의 정원. 일본식의 苑과는 개념이 전혀 틀리다.
- 12) 베이징 교외에 위치. 현존하는 제일 오래되고 최대 규모의 텡위엔. 금대 조성, 3.4km²의 면적.
- 13) 창 의 디테일. 관통창.
- 14) 창 의 디테일. 관통창.

大都市 管理(1)

— 都市의 管理問題 —

盧椿熙

서울市立大學校 都市行政學科 教授

Report/The Management of Urban
by Ro, Choon-Hee

특히 이 글은 지난 1986년 7월부터

10월까지 약 3개월간

서울市立大學校 都市行政學科

特性化計劃에 의하여 美國 뉴욕市의

都市行政研究 및 운영관리 문제를

현지에서 共同 研究 한 部分임을

밝혀 둔다.

1. 都市行政管理

(1) 都市行政

都市行政이란 都市生活의 質을

개선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수단과 방법을 말한다.

따라서 공공서비스란 도시의 주요한
生活施設計劃을 수립하고 조성할
뿐만 아니라 건축이나 건설을 통하여
도시민의 좋은 生活圈을 조성하고
도시기반시설을 만들어 주는 것을
말한다.

(2) 都市管理

이와같은 都市生活施設을 만들어
주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를
어떻게 유지·관리하느냐가 더욱
중요하다.

“管理”란 말의 語源은 이태리語로
“manegios”로서 야생마를
길들인다는 말이다.

관리란 어린아이를 키우는 것과
비슷하다. 관리자는 부모처럼 책임성이
있어야 하고 언제나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都市를 生命을 가진 有機體로
본다면 이와같은 人間의 生命을
다루는 의사의 경우 수술을 담당하는
의사의 기능이 三分이면 이를 관리,
간호하는 간호원의 기능은 七分이
되어서 의사 못지않게 관리기능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다.

2. 都市問題

(1) 農村과 都市

都市는 풍부한 삶의 장소이다. 따라서
東西古今을 막론하고 농촌의 인구는
감소되고 都市人口는 날이 갈수록
증가하여 가게 된다. 그러니 모든
國家問題는 그 中心이 농촌문제에서
도시문제로 변화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마침내는 偉大한 都市는 偉大한
國家를 만든다는 것이다.
그러면 왜 많은 사람들이 전원적이고
소박하고 아름다운 농촌을 떠나 도시로
운집하게 되는가? 이는 都市가

本 論文은 어떻게 하면 우리 나름대로
도시인의 모든 생활시설을 경제·사회
그리고 물리적으로 능률과 안전과
쾌적성이 높은 도시로 만들 수
있으며 또한 都市機能의 과학적인
관리로부터 經濟的인 시설과
審美的인 종합운영관리문제를
다루는데 목적이 있다.

머리말

太初에 우주가 混沌하고 空虛하며
암흑이었던 것을 神은 빛을 만들어
아름다움을 지어내듯이 人間은
都市를 편리한 生活空間으로 만들게
되었다.

이와같은 도시는 東西古今을
막론하고 그 나라의 文明의 요람이
되었고 더 나아가서는 人類文化의
產室이 되게 되었다. 마침내는 偉大한
都市는 偉大한 國家를 만든다고
말한다. 이는 社會의 모든 中心이
農村에서 都市로 편한다는 것이다.
問題는 그러면 왜 많은 사람들이
농촌을 떠나 도시로 운집하게 되나를
생각하면 도시가 농촌보다 살기가
편리하고 文明의 利器가 많고 더 나은
수입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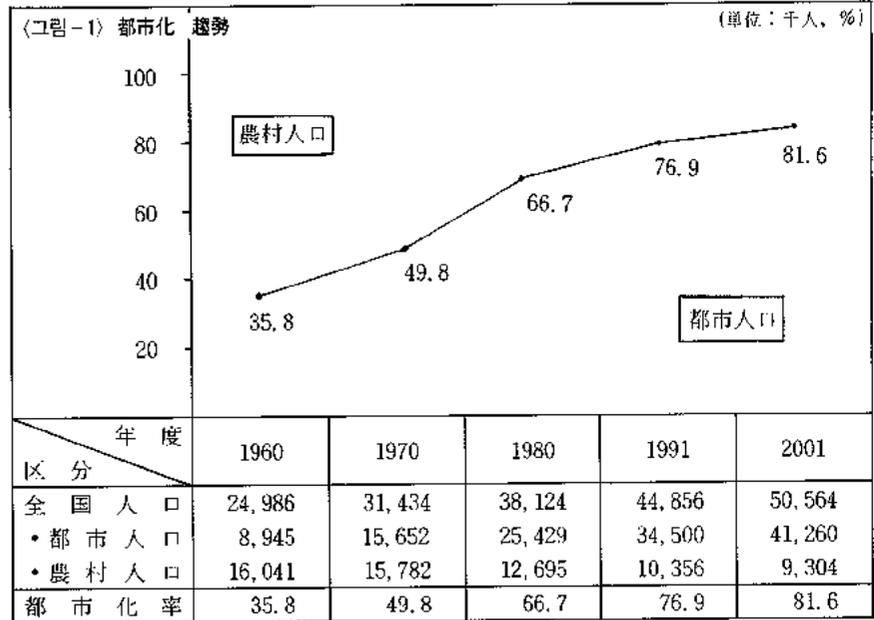
都市行政은 이와같은 도시에 편리한
시설을 만들어 주고 도시질서를 만들어
줌으로써 도시의 合理的인
生活秩序를 定立시키는 도구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本 論文은 어떻게 하면 우리 나름대로
도시의 모든 생활시설을 경제·사회
그리고 물리적으로 능률과 안전과
쾌적성이 높은 도시로 만들 수 있으며
또한 都市機能의 과학적인
관리로부터 經濟的인 시설과
審美的인 종합운영관리문제를
다루는데 목적이 있다.

농촌보다 살기에 편리하고 더 많은 文明的 利器를 쉽게 접할 수 있고 더욱 많은 수입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농촌에서 도시로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는 主要動機는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과 이와같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收入의 원천이 되는 소득이 농촌보다 풍부하다는 것이다. 都市行政은 이와같은 都市에 편리한 시설을 만들어 주고 도시질서를 부여하여줌으로써 都市의 合理的인 생활질서를 定立하는 道具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흐트러지고 무질서했던 농촌의 작은 마을이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점차 도시의 질서를 형성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도시생활이 편리하게 되어 점차 인구가 증가하게 되며 그곳이 文明的 集産地가 되며 하나의 都市文化가 꽃피게 된다.

(2) 都市文化

都市文化의 특징은 농촌생활이 자연의 질서를 토대로 하여 발전해 나가는데 반하여 都市文化는 人工的인 시설과 文明的 産物을 근거로 하여 발전하여 가게 된다. 더욱 문제되는 것은 社會發展·段階를 보면 前工業(Pre-industry)에서 工業(Industry)로 그리고 제3물결이란 脫工業(Post-industry) 단계로 발전하게 된다. 前工業社會에서 主體는 農夫이고 그 資源이 土地였던 것이 工業社會에서의 主體는 企業人이고 資源은 機械이고 脫工業社會에서는 그 주체가 전문직인·大學·연구소 등 전문고급인력이 되며 資源으로서는 지식과 과학을 다루는 전문적인 연구소기관이 되게 된다. 그러므로 사회발전을 조망해 보면 농업에서 공업으로 다시 공업에서 서서비스로 그리고 情報産業으로 발전하게 될을 알 수 있으며, 이와같은 산업은 농촌이 아닌 도시에서 이루어진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도시는 생산의 場이요 생활의 터전으로서 앞으로의 도시는 정보화시대에 알맞은 여러가지 도시수요의 충족과 매력있는 정보의



註: 都市人口은 市 및 人口 2萬以上の 市을 대상으로 함.
資料: 建設部 都市局

집중관리, 전과, 발신지로서의 구실을 다하여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서 도시기능 향상이 가능하게 되며 도시에서 발신하는 정보가 산업정보 및 생활정보가 되어 생산과 생활이 융합과 조화를 이루어 닥쳐올 脫工業社會의 都市象이 될 것이다.

3 都市化

(1) 都市化의 概念

都市化란 인구가 도시로 집중되는 과정으로서 도시수의 증가나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규모의 증가를 말하게 된다. 데이비스(K.Davis) 같은 사람은 都市化를 “都市居住者數의 全人口에 對한 비율의 증가”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농촌인구가 도시인구와 같은 비율로 증가한다면 도시화의 정도에 영향을 주지않는다”고 설명한다.”

都市化(Urbanization)란 말은 일반적으로 협의의 도시화와 광의에 있어서 도시화로 구분한다. 협의의 도시화는 근대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농촌적인 지역이 도시적인 지역으로 변질되어 가는 것이며, 또 다른 하나는 광의의 도시화로써 취락이나 마을지역이 都市的인 요소가 점차 증대하여 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위의 주개념은 모두 농촌이 도시적 지역으로 바뀌어 가는 것을 의미하며

특히, 광의의 해석은 도시자체의 변화과정까지도 포함하는 도시지역의 확대를 의미하게 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農地·山地 등이 주택, 상점, 공장 등으로 변모하여 도시적인 현상으로 변화하는 것과 어떤 地域社會가 근대적 생산양식으로 발전하게 되어 공업화를 주체적인 원동력으로 해서 생산, 유통, 소비 등 각 기능의 담당인구가 국가의 경제발전에 대응, 흡수되어 도시인구의 집중이 이루어지는 상태를 말하게 된다.

(2) 우리나라의 都市化

우리나라의 都市化 추세는 [그림-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60년에 35.8%에 불과하던

〈표 1〉 都市數의 增加現況

年度	合計	特別市 및 直轄市	市	邑
1951	95	1	19	75
1955	98	1	19	78
1960	112	1	26	85
1964	123	2	30	91
1970	123	2	30	91
1973	157	2	33	122
1979	209	2	34	173
1980	244	2	38	204
1981	238	4	46	188
1983	237	4	46	187
1985	237	4	46	187

資料: 內務部 「韓國都市年鑑」

都市化率이 1970년에 49.8%로 그리고 1980년에는 66.7%로 각각 증가하였으며 이와같은 都市化率은 계속되어 1991년에는 76.9%, 2001년에는 81.6%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며 1990년에는 全國人口의 4분의 3 이상이 都市地域에서 살게 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都市數의 증가를 보면 <表-1>에서와 같이 1960년의 市級 都市數는 27개였던 것이 1960년, 1970년 10년간

울산·천안·안동·의정부·속초 등 5개의 새로운 도시가 신설되어 19%의 도시수의 증가를 나타내게 되어 27개 市가 32개 都市로 증가하게 되었다. 그리고 1970년에서 1980년까지는 성남, 부천, 안양, 동해, 제천, 구미, 영주, 창원 등 8개의 新都市가 생기게 되어 1980년에는 1970년에 비하여 25%의 都市數의 증가를 나타내어 40개 市가 되었다.

그리고 근래에 와서 1981년부터 평명, 동두천, 송탄, 태백, 정주, 남원, 금성, 영천, 김해, 서귀포 등 10개 도시가 신설되어 1985년말 현재 市級 都市數는 50개이고 邑級 都市數는 187개로 되어 있다.

(3) 都市秩序와 生活樣式

모든 사물에 그들 나름대로의 기본적인 질서가 있기 마련이다.

우주의 질서, 계절의 질서, 나라의 기본질서 등과 같이 도시에서 그들의 질서가 있다.

都市에서는 많은 인구의 集積에서 오는 새로운 都市生活秩序를 요구하게 된다. 도시에는 많은 편리한 생활시설이 있어서 이를 이용하는 어떤 질서가 이루어지게 마련이다. 이러한 가운데서 도시는 도시 나름대로의 새로운 都市生活樣式, 다시 말해서 도시의 합리적인 생활질서가 정립되게 되는 것이다.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해 온 사람들은 도시생활에 대한 意識構造의 변화와 적응이 뒤따라야 된다. 그들의 생활형태가 농촌생활양식에서 도시생활양식으로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도시는 자연질서에 바탕을 둔 농촌과 달라서 과밀한 人口, 협소한 空間에

많은 人工施設物이 집적되어 있는 곳으로서의 생활질서와 생활양식이 형성되어지게 된다.

이와같은 생활질서는 농촌에서 서울로 이주한 아버지代에서는 양복을 처음 입어 보게 되고 아들代에서는 새로운 구두를 신고 손子代에서는 구색을 갖춘 넥타이도 땀 줄 알게 되어 비로소 성숙한 都市文化人의 모습으로 탈을 바꾸게 되는 것과 같다. 이처럼 完熟한 都市文化人이 되는 과정과 같이 農村生活樣式에서 都市生活樣式으로 변모되는데는 거의 三代에 걸친 세월을 보내면서 일정한 순서와 어느 정도의 秩序를 터득하게 되는 것이다. 자연적인 질서이든 인위적인 질서이든 이를 지키지 않음으로써 모든 혼란이 야기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社會는 政治, 經濟, 社會, 文化, 教育 등의 모든 분야에서 이같은 기본질서를 무시하거나 순서가 뒤바뀌어져서 일어나는 혼란이 여러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된다.

특히, 도시는 생명을 가진 유기체로서 첫째, 사람이 살아가는 곳으로서 도시는 그곳에 사는 시민들에게 즐겁고 매력적인 곳이어야 한다. 둘째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시민을 위한 일자리가 있어야 한다. 企業과 일반영업을 할 수 있는 곳으로서의 機能이 있어야 한다. 도시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都市經濟生活에 만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서비스가 공급되어야 한다. 끝으로 人間的인 都市가 되어야 한다. 都市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그 都市의 구성원으로서 安全한 生活을 할 수 있으며 都市環境에 언제나 행복감을 느끼게 되도록 만들어 주어야 한다.

4. 都市管理技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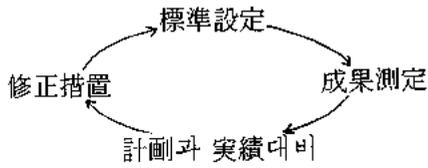
참다운 관리자는 경직되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빠른 환경변화에 살아남을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어려운 환경에서 더욱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훌륭한 관리란 끊임없는 도시변화에 대한 아이디어를 갖고

대응, 조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현재와 가까운 미래를 예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관리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내일을 위해 더욱 더 잘 준비하고 오늘의 일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는 것이다.

(1) 管理의 基本

농촌행정은 農村住民을 위한 사람과 물건을 관리하게 될 것이며, 도시행정은 도시주민을 위한 물건과 사람을 잘 관리하여야 한다. 농촌생활은 도시생활보다 단순하기 때문에 이를 관리하는 기술도 단순한 것으로 해결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도시란 구조적으로 복잡한 요소들이 결합되어 있어서 이들을 관리하는 기술 또한 고도로 전문화된 지식이 요구된다. 都市가 복합체란 말은 농촌에 비하여 인간을 위한 인공적인 생활시설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쿠퍼(Couper) 같은 사람은 말하기를 “神은 농촌을 만들었고 사람은 都市를 만들었다.”라고 까지 했다. 이와같이 농촌을 ‘있는’ 것이라면, 도시는 사람이 만든 또 앞으로 바라는 대로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都市管理는 다양한 인간의 목적을 종합체계화하는 고도의 전문적인 관리능력이 필요하게 된다. 모든 기술은 지식으로부터 나온다. 지식이 없으면 기술이 없게 된다. 도시행정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知識과 技術應用原理가 있다. ‘왜’라는 目的, ‘누구’라는 주체와 ‘어떻게’라는 절차에 관한 것이다. 첫째, ‘왜’ 혹은 ‘무엇’이란 지식은 도시사회 및 환경 Commanity & Environment에 관한 지식이다. 관리되는 것은 도시인 市民, 都市社會 및 도시경제구조 그리고 지역사회에 의하여 산출되는 물리적 실체, 토지, 도로, 건물 등이 이에 속한다. 이러한 지식에 대한 문제는 정밀성, 정확성 그리고 예측력이 필요하게 된다. 도시사회 및 환경에 대한 지식은 정책과정에 관한 것을 포함하여야 한다. 도시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모든 기술과 충분한 지식을 포함한



(그림-2) 四大管理要素

종합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둘째, '누구'라는 말은 주체를 말하는 것으로 조직 Organization에 관한 지식이 문제된다. 도시관리에 있어서 管理機關은 도시생활의 영향을 미치는 모든 組織을 의미하며, 이는 地方政府와 같은 法的團體들은 물론 도시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임의적인 사회 서어비스기관이나 지역사회단체, 그리고 이익단체 같은 사적(私的)단체까지 포함한다. 이처럼 다양한 도시행정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조직에 관한 지식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인간행동, 조직적 구조 및 과정간의 관계, 정책 형성 등에 관한 지식이고, 또 다른 하나는 어떤 조직형태에 관한 보다 특수한 지식이다. 예로서 정치체제, 정부기구, 지역사회조직, 산업체제 등이다.

셋째, '어떻게'라는 것은 절차와 운영에 관한 것이다. 도시행정에 종사하는 사람은 도시사회 환경, 조직만을 이해하는 것으로만 그칠 수 없게 된다. 이와같은 관계에서 어떻게 도시운용을 도와줄 수 있는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行政課程의 지식과 행정기술에 관한 지식이 필요하게 된다.

지금까지 도시행정에 관한 석용원리로서 지식과 기술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도시사회환경 지식과 組織에 관한 지식을 결합시키면 政策研究가 되며, 이는 도시내의 정치·행정적인 요소에 대한 지식이 된다. 그리고 조직에 관한 지식과 운용에 관한 지식의 결합은 組織計劃이라 할 수 있다.

(2) 目標

都市行政을 都市內의 사람과 물건의 관리라고 보았는데 관리란 어떤 조직체가 可用資源을 가지고 하나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이다. 또한 管理란 어떤 計劃된 目標을 향하여 진행하고 있는지를 결정하는 도구가 된다. 그리고 계획된 目標에서 많은 편차가 있을 때는 이를 수정하여야 한다.

管理의 기본적인 요소로는 ① 標準의 설정 ② 成果測定 ③ 計劃과 실적 대비 ④ 修正의 4가지가 있다. (그림-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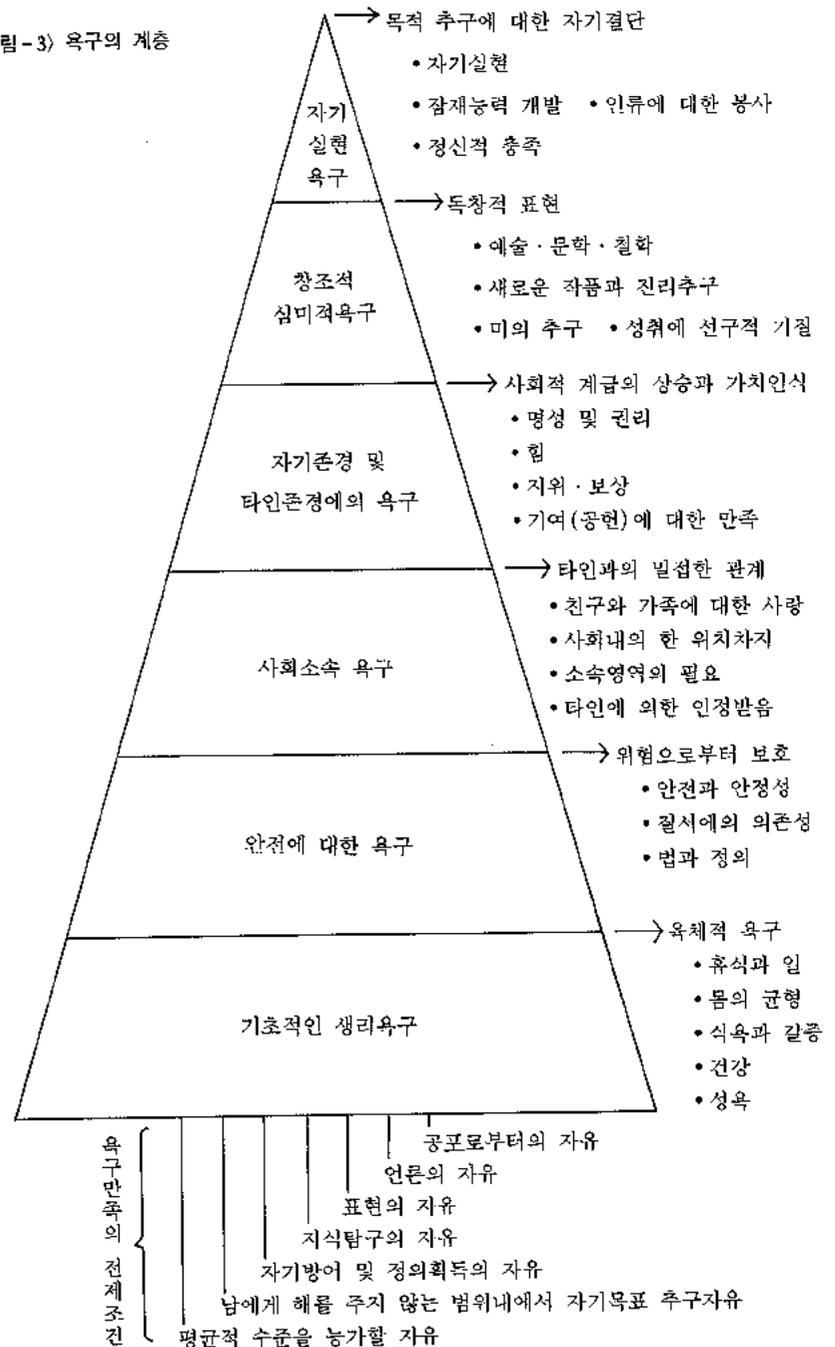
都市가 이와같은 관리를 통하여 都市行政을 수행할 때 다음과 같은 것을 고려해야 한다. 都市政府는 도시민에게 공공서어비스를

供給할 때 可用資源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보다 나은 都市서어비스를 공급할 수 있을까 하는 효율성과 어떻게 하면 가장 적은 비용으로 현재의 서어비스水準을 향상시킬까 하는 組織性, 그리고 어떻게 하면 사회적인 형편을 증진시킬 수 있겠는가에 목적을 두어야 한다.

이에 따른 都市管理의 目標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면

- ① 생활수준의 향상으로서 도시민의 경제 및 사회적 장애요소의 제거 및 경제개발.
- ② 보건문제로서 신체, 정신환경 개선.

(그림-3) 욕구의 계층



- ③ 교육문제로서 유치원에서부터
고등교육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平生教育 實施
- ④ 교통문제로서 空路 및
대중교통수단 개발.
- ⑤ 만족한 물적시설공급으로서 給水,
土地利用, 진재처리, 하수처리 시설.
- ⑥ 문화위락 시설.
- ⑦ 도시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로서
범죄 방지 및 예방, 교통질서 확립,
민원사항 처리, 화재예방, 재해 대책
및 표준서비스 시설 개발 등을 늘 수
있겠다.

(3) 需要

都市行政의 변천을 보면 都市化와
산업화현상은 농업에 종사하고 있던
노동자를 대거 도시에 있는 공장과
서비스사업에 흡수됨으로써 도시의
급속한 팽창과 과밀화에 대한 심각한
도시문제를 일으키게 되었다. 곧 각국
정부는 이전보다 훨씬 많은
도시사회문제에 개입하게 되었으며,
지방정부도 도시행정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되게 되었다. 곧 도시가
발달함에 따라 그에 따른 도시행정의
체계적 수행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도시는 19C 서구의
상황과는 달리 공업화나 생산력증대가

이루지기 이전에 이미 대규모의 인구가
너무 빠른 속도로 먼저 도시에
집중함으로써 도시문제가 형성되었고,
또한 그러한 인구는 대도시 생활에
적합한 기술이 없는 상태에 있으므로
도시에 대해 더욱 큰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순차적인 단계를
거쳐 건설된 구미 각국의 도시도
20세기에 와서는 그들 나름대로
적지않은 정치, 경제, 사회적인 도전을
받고 있으며 선진국, 개발도상국을
막론하고 도시행정의 성공적
수행여부가 곧 나라의 발전과 직결될
정도로 되었다.

人口가 도시에 집중하여 그 밀도가
높아질수록, 주민의 생활양식이
도시화 될수록, 도시의 규모가 커질
수록, 도시의 영향권이 광역화될수록,
외부불경제가 증대 될수록 기타의
요인들과 더불어 행정수요는 양적으로,
질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이는 한
인간의 욕구단계와 비슷하게 파악될 수
있다.

마슬로(Maslow)에 의하면
인간욕구의 가장 고차원적 단계는
성취와 자아발전을 포함하는
自我實現段階이다. 이 욕구는 만족할
수 없으며 완전히 충족될 수도 없다.
[그림-3]에서 보는 바와 같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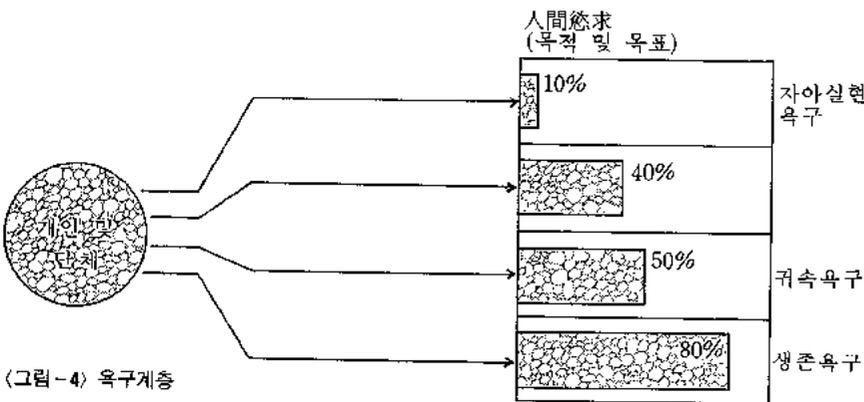
처음에는 생존의 욕구에서 시작하여
점차 그 중점이 소속의 욕구에서
자아실현의 욕구까지 이르게 된다.
[그림-3]에서와 같이 복잡한
욕구상승현상은 반드시 그
전제조건으로써 여러가지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공포로부터의 자유,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지식탐구의 자유 등과
같은 안정된 상태에서만이 여러가지
욕구의 단계가 평화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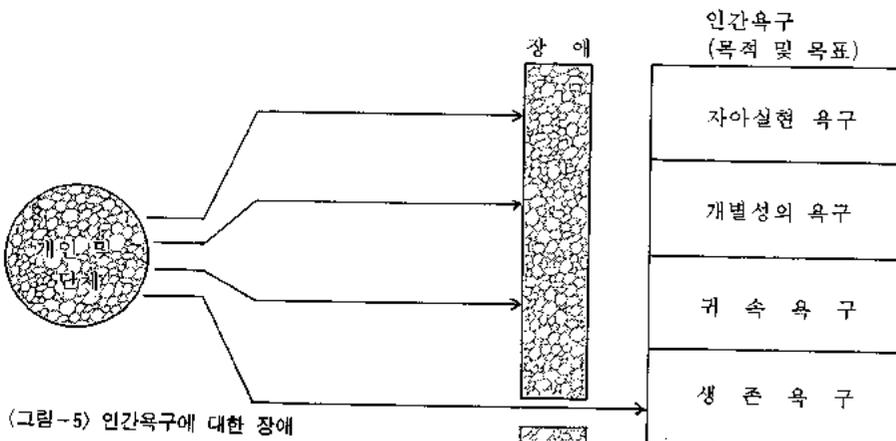
인간은 현재 어떤 욕구에 관계되더라도
항상 자아실현의 몇가지 형태는
작용시키고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그림-4]와 같이 어느 상황에서
개인은 생리적 안정욕구에 80%,
소속간의 욕구에는 50%, 자기
개별성의 욕구는 40%, 그리고
자아실현에는 10%의 욕구의 강도를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다가 보다 높은 욕구에 이르기
위해서는 [그림-3,4]와 같이 장애에
부딪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생존욕구에 직면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당한 정도로 그 장애를
극복 할 수 있다. 이는 개인 뿐 아니라
단체나 조직에도 적용된다.

도시행정수요도 이렇듯 단계별로 그
수요가 양적, 질적으로 변화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이를 도시규모, 기능분화,
그리고 외부경제에 따른 것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그림-4) 욕구계층



(그림-5) 인간욕구에 대한 장애

5. 都市規模와 行政需要

特定 都市에 있어서의 人間集積의
정도 즉 인구의 규모는 그 도시의
행정당국에 기본적으로 절대적인
行政需要測定이 기준을 제공한다. 즉
그것은 그 도시의 주민이 쾌적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최소한 필요로
하는 생활자료, 시설 및 서비스의
종류, 분량 및 확보방식과 그들의 생산
및 소비생활과정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종류 분량 및 처리방식 등을
결정하게 되기 때문이다.

도시행정당국은 이러한 기준에
입각하여 도시주민으로 하여금
기본적인 생활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하는 제반 조건을 정비해야 할 책임을
지게 된다. 도시라는 자치체의 정부는
그 인구규모에 대응하는 도시적

지역사회의 하부구조를 구축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여타의 요인이 같을 경우에는 도시정부의 총비용 뿐만 아니라 1인당 비용도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증대된다. 최초의 사회적, 경제적 대규모 경상투자의 수용력의 한계에 이르기까지는 비교적 낮은 1인당 비용으로 진행할 수 있으나 이 한계를 넘으면 점차적으로 재정투자문제가 장벽에 직면하게 되어, 그 이상의 인구증대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대규모의 하부구조를 위한 투자가 요구되게 된다. 유럽제국의 경우는 도시의 인구규모가 일정한 크기를 넘어서 그 이상 커지면 그 도시의 1인당 하부구조비용은 점증적으로 상승하여 결국은 新都市 창설비용과 비슷한 수준까지 증대된다는 결론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행정당국은 기존도시를 재개발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新都市를 건설할 것이냐의 양자택일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도시의 생활구조는 기능의 분화를 그 특징으로 하고 있다. 초기단계의 도시기능은 單純化, 未分化, 同質化

상태인 단순한 공간구조를 가지다가 점차 도시기능은 전문화, 이질화 기능에 변화가 이루어져서 도시공간 기능은 다양화, 복잡하게 된다. 인간의 定住生活이 도시화되어 감에 따라 주거기능에 밀착되어 융합상태에 있던 생활기능이 공간적, 시간적으로 분산되어 간다. 도시산업은 집단과 지역의 기능적 특질을 발생시킨다. 특히 생산집단과 소비집단의 분리, 여기에 따르는 직장과 주거의 분리는 도시의 사회적 융통성을 격증시키기 때문에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이와같은 도시환경 속에서 주민이 그들의 생활욕구를 충족시키려 할 때 그들은 여러가지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예컨대 住居와 職場의 공간적 분리는 그들로 하여금 거대한 人波를 형성하여 양지역간을 조석으로 왕래하게 한다. 이는 필연적으로 통근난이라는 교통문제를 야기하고, 이러한 문제는 시민 개개인이 독자적으로 해결 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기 때문에 도시의 공공사부로 낙착되기 마련이다.

이렇듯이 기능분화의 필연적 결과로서의 다종다양한 異質의 社會集團의 분출현상은 그들 집단 상호간의 이해대립을 초래하고, 이러한 집단간의 이해대립의 격화는 행정당국의 조정적 개입을 요구하게 됨으로써 결국은 행정수요를 증대변질시키게 된다.

□ 주

- 1) K. Davis, World Urbanization, 1950~1970, in., L. S. Bourue and J. W. Simmons, eds. Suprem of Cities, Oxford Univ. Press, 1978, pp. 92 - 100.

□ 참고문헌

1. 盧椿熙, 都市行政學, 一潮閣, 1982
2. ———, 都市學總論, 一潮閣, 1984
3. Banovetz, J.M., Managing the Modern City(ICMA, 1971)
4. Bent, A.E.&R.A.Rossum(eds), Urban Administration: Management, Politics and Change(Keunikat Press Corp, 1976)
5. Berry B.J.L. The Human Consequence of Urbanization (Mcmillan, 1973)
6. Robin, Jack (ed.), Managing Administration(N.Y.: Marcel Deker Inc., 1984)

“建築士”誌를 求합니다.

본협회에서는 정보자료실을 설치하여 회원여러분께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비치되어 있어야 할 우리회誌“建築士”가 그동안의 관리소홀로 다음과 같이 缺號가 생겨 회원 여러분의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혹시라도 다음의 缺號를 소장하고 계신 회원께서 惠捨하여 주시면 年단위로 奉本을 하여 비치할 계획입니다. 회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다리겠습니다.

년 도	결 호
'67	5, 6, 10, 11, 12월호
'68	1~12월호
'69	2, 4, 6, 9, 10, 12월호
'70	2, 4, 6, 7, 8, 9, 11월호
'71	1, 5월호
'72	2, 3, 4, 5, 8, 9월호
'73	3, 5, 6, 7, 9, 12월호
'74	1, 4, 6, 7월호
'75	1, 6, 9, 12월호
'76	1월호

연락처 : 대한건축사협회 출판사업부
전화 : 581-5711~4

지하 3층 이상의 고수압에는 무란새 방수로 !!!

침투성 방수제 / MURANSE

무란새

포루마

수용성아스팔트방수제

(주) 동방포루마 269-1 7 1 8
276-0123-4

강

변경

□ 서울지부

- ▲이명환 / 건축사사무소 유신건축 / 은평구 증산동159-21 / 373-0565
- ▲조영민 / 건축사사무소 다운 / 강남구 반포동745 / 547-9178
- ▲성하철·김형석 / 명성종합건축사사무소 / 중구 홍인동116 / 253-4800
- ▲이명철 / 건축사사무소 아미 / 강남구 청담동80-6 / 547-8256
- ▲이무조 / 선건축사사무소 / 도봉구 수유3동177-15 / 907-6685
- ▲차건영 / 운강건축사사무소 / 용산구 원효로1가45-1 / 718-5587
- ▲문재현·양원영 / 예원신태양종합건축사사무소 / 45-5417, 418-6366
- ▲장기태 / 건축사사무소 영문화건축 / 강남구 서초동 1329-9 / 555-8918
- ▲김창희 / 회진건축사사무소 / 강동구 성내동539-2 / 486-7475
- ▲심정행·강영 / 종합건축사사무소 동도예향 건축 / 강남구 역삼동722 / 556-2005
- ▲조재원·김병찬·이종철 / (주)창조종합건축사사무소 / 영등포구 여의도동25-15 / 782-7596
- ▲서진우 / 건축사사무소 협연 / 강남구 삼성동107-7 / 549-2678
- ▲박영건·김영웅·이형호 / 종합건축사사무소 진원 / 강남구 잠원동17-11 / 540-4897
- ▲한숙원·김형길·허관호 / (주)우보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 강남구 논현동210-1 / 549-6011
- ▲신은국 / 신동건축사사무소 / 성동구 자양동216-12 / 453-7006
- ▲윤석범 / 건축사사무소 삼우 / 구로구 구로동86-2 / 867-0607
- ▲박한진·김창희·한응웅 / 종합건축사사무소 회진건축 / 강동구 성내동539-2 / 486-7475
- ▲박경호 / 종합건축사사무소 경동환경계획 / 강남구 청담동47-3 / 545-6193

- ▲오정권 / 종합건축사사무소 정인건축 / 강남구 청담동47-3 / 545-6193
- ▲조원민·김광성 / 일진종합건축사사무소 / 강남구 방배동 450-25 / 587-5080
- ▲이광용 / 근대건축사사무소 / 강동구 잠실동183-1 / 412-9562
- ▲이중성 / (주)태천건축사사무소 / 강동구 성내동539-2 / 477-0694
- ▲조원근 / 건축사사무소 맥 / 서대문구 연희2동82-12 / 333-6594
- ▲이재복 / 종합건축사사무소 뿌리건축 / 강남구 논현동116-11 / 519-0296
- ▲김영준·이정남 / 삼진남부건축사사무소 / 강남구 삼성동9-23 / 549-3327, 546-3349
- ▲정종섭·박호중 / 건축사사무소 비전 / 강동구 성내동556-4 / 484-7591, 474-4987
- ▲임길성 / 종합건축사사무소 경동환경계획 정인건축 / 강남구 청담동47-3 / 544-4628
- ▲박희중·박혜선 / 종합건축사사무소 뿌리건축 / 강남구 논현동116-11 / 549-0296

□ 대구지부

- ▲서보광 / 동성건축사사무소 / 동구 신천3동139-3 / 765-0201
- ▲구선희 / 예일건축사사무소 / 수성구 수성3가194-2 / 764-0248

□ 광주지부

- ▲정영욱·문상민·박웅 / 종합건축사사무소 남해·대도 / 동구 궁동7-7 / 27-0259, 523-3353

□ 경기지부

- ▲이상정 / 삼정건축사사무소 / 수원시 권선지구70-11-1 / 36-4479
- ▲이은섭 / 은광건축사사무소 / 수원시 권선지구97-4 / 36-5296
- ▲김현규 / 금목건축사사무소 / 안산시 원서동777 / 82-9233
- ▲김철균 / 건축사사무소 길건축 / 성

- 남시 태평동3365-1 / 2-1978
- ▲조병순 / 대흥건축사사무소 / 수원시 권선지구 28-1 / 36-8651
- ▲정은용 / 정은용건축사사무소 / 수원시 권선지구21-8 / 33-9787
- ▲이종은 / 건축사사무소 영신 / 광명시 철산동463-20 / 612-0223

□ 전북지부

- ▲정진팔 / 이리시 남중동1가동60-67

재입

□ 서울지부

- ▲이효식 / 종합건축사사무소 세기건축 / 중구 수표동47-6 / 266-4267

□ 경기지부

- ▲조승제 / 건축사사무소 연희건축 / 부천시 원미동66-5 / 665-0655

휴업

□ 서울지부

- ▲손민수 / (주)항우종합건축사사무소 / 강남구 서초동1602-4 / 87.5.20~88.5.19 / 664-3338

□ 경기지부

- ▲이제재 / 세광건축사사무소 / 고양군 원당읍 주교리603-2 / 62-5268 / 87.6.15~87.8.14

폐업

□ 서울지부

- ▲송장복 / 창원건축사사무소 / 강동구 잠실동250-10 / 414-7088 / 87.5.30
- ▲구재완 / 도양종합건축사사무소 / 강남구 방배동750-14 / 570-4446 / 87.6.5
- ▲최용정 / 남부삼신종합건축사사무소 / 강남구 삼성동9-23 / 546-3349 / 87.6.9



成昌平
1943. 6. 11
홍익대학교 건축공예과
성(城) 건축사사무소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08-4
548-3315



劉翁夔
1933. 3. 6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
표준건축사사무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5-12
783-6206



鄭正一
1951. 10. 30
홍익대학교 건축공학과
에미스건축사사무소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25-18
552-2674~6



姜信通
1943. 7. 22
서울대학교 건축공학과
(주) 고려종합건축사사무소
서울시 중구 서소문동 65
778-6358



金成修
1957. 4. 14
고려대학교 건축공학과
일진종합건축사사무소
서울시 강남구 방배동 450-25
587-5080



李民根
1948. 2. 14
유한공업고등학교 건축과
창진건축사사무소
서울시 도봉구 번동 461-98
903-5991



金鎬慶
1953. 2. 28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
건축사사무소 기람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132
542-7181~2



徐長源
1947. 2. 26
성동공업고등학교 건축과
(주) 동이종합건축사사무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5-15
782-1212



崔性謙
1953. 3. 25
홍익대학교 건축공학과
건축사사무소 장인
서울시 바포구 서교동 354-6
333-6410



金誠洙
1954. 2. 22
서울 경기공업전문대학교 건축과
(주) 신한종합건축사사무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6-5
782-8727



郭在煥
1952. 1. 2
영남대학교 건축공학과
건축사사무소 맥
서울시 시대문구 연희2동 81-12
333-6594



劉成烈
1953. 11. 18
부산공업고등학교 건축과
(주) 김중업종합건축사사무소
서울시 강남구 서초동 1451-1
583-9998



李東熙
1930. 3. 14
서울공립공업고등학교 건축과
성신건축사사무소
서울시 동대문구 신설동 92-10
923-6745



鄭洛圭
1948. 9. 29
전남대학교 건축공학과
효진종합건축사사무소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1031-28
587-1917

제 6회 理事会 開催



6월 23일 오전 10시 부터 본협회 회의실에서 安箕泰會長 主率로 제 6회 理事会가 개최되었다. 事務處長의 主要業務報告에 이은 附議事項에서는 안산분소 설치 및 일단 유보토록 하였고 직제 및 사부분장개정(안), 직원승진 임용건을 원안대로 승인하였으며 불허가 처분된 도서신고문의 실적회비반납 승인건은 7월 1일부터 시행기로 승인하였다. 건축사연금 운영관리방법승인 건은 운영관리는 보험회사에 위탁하기로 하되 규정을 개정할 사항이 있으면 총회에서 개정해야 하므로 개정여부와 보험회사 선정을 위한 자료 및 계약서(안) 작성등 실무적

인 사항을 副會長을 포함한 연금공동관리위원이 조사, 검토하여 다음 理事会에서 제출 심의기로 하였다. 協議事項에서 특별전형 시험제도개선건의(안)은 우선 자료로서 관계기관에 제출토록 하기로 하였으며 공무원의 특별전형 특혜제도를 폐지토록 행정당국에 적극 건의토록 하였다. 建議事項에서 黃在孝理事는 회원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가혹한 행정처분이 완화될 수 있도록 관계규정을 개정해야 하며 단독주택에 있어 옥내계단을 설치하지 않고 옥외계단을 설치했을 때도 단독주택으로 인정 받을 수 있도록 행정당국에 강력히 건의할 것을 주장했다.

安會長, 李圭孝長官 禮訪

(韓國의 建築)발간에 큰 관심表明

본회 安箕泰 회장과 金基壽 부회장은 지난달 30일 건설부를 예방하고 李圭孝 장관을 만나 면담했다. 업무보고를 겸한 자리에서 安회장은 본회가 진행중인 우리나라 건축문화를 집대성하게 될 "한국의 건축" 발간에 따른 제반사항을 설명하고 당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李圭孝 장관은 본회가 발간하는 "한국의 건축"에 큰 관심을 표하고 '우리나라 건축문화의

축조구실을 할 수 있는 책자로 만들어 줄 것과 특히 해방이후 건축분야에서는 처음으로 발행되는 것임을 감안해서 세심한 배려와 뛰어난 기획으로 추진토록 해달라'고 당부하고 이에 따른 협조를 약속했다. 본회 任仁懋 사무처장을 비롯 徐炳基 주택국장과 裴宗明 건축과장이 배석한 자리에서는 또 오는 88년 11월에 본회가 주관하는 아시아건축사협의회 제3차 서울대회(ARCASIA)에 대한

준비상황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李장관은 이 대회가 서울에서 개최되는 건축관련 국제대회인 만큼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충분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줄 것과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아카시아대회는 내년 11월 1일부터 5일까지 본대회를

비롯해서 건축학생잼버리와 건축실계작품전 및 건축자재전 등 크게 3개 부분으로 나누어 동시에 개최된다. 그밖에 李장관은 이날 安회장과 의 면담에서 건축사계발전을 위한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고 협회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노력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정거래위원회 繫留事案 終決

— 本協會主張 貫徹돼 —

지난 85년 9월 내무부당국의 발의로 제기된 본회 윤리규약 제5조 및 9조의 공정거래법 위반여부로 당국에 의해 동 규약을 폐지할 것을 종용받게 됨에 따라 건축사설계업무에 지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었다. 본 사안은 협회창립이래 가장 큰 시련으로 대두되었으며 이는 건축설계의 창작성 내지 예술성자체가 단순히 행정적 또는 편의주의적 발상에 의해 무시되는 긴박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음을 직시하고 협회의

명분을 걸고 적극대처하게 되었다. 그동안 협회는 당국의 견해에 대한 무당성 및 이익제기를 위해 유관기관의 유권해석, 수습차례의 회합, 등 20여개월간의 끈질긴 노력끝에 지난 4월 본회의 주장을 관철시켰다. 이 사안의 종결로 지금까지 시행돼 왔던 건축사업무가 지속될 수도 있도록 되었으며 문제가 되었던 윤리규약에 대한 수정보완이 되었다.

재산세등 환불청구소송 승소

— 大法院에서 公法人으로 認定 —

본협회는 그동안 특별법인 건축사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건축사의 품위보존, 권익옹호, 업무개선 이외에 건축물의 질적향상과 건축문화발전등 공익에 이바지하는 비영리법인인데도 불구하고 당국의 편의 위주로 제정된 세법에 의해 협회, 조합등은 비영리 공익법인 범위에서 제외시켜 재산세등을 부담하는 등 부당한 권리침해를 받고 있었으므로 권리회복을 위하여 지난 85년도에 재산세등 부과처분에 대하여 본협회는 비영리 공익법인이므로 환불을 행정당국(구청, 시청, 내무부)에 요구하였으나 기각당하여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던 바 1년만에 승소판결을 받았었다. 그러나 피고인 강남구청장은 본 협회는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비영리단체일 뿐 공익성이 없으므로 재산세등을 부과하여 타당하다고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여 1년만에 대법원에서 기각판결됨으로써 승소확정된 것이다. 이로써 본협회는 그동안 납부한 재산세등 17,837,110원의 환불과 매년 7,800,000원의 면세혜택을 받게 됨은 물론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支部消息

서울特別市支部

지부장 俞景哲



(서울지부) 회원친목골프대회

회원친목골프대회

서울특별지부는 지난달 26일 '87회원취미별 단합대회 행사계획의 일환으로 경기도 오산 소재 프라자칸트리 클럽에서 친목을 위한 골프대회를 개최하였다. 7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윤지부장의 시구로 시작된 이날 골프대회에서는 김철홍(조흥정백건축사사무소)회

원이 우승을 차지 했으며, 준우승에는 홍정길(종합건축사사무소 도시미진사)회원, 3위에는 김상규(부에서로종합건축사사무소)회원, 매달리스트에는 이종완(서울건축사사무소)회원이 각각 차지하여 동료의 축하를 받았으며, 회원간의 유대를 강화했다.



(서울지부) 회원친목바둑대회

회원친목바둑대회

서울특별지부부는 지난 7월 10일 회원친목바둑대회를 개최하였다. 협회 회관 4층에 대회장을 마련하고 바둑에 호회원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대회에서는 화기에어한

분위기속에서 각자의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단체전(토너먼트전)에서는 영등포본소가 우승을 차지 했으며, 준우승에는 동대문 분소, 3위에는 북부분소가 각각 입상을 했다.

大邱直轄市支部

지부장 黃鑣周

建築士補 特別精神教育 實施

대구직할시지부는 지난달 11일 지부산하에 있는 건축사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건축사회관 5층회의실에서 실시한 이날 교육에서는 지부에 소속된 건축사보129명이 참석하여 지부장의 지부소개와 정신교육에 이어 김영장 대구직할시 건설국건축과장 및 이준호 행정계장으로부터 건축사보의 자질향상 및 아름다운 도시공간

창조의 내용과 함께 업무수행시 유의사항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 실무에 많은 보탬이 됐다.

모내기지원으로 일손도와 대구직할시지부는 지난달17일 동구 미대동 소재의 논에서 모내기 일손돕기를 실시하였다. 회원 및 직원 98명이 참석한 가운데 3천여평의 논에 모를 심어 농번기를 맞아 바쁜 농가의 일손을 덜어 주었다.



(대구직할시지부) 건축사보특별정신교육

京畿道支部

지부장 趙相鎬

建築士補 職務教育

경기도지부는 건축행정 건설회의 일환으로 28일간(5.13-6.24)에 걸쳐 지부에 소속중인 건축사보 544명에 대한 직무교육을 각시군별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수원시청 회의실외 각시군

회의실 및 본소회의실에서 각각 나누어 실시한 직무 교육에서는 건전한 건축행정풍토조성 및 정화의식고취, 건축관계법규숙지등 실무와 관련된 내용의 교육을 실시하였다.



忠清南道支部

지부장 康祐植

建築士補 教育

충청남도지부는 지난달 3일 도 주관으로 도청 대강당에서 지부에 소속중인 건축사보에 대한 교육을 2시간에 걸쳐 실시하였다.

이날 교육에서는 건축사보 210명이 참석하여

“87년주택건설종합계획”, “건축사업무 및 처리지침”, “건축분야 에너지소비절약”, “건축법령 및 질의회신내용”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 실무물

하는데 있어서 폭을 넓혔다.

모범사무소 도지사표창받아

충청남도지부는 지난달 1일 도지사로부터 모범사무소에 대한 표창을 받았다.

건축행정건설화에 따른 사무소 실태점검시

박용웅(종합건축사사무소

정원건축)회원과

권윤근(건축사사무소

제일)회원이 모범사무소로

선정되어 각각 표창을 받았다.



(경북지부)회원친목담화대회

濟州道支部

지부장 白亨皙

建築士補 및 補助員 特別教育 實施

제주도지부는 지난 5월27일 제주상공회의소 대회의장에서 3시간에 걸친 건축사보 및 보조원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였다.

지부장의 정신훈화로 시작된

이날 교육은 총 133명의 건축사보 및 보조원, 지부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도 김호성 도시과장의 “건축행정”에 대한 교육에 이어 현화진 제주도교육원장의 교양특강과 함께 강요준 전임지부장 및 김석윤 지부간사의 “설계도면작성”, “공사감리”등 실무에 관련된 내용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全羅南道支部

지부장 金仁模

농촌일손돕기 벌여

전라남도지부는 농번기를 맞아 바쁜 농촌의 일손을 돕기 위한 보리베기를 실시하였다. 회원 및

사무소직원 33명이 참석한 가운데 송주근 서면 학구리 소재 900여평의 밭에 보리베기 일손을 벌여 뜻있는 하루를 보냈다.

(전남지부)농촌일손돕기



慶尙北道支部

지부장 金永吉

회원친목 담화대회

경상북도지부는 지난달 13일부터 1박2일만에 걸쳐 안동군 풍산읍 만운지에서 담화대회를 개최하였다.

회원 23명과 가족들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화기에애한 분위기속에서 개최된 이날 대회에서는 김철분소

김영천(현대건축사사무소)회원이 대어상을 차지하여 동료의 축하를 받았으며, 회원간의 유대강화는 물론 건축사의 품위향상과 권익옹호를 위한 상거래질서 정착에 노력하자는데, 회원업무개선 및 지부발전을 위한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고 친목을 다졌다.



(제주지부)건축사 및 보조원특별교육

오르락 내리락 하던 장마전선이 중부지방에 멈추더니 엄청난 수마가 되었다. 일년에 한번쯤 겪어야 할 일이지만 해도 너무 했다..... 장마전선 닷도 아닌데 우린 요즘 영어의 표기에 오라가라 했다. 지난 5월호 논단 종합건축 李丞雨 소장의 “건축사 보수교육 유감”에서 보수교육의 표기를 Repair Education으로 표기한 것이다. 이승우 소장께 사죄를 드리며 보수교육을 Retraining 으로 정정합니다.